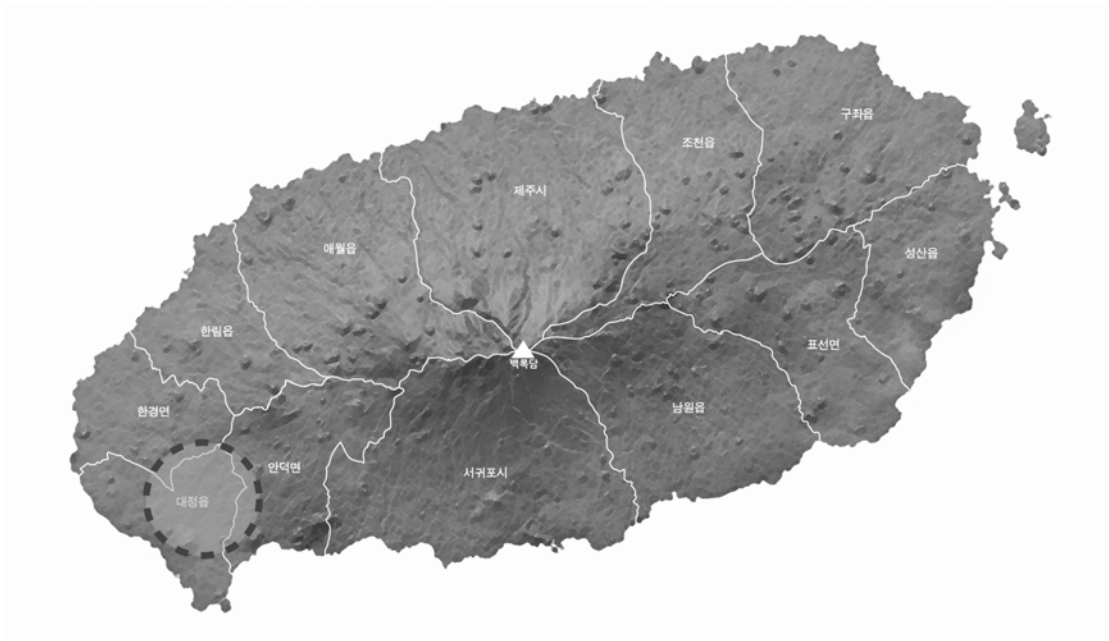


발간 등록 번호
79-6500000-000362-01

2016년도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

33

책임연구원: 강영봉
연구원: 김미진
조사지점: 대정읍인성리



제 출 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016년도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과 관련하여 귀 도와 체결한 용역 계약에 의한 2차분 보고서를 아래 목록과 같이 제출합니다.

3차년도(2016)	
조사 지점	조사자
25. 제주시 노형동	안민희
26. 조천읍 신촌리	안민희
27. 우도면	김승연
28. 성산읍 온평리	김순자
29. 표선면 세화리	최연미
30. 남원읍 태흥리	김미진
31. 서귀포시 토평리	김보향
32. 안덕면 덕수리	김순자
33. 대정읍 인성리	김미진
34. 한경면 신창리	김보향
35. 한림읍 옹포리	신우봉
36. 애월읍 구엄리	김성용
37. 제주어 구술 채록 질문지	강영봉 · 김순자

2016년 12월 31일

책임 연구원 강영봉

2016년도
제주어 구술 채록 보고서 33

목 차

제1장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7
1.2. 사업 기간	7
1.3. 조사 참여자	7
1.4. 조사 지점과 조사자	9
1.5. 기대 효과	10
제2장 대정읍 인성리 조사 내용	
2.1. 제보자	11
2.2. 조사 기간	11
2.3. 조사 항목과 내용	11
2.4. 전사	13
2.5. 장비	13
제3장 전사 자료	
제1절 구술	
1. 조사 마을	14
3. 밭일	46
5. 바다일	95
7. 식생활	122
9. 신앙	200
11. 놀이	220
2. 제보자 일생	25
4. 들일	79
6. 의생활	98
8. 주생활	177
10. 세시풍속	202
제2절 어휘	
1. 인체	237
3. 친족	250
5. 음식	259
7. 생업	273
9. 민속	288
11. 자연	291
13. 식물	309
2. 육아	243
4. 의복	254
6. 가옥	268
8. 수와 단위	285
10. 신앙	291
12. 동물	299

제1장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이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은 진중한 제주의 언어 자산을 수집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

‘제주어’는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당연 제주어에는 제주정신과 제주문화가 녹아들어 있다. 제주어가 소멸한다는 것은 결국 ‘제주 정체성의 상실’, ‘제주문화의 변이’를 의미한다. 제주어를 소멸 위기의 언어로 분류한 유네스코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우리들 스스로 제주어 보전에 진력해야 할 계제에 놓여 있다.

제주어가 처한 현실은 그리 낙관하지 않는다. 이제 제주도도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좋은 제보자 수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제주어의 소실도 가속화되고 있어 제주어 채록 사업이야말로 화급을 요하는 일임에 틀림없다.

이 사업을 통하여 제주어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게 될 것이다. 수집, 구축된 자료는 제주어 정책 수립과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며, 나아가 제주어 보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제주어가 삶의 언어로서 그 소중한 가치를 확인하고, 자긍심을 갖는 계기도 될 것이다.

1.2. 사업 기간

-3개년(2014~2016)

1.3. 조사 참여자

<1차년도-2014>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선희(제주대학교 강사)

김성용(귀일중학교 교사)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이완국(전 초등학교 교사)
최연미(돋을양지책드르 대표)
허영선(제주대학교 강사)

-보조 연구원:

한혜원(제주대학교 대학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2차년도-2015>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선희(제주대학교 강사)
김성용(귀일중학교 교사)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최연미(돋을양지책드르 대표)

-보조 연구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3차년도-2016>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성용(귀일중학교 교감)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최연미(돋을양지책드르 대표)

-보조 연구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1.4. 조사 지점과 조사자

1차년도(2014)		2차년도(2015)	
조사 지점	조사자	조사 지점	조사자
1. 제주시 도련1동	김순자	13. 제주시 외도동	김순자
2. 조천읍 선흘리	김미진	14. 조천읍 함덕리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선희	15. 구좌읍 한동리	김보향
4. 성산읍 고성리	김승연	16. 성산읍 삼달1리	김미진 · 김선희
5. 표선면 표선리	허영선 · 김순자	17. 표선읍 성읍1리	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김보향	18. 남원읍 수망리	최연미
7. 서귀포시 보목리	최연미	19. 서귀포시 하원리	김승연
8. 안덕면 동광리	김성용	20. 안덕면 대평리	김성용
9. 대정읍 구역리	이완국	21. 대정읍 신도리	신우봉
10. 한경면 고산리	신우봉	22. 한경면 청수리	안민희
11. 한림읍 월령리	안민희	23. 한림읍 대림리	오창명
12. 애월읍 봉성리	오창명	24. 애월읍 고내리	김보향

3차년도(2016)	
조사 지점	조사자
25. 제주시 노형동	안민희
26. 조천읍 신촌리	안민희
27. 우도면	김승연
28. 성산읍 온평리	김순자
29. 표선면 세화리	최연미
30. 남원읍 태흥리	김미진
31. 서귀포시 토평리	김보향
32. 안덕면 덕수리	김순자
33. 대정읍 인성리	김미진
34. 한경면 신창리	김보향
35. 한림읍 옹포리	신우봉
36. 애월읍 구엄리	김성용
37. 제주어 구술 채록 질문지	강영봉 · 김순자

1.5. 기대 효과

이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은 도민들에게 기록 사업의 중요성을 일깨워 제주어뿐만 아니라 제주문화와 관련한 각종 자료의 보전 및 전승의 필요성을 고양시키며 소멸 위기의 제주문화를 보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나아가 제보자들에게는 제주어의 소중함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어 자긍심을 높이고 제주도민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제주어 정책 수립과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제2장 대정읍 인성리 조사 내용

2.1. 제보자

정임춘(1927년생, 여)

박태욱(1935년생, 남)

2.2. 조사 기간: 2016. 3. 21.~12. 31.

2.3. 조사 항목과 내용

제1절 ‘구술’은 제보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구연(口演)할 수 있는 분야로, ‘조사 마을, 제보자 일생, 밭일, 들일, 바다일,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신앙, 세시풍속, 놀이, 통과의례, 민간요법, 경험담’ 등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분별 세부 조사 항목을 두어 제2부 ‘어휘’ 조사 내용을 보충 또는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질문지에 없는 경우라도 조사 마을별 특색 있는 문화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조사하였다.

제2절 ‘어휘’는 ‘인체, 육아, 친족, 의복, 음식, 가옥, 생업, 수와 단위, 민속, 신앙, 자연, 동물, 식물’ 등 13개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분별 하위 조사 항목을 배열하고, 필요한 경우는 부분 명칭을 조사할 수 있게 하였다. 조사하기가 어려운 ‘동사, 형용사, 부사’ 등의 항목은 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배치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조사 시간 등은 다음 <표 1>과 <표 2>와 같다.

<표 1> 구술 채록 내용과 전사 여부

조사 내용	파일명	제보자	시간	전사
1. 조사 마을	인성구술(1. 조사마을)	정임춘	00:34:28	○
2. 제보자 일생	인성구술(2. 제보자 일생)	정임춘	01:29:12	○
3. 밭일	인성구술(3. 밭일1)	정임춘	01:26:58	○
	인성구술(3. 밭일2)	정임춘	00:24:10	○
4. 들일	인성구술(4. 들일1)	정임춘	00:26:03	○
	인성구술(4. 들일2)	정임춘	00:22:03	○
5. 바다일	인성구술 (4. 들일3. 5. 바다일)	정임춘	00:10:46	○
6. 의생활	인성구술(6. 의생활)	정임춘	01:01:22	○
7. 식생활	인성구술(7. 식생활1)	정임춘	01:04:44	○
	인성구술(7. 식생활2)	정임춘	01:05:21	○
	인성구술(7. 식생활3)	정임춘	00:28:44	○
8. 주생활	인성구술(8. 주생활1)	정임춘	00:44:08	○
	인성구술(8. 주생활2)	정임춘	00:07:14	○
	인성구술(8.주생활3 9. 신앙)	정임춘	00:24:33	○

9. 신앙	인성구술(8.주생활3 9. 신앙)			
10. 세시풍속	인성구술(10. 세시풍속1)	정인춘	00:48:57	○
	인성구술(10. 세시풍속2)	정인춘	00:07:16	○
11. 놀이	인성구술(11. 놀이)	정인춘	00:36:23	○
12. 통과례	인성구술(12. 통과례1)	정인춘	00:33:52	×
	인성구술(12. 통과례2)	정인춘	01:13:05	×
	인성구술(12. 통과례 3)	정인춘	00:56:10	×
13. 민간요법	인성구술(13. 민간요법 14. 경험담)	정인춘	00:59:58	×
14. 경험담	인성구술(13. 민간요법 14. 경험담)	정인춘		

<표 2> 어휘 채록 내용

조사 내용	파일명	제보자	시간	정리
1. 인체	인성어휘(1. 인체1)	정인춘	00:49:19	○
	인성어휘(1. 인체2)	정인춘	00:11:03	○
2. 육아	인성어휘(2. 육아1)	정인춘	00:27:24	○
	인성어휘(2. 육아1)	정인춘	00:22:48	○
3. 친족	인성어휘(3. 친족)	정인춘	00:26:17	○
4. 의복	인성어휘(4. 의복)	정인춘	00:33:11	○
5. 음식	인성어휘(5. 음식)	정인춘	01:32:47	○
6. 가옥	인성어휘(6. 가옥1)	정인춘	00:33:31	○
	인성어휘(6. 가옥2)	정인춘	00:15:39	○
7. 생업	인성어휘(7. 생업1)	박태옥 정인춘	00:51:13	○
	인성어휘(7. 생업2)	정인춘	00:47:57	○
	인성어휘 (7. 생업3 8. 수와 단위)			
8. 수와 단위	인성어휘 (7. 생업3 8. 수와 단위)	정인춘	00:32:47	○
9. 민속	인성어휘 (9. 민속 10. 신앙)	정인춘	00:29:02	○
10. 신앙	인성어휘(9. 민속 10. 신앙)			
11. 자연	인성어휘(11. 자연)	정인춘	01:05:40	○
12. 동물	인성어휘(12. 동물1)	정인춘	00:27:42	○
	인성어휘(12. 동물2)	정인춘	00:40:46	○
13. 식물	인성어휘(13. 식물)	정인춘	01:22:50	○

<_>는 다른 항목의 조사가 하나의 파일 저장된 경우이다.

2.4. 전사

전사는 <제주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제1절 ‘구술’은 조사된 음성 자료를 질문지 순서에 따라 앞에서부터 10시간 가량 전사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도 모두 전사하였다. 조사자는 @표로, 제보자는 #를 넣어 구분하였다. 제보자가 둘 이상일 때는 #1, #2식으로 구분하여 전사하였으며, 제보자끼리 말이 겹칠 때도 가급적 제보자를 구분하여 전사하였다. 혹 청취가 불가능하여 전사가 어려운 경우는 음절수 만큼 ****로 표시하기도 하였다. 극히 개인사와 관련된 내용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전사를 생략한 부분과 조사 중 전화 통화 내용 등은 전사하지 않고 <중략>으로 표시하였다.

제2절 ‘어휘’는 질문지에 따라 조사된 어휘를 전사하였다. 방언형이 여럿이 나올 경우도 그 전부를 전사하였으며, 제보자가 모르는 경우 또는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로 표시하여 구분하였다.

2.5. 장비

‘제주어 구술 채록’에 이용한 장비는 아래와 같다.

-녹음기: SONY ICD-SX 1000

-캠코더: SONY HDR-PJ 540

제3장 전사 자료

제1부 구술

(@: 김미진, #: 정인춘)

1. 조사 마을

101001 @ 이 마을이 옛날에는 어떻게근에 만들어져신지 들어난 말 이수과?

101001 # 옛날에 만들은 어떻게 만들어?

101001 @ 처음 이 동네 어떻게 사람이 살아신고?

101001 # 이 동네 인성리 사름덜은이 토지도 죽고 경허니까 아기덜이 출셀 시기 쟈 안헤여. 청년덜은 공부 안시경 농부만 시겨.

101001 @ 아 땅이 좋아네?

101001 # 응, 땅이 죽안 산디사. 건디 용로 갈랑 보성 사름덜은 다 일본덜 아덜 덜 나민 일본 들양 강이네 공부 시경 훌륭한 사름 제주도 보내는디 인성 사름덜은 그런 사름 없어. 이디 조침이도 조 선생도 아덜 성제가 일본 간 공부 시기명 훌륭한 사름 멘들아근에 다 허는디 인성은 우리가 클 때까진이 막 청년덜이 일만 허주 공부 시긴 얘기덜이 없더라. 게난 우리 어린 때도 보성선 아기덜 공부 시기민 서울로 가근에이 출세허영 공장 멧 개씩 헛젠이 우리 어무니네 형제간 님은 사름덜이 다 그렇게헤영 보성은 발전을 더 시겨. 지금도 보성은이 육지 살면서 공장덜 멧 개씩 허민 보성 무신거 귀헌 거 싯젠허민 물건을 주나 경안허민 돈으로 왕창 보냉은에 막 출세 시겨, 보성 사름덜. 그러는디 인성은 그런 발전이 없어. 인성은 어디 후원헤 주는 사름도 엇고.

101001 @ 옛날 혹시 어떤 하르방덜 왕 살아났저 허는 말은 엇어?

101001 # 연날 하르방 사는 하르방은 그자 농촌에서 연날 노리 잡으레 텅기는 하르방은 이서서. 그 집이 얘기덜도 공부 안 시겨. 안성도 공부 안 시키고. 어뜨난 그래.

101001 @ 똑 비슷한 디 옆이 이신디예?

101001 # 응

101002 @ 게민 이 마을엔 무신 성씨가 주로 이신고?

101002 # 이 마을에 송침이 아이덜이 출세허고 이침이 사름덜이

101002 @ 인성리는 무신 성이 하?

101002 # 인성은 이침이도 하고 오침이도 잇고 강침이도 잇고.

101002 @ 무슨 침이 쟈 하?

101002 # 이침이가 하.

101002 @ 할머니넨 무신 침이라?

101002 # 우린 정씨, 우리 외간 이칩이.

101002 @ 외간 이칩이.

101002 # 보성 이칩이. 우리 어무니네가 팔남매. 이칩이 다 출세. 손지까지덜 다 출세헤여.

101002 @ 할무니네 할아버진, 아부진 인성리?

101002 # 그냥 이 동네 인성리서 살아. 우리 아부지넨 원래 세계살단 이디 왔는디 옛날에 우린 몰랐는디 이 학교 터가 연날 관개 살아난 터라.

101002 @ 관개가 뭐?

101002 # 요새 ㄱ뜨민 요새 춘향이 잡아당으네 허는 그 관개. 계난에 이 학교 터가 그 관개 터주게. 관개 터난에 그 사름 이젠 서울이엔 허주만은 경성서 오라근에 이디 살민 시집강 안 사는 사름덜 못사는 사름덜 그디 심부름꾼으로 다 집어가. 집어당으네 지네 일꾼으로 시겨. 경허는디 우리 고모님이 인물 좋안 시집간 안 사난 경성서 온사름이 심어단 인물 곱곡 허난에 지네 각시 역할을 헛어. 그 춘향이 심어당 허듯이. 그런 역할 헛 그디 가뉘 사난 원래 우리 아부지넨 세겿어른인디 할망이 영 그 딸 하나 이디 오란 관개 각시로 들이박아부난 그 딸 오랑은에 사는 거 보젠 보성을 오란 살앗주게. 요 학교 뒤에. 집 빌언 사는디 그 우리 고모가 아길 낫어. 아길 배엇어. 배난 우리 성할망이 집이 보냉은에 애길 나게꾸리 허젠 헛디 그 관개 서울서 온 사름이 집이 보내지 안허연. 지네 그 안에서 애기 나게꾸리 허난에 그디서 야기난 누게 간수허여 줄 사름 엇이난 오꼳허게 야기가 그 연날엔 야기 나민 사름 잡 사름도 못 텡기게 허는디 오꼳 잘못허여 야기가 죽어부난 그 사름은 화딱지난 경성으로 가불언게. 가부난 우리 고몬 살단 핫벙으로 죽어불고 경헛 우리 원래 세계사람. 아부지네 하르방네 세젠디 딸덜 난 대정골 오란 삼 시작허연 딱시 우리 어무닌 대정골 보성사름이난 아부진 보성 이칩이 장개 들언 살고 경헛어.

101002 @ 응 경헛구나예.

101002 # 경허난 이 성 들른 것도 옛날엔이 바당에 먹돌이서. 이만씩헌 먹돌 잔 딱 으져다근에 적 오민 적 오람젠헤영 마치렌 허영 그 성 우이 빈주룽케 으져당 막 데며났어. 먹돌 이만씩 헌 것덜.

101002 @ 아, 영 마치젠.

101002 # 응 경헤연 그 시절에 그영허민 저 이제 우체국 어염이가 절동산이엔 허여. 것ㄴ라.

101002 @ 예.

101004 # 무사 절동산이엔 허민 경성서 그 사름 오라가민 사름덜 다 굽으렌.

101004 @ 절허렌?

101004 # 업더지렌 헤영 사름 오라가민 그 심부름꾼덜이 절허렌 막 헤가민 분수몰른 사름 오당 절 안헛젠 욱헤가민 업더정 절허난 우체국 뒤 글로 느려오주게. 경성서. 느려오라가민 그디 절허렌 현 따문 그디 벨리가 절동산. 그디가 절동산.

101004 @ 아 절동산.

101004 # 우체국 짓은 근방이 절동산이엔 벨리해났어. 나가 이디서 나고 크고.

101003 @ 할머니 옛날 어렸을 때 봐난거 곱아주민 뉘어예. 이 동네 사름덜은 주로 무신거 허명 살아났수과?

101003 # 농스만 짓주게.

101003 @ 농스만?

101003 # 게. 겨난 이 동네 사름덜은 좀 가난허난이 흐쓸 재산이 엇으난 곤란허여. 이 동네 사름덜이. 곤란허영 살곡. 저 보성사름덜은 토지가 널르난에 다 잘 살아가난 애기덜이 다 면에나 도에나 연날에 이 보성 사름덜만 간 다 지켰어. 멘서기던지 군에던지 어디든지 다 선생덜토 보성 사름덜이 선생이 밋밋 나오고 그랫어. 인성 이제 선생 하나 나왔주게. 선생 애기덜 출세헌 디 엇어. 이 보성은이 보성 임선생 아덜이라고 임선생네 집이 시성젠디 우론 그 시국에 죽어부난 막둥이가 살안에 아덜 시성제 난디 선생질 헛어. 겐 대정골서 선생질 헌 사름 아기 출세헌 디가 하나토 엇은디 이디 임선생 아덜덜은이 아덜 시성제 다 출세허고 딸덜토 선생허고 사우드토 선생허고 그래서 학교 선생 중에 출세헌딘 임영식이 아덜네 뿐이렌 허는 거라. 그렇게 가정교육도 잘 그리쳐. 이제 임 선생 각신 살안에 아판 이제 서울 아덜네 집이 살단이제 시에 오고 이디 부제침이난 이슨디. 다른 애기덜 인성도 선생 짓고 안성도 선생 이서나도 자식덜 출세허연 아방 앗아난 자국 디딘 사름이 하나토 엇어. 임 생네 집뿐. 그딘이 큰아덜 선생, 죽은아덜 선생, 메뉴리덜토 선생. 셋아덜, 셋메누리도 선생 딸덜토 선생. 겨난 셋아덜은 설계사무소 설계허는 거 허연 시에 살명 막 집 짓는 설계허는 사름으로 잇곡 허난 다 돈 벌곡 부제로만 살게 뉘 그 집이 가정만 출세헛젠 다른 사름덜 선생 애기덜 그집이 뿐 출세헛어. 선생 애기덜 하나 뉘 디가 엇는다.

101001 @ 이 동넨 옛날부터 인성이엔 곱앗수과?

101001 # 응 인성.

101001 @ 다른 말 엇어?

101001 # 다른 말 엇어. 이 동넨 인성리서도 드리물 동네엔 허여.

101001 @ 무신 동네?

101001 # 드리물, 드리물. 이디 물이 시니까.

101004 @ 드리물이 뭐?

101004 # 여기 물이 이서. 우물.

101004 @ 우물 이름이 드리물?

101004 # 응 드리물. 저딘 드리물 나는 물이라.

101004 @ 이디 우물터 갖다완 마씨. 그디 나는 물?

101004 # 연날에 여름에 시원허고 겨울엔 따뜻허고 경행 물 허민 여름엔 밧디 강오민 시원 현물 질어오렌 허영 냉국허영 떡곡 겨울엔 누물 싹젠 허민 물 쳐당 따뜻헌 물로 누물 싹곡 허는디 이젠 각처에 곱밭덜 허영. 곱밭에 이제 지하 막 판에 물덜 허곡 허난.

101004 @ 지하수.

101004 # 그디 물이 흐뎡 이서도 물이 나지 안허엇어. 물 질질 낭은에 저레 느리민 빨래덜토 헤여난디 이젠 그 안네 물 싯꼭 허연. 요디 우물 이서.

101004 @ 예 갓다 완.

101004 # 갓다 완? 밋창에만 물이서.

101004 @ 예 흐뎡.

101004 # 게민 밋창에 물 이신 땀 우이 이슨 땀 허벅으로 등그곡 또 중간에 물시민 드르박으로 뜨고 드르박으로 땡이네 허벅드레 질영허는디 막 안네 들어가민 허벅 진냥 안네 강 안네 부리는디서 박세기로 그 물 질영 낱이네 또 강이 발뚫 올라와. 우리 처녀 시절에.

101004 @ 아, 그디 계단 엇어난?

101004 # 계단 다 손잡이도 이서. 경허명 그 물헤난디 각처에 굴뚝 허연 다 지하수 파는 따문 저렇게 흘리질 안허여. 흘리질 안허여.

101004 @ 옛날 이름은 엇어? 이디. 인성리 동성리 서성리 영허는 말 엇어난?

101004 # 인성 마을이엔 그거 뿐이고.

101004 @ 옛날부터 인성 마을.

101004 # 요딘 안성 마을이엔 허고 저건 보성 마을이엔. 보성은 저레 가민 그 보성 흐출 영 올라가는디 이서. 건 독고동산이엔 허고.

101004 @ 독고동산?

101004 # 응 독고동산.

101001 @ 무사 덕수는 새당이엔 험니께. 이딘 그런 말 엇어난?

101001 # 엇어. 대정골이엔만 허고.

101001 @ 그냥 대정골, 이딘 옛날은 대정골.

101001 # 삼리가 무조건 대정골.

101001 @ 대정골은 어디어디가 대정골?

101001 # 이 전체 인성 마을이고 안성이고 대정 골 안네.

101001 @ 인성, 보성, 안성 세 개가 대정골?

101001 # 응. 대정골.

101001 @ 저디 상모리 하모린 아니고예?

101001 # 응 상모리 하모린 아니고.

101001 @ 옛날 이디가 대정골이라예?

101001 # 이디가 대정골 삼리.

101004 @ 이 주변에 산이나 내창이나 이런 큰 바위나 이런 거.

101004 # 없어.

101004 @ 단산

101004 # 단산은 저거. 세계 지경.

101004 @ 건 세계 지경? 인성리 지경 아니?

101004 # 응. 세계 지경.
101004 @ 아 건 사계 지경.
101004 # 옛날에 이디서 득투명 허연 세계안티 전에 세계 단산은 세계 촌지허연.
101004 @ 인성리 마을에 산은 엇어?
101004 # 산 엇어.
101004 @ 오름도 엇고?
101004 # 응.
101004 @ 낭허렌 어디 갑니까? 계민.
101004 # 낭허겐 저 산더레 올라가주게.
101004 @ 아 한라산드레.
101004 # 응.
101004 @ 단산엔 안 가?
101004 # 단산에 낭 못허게 헛어. 연날에 연날엔 단산에 저렇게 낭 없엇어. 우리 클 때. 그자 태역만 잇고 새만 낫는디 이제 살아가난 자기대로 낭밭이 웨어불엇지. 낭이 엇어.
101004 @ 계민 단산은 혹시 옛날에 다른 이름으로 불러낫수과?
101004 # 연날 일름이 바굽지 오름.
101004 @ 아 단산 이름이 옛날은 바굽지 오름.
101004 # 응 바굽지 오름.
101004 @ 건 무신 말?
101004 # 몰라게. 바굽지 오름이엔 해근에. 바굽지 오름에 그디 산물이 이서.
101004 @ 산물?
101004 # 응. 그 이제.
101004 @ 나는 물예?
101004 # 응 나는 물 이섯어. 경허민 바굽지오름에 강은에 시원헌 물도 질어당 떡곡 헛어. 지금도 그 물이 이실거라.
101004 @ 이 동네 내창은 엇어?
101004 # 내창은 엇어.
101004 @ 내창은 엇고 나는 물은?
101004 # 이 나는 물 이선에 저 성덜 다불고 허난 저레 밋밋 밋더레 느리민 빨래 덜 들구 헤나신디 이젠 그렇 것이 엇어져불언.
101004 @ 거난 옛날에 뭇뭇 이서낫수과 그런 나는 물이. 이디 우물터 허고.
101004 # 이 우물로 팡팡 느려낫주게.
101004 @ 그거 하나 뿐?
101004 # 응.
101004 @ 아 인성마을엔 그거 하나 뿐.
101004 # 인성리 물은 죽은 물 저 아래 잇주게.

101004 @ 어디?
101004 # 저 알펜이
101004 @ 그딴 이름이 무슨거라?
101004 # 농협 앞이. 남으남 물이엔 허여. 남으남 물.
101004 @ 농협 앞이 남으남 물?
101004 # 응. 남으남 물.
101004 @ 그 물도 강은에 빨래허고 물 질레도 가난?
101004 # 연날에 그디 먹는 물도 서근에 죽은물 질어당 먹고 그디서 빨래허곡 막 허엿주만은 이젠 빨래도 안허곡.
101004 @ 이건 무사 죽은물?
101004 # 게 골른 거난 물 죽엇젠. 사는 물이 아니난.
101004 @ 아, 나는 게 아니난. 옛날에도 죽은 물이나 낫수과?
101004 # 게, 연날도게 나는 물이 아닌난. 나는 물은 산물이엔 허고.
101004 @ 아 나는 물은 산물이고 그냥 골른 물은 죽은 물.
101004 # 응. 죽은 물.
101004 @ 쉐 맥이레 가젠 허민 이디 죽은물에 가? 쉐 물맥이레.
101004 # 게 물 맥이레 인성 사름덜은 저 물 맥이고 보성 사는 사름덜은 저디 또 죽은 물 큰 물 이서. 그 물 맥이고. 경허난 그 ㄱ무는 해에 ㄱ문해에 제주도 다 ㄱ물안 다 물 었은 때. 보성은 질 땅이난 질왓 땅이난 저 서광, 동광 사름덜이 전시 이 독고 동산 붉은 물이엔 현 디 오란 물덜 맥여서, 쉐덜. 그때. 인성도 죽은물 땅 이난에 제개 빨어불고 이 보성은 질왓이난에 물이 그때도록 셔. 게민 저 동광 사름 덜토 막 쉐덜 몰양 오랑 물 맥이곡 해 낫저만은 이젠 어디던지 나는 물덜 멘들양 파노니까 물 맥이레도 안 텡기고.
101004 @ 보성은 질왓은 땅이 흐끔 진 가?
101004 # 촌혹밭, 촛혹.
101004 @ 아 촌혹밭.
101004 # 촌혁으로 옹기도 멘드는거 아냐? 경허난에 촌혹땅이난에 물이 오래 앓아.
101004 @ 보성은. 인성은 경 안허고?
101004 # 인성은 죽은 물이난에 ㄱ물민 먹는 물도 었어져불어. 게민 인성사름덜 은 이제 단산에 새미물이엔 현 거 것 강 질어당 떡곡.
101004 @ 단산에 새미물. 이디 큰 바위나 굴 같은 건 었수과?
101004 # 굴 같은 건 었어. 굴같은 건 었어.
101004 @ 사삼 때 어디 강 곱아낫저 허는디 었어?
101004 # 곱아나지 안허연. 사삼사건에 그 일본놈덜 오란 자기대로 굴 판 것덜 잇지. 연날부터 파진 굴은 없엇어. 게난 일본 군인덜 오란 용모루 근방에도 다 판에 굴덜 멘들고 경헛주. 그런 굴은 옛날부터 없어.

101005 @ 옛날부터 이서난 굴은 엇어예. 이 마을엔 어떤 기관들이 이서마씨? 학교 잇고.

101005 # 흑교도 보성. 옛날 멘이엔 헌디 요디 학교 동노펜이 꽃사발덜 막 논디 이서. 것이 옛날 저 멘 서난디. 그 큰 집.

101005 @ 면사무소?

101005 # 멘이라났어. 요새 ㄱ뜨민 읍사무소 님은 거. 그거 이서났어. 연날에 그 거 잇고 딱시 그 보성이 학콘 저레 가는디 보성 학교 ㅎ꼬만헌 거 싯단 큰 물 저꾸디간 보성학교 짓엇단 이젠 이디 크게 딱시 내려오란 흑교 짓엇주게.

101005 @ 인성 학콘 엇어?

101005 # 인성학콘 없엇어. 게난 보성학교서 보성학교 계속 잇고 요디 옛날에 멘 이서나고 허난. 멘에 우리 어무니가 팔남매난에 우리 어무니 오래비덜 이 멘에서 이성은에 허민 어멍 아방 젊은 때 죽어부난 우리 어무니 이디 사난 아척이 조반허민 강 외삼춘 돌아당 밥 먹으렌 허곡 헤났주. 그뎨 초신 신영 눈 오민 밭 실황 죽어지게 아프고 경행 오랑 허멍 헤났저만은.

101005 @ 이디 성 이실 멘 관개 말고 다른 건 엇어났수과?

101005 # 다른 건 엇고. 연날에도 성만 이서나고 성 우이 연날엔 박석돌이엔 헌 거 공구리 님은 거 빈주룽케 끌아져난디 이 시국이 벤헨 저 성담도 없어났어. 싯이 군인 브름에 성담도 엇엇단 연날 성담 엇엇단 이젠 또 성 다렌 헨 시꺼단 단 거.

101005 @ 옛날엔 엇어난 거예?

101005 # 연날에 헤난 걸로.

101005 @ 옛날에 헤난 식으로예. 이디 오당 보민 돌하르방도 막 하영 이시던데.

101005 # 거 돌하르방 연날부터 이슨 거. 연날부터 이성이네 저 서펜인 서문 돌하르방 세우고 동문에 세우고 남문에도 돌하르방 세우고 기추룩 헤났어.

101005 @ 문에 ㅎ나씩?

101005 # 우리 어린 때부터 그 돌하르방은 이섯어. 어린 때부터. 이젠 각처에 돌하르방이 천지.

101005 @ 경해도 것덜은 가짜. 이제야 만든 거고 이디 신 건 옛날부터 이서난 거잖아예?

101005 # 응 옛날 우리 어린 때부터 이서.

101005 @ 이 조끗디 우체국 잇고, 노인당은 ㅎ나뿐이파?

101005 # 안성 노인당 딱시.

101005 @ 아니 인성 노인당.

101005 # 인성 노인당 저 밋에.

101005 @ ㅎ나 잇고예 그거 말고 인성린 특별헌 거 엇수과? 추사관은?

101005 # 거 안성 추사관 아이가?

101005 @ 것도 안성에 뺏겨붙어수과?

101005 # 아니 질이 안성이주게. 이 질 우 짝은 안성. 일로 질 요디 열십제 잊저. 갱허민 보성은 올로 허여근에 저레 보성이지 또 요디 열십자로 이성 올로 안성이 지, 응 질 우넉짜으론 안성. 또 올로 헨 이견 또 기억자로 이슨 거주게. 보성이 널러.

101005 @ 보성이 널러.

101005 # 보성지경이 널르고 토지가 좋으난에 보성사름덜 다 출세허고 잘살앗주게. 보성엔 바티 좋난 곡석이 좋민 농부덜 살기가 좋고 이 이렌 땅이 죽으난 곡석이 잘 아이웨민 만날 벌어봐도 힘들영 아이덜 공부시감이 어린 때 보민 훌룡헌 남저덜 청년덜 우리 우이 청년덜 공부시기는 사름이 엇더라게.

101005 @ 향교는 대정향교. 건 인성리지예?

101005 # 생교는 인성도 아니고 상교는 그자 세계 마을에 생교라.

101005 @ 것도 사계 마을이라 대정향판디?

101005 # 세계 지경이난.

101005 @ 것도 사계 지경?

101005 # 세계 지경계. 단산 세계 지경.

101006 @ 인성린 뭐 이신게 엇인게 다 뺏겨불언. 계민 이 마을에 접 같은거 계 같은 거 이서낫수과?

101006 # 접?

101006 @ 계 들어근에 마을 사름덜끼리 친목.

101006 # 친목계? 그런 거 보성덜이영 전이덜은 선계 어떻사 파장사 웨신디 이젠 살기 좋난 그런 것도 안허고. 친목 요새 젊은 것덜 구경덜 가고 드러 험주게.

101006 @ 마을 사름덜끼리.

101006 # 자기네 마을 사름덜 끼리도 허고 안성 사름덜이영 친구덜 끼리 허영덜 여행가곡 허여.

101006 @ 이젠 친구덜끼리 험주만은 옛날은 마을 사름덜 ㄱ치 허곡 안헤낫수과?

101006 # 연날 연날에 우리 클 때엔 보성 학교 오랑이네 서로 시합을 부떠. 우리 아인 때이. 시합을 부뜨민 구역, 신펡 사름덜도 텍도 엇곡 인성 사름덜도 텍도 없어. 보성 사름덜이 어떻게 요망진디 일등을 허더라.

101006 @ 이던 보성이

101006 # 보성사름덜이 아덜덜 무조건 그자 나민 일본 들양 가근에 아방은 아덜 들양 일본 가근에 큰 사름 멘들양 제주도 오랑은에 직허멍덜 살고 경헌 어른덜이 한한헤낫어.

101007 @ 인성리에 내려오는 풍습 같은 거 엇수과?

101007 # 그런 건 잘 모르크라. 풍습이 엇어.

101007 @ 다른 마을허곡 흐뎡 탄난 거.

101007 # 딱난 거 인성은 없어. 옛날에 이젠 보통으로 잘 살암주만은 옛날엔이 인성 토지덜토 박허여. 땅이 죽은 거난이. 곡석이 잘 웨지 안헤영. 경허난에 살기가

힘들어. 보리도 죽곡이 우리 클 때 그러대. 이젠 다 비료 사용할 때난 느나엇이 마농덜토 허고 게도 지금도 보성 사름덜이 마농도 더허곡 옛날에 감저 빼떼기 할 때 도 보성 사름덜은 감저 빼떼기 백 가멩이 헛저, 이백 가멩이 헛저 허는디 인성은 꼭깁치 말지기 해도 근수가 안 나가. 근이 안 나가.

101007 @ 무사? 여물이 안들언?

101007 # 땅이 단단허지 안허난. 우리도 덕수밭디 보리 강은에 혼 가멩이 으져오 랑 저울이민 이디선 혼 가멩이 대정골 밧디서 혼 가멩이 저울이민 솔박으로 거러 으져사 메다가 꼭같아. 덕수도 경 근 안 나가.

101007 @ 땅이 안 좋아예.

101007 # 땅이 죽은 땅이난. 인성도 그러데. 감저 빼떼기도 허민 인성 지경에 감 제 싱그민 빼떼기 물리민 저울로 저울이젠 허민 감제 막 부수와근에 허고 저디선 수왕수왕 담아도 메다가 탁탁 게난 보성 연날 우리 나 장스 텅길 때 정윗 어른덜 대정골 보리밭이 맞존넨 허영 오랑 보리썰덜 바짜 가고 허더라게. 보리썰 대정 보 리썰.

101007 @ 대정 보리썰이 맞존넨.

101007 # 젊을 때 감저씨 장스헛주게. 경행 강 옥귀, 수망리 강 감제씨 차로 하 나씩 상 오민 보리썰 으정강 저 수망리 강 이장네 집이 강 감제씨 사젠 허난 그 보 리썰 먹지 맵센허멍 지네 보리썰 먹으렌 허난 밥 달달 털어지멍 먹지 못헤렌게. 수 망리, 옥귀, 수망리.

101007 @ 아 그 동네도 땅이 안좋아.

101007 # 그런 아무것도 안허고 무수 갈안 생기리만 험넨. 생기리만. 경허난에 이레 꿰도 갈민 좋쿠다헨 꿰씨도 으져다 주고헨 막 친허게 허여낫주게. 경허난 참 그 어른 이젠 성씨네 집이란게 이장집, 사름덜 막 좋아라게.

101008 @ 이 마을엔 무신 거가 쫄 하영 낚니까?

101008 # 게 미깁이 하영 나주게.

101008 @ 미깁 허기 전인.

101008 # 허기 전인게 고구마 빼떼기허영 쫄.

101008 @ 그게 쫄 하영?

101008 # 보리도 하영 나오곡게.

101008 @ 보리허고 감저허고. 주로 허는 게 그거라 낫수과?

101008 # 게.

101009 @ 이 마을에 자랑거리?

101009 # 자랑거리 거베끼 더 시냐? 무신 자랑할 거 시느니? 아기덜 다 훌륭한 사름덜 보성 사름덜은. 이디 조 선생네도 아덜 성제 일본 강 공부 시기멍 훌륭한 사름 멘들앗지. 저 보성 사름덜토 만딱 우리 그디 어무니 스촌 아덜도 스촌 서방 아덜 성제 일본 간에 다 공부 시건 큰아덜은 제주도 오란 대학교 선생질 허고 또 셋아덜은 남군서로 이섯당 도의회 들어가고 그추록 허멍 훌륭한디 인성 사름덜은

아기덜 출세시기젠 안허더라게. 그자 장남추록 일만 부렁 허젠 허영. 경혜영 곡석이
라도 늬의 밋디 열말 나는 것이 열말 나도 근으론 택도 없어. 땅으로도 틀렁.

101010 @ 옛날에 '한남의숙'이엔 현 학교 이서낫수과?

101010 # 엇어.

101010 @ 학교, 옛날에. 학교 님은 거.

101010 # 연날에 요디 학교 님은 거 서당이엔 현 거 이서낫어. 처암에 우리 어린
때 서당이엔 헨 허엿단 이젠 일본 간 돈 하영 벌언 오난 학교 서당이엔 현 거 짓으
렌 허연 저 물, 큰 물 앞이 간 큰 밋 산에 큰 국민학교 허연. 계난에 모실포 아으덜
토 이디 대정골 국민학교 오란 땡겿어.

101010 @ 일본시대에?

101010 # 응 제국시절에. 경헨 땡기단 그 학교 딱시 망허연, 망허질 안허고 그
학교 이레, 이레.

101010 @ 보성초등학교?

101010 # 응, 이레 짓으렌 혜연 또 일본에서 그 보성 사름덜 돈 하영 벌어진 사
름덜 후원헨 돈 주난 이디 보성 짓은거 아니가?

101010 @ 옛날 서당 혜난 자린 아무것도 안헨수과?

101010 # 서당 혜난 자리 아무것도 안헨. 그자 밋 멘들안 농사덜 헤부난.

101010 @ 옛날에 잇긴 이서낫구나예.

101010 # 응. 계난 이 보성사름덜이 출세허난 돈 벌언에 보성 이제 휘관에도 다
른 믱슬보다 더 특별히 스몫. 사름덜이 신백허명.

101004 @ 이디 수월이뭇이엔 현거 이수과?

101004 # 수월이물. 수월이 물이엔 현딘 요 추사관으로 우터레 가민 저 못물이
이서. 그디 먹는 물도 잇곡 혜도 오래 곱르질 안헤여. 죽은 땅이라부난. 경허난 이
사름덜이 보성 물이 오래 앓는 따문 보성물을 시꺼당 먹곡. 그추록 허여.

101004 @ 수월이물은 무사 수월이물?

101004 # 몰라. 우리 난 보난에 수월이물이엔 허난.

101004 @ 사름 이름인가?

101004 # 아니라.

101004 @ 아니라?

101004 # 응. 그 지경마다 트나. 수월이물 흐쉴 올라가민 다 일름덜 여뭇은 밋이
엔 허곡.

101004 @ 여뭇은 밋?

101004 # 수월이물로 우터레 올라가민 여뭇은 밋이엔 허고.

101004 @ 또 무신거 잇수과?

101004 # 흐쉴 더 올라가민 구역리 지경 뉘블고.

101004 @ 이디 인성리 지경에 마을 이름은, 이딘 드레물 동네엔 허고 저 알르렌
뉘엔 험니까?

101004 # 그냥 남은앞동네엔 허여.

101004 @ 무신 동네?

101004 # 남은앞동네.

101004 @ 건 무신 말인고?

101004 # 몰라. 남은앞동넨 이 물 신 동네 낭서리 싯곡 현 동네엔 연날 이칩이덜 잘 사난에 그 할으방덜 이제 살앗주만은 동카름더렌 인성 지경이라도 아기덜 출세 시긴 사름 엇어. 어떠한 그러데. 막 청년덜 일만 빌영 허곡이.

101004 @ 인성리 마을이 드레물 동네, 남은앞동네 또 무신 거 잇수과?

101004 # 그거 뿐이주게.

101004 @ 두 개 뿐? 아까 동카름은 무신거라?

101004 # 동카름은 저 동웬이 동카름.

101004 @ 서카름도 이서 게민?

101004 # 응 동카름이엔 현 딘 딱시 안성 지경이영 부쩌근에 그디 다 동카름이엔 허여.

101004 @ 게민 서카름은?

101004 # 서카름은 엇고, 이 안성 지경 넘으민 이딴 안성이고 이거 인성이라도 그동넨 동카름이엔 허여.

101004 @ 그딴 동카름이고 질 알르레 노인정 이신 동넨 남은앞동네.

101004 # 응. 인성 동네.

101010 @ 그딴 인성 동네. 정난주 마리아묘 묘지, 무덤 이수과?

101010 # 어디?

101010 @ 정난주엔 현 사름?

101010 # 마리아 무덤.

101010 @ 거 어디 잇수과?

101010 # 보성 지경.

101010 @ 것도 보성 지경? 인성이 아니고.

101010 # 경 이제 허연 싯주게. 구경 가젠?

101010 @ 흐뎡 잇당 나중에랑 가보쿠다. 건 무시거 현 사름이라?

101010 # 건 무시거 현 사름 산디 저 육지서 교 믿으는 사름덜 그디 오랑덜 막 마리쳐 도렌 허민 우리 밧은 절로 가는 디난에 막 차로덜 오랑 이디 어멍헤영 좇아 가느닌 허민 나 어뜬 덴 그까지 마리쳐도 주곡 손 방향으로 강은에 어멍헤영 가렌 마리쳐 주곡 허엿주게. 게난 육지서 많이 와.

101010 @ 건 옛날부터 이서났수과?

101010 # 아니 연날부떠 안해서. 우리 막 옥아근에 어른 웬 후제 헛어. 아메도 그 경 오란 어멍 헤낫인그라. 근사허게 헛 이서. 성 들르고. 우리 밧이 올로 가는 디난에 어디서 오랑 좇지 못헤영 허여. 게민 나 방향도 곶아주곡 미안허주만은 마리쳐 도렌 허민 그까지 마리쳐 주곡.

101004 @ 구명물이엔 현 거 잇수과?

101004 # 구명물이엔 현 딘 덕수로 오는다. 덕수로 오는다 이 안성 지경 거자 오민 높은 동산 소낭 서. 그디가 구명물. 물 연날에 산물 나낫주게. 산물 잘잘 나민 저 알르레 밋밋 느리는 물이 시난에 물 느리게 막 홈도 파고 헛어.

101004 @ 아.

101004 # 구명물 그디 연날에 우리 어린 때 팔월애 콩늬물 구명물에 강 싯으민 팔월 멩질애. 콩늬물 싯으민 그 해애 보리가 읍넨 허여.

101004 @ 보리가?

101004 # 보리가 읍넨 해여.

101004 @ 아 읍넨덴.

101004 # 읍아. 경해근에 아이고 올린 팔월애 콩늬물 싯곡 허난애 구명물에 강 싯곡 헛 거난애 보리 올린 읍으켜. 늙은 어른덜 그렇게 허여.

101004 @ 아.

101004 # 경허난 산물 잘잘 느릴 때엔 옷드르 사름덜이고 어디고 다 빨래허레 그디 오랑.

101004 @ 구명물에 강.

101004 # 응, 시원헌 물애 오랑 빨래허여. 질 알넉펜이 구명물이엔 현 디.

2. 제보자 일생

102001 @ 태어나고 어렸을 때 애기때 태어나고 자란 그 애기.

102001 # 연날엔 어린 때 크난애 분수 몰랐단 그 시절엔 우린 가난헌 사름이난 밤인 야학애 강은애 공부허곡 낮인 일허곡 그추록 허멍 살앗주게.

102001 @ 할머니 댁 번채파?

102001 # 나?

102001 @ 우애 오빠 언니 이서?

102001 # 오빠 언니가 다 죽어불엇어.

102001 @ 다 죽어 불어도 옛날애 이서낫수게.

102001 # 난 딸 중엔 두 번채고.

102001 @ 딸 중엔 두 번채고 오빠 댁 명이나 이서낫수과?

102001 # 우리 우이 우리 성님 이제 일본 산 성님 우이 오라방 돌리 죽어불고 그 다음 우리 성님 나고 나 나고, 나 밋의 또 남동생 낳어. 낳는디 우리 남동생은 군인 간 죽어불고.

102001 @ 계민 아들 셋 딸 둘?

102001 # 계 또 딸 허난 육지간 살고.

102001 @ 거문 아들 셋, 딸 셋. 거기에 할머니 둘째딸, 셋년?

102001 # 응. 우리 아신 저 강원도 강 살명 아기덜 댕 오누이 나고 쌍둥이까지 난에 잘 살아. 나만 못 살아.

102001 @ 이만이만 허민 잘 살주. 이 큰 집이.

102001 # 예고 예고. 우리 언닌 시집간에 서방 들안 일본 가부난에 일본서 살고.

102001 @ 계난 이젠 다 죽언 아시만 살안?

102001 # 아시네 살고. 성님도 언제까지 경 연락 오단 이 근간은 아니와. 성이 죽어불어신그라.

102001 @ 아.

102001 # 우리 성님넨 공장혜연에.

102001 @ 일본에서?

102001 # 응 일본에서 공장혜연 드리 살안.

102001 @ 남동생은?

102001 # 남동생은.

102001 @ 아까 군대간 죽어불고.

102001 # 군인 간 죽어불언.

102001 @ 여동생은?

102001 # 여동생은 육지 그냥 막바로 처녀로 육지 사름안티 시집간 육지간 살고.

102001 @ 지금도 이서, 살안?

102001 # 지금 이서. 딸도 쌍둥이 낭 잘 살명.

102002 @ 예. 할머니네 부모님은 어떤 일 하션마씨.

102002 # 우리 아버진 정씨고 우리 어머니 이씨고. 이칩이. 이칩이 두 번째 딸. 우리 어머니 우이 오빠가 하나 잇고 우리 어머니 나난 다음엔 오래비덜이 댕 성제 난.

102002 @ 응.

102002 # 우리 이모가 시 개. 팔남매, 우리 어무니네 팔남매. 팔남맨디 우리 어무니 우잇 오라방도 연날에 선생.

102002 @ 아.

102002 # 그다음엔 오라방 아덜이 오현고등학교 선생이라났어. 교장 선생이라나고 현디. 이제 우리 말갓 삼촌 아덜도 선생이라났어. 그딘 다 교육자덜.

102002 @ 부모님은 농사지어났수과?

102002 # 게 농사 지엇주게. 외할망네 어린 때 돌아가부난 우리 어무니가 못이로 어린 동생 밥혜영 멕이고 하르방 아버지 어멍 어린 때 죽어부난 하르방 우리 어무니가 므산 살고 외할으방이주게. 므상 살고 그추록 허단 외하르방도 죽언게 어린 동생 총각으로 멩기단 일본간에 살단 제주 각시혜연 살단 이젠 나 하난 죽어 불언. 우리 어무니네가 팔남매. 딸덜토 으망져. 우리 이모 화순 양칩이 시집 갖는다.

102002 @ 예.

102002 # 막 글 좋아. 각 처에 서울까지 강연허레 멩기고 그추록 현디. 양칩이

간에 아끼 오누이 난에 농협에 높은 자리에 앉은 싯단에 혈압약 오꼴시리 떨어진 거 사단 먹주만은 죽어불언. 단아덜인디 게도 아덜 니 성제 난. 니성제난에 아덜 시 성제 풀고 이제 막동인 아방 앓아난 자리에 농협에 간 앓앗젠.

102002 @ 잘봣네.

102002 # 아덜덜이영 아방, 할망 다투안 공부 잘헤연에 육지 흑교덜 허연 막 출세 허연 이제 직장에 텅기고 어른덜 뉘고 손지덜이영 풀암실 거여. 게난 우리 이모가 인물도 좋곡 강연도 막 잘헤난. 서울 강연허레 가고. 서구포 강연허레 가고. 나도 서구포 오랑은에 그때 휘장으로 이섯어.

102003 @ 어무니는 보성리 사름이라?

102003 # 응.

102003 @ 어무닌 보성리에. 어무니 형제덜도 다 잘뉘고예.

102004 @ 할머니 어렸을 때 시집가기 전이 애기때 뭐 허멍 놀아났수과?

102004 # 뭐 허멍 노느니? 밤인 야학소에 가고 낮인 쉬는 시간 시냐? 일 허고. 딱시 훈련허렌 허민 훈련허고.

102004 @ 무신 훈련?

102004 # 아이고 일본시대에 훈련허영이네. 훈련 그리치는 사름은 각반 탁치고 훈련 그리청 발 하나둘행 발 맞추지 못허민 두드러 불곡. 갹 이제 우리도 이제 처녀 뉘난 모실포 학교 텅기난이 조선말을 못 쓰게 허는 거라. 조선말을 못 쓰게 허난 훈련허단에 이제 그 훈련 마치민 군인 쫓까질허레 다 이제 간호질 허레 나간덴 허난 그때에 혼 열일곱살에 열여섯살에 어린 때 시집덜 보내 불엇어. 시집 안 간 건 시경 보낸덴 허난. 경헌디 우리 그리 훈련허는 사름이 낭강알에 앉안 조선말 이디말로 흐끔 쓰난 어떻사 그 선생 알안 그 선생 이제 죽엇어. 강 선생이엔 현 어른 일본말로 마도모도 선생인게. 다레가 조선 쓰가또 허멍 확 허난에 아무도 안허그렌 허주게. 이즈베스 나라비 허민 연날엔 이디서 나라비 허민 영허민 착착착착 맞창 옆으로 사주게. 옆으로 사난 그 조선말 곁은 아이 알아신그라이 귀똥박 주먹지언 착착 딱려도 그 아인 탁 쓰러져라게. 쓰러지난 강 선생이엔 현 사름이 쓰러지난 아판 혼 메틀 흑교 안 나완.

102004 @ 응.

102004 # 흑교 안 나오난 말젠 보난 귀 올라전 오꼴. 귀 막아불언게.

102004 @ 아이고.

102004 # 갹 오꼴 사름이 오꼴 정신까지 상해불언. 갹 흑교 못나완. 억울헤라게. 그뻬이 일본 사름덜따문 일본말 쓰지 안허민 흑교서 죽어대시네.

102004 @ 무신 학교라?

102004 # 모실포 국민흑교게. 그 자리 이제 신 자리 모실포 신 자리에서.

102004 @ 이디 보성초등학교 엇인 때파?

102004 # 게, 이딘 엇은 때주게.

102004 @ 옛날에.

102004 # 이디 이서도 이디서 훈련혜영이네 등수 먹으면 저디 모실포 가근에 훈련을 시겨. 계민 그때이 우리 친구 나영 동갑엿 아이가 급장질 허고 난 부급장혜영 난 앞이 나라비에 착 사고 그 사름은 우리 친구 지 앞이 상 착착 행진행 넘어가민 교장신디 경례 부짖 거 아니라이. 일본말로이 고우주 센세이 데이세이 가사라 니깃 허민 가이 경 곁으민 착행 착착 돌아가. 저만은 간 것 닻으민 그처럼 허멍 훈련혜 옻어. 아이고.

102004 @ 잊어볼지도 안혜영 잘도 알암저. 학교 다니기 전이 더 어릴 땐 놀이 같은 거 안혜마씨?

102004 # 놀이 무사 안혜계. 우리 흑교 동네난이 굴메 뜨는 거. 그거 뛰레 강덜 막 장난허멍 놀고.

102004 @ 그네 뛰는 거.

102004 # 그네 뛰는 거.

102004 @ 아 그계 굴메.

102004 # 그것덜 뛰영 놀고 이녁덜끼리 그자 밤인 모실포 영화 오민 영화 구경허 레 강 오랑.

102004 @ 예.

102004 # 낮인 이제 일허레 가민 영화 구경헌 거 곁을 사름이 하나토 옻어. 구경헌거 본 사름. 날ㄴ라만 아이고 자이 곁으라게. 자이. 난 글 익듯 곁으민 아이고자인 하나토 안 잊어볼어. 하나토 안 잊어볼어.

102004 @ 영환 어떻 행 강 보는 거짜?

102004 # 활동사진계.

102004 @ 천막에? 영화관?

102004 # 큰 영화관에 강 그걸 구경허영 오주계.

102004 @ 그거 구경헤난 말 곁아줍서.

102004 # 벗덜이영 구경혜영 오민 뒷날은 일 허멍덜 어쁜 아인 받은 곤곡 반도 못 곤곡 헤가민 우리 동네 나영 동갑인 송상순이엔 현 사름 아이고 임춘이 잘 곤나, 임춘이 곁으라, 곁으라 허민 나 곁아가민 아이고 자인 윈 눈으로 본 거 잘알아, 잘알아 경험계. 아이고 이젠 늙어부난.

102004 @ 돈은 얼마나 냉 보는 거짜?

102004 # 돈은 그건 공짜. 막 간다. 구경허레 밤이 일허레 강 오랑 지쳐도.

102004 @ 무슨 요일날, 한달에 한번 허는 날 이수과?

102004 # 아니 계속 헤라.

102004 @ 계속. 어디서 헤 주는 거라?

102004 # 모슬포서계 영화 허영 돌리는 사름도 돈 버는 거주계, 연날에.

102004 @ 공기 놀이 같은 것도 헤나지 안험?

102004 # 게 공기놀이도 허고.

102004 @ 공긴 옛날도 공기짜 이름?

102004 # 응, 공기.
 102004 @ 공간 멧 개로 허는 거짜?
 102004 # 다섯 개.
 102004 @ 다섯 개로 어떻게 허는 거라?
 102004 # 다섯 개 허영이네 이젠 무주건 다섯 개 허여근에 네 번까지 허여근에 영허영 손 우트레 오랑 잡주만은 옛날은 경 안헤연.
 102004 @ 옛날은 어떻 헤낫어?
 102004 # 그냥 기자 공기 잡양은에 일허고 영 맞치는 거 허꼭 그런 거만 허멍 살 앓주.
 102004 @ 공기로 영 맞쳐? 다마치기 아니고?
 102004 # 다마치기 아니고.
 102004 @ 응. 남자아이덜은 무신거 험니까?
 102004 # 남자 아이덜은 팽이 두들기.
 102004 @ 팽이 두들리기, 또.
 102004 # 여자 아이덜은 고무줄 잡아 탕겨근에 고무줄 뛰기.
 102004 @ 할머니도 고무줄 막 잘헤나실거 님아.
 102004 # 잘 허주게.
 102004 @ 키도 크고.
 102004 # 언제까지 베뜰레기도 계속 헤낫저. 칠십 멧 슬까지 베뜰레기 나 집이서 오랑은에 일헤영 오라근에 드러 허민 아이고 저 삼춘은 늙을 충 몰라, 늙을 충 몰라. 기추룩 헤낫저. 이 다리 아프난에 베뜰레기 안 좋아. 베뜰레기 허는 거 저 올레에 툭 걸엇당이네. 우리 하르방 지치도 안헌고라 일허레 강 왕 허염젠. 그거 운동똥연게, 운동.
 102004 @ 맞아. 옛날에 할머니 어렸을 땐 그런 거 엇어낫수게. 베뜰레긴.
 102004 # 베뜰레기 이서난 고무줄내기도 이성 심영 고무줄 허고 딱시 고무줄내기만 헤여. 뛰어가멍 똥락헤영 딱시 사가달도 고무줄 심은 거 사가달로 발로 걸렁 저레 가게도 허고.
 102004 @ 거난 할머니 키 크난 완전 잘헤나시크라예.
 102004 # 잘헛어.
 102004 @ 거난.
 102004 # 제국시절에 성 우이 올라근에 저디 조 선생 아시 나팔 불주게.
 102004 @ 예.
 102004 # ‘테테그로 데기와 미나미나고르세’허멍 나올 사름 빨리빨리 나오라 헌말이주게.
 102004 @ 예.
 102004 # 경허민 그 나팔부는 거 성우이 올랑 허는 것 님으민 보성사름덜 다 나오랑 세백이 막 운동허여.

102004 @ 아.

102004 # 보성 사름덜이 인안성덜이영 부떠근에 인안성은 부떠보질 못헤여. 오개리서 막 훈련허민 오개리서 흑교 운동장에서 허민 보성 일등헤여. 다른 인성이나 안성이나 구역 신펡 떨어져. 게민 또 모슬포까지 가. 나 옛날 뛰기도 잘 뛰엉 뛰는 선수로 나가나고.

102004 @ 어.

102004 # 시에 가난 텍도 엇어라.

102004 @ 더 잘허는 사름 합디가?

102004 # 응 시에선 놀아라. 놀아.

102005 @ 일본 제국시대 댜 공출허는 거 막 힘들어낫덴 헨게만은.

102005 # 아이고 보성 사름은 농장이 널렁 곡석이 하난에 공출허당 남양 먹는디 안덕 지경은 밧이 박허난 공출허당 부작허영 먹을 양식 엇이 다 공출로 바찌부난 살지못허난 서광 사름덜 저 구역리.

102005 @ 응.

102005 # 구역리 그 도흐루눈이엔 현 대정 지경에 오랑덜 다 움막 메우멍 살앗서. 서광사름덜. 또 덕수 사름덜토 그디 이칩이 어른인디 하도 공출 힘드난 보성 오란 집 빌언 살고.

102005 @ 아.

102005 # 이 보성은 원체 곡석이 향이네 공출허단 남으난에 헛주만은.

102005 @ 응.

102005 # 멘네 갈양이네 미녕옷 행 입게 헤시냐? 멘네 수룩 바찌지 못허민 미녕도 못허게 허고.

102005 @ 공출 바치는 게 무신 거 수룩 바치는 거?

102005 # 공출은 그디서 바찌불민게 그사름덜이 서임허는 거주게, 멘네도. 게민 이젠 자유나오난 보성 사름덜은 강제 썰영 물리는 것이 이백 개 삼백 개 허여.

102005 @ 주로 공출은 무신 거 바찌라 험니까?

102005 # 보리갈양이네 수량 얼마 바찌라 허민 그거 바찌당 남아야 먹지게. 경허난 다른 지경 사름 보리가 수량이 얼마 부작허민 그 사름 먹는 양식까지 다 허는 따문 못살안에 서광 사름덜 저 구역리 지경 오란 모슬허나 멘들안 살앗어.

102005 @ 이디 인성리 주로 무신 거 바찌는 거라.

102005 # 인성리도 다 그거주게. 인성리도 곡석 바찌렌 허민 바찌주게 어땡. 제주도적에 멘네 갈양 바찌렌 허고. 멘네 갈양이네 이녁냥으로 즈유로 미녕 헤영 입게 헤시냐?

102005 @ 일본 사름 허지 못허게, 몰르게 곱정이라도.

102005 # 몰르게 허젠허민 밀세다리덜 싯는디 다 알아.

102005 @ 다 알아?

102005 # 응, 멘네 수량 못 바찌민 그 집이 오랑 더듬앙 멘네 곱진 거 알민 더

육 얻어먹고.

102005 @ 아이고

102005 # 곡석도 수량 바찌지 못허민 더듬당 곡석 시민 육 얻어먹영 먹는 양석까지 문딱 털어가곡 제국시절에 얼마나 독허게 살아시니. 게민 모르게 멘네 헤영 모르게 쉐 아이나게 씨 블랑 모르게 밤이 저 촌에 강으네 테와당 모르게 미녕헨 옷도 헨 입어서.

102005 @ 몰르게.

102005 # 응, 아이고.

102005 @ 거 말고 일본 시대에 기억나는 거 또 이수과?

102005 # 기억나는 거 엇어. 그거뿐.

102005 @ 공출허는 게 쉐 힘들언예?

102005 # 아이고 안덕 지경에 맞이 박허영 죽은 혁이난 곡석을 제 수량 못 바찌민 스못 안덕 사름덜 스못. 이 대정 지경에 오란 사는 사름이, 보성 오란 사는 사름이 하낫주게.

102006 @ 사삼사건 뎨 어떻게낫수과?

102006 # 사삼사건엔 어뎡 허느니? 어디것덜 빨갱이질 허연 스못 오란에 갑자기 우리 오레비가 모슬포 중혹교 삼학년 뎨디 어무니 죽어불고 아부지만 사는디 갑자기 오레비가 완.

102006 @ 응.

102006 # 온디 이젠 오레비 죽엇젠 허난 울명 오랏주게.

102006 @ 사삼사건에 죽언?

102006 # 이 학교터서. 대정 지경 사름덜 다 심어단 다 죽여불언. 밋밋 죽여불언. 다 죽여분디 우리 오레비영 저디 조침이 아덜허고 요디 이침이 아이 풀에 무끄고 허연 우리 오레비가 중학생덜 무견에 총살시기난 우리 오레빈 총 하나토 안 맞안. 기관총으로 막 뿌려도 안맞안. 아프텐 현 사름은 두번 뎡기명 막 쏘아불어도 안 맞안. 난 오레비 죽엇젠 울명 오난에, 우리 아버지 집이 오난에 ‘느네 오레빈 안 죽엇저.’ 갱헨 이젠 앞집이 하르방신디 송침이 하르방신디 싯젠.

102006 @ 응.

102006 # 우리 말쑤 삼춘이 각시가 시난에 저 말쑤 아지망 우리 아덜 흐루쳐낙만 식계허영은에 모슬포 우리 어무니 셋오레비 집이 살명 중혹교 헛주게. 어뎡 엇으난. 가게 뉘난 우리 말쑤 삼춘이 안뉘덴 허명이 지네 집이 안뉘덴 허명 허난 그 송침이 하르방이 아덜덜 다 일본서 공부시기명 흘룽헌 아덜덜 멘든 하르방이주게. 송정보 하르방이라고.

102006 @ 응.

102006 # 경허난 조케이, 손지놈 보내라. 나 울명 와시난 하르방 앞집이 하르방신디 싯젠헨 간 보난 침. 그시절에 곤쫂이영 서견에 우리 오레비 밥헨 먹엄서라게.

102006 @ 아.

102006 # 아니 무시겨 허젠 완디, 완디 허난에. 갑자기 오지그릅텐 헨에 서이가 오고렌. 친구덜 서이가 오난에 밤이 누난 꿈에이 노랑 강생이가 어멍이 죽어불엇주게. 어멍이 죽어분 노랑 강생이 주멍 무사 줌잡니니, 노랑 강생이 안양 저레 들으렌 허난. 그 노랑 강생이 주난에 든젠허난 그 연날 돛통 잇지 안허여?

102006 @예.

102006 # 드들팡 안트레 들어 가부난 손 드물안에 뒷발을 심어져렌. 강생이 뒷발 안 심어서민 우리 오레비도 그디서 죽으컬이. 뒷발을 심어진 깨나난 꿈이난 이상허다, 이상허다 막 헤져렌게. 경허난 우리집은 신펡으로 느려오는 질긋 집이라.

102006 @ 예.

102006 # 경허난 줌은 안 들고 줌슴줌슴허단 줌 흐쉴 들중말중 허난 막 동녀 한 질이주게이.

102006 @ 응.

102006 # 한질로 사름덜 울르멍 막 야단허멍 느려오는 소리 나난 그냥 내복 바람에 훌딱허게시리 마당에 사난 저 놈도 심어오렌 심어오란 이젠 친구덜끼리 무건 총살을 시킨거라.

102006 @ 응.

102006 # 나 가난 어무니가 꿈에 강생이 쥘게 드들팡에 강 그 뒷발 안심어서민 죽엇어. 뒷발을 심어져렌. 강생이 뒷발을 심으난 어무니가 나 살려수덴 헤연. 이젠 죽은 사름 누이 일름을 더 불르고, 자꾸 불르고 산 사름 일름을 불르게 뤼난 이걸 어뎡허민 좋렌 헤연 이 동네 또 밀스허는 것덜 손가락 허여근에 허는 사름 신디 강 알아듣게 우리 아덜은 총도 아이 맞안에 이렇게 헤신디 지서에 가근에 이제 우체국 앞이 연날 안성 상사엔 헌디 우체국이라 낮어. 우체국에 가근에 그 지서에 가근에 주임ㄱ라 곶으렌. 살앗젠헨 곶으렌 허난 총도 하나도 안 맞고 헛젠헨 곶으렌헨 곶으난 그런 기관총으로 잡아 쏘아도 살고 두번 뎡기멍 쏘아도 살았는디 하늘에서 죄 엇은 사름이난 나오렌 허렌. 경허난에 이젠 우리 아버지 지꺼전 어무니 소상에 동 짓들에 소상헤여 먹젠 날ㄱ라 술헤여도렌 헤연 술 서너허백 허연 놈두고 도새기 크게 질판 놈뵤단 도새기영 술이영 시꺼 간 안성 지서 직원덜 잡아안 먹으렌 헨 쥘. 헤방 뤼엇주게. 경헨 모슬포 중학교 졸업허여. 시에 이젠 고등학교 간 거 아니가. 고등학교 가난 어무니 엇곡 시에 강은에 보리쫄 슣앙 밥 헤지느냐? 우리 시어멍네가 잘도 존 어른덜게. 줌쫄 지곡 산뵤쫄 정이네 서꺼 행 먹으렌 느 오레비 주라, 주라 허멍. 막 우리 오레비 으망지고 일름 나났저. 경허난에 주라 주라 허민 어뵤 때 영 불민 아이고 오늘 불암직허다. 강 자리 사당이네 비늘 뵤겨뵤근에 삼삼허게 소금허 영 느네 오레비 오랏건 주곡 허렌 허멍이 우리 시어멍네가 그렇게 좋아. 자린 이제 아니 으정 가쿠덴. 오란 쫄 으지레 오란. 궤 꺽곡 소금에 꺽상 궤 보까근에 소금에 꺽은 것이 간단허게 먹기 좋쿠덴. 경허멍 시에 고등학교 간 일혹년 헤연 이혹년에 올라가게 뤼난에 학도벙으로 학생 모즈 쓴 냥 다 군인 가분 거 아니가?

102006 @ 아.

102006 # 군인 가부난 드러 운다 분다 허멍 살아가난 우리 애기아방 우리 애기 세술에 죽어불언 울엇지, 오레비 군인 강은에 소문 못들언에 죽엇젠 울어가난 눈은 터도이 사름이 얼굴이 지미가 쓴디 뭐 쓴디 몰라. 경헌디 일 간 오란에 덕수 사름이 혼련 신뵤으로 뽑으난 혼련간 보논디 나 밧디 간 오라시난 우리 시아방이 느네 오라방 살앗젠 헤여라. 이디 저 누게 혼련 받으레 가난 어디서 완젠 허난 덕수서 오고렌 허난 우리 누님도 그디 살암젠 허난 아이고 우리 일가에 성님네 아주방이엔 허난 혼 이틀 살단 올 때란 들앙 오렌 헤렌 헤라. 가이 닐은 이제 오늘까지 삼일이 난 닐은 이제 들레 올거여 허멍 허연. 게난 들안 갓주게. 들안 가난 구연대난게, 이 남은 앞 물신디로 저 공업사까지 구연대라, 연대가 아홉연대.

102006 @ 응.

102006 # 저펜이 미국 부대가 잇곡. 경헌디 구연대서 두부대 느려온디 다음 부대 그레 저 집더레 들어오는 거나 부대 안트레 들어오난에 가이가 아지망 오라방 부대에 이번 오람수덴 경허연 허연에 올레에 정문에 사난에 우리 누인 돌아근에 지 스 무실르레 들앙 오렌. 겐 들안 가난 오레비가 얼굴에 지미가 써신디 뵤산디 몰르고 아이고 나 니 얼굴 어떻 웬 거 몰르겐. 나 손심언 영영 썰어라게. 얼굴은 좋아서라게. 경헤연. 경헨 그디서 혼 들간 혼련허연에 그 아이안티 연락 혼 이틀 숙어지민 오랑 소문들곡 허논디 이젠 마지막으로 누님 오렌 헤렌. 겐 날 드란 가난 우린 이제 전방에 가게 뵤수다. 전방에 가난 펜지랑 허건 펜지랑 받곡 휘답이랑 허지 맵센. 경헨 이젠 가불민 다신 못볼로고나헨 드러 울단 전방에 간에 펜지 온 거 보난 부산 게도 스무실에 간에 스무보는 계통에 선에 허연 이거 펜지헙수덴 허연. 부산서 혼 서너덕들 살안에 두번째 펜지 왔어라게. 펜지 와선게 또 살단에 세번째 펜지 온 건 전방드레 가노렌. 전방드레 가난에 다시 휘답도 못허고 누님신디 펜지 험도 마지막 일 거우다 허멍이 얼마엇언에 오레비 죽엇젠 전보가 왔어.

102006 @ 아이고.

102006 # 전보가 오난 그뻬 문 그 부대 다 몰살시겿젠. 겐 죽엇젠 전보오난 어떻 말고.

102006 @ 일본시대파, 아니민 사삼 지나니까 북한군 허고 싸운 거?

102006 # 게 북한허고덜 싸왔주게. 북한놈덜이영 싸울 때 전정덜 허영 싸울 때 경 막 씹단에 죽으난.

102006 @ 육이오 전쟁 때?

102006 # 그때. 북한것덜이영 씹단에 죽엇주게. 경허난 죽으난에 광목도 나오고 쓸도 나오고 헛주만은이 하르방이 그까짓 거 필요이시냐? 단아덜이.

102006 @ 맞아. 응.

102006 # 막 공부 잘헤영 일름도 나곡 헤영. 연날에 가이 한참 공부헐 때 중학교 삼학년 때에 서울 목스왔어. 목스오란 요디서 큰 동산 신 디서 오개리 신펽, 구역, 이디 삼리 오개리 사름 전시 오렌 헨 강연헤도 청년덜이영 서도 답벤헐 사름, 질문 헐 사름 질문허라, 답벤헐 사름 답벤허라 해도 하나 질문도 안헨디 우리 오레비 키

가 크다게. 중학생 삼학년짜리가 탁 손들린 나간 질문허난 이 사름 흘룽헌 사름 웨 켜 허멍 막 그 목스가 칭찬허멍 헤렌 헨게. 죽어시민 흘룽헌 사름 웰 철.

102006 @ 살아시민. 할머니보다 멧 술 밑에?

102006 # 세 술. 경헨게 군인 간 죽어불언.

102006 @ 사삼사건 때는 다른 피해는 엇어났수과?

102006 # 다른 피헨 엇어난.

102006 @ 주변에 죽은 사름도 엇고?

102006 # 죽은 우리 형제간덜 죽은 사름도 엇고 우리 외가에 총 맞안 죽은 사름도 엇고. 우리 외삼촌네가 우리 어무니네 팔남매에 애기덜 죽은 사름 하나토 엇어.

102006 @ 응, 다행이여예.

102006 # 응. 아기덜 즈손까지. 죽은 사름 엇은디 우리 오레비 총살허난 죽어시 카분덴허난 살안 나오란. 고등학교 간.

102006 @ 이 동네는 사삼 피해 엇어났수과?

102006 # 무사 엇이느니게. 사삼 피해 핫주게. 여즈 흐쓸 곤 여즈덜 말 아이 들 으민 쏘아분 것도 있고. 다 심어단 죽이는 것덜도 잇고.

102006 @ 산에 사름덜이 내려왕 아니민 이디 경찰덜이.

102006 # 이디 순경덜게. 이북 것덜. 것덜 글 안 것덜가?

102006 @ 계난예.

102006 # 글도 모른 것덜

102006 @ 이북서 내려온 경찰덜예.

102006 # 이북사름덜이 글도 모른 사름덜이 천지빚갈. 글도 몰랑. 이녁 고향에 펜지 썩 보낼 중도 모른 사름덜 다 소계바지짜리덜 오랑이네 양복 입쳐근에 스몫 혼련 그리천. 이디서 일연대 일연대로 구연대까지 사난 얼마나 헤시니, 스몫. 멘 군인 때주게. 죽은물에 공일날은 그 죽은 물에덜 그 군인덜 이물도 크고 저디물도 큰디 빨래 허는디 난리가 나났저. 그땐 살아지는 거 닻지 안헨게.

102006 @ 계문 이 동네는 산에서 내려온 사름보단.

102006 # 산에서 내려온 사름도 엇고 이동넨 산에 간 사름도 엇고. 신펡 사름덜이 산에 간에 죽은 사름도 엇고.

102006 @ 이 동네는 북한 사름덜 안티 피해가 하났구나예.

102006 # 웃드르 사름덜이 피해가 한이 경허난 웃드리선 다 소가이 허연 느려오렌 허난 돌덜 시꺼단 다 성 닷주게이. 성문 들고이. 난 그때 덕수 살 때난 아기 아방도 죽어불고 덕수 살 때난에 늙은 어른덜 이제 이레 느려오렌 허난 곡석덜 그냥 집이 놔두민 그 폭도덜 파단 먹넨헨에 작박 매난 작박 소곱에 쓸 묻어된 온 할망, 이젠 양석 떨어지난 양석덜 순경덜 입휘허연 강은에 겨울에 늙은 하르방네 두 부체, 애기도 엇은 두 부체가 오꼳 시간이 늦언게.

102006 @ 응.

102006 # 들어온 것이 정문 더끄젠 헌 때 들어왔어. 더끄젠 헨 들어온디 이북 사

름이 난 아덜도 딸도 엇은 사름이우다. 이만저만 돌 소굽에 우리 물러레 가명 들엇 주게. 물 질레 가명, 물 질레 가명. 아이덜이영 물 질레 허벅 전 가명 허는 말이 질 곳 밧디 그 하르방네 두가시 심어단에 작박 멜란에 그 곡석 으정오젠 허난 또 그디 신 곡석덜은 작박더레 싸된 오라가난 영 늦어수덴 허난이 이북 순경은 그걸 이해허 연 허는디 덕수 사름. 서부락 사름이 아주 몰상식헌 거. 그 총 도렌 허명 그 하르방 네 팡당팡당 쏘는 거 보난이. 물 질레 가는 사름덜 여러 사름 구경헌디 어디 그 늙은 하르방 쏘느니?

102006 @ 계난.

102006 # 경허난 총 빼어 으저라게, 이북 사름은. 뒤번 쏘아도 과이 죽지 안허게 쏘아시난 빼난 또 빼언 그 늙이 쏘아라. 어디 그든 백성인디 늙은 하르방이 할망은 허리 굽어근에 걷도 못허는 하르방도. 그 곡석 정 오는 거 몰라 그것덜 꺾어당 먹어신디.

102006 @ 그것만 뺏앙 보내주지.

102006 # 못생긴 것덜. 그것덜 아이 웬디가 엇어. 손가락질 동네서 드러 받고.

102007 @ 할머니 멧 살에 결혼헨마씨?

102007 # 그뻐 멧 살인고, 스물 멧 살산디.

102007 @ 열 멧 살에 헌 거 아니고?

102007 # 응 열 멧 살이 아니고. 나가 열일곱살에 시집가난.

102007 @ 열일곱 살에 시집간? 처음에?

102007 # 열일곱 살에 시집간 미녕 차고 멧지 차고 멧지 질루고.

102007 @ 그던 어디라?

102007 # 덕수계 덕수.

102007 @ 그계 열일곱살에 간? 그때 시집갈 때 중매로 결혼헨?

102007 # 중매로 결혼 헨.

102007 @ 중매 어떻게 허는 거파?

102007 # 중매 어떻 허여.

102007 @ 누계가 중매 사쥐?

102007 # 우리 시누이가, 셋시누이가 대정골 시집 오난게 지네 오레비 각시 허렌 헤연.

102007 @ 지네 오레비 각시 허렌.

102007 # 일본서 부제로 오란 잘 사난 허렌 허연. 켜 그때 우리 애기 아방이 죽지 안헌 때 호강 시럽게 살앗저게. 일본서 기계 으저오란 서울 창고 빌영 데미민 혼둘에 두번은 창고 돌아뵤 와. 이제 해방만 웨민 그 기계허영 그디 강 공장헨 거 엔 허명. 올 때엔 구루무도 상 오고 도화분이엔 헌 거 사오고 구루문 쭈쭈 구루무엔 상왕 동네 처녀덜도 주곡 아주망덜도 주곡 그추룩 헤라게.

102007 @ 예.

102007 # 경 어디 서부락에서 잔치헌덴 허민 초청와. 오렌.

102007 @ 예.

102007 #경허민 우리 시어명은 그 아기구덕 이레 들러다 똥 가라헿 나영 둘리가
가까민 우리 신랑ㄱ라 야 느 각시 치메 안즈룩 속허게 우트레 잡아땡기라. 치메 즈
룩 안으로 흐뎡 등겼저.

102007 @ 예.

102007 # 케민 뒤으로 강 우트로 속 잡아 땡겨주고.

102007 @ 허허허.

102007 # 나 노래 한창 해가민 옷 혼 불 쌍 가주게이. 치메저고리이. 쌍 가민 혹
허게 포따리 으정강이네 화장허고 치메 저고리 입영 춤 취 가민 처암엔 누겐철이
몰르당 말젠 알곡 허멍 경 사이 좋게 살앗저.

102007 @ 응.

102007 # 경 또 낭아래 큰 폭낭 잇주게이. 큰 폭낭 아래서 기타 털곡 저 막둥이
시누이영 ㄱ찌 노래덜 맞창이네 털멍 놀아가난 침 넘어가는 사름 불루와 빼영 글아
라만은 팔제 곳영 서방질만 들구 허단 아덜 하나 안 낳저라.

102008 @ 결혼 할 때 사주도 봅니까?

102008 # 사주 보주게.

102008 @ 막 좋덴, 궁합?

102008 # 좋덴 허주만은게 그 시국에사 좋은 사름이나 곳인 사름이나 다 죽게 똥
거주 어멍.

102008 @ 아니 게난 하르버진 멧 살 우이짜?

102008 # 서너슬 우.

102008 @ 궁합도 좋고.

102008 # 경허덴 허난 야기 난 것이 딸이라부난이 아덜은 느시 아이난. 아덜 낳
이민 그 재산 직허멍 살컬.

102009 @ 결혼 할 때 무신 거 행 갑니까? 여자는?

102009 # 여자 이불게.

102009 @ 멧 채?

102009 # 엇인 사름은 우알채만 행 가고 이신 사름은 따시 이불 두 개, 요 두 개
행 가고.

102009 @ 이불 두 개 요 두 개만? 베개도 허고?

102009 # 베개 허고, 자부동도 뒤 개 허고.

102009 @ 자부동도 뒤 개 허고.

102009 # 없는 사름은 이불 하나. 베개 하나 그자.

102009 @ 뭐 요강도 가정 가?

102009 # 요강은 으정 가. 요강은 사기 요강.

102009 @ 사기 요강? 허영헌 거?

102009 # 응.

102009 @ 그, 뭐 কে도 이신 사름은 행 가?
102009 # 켜 안 으정가.
102009 @ 켜 안 으정가.
102009 # 켜 으정간 사름 안허고 이불도 허영 가는 사름, 그 시절에 이불도 행 가는 사름. 요 아니 부짱 우이 것만 허영 가는 사름도 이서. 우린 그때에 우리 외삼 춘네 아덜 시에 잘 살고 외삼춘네 잘 살곡 허난 나 양단으로 이불 우알 다 허연 간. 이불 두 개, 요 두개.
102009 @ 이불 두 개, 요 두 개.
102009 # 우리 외삼춘 큰 아덜이 시에 오란에 흑교 선생 허난에 그디 간에 기지 사단, 사도렌 헨 산.
102009 @ 할머니 시집갈 때 무신 거 받으디가?
102009 # 응?
102009 @ 시집이서 무신 거 해줍디가?
102009 # 시집이서 무신 거 해주느니?
102009 @ 옷 혼 벌?
102009 # 옷 혼 불.
102009 @ 무신 옷 혼 불?
102009 # 멍지로 옷 혼 불.
102009 @ 멍진 허영헌 거?
102009 # 응. 멍지로 옷 혼 불.
102009 @ 거 하나베끼 안 해줘?
102009 # 거베끼 안 해줘.
102009 @ 그디 뭐 큰어멍 죽은어멍덜은 뭐 안해줘?
102009 # 안 해줘. 이제덜은 다 경 허여도 그땐 안허여.
102009 @ 이젠 막 결혼헐 때.
102009 # 그땐이 공출 시절이라노난.
102009 @ 아, 일본 시절이구나예?
102009 # 일본 시대에 게다 신영 비글락비글락. 고무신도 엇어. 다 낭토막 헤영 게다 멘들양 신곡 초신 삼양 신곡.
102009 @ 시집 갈 땐 무신 신발 신엇수과?
102009 # 시집 가난에 그디서 가막창신 으저와선게.
102009 @ 아, 가막창신 앓아와십디가?
102009 # 창신 신영 오랜 창신 으전 왔어라.
102009 @ 건 가죽 신발인가?
102009 # 가죽신. 응. 게난에 나 그 신도 신어보도 즐바로 신어보도 안헐져. 받안 내불언. 일본서 우리 형님이 붉은 고무신 뒤 개 보내오난게. 빨강헌 고무신 보내서 라.

102009 @ 그 시집 식구들안티 할머니가.

102009 # 연말엔 그런 거 었엇어. 시집이 식솔덜 뿔 헤단 주는 버릇이 었엇어. 요새 신식이난 경허주. 요즘은 다 경해도.

102009 @ 아니 뉘 보선행 돌려낫젠.

102009 # 보선행도 아니 헛어, 연말에. 이제 새세상 나난 허주. 우리 덕수 이제 원근이 각시엔 현 사름이 시집 오란에 고모덜신디 보선행 흔 켜리도 안췌져. 아무것도 안 췌. 어느절에.

102009 @ 옛날엔 그런 거 었어난예?

102009 # 게, 우리 아덜 꼭난에 큰각시가 우리 아덜 큰어멍 시난 돈을 으져와서라. 돈으로 새각시 선물로 으져오난 우리 메누리도 대혹교 텅기고 아덜도 대혹교 텅건에 메누리 재기 문저 졸업허난 우리 하르방이 졸업헐 때 돈 주난에이 우리 아덜 졸업헐 땐 그 돈 준 걸로 백만 원 준 거로 노리롱헌 기지 산에 반코드허연 입고렌 자랑헤라게. 우리 큰집이 아덜도 우리 아덜 졸업헐 때 ㄹ치 구경허고 헤신디. 우리 아덜 풀젠허난 그디 우리 하르방 큰 딸이 지네 시아주방 폰 때에 돈 이십만원씩 오란 테와렌. 이십만 원씩 테와렌 허난 아니 삼십만 원씩 테와렌 헛어. 돈 으정오란 삼십만 원씩 테와렌 허난 정말산디 거짓말산디 몰란 아이고 우리 메누리 얼마사 으정 오랑사 헐디 사둔칩이 새각시 적시 천만원 봉투에 담고 또 어멍 아방 옷 헿 입으렌 삼십만 원 담양 가져갓주게. 우리 메누리 얼마사 담양 울티 아덜이영 오란 어머니가 알양 헿셴 그 돈을 췌라게. 게난 이십만 원씩 나가 계산 헛주게. 그 우리 하르방 딸이 으섯 성제. 이십만 원 췌 백이십만 원 어멍 허민 백 스십만 원 딱시 이제 그디 고모덜, 고모덜이 세 개. 경헿 이제 다 봉투에 담안이 족은어멍네 적시영 헿 봉투에 담안에 우리 아덜이 우리 딸레 시성제난 세 개 허고 나허난 네 개 허고 허연 돈을 이젠 담안에 우리 아덜이 허는 말이 그 때 서구포 이스 때라. 군에 이스 때난 어무니 ㄹ찌 가근에 돈 췌뿔이네 저 모실포 강 누나네영 헿서 허곤데 경 허렌 허연. 이제 돈 으정간 오십만 원짜린 형님네 줍셴 경헤라게. 경ㅋ테 경 헤연. 오십만 원짜린 느네 거고 고모덜 적시 이거 이십만원 짜린 고모네 적시여. 느네 어멍은 시에 사난이 어멍네 적신 이제 아방이 시에 딸덜이영 주켄헤라 허멍 아무거엔도 안 헿 그자 난 모실포 가난 막둥이 시누이네 집이 가난 십만 원짜리 기지 그치난 스만 원 옷 현 콤은 안헿 육만원 췌기 사먹고 남고. 우리 딸은 딱시 십이만 원짜리난에 스만 원 췌기 사먹을 거 돈을 남안 왓어. 남안 오난 우리 하르방이 고모덜 옷 안 헤준덴 헿에 메누리영 아덜이영 시에 가서렌. 그걸 다 가전 왓어라게.

102010 @ 건 아덜 풀 때고, 할머니 결혼헐 땐 생각나는 거 었수과?

102010 # 생각날 거 무신거 흐는 거 시니?

102010 @ 할머니 결혼헐 때 가메 탕 간?

102010 # 가메 아니 도께.

102010 @ 도께.

102010 # 도께에 톨 메완.

102010 @ 아. 물 메완. 할머니 결혼할 때 결혼식은 헨마씨?
102010 # 결혼식 그땐 아니헌다게.
102010 @ 마당에서라도 안혜?
102010 # 마당에서 안혜여. 그땐 가민 그자 방더레 청허여근에.
102010 @ 기? 텔레비전에서추록 마당에서 절허곡 안혜?
102010 # 그런 거 안 헛어.
102010 @ 아 그런 거 안 헨?
102010 # 우리 옥도록 우리 시집 간 후제도 그런 일 엇엇어. 새각시 가민 그자
받아들영 구들드레.
102010 @ 구들드레, 응. 결혼식 같은 거 엇구나예?
102010 # 식이랑 말앙.
102010 @ 사진도 안 찍언?
102010 # 사진도 안 찍엇어, 그 시절엔.
102010 @ 언제쯤에 사진 찍엇수과? 누게네 헨 때 썸에.
102010 # 새세상 난, 새세상 나난에 사진덜토 찍엇주. 사진 찍는 집 엇어났어.
102011 @ 게민 저 결혼혜근에 신희은 어느 집이서 살앗수과? 시어멍 시아방.
102011 # 시어멍 시아방 큰 방에 살고 우린 밧거리 방에 눅곡 허연.
102011 @ 밧거리?
102011 # 응, 살앗주게. 안팍거리 살앗주.
102011 @ 안팍거리 살앗구나예? 멧 년이나 경 살안에 집 헨 나갓수과?
102011 # 멧 년 살지 안허고 그디서 혼 이년 살아도 아기가 재게 엇어라게. 그던
애기 재게 보젠 헨디.
102011 @ 응.
102011 # 삼 년채 아기 가전. 딸 난에. 딸 난에 딸 세 설에 아방 죽어붙어시네
게.
102011 @ 아이고.
102011 # 세 설에 아방 죽어붙고 우리 아지방은 학교서 바로 시꺼단 어디간사 죽
어붙어신디.
102006 @ 아방은 어떻게 죽은 거마씨?
102006 # 우리 애기 아방은 창천리 출장소난 창천리 출장소에 근무허여근에 그디
서 책임자라낫주게. 아 경헌디 여름에 보난에 철구르마에 시꺼 오랏어라게.
102006 @ 무사?
102006 # 한칭원덜.
102006 @ 사삼때?
102006 # 응, 그 위험헌 때. 철구르마에 시꺼 와서난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애기
아방 여즈 막 좋아허는 사름이난이 마리에 이젠 안거리 큰 마리에 으져단 손발을
막 조사헤라게 어뜨난이. 그걸로 아판에 오몽을 못헤서이. 오몽을 못허난 무조건 부

락사름덜 모실포 큰 창고에 다 가뵤어. 큰 창고에 대정 지경에 사름은 큰 창고에 보리썰 박듯이 앓안 직헌디 우리 애기 아방은 아프난에 우리 애기 아방 부축허영은 오줌싸게도 땡기게꾸리 허여도렌 동넛 사름 빌언이 이젠 뜯 방에 밥허는 공석안에 자리 출런 녹전. 우리 애기 아방 하루 걸렁 나 가곡 허주게. 음식 허영 강. 경떡을 때 우리 애기 아방 그치 간호허는 사름 적시도 으정 가곡 허는디 나가 우리 애기아방은 죽여 먹어졌저게.

102006 @ 무사?

102006 # 무사 경허리 혼 메틀 뤼난에 입추산 사름이 김형은 멀지 안행 나가요 현걸 애기아방 그라 굳지 안헤시민 살컬게. 김형은 나가요 허난 나가 딱시 막 기분 좋안이 당신은 저 입추사는 사름 말이 김형은 멀지 안행 나가요 험디텐 허멍 지꺼 전 애기 아방신디 자랑허난 닷새채 딱시 하루 걸렁 하루 가주게. 오늘 걸렁 널 가곡 헌디 나강 톱 내리민 애기가 다글다글 걸어강이네 아방신디 엇덴허멍 올멍 오난 입추사는 사름은 김형 잊어요, 잊어요 헨 나영 간 보난 엇어라게. 엇으난 지서레 연락허난 주임이 와서라게. 완 어떻게 뤼시닌 그디 앓은 사름 신디 호명허난 한 사름 일름 호명 안허난 올르지 못허난 풀 심언 잡아댕기는디 아래서 올려라 헨. 그찌간 죽어불언. 나가 오꼳 죽여먹은 거주. 굳지 안헤시민 아니 가주기. 일름 안 불러시난 게. 난 지꺼전 애기아방신디 곱안.

102006 @ 누가 죽인 거?

102006 # 경찰에서.

102006 @ 산에 사름이엔?

102006 # 아니 그런 사상에 걸렸젠 헨 죽인 거주게.

102006 @ 아이고.

102006 # 사상에 걸리도 안허고 우리 애기 아방은 한청원 단장으로 잇은 때주게.

102006 @ 굳디 어떻게 경.

102006 # 경헨 어떻게 헤신디 경헨 죽여불고. 또 우리 아주방은 흑교서 바로 시꺼가난 어디간사 죽여불어신디.

102006 @ 아이고.

102006 # 우리 시아주방은 일본서 바로 오란 흑교 선생. 졸업허난. 우리 애기 아방은 졸업장 그 오는 해사 받으난에 어디 육지만 가젠 허엿주게. 경허난 동네 청년덜 돌아단 그자 공부만 시기단에.

102006 @ 그건 사삼 땐 아니고?

102006 # 사삼 때게.

102006 @ 사삼 때?

102006 # 영만 허민 다 죽일 때.

102006 @ 오레비만이 아니고 애기 아방도 경.

102006 # 영 손가락질 허민 죄 엇어도 저놈이엔 허민 탁 방 맞춰 죽일 때 아니가게. 그때사. 게난 그 덕수 므슬에서 손가락질 허난 죽엇젠 헌다. 경허난 이젠 그디

이젠 알뜨르 밧 샷주게. 큰 밧 산에 알뜨르 구덩이 간 묻언. 들이쳐붙어서이.

102006 @ 아이고.

102006 # 구덩이 간에 들이치난 그 구덩이에, 그 구덩인 어평헌 구덩이나 허민 우리 학생때에 비행장 멘드는데 차가 들어강은에 그디 강 퍼뵤 오민 큰 산만헌 굴을 멘들앗어. 굴을 멘들안에.

102006 @ 알뜨르 비행장?

102006 # 게민 일본 차에 무신 보렝이 7치 시경오랑 그 창고 안에 들어강 퍼뵤 나오꼭 허민 우리 학생 시절에 그 비행장에 테 요만씩행 싱그레 자꾸 가낫주게. 제주도 사름은 그디서 함박 썩 테 현다, 비행장 멘드다 살곡 헐 때난. 경헐 그거 아는디 그 창고 이제 해방뵤난 일본은 창고 문 부쇄뵤된 간 거 아니가? 벨라뵤이 가부난에.

102006 @ 응.

102006 # 이젠 해방 뵤난 제주도 사름덜 그디 뵤렝이 좇엉 폴아먹젠 그 우로 튕언에 산 튕언 철조망 이추룩 걸어진 디 거 뵤렝이 헤단덜 모실포 사름덜 폴아먹으멍 돈 벌멍 사난.

102006 @ 뵤렝이가 뭐?

102006 # 총뵤렝이.

102006 @ 아 총부렝이.

102006 # 경허난 철조망 현디 으져단에 들이천 쏘아부난 더런 다리로 걸어지고 야게기 걸어지꼭 허난 우리 시어명네가 걸렝이 하나 정 강 느 아기 나 아기 엇이 심영이네 업음만 허건 나오켤 허연 가난 그디 산에 올라간 것 님으민 총 광광 경비원덜 쏘멍 텅기게 군 말가? 못 텅기게 구난 멧년 뵤난 썩언 빠지난 물이 글로 7득 앗어. 누렁헌 물이 시난 저 모실포 큰 공장에 사름이 양수기 두개 뵤언 이틀을 퍼도 그 누렁헌 물 문 푸지 못헐 내붙어시네. 내붙엇단 멧 십년 뵤언. 혼 이십 멧 년 뵤언 한 이십 멧 년 뵤난에 이젠 땅이 나오난 이젠 신체 봉가가라 허난 봉그레 가난.

102006 @ 아이고.

102006 # 시아방이영 우리 그 이제 그 신체 봉그레 간 신체 봉간 오는데 대가리 하나 해골박 헉나 봉그민 알거 뵤고이?

102006 @ 그 사름인 줄 어평 알아?

102006 # 몰르주게. 경허난 팔십 멧 멧이 데가리만 팔십 멧 멧이 나와도 우리 정자 아방이엔 현 사름은 안 나완. 안나오난에 이젠 날7라 이젠 누게 데력 가노렌 신고허영 가렌. 가난에 그 물 관 도에 간 보난에 문옥이 아주방이영 대옥이 아주방이영 양 어깨에 그 칠천 관을 두 개 들런 나와라게. 두 개 들런 나오난에 하난 누게짜 허난 산방 두에 옛날 흥칩이 아덜. 하나만 들렁 나오주게 양펜이 하나씩 다 들렁 나가렌 멧렝 들으난 누젠 철이 몰르고 해골머리 하나 들런 오고렌 허멍. 아부진 무사 안 나왔수젠 허난 놀멍 보내주 경 혼뵤에 아니 보네텐.

102006 @ 응.

102006 # 이젠 오란에 이젠 날라 목욕 시기렌 허난 우리 어머니 영 반 아니엔 허멍 드리 올라가난 말짱 시아방라란 어느 거 느 아기 나 아기곤? 다 우리 애기 아니겐. 다 우리 애긴디 느 아기 나 아기 골란 뿔허느닌. 정자 어멍이 정자 아방이엔 허민 통화웁다. 그추룩 허는 거라. 정자 아방이엔 허민.

102006 @ 애기 이름이 정자?

102006 # 응 우리 애기. 정자 아방이엔 허민 웁다. 어느거 느 아기 나 아기. 다 우리 애기덜 아니겐.

102006 @ 예.

102006 # 아기덜 다 젊은 것덜 죽은 거난 우리 애기 아니겐. 백삼십 명 죽은 거 어멍힐 말고. 경허난 나 저 정자 아방 알아집니다. 정자 아방 니에 버랭이 먹은 것도 엇고 니가 훑은 것도 엇고 코똥허난 알아집니다 허멍 늘 감주 송장 해골 싯젠 허민 늘감주 허영 간텐. 늘 감주 헤영 간 거 이런 걸로 적지명 니를 영영 다끄명.

102006 @ 따끄명.

102006 # 나 정자아방 니빨 알아집니다. 버랭이 먹은 것도 엇고 어디 흐뎡 튀어난 것도 알아집니다 허멍 드리 따끄명 정자 아방 알아집니다. 정자 아방 니빨 닥수다, 닥수다 허난 선뜩허게 얼굴 거닐어라게. 얼굴 나와라게.

102006 @ 아.

102006 # 얼굴 나오난 곳사 정자 아방 선뜩허게 얼굴 나오디텐 허난 그때사 우리 어무니 나와 아이고 나 아덜인자, 나 아덜인자 헨 그디 알뜨리 요만은 허게 무덤 싯주게. 경허난 그때 대옥이 아주방이영 들리 들러 온 거 들리 들러 온 거 산방 뒤에 흥침이 아덜 꺾기 묻고 우리 애기 아방도 꺾기 묻언 싯주게. 꺾기 묻으난 큰 비석 세웠어.

102006 @ 아, 백조일손지묘.

102006 # 응, 그디 이제 우리 하르방이 큰 밧 돈 쥘 사고렌 그 세겏 하르방이 그디서 아기덜 죽은 디서 휘장 뉘서라게. 세겏 하르방 휘장 어른이여, 이 우리 메누리 우다. 우리 죽은 아덜 메누리우다. 기추룩 허멍. 우리 아덜에 각시우다 허멍 이 밧 나가 돈 쥘 싯저 경허멍 곶으멍 헨 헛주게. 아이고 사름이이 살아사 사름이주이. 매날 그 식계날 넘으민 가곡 허단이 우리 딸라 가렌 허멍 헤나시네. 경허단 이제 딸이 텅겨.

102006 @ 응.

102006 # 엠 현 사름덜 오죽 하영 죽어시냐? 경허난 그디 큰 비석 세우난이 순경덜이 오란 이 비석을 못아불렌.

102006 @ 왜?

102006 # 우리 백 삼십 명 다 오랜 허연이 영장도 파 가불고 그 비석을 못아불렌 허난 그 비석 못은 거 흔 밧디 놓지 말앙 그레 저레 놓렌. 이제 이 사름네 애기덜 이 후제 크민 우리 아방네 죽여낫젠 허여근에 지네신디 원수 헌텐 순경덜이 오란이

그 성담 돌른 거영 비석이영 막 못안 천장만장 던져불어세. 던져불어단 새세상 난
에 이제 크게 비석 세우고 새로 그디.

102006 @ 예.

102006 # 크게 새로 비석 세우고 성 돌르고 이젠 경혜연.

102006 @ 응, 비행장 이신 쪽에예?

102006 # 비행장에 이제 경헨. 우리 딸, 시상이 가곡 한다. 게난 나사 강 돼느냐?

102012 @ 큰 딸은 이제 멧 슬이파?

102012 # 칠십 멧 낫어. 이제 덕수 살암주게.

102012 @ 덕수 살암수과?

102012 # 덕수 동부락광 서부락 새에 그 훼손 옆이 이층집이. 쪼글락헌 이층집.

102012 @ 응. 이디 잇단에 경헨 살단에 할무니.

102012 # 경헨 난 그자 이.

102012 @ 인성리 와불언. 경헨 이디완 살안?

102012 # 응. 이 우리 흥칩이 하르방 몸에게 아덜 성제 나난게.

102012 @ 게른 할머니 큰딸 말고 다른 딸도 이서?

102012 # 딸 두 개.

102012 @ 아덜도 두 개?

102012 # 두개 나난.

102012 @ 하난 죽어불언?

102012 # 응.

102012 @ 할머니도 파란만장허구나예, 옛날 살아난게예?

102012 # 경허난 누에 십년 질랐저. 봄이 질루고 가을에 질루민 다섯해 질랐는디
십년 질환. 시아방 멧지로 저승옷 헛지 시어멍 저승옷 다 헤췌지. 나 우리 아이덜.
우리 아덜 장계 갈 때 도복 멧지로 바지 저고리로 다 해주난. 딸덜 저승옷 나 다
헤췌지.

102012 @ 다 함청 딸은 세 개 아덜 두 개?

102012 # 하나게.

102012 @ 하난 언제 죽어불언?

102012 # 하난게 중학교 이혹년 때 차로 죽어불언.

102012 @ 아이고.

102012 # 차로 죽어부난에 그 돈 우리 먹어시냐? 그때 돈 스백 나오난 나도 아기
돈 안 먹으켄 허멍 울멍 실으멍 허고 우리 하르방도 기분 나쁜 죽은딸 시집 안 간
딸 서. 막둥이 우잇 것이 아기 내우는 저 야매로 아기 내우는 사름 헤시난

102012 @ 응, 조산원.

102012 # 그 돈 보냅센 허연 보냅주게. 우리 애기 아방. 우리 애기 아방도 즈식
폰 돈 쓰지 못허켄 허멍 그냥 봐 뒀단 그 아이안티 보내난 그때 처암으로 혁백 나
오난 혁백 텔레비 흐나 받았저. 가이 시집도 안 간. 그 돈 받도 안헨 내불고.

102013 @ 첫번째 시집인?

102013 # 처암에 김침이 그딘이 덕수 권당덜이 아니고 우리 시할으방이 시에 남문통에 사는디 덕수 불미허영이네 돈 잘 뵤젠허난 시하르방이 덕수 불미허는디 오랑 살켄 헤연 우리 시아방 허나 들안 오란. 시아방 들안 오란 덕수 우리 시어멍 안티 장개 보내고 헨 살멍 일본 간 돈 벌언 부제 뵤. 우리 시아방네 윈 나호신딘 저남문통. 남문통에 어른덜.

102013 @ 시집살이도 하영 헛수과?

102013 # 경허난게 그 집이서 서방 죽어분 집이서 시집살일 헤시네게.

102013 @ 그 시집이 시어른덜은 막 좋아났지예?

102013 # 아이고 좋곡 말곡.

102013 @ 응. 그땐 잘 살아불어시민 좋을걸.

102013 # 늬의 아기 봉가단 당신네 집이 나가지 못허게 허젠 쟁 아기 나멍 죽어분 거 키우단에 죽어시네.

102013 @ 양제 들연?

102013 # 그거 키왕 어른 뵤영 장개 보내영, 시아방이 현 말이, 장개 보내영 조그만현 삼각구 주곡 집 하나 헤여주곡 댓 말지기 밧 쥐뵤 그 아이 장개 보내영 후손 나건 니 알로 놓라 허연 그 집이서 쟁 좋질. 시어멍네가 나를 이렇게 받아쥬. 일 잘허는 머슴 살이로. 경허난 그것에 속안 멧 년 살아시네게 누에 질루멍. 착허덴만 허민 그자, 아이고.

102013 @ 경허당은에.

102013 # 그 때 새과랑헌 때 나오랑.

102013 @ 경허난에.

102013 # 어떤 사름 선생 뒤으로 강 뜰이고 아덜이고 허나 나도렌 현 때 헤시민 좋으켄.

102013 @ 예.

102012 # 우리 아덜 막 착헌다. 지네 성 이장 뵤엇젠 허난이 아방ㄹ라 읍서 이장 뵤난에 회사허겐 허난.

102012 @ 계난 둘째 딸은 멧 슬이나 뵤수과?

102012 # 누게?

102012 @ 딸, 두번째 딸.

102012 # 두번째 딸도 혼 육십 멧 낫주게.

102012 @ 육십 멧 난. 세번째도?

102012 # 응.

102012 @ 아덜은 오십은 뵤수과?

102012 # 오십 뵤엇주게. 아덜 허나 착허난게. 아덜이 막 착헌다. 딸덜이 너무나 착헤여도 아덜이 더 착헤여.

102014 @ 아들이영 딸이영 풀 때 흑시 기억나는 거 이수과?

102014 # 기억나는 거. 우리 아덜 낳난 우리 죽은년이 업영 키웠주.

102015 @ 메뉴린 막 착혀지예?

102015 # 메뉴리 막 착혀여. 사둔이 경 착혀여라게. 메뉴리 어명이 그렇게 착혀여.

102015 @ 어디 메뉴리파?

102015 # 성산. 경 착혀난 흑교서 간에 흑교서 알안게. 계난 성산이난이 딸 으섯 성젠디 아니 딸이 니 성제, 딸이 다섯 성제고 아덜 성제 이신 집인디 니 성제7진 흑교 시견 막동인 흑교 안 시겨서라. 거난 사둔이 좋은 어른이라라게. 그 어른은 해 녀질 현 거 고기라도 쏘아지민 시아방 강이네 국 끌렁 그누라 바르 잡아지민 스뭇 죽썰 그누라 행 보내고 귀살 이만씩 허영 여남은 개허영 보내민 나 딸덜이영 문 주 민 난 이디서 꿰허고 그뻐 성헌 때난 농스 허민이 사둔신디 마농, 육지 사난 딸덜 이 딸 시 성젠 육지 사난 아덜이영 다섯개 사난 육지레 마농허영 보낼 거 다허영 나가 문 메뉴리7라 곱으렐 허영 셋언니네 크게 출런 잘사난 셋언니가 전화받넨 허 명 그레 보내민덜 갈라 먹으민 그 셋언니, 우리 메뉴리 셋성은 강이췌 이런거 이만 이현 상자로 보낼 우리 사둔 닥지 안허게 췌당 닥게, 조케덜 닥게헐 살아시네, 이제 도록. 췌 우리 예펜 사둔 오뽏 죽어불언.

102015 @ 응.

102015 # 우리 메뉴리 오라방 성제 다 높은 자리에덜 앓곡. 딸덜은 다 우리.

102015 @ 사위덜은?

102015 # 우리 사우덜은 농스짓는 사름덜게.

102015 @ 응. 이디 대정골 살암수과?

102015 # 아니, 모실포.

102015 @ 딸 세 개 다? 세 개 다 모슬포 살멘?

102015 # 아니 덕수 그 저.

102015 @ 아 덕수 현 명 살고 큰 딸은예.

102015 # 응. 모슬포 둘리 살고.

102015 @ 경해도 조끗디 이시난 좋으크라.

102015 # 응. 딸 난난 놔두난게 예점에 하간거 행 오랑. 아덜도 잘 헤영 오주만 은.

102015 @ 경해도 요즘엔 딸 낳아사 호강헌텐 험니다. 아덜은 메뉴리 거고, 메뉴리 줘부는 거고.

102015 # 메뉴리도 서방 허는 거 뺑 막 잘헤여. 어명 산 때 경 시겨.

102015 @ 응.

102015 # 물질 갖당 큰 고기 쏘아지민 시아방 으정 강 국 끌렁 느 손으로 국 끌렁 그누렌 허고 경헤라게. 경헤난 사둔 닥지 안허게 우리 살앗주게. 경헤난 하르방 이제 상이시난 소상에 못 올 거난 별초 오랏단에 ‘어무니 어디파?’ 허난에 나 이만 저만 집이 잇저 허난 ‘어무니네 별초 오란 가명 오라방네 소상에 못 올거난 상 뺑

가켄 어머니 집 ㄴ리치레 감수다.' 헤여.

102015 @ 응.

102015 # 경허난에 메뉴리 두 개, 아덜 두 개, 사둔 허고 다섯이 오란 상에 다 절허연 줄 것이 없어. 줄 것이 엇으난 그때 마농이 콘테나로 값 앓당 나오게 코콜이 굿인 거 베편에 바삭 물런 콘테나로 놔뒀주게. 메뉴리 오민 까멍 주젠 놔뒀단. 아니 줄 것도 엇고 우리 딸은 점심 시킵센 허난 점심도 곧 먹언 오랏젠 못허게 허고 허난 이젠 그거 들런 오란 이거베끼 으져갈 거 엇젠 허난 메뉴리 두 개가 그 마농을 환장나게 좋아허여.

102015 @ 어디 사둔칩이?

102015 # 응,

102015 @ 메뉴리네?

102015 # 사둔 메뉴리네가.

102015 @ 아, 사둔칩이.

102015 # 우리 메뉴리 아주망덜이. 겐 막 지꺼전 허난 그때부편이 마농쫑 빵 조근조근 무껍 상자로 하나 반찬허렌 보내고.

102015 @ 응

102015 # 또 마농철 나민 영 허영 마농 뒤 마다리 허영 상자 담앙 주소 알아지 난 그자 사둔칩이 보내곡 허민 그디서 사둔이 갱이젓 헤영 보내고 사둔 닥게 안 살아져라. 사둔이 이제 새과랑헌디 해년디 바당에서 죽어불언.

102015 @ 아이고.

102015 # 아이고, 나 잘도 울어져라.

102015 @ 물에 들어갓단에 못 나완?

102015 # 응. 바당에서 죽언. 막 착헤연. 경 미깡밭이영 어떻사 험신디 미깡 허민 밧디서만 살아집니텐 미깡 타민 밧디서 그자 박스로 부짱 육지레 보내민 폴아주곡 험니텐 허멍 누게사 오란 말안 험신디.

102015 @ 응.

102015 # 우리 딸은, 우리 메뉴린 네 번채 딸. 다섯 번채 딸은 중문이 살아도 어 명광 정이 엇영.

3. 밧일

103001 @ 밧일은 어떤 거 어떤 거 헤 낫수과?

103001 # 밧일은 옛날에게 조허곡, 여름 나민 조허곡 콩 갈곡 산뒤도 같고게 이? 꿔도 갈곡 여름 농선, 그렇게 허는 거주게. 거난 여름엔 이 밧디 강으네 이제 갈민 조허는 밧은 이제 좁씨 빼어.

보리농사

103002 @ 음 그거 차례대로. 쉼 처음에 그림 여러 가지 농사했는데 그 중에 보리부터 처음부터 허게예?

103002 # 응 처음부터?

103002 @ 예. 보리부터예, 보린 허젠 허민 뭐 어떻 뭐 준비해근에 어떻 어떻 해근네 순서대로 허는 거짜?

103002 # 보린이 보린 갈젠허민이 쉼걸름 잇지, 쉼걸름. 돛통더레 담앗당 벤소 도야지 질르는 벤소에 담앗당 이제 보리 갈 철 나민 그걸 이제 걸름을 딱시 만딱 마당더레 떠와, 골채로이. 저 남자 어른은 골채레 담아주곡 딱시 예펜은 그걸 들영 내영 마당더레 내쳐. 내치민 이제 그것이 이젠 다 내친 이상에 보리씨 빼여 그 걸름더레. 보리씨 빼영은에 이젠 그 쉼로 불라. 쉼로 마당에서. 불영이네 또 어느 정도 서꺼진 거 닦으민 쉼스랑으로 또 이제 영 데싸. 데쌍 또 쉼로 불리민 이젠 이렇게 메와 놓주게. 메와 놓민 이제 또 밧디 시경 가젠 허민 그땐 구루마 엇엇어. 맥에 담양 맥에 담양 조근조근 불랑이네 쉼 질메에 그거게 망탱이 닦은 거 양착에 시꺼, 양착에 시경 강으네 풀영 밧디 강 놓으민 밧디서 이젠 그 걸름을 비와불주게. 망탱이 또 시경 오랑 담아오곡 허멍 허민 이젠 또 그 걸름을 밧딘 어떻 허느냐 허민 어멍은 강이네 어멍신디 골채로 그 걸름을 담아다 주민 어멍은 영 보듬영 탁탁 허데겨. 걸름을 허데경으네 허민 이제 딸덜은 강이네 이 걸름 병탱이를 풀어줘사주게. 다른 골채에 풀영이네 어멍신디 어져가든 어멍은 골을 잡양이네 허대경 갈민 보리가 나. 보리 나민 비료 뿌리곡 허여근에 보리가 되는 거주.

103002 @ 그 땐 옛날엔 비료도 없고예? 게민 보리 농사지을 때 뭐 준비해야 되는 거 뭐뭐 마씨?

103002 # 준비허게 되는 건 저우게 저, 그땐이 비료 엇으난 사람들이 오줌 싸주게. 오줌 싸민 통게에 받아. 통게에 막 받았당으네 허벽으로 정 강 보리 간 디 그릇에 비왕 짹짹 뿌려. 뿌리민 보리가 좋아. 경허여.

103003 @ 게민 아까 그 걸름은 어떻 행 멘드는 거짜?

103003 # 걸름은 쉼 질르민이 쉼막에서 쉼 질르민 쉼출 먹으민 쉼똥 싸곡 허지. 쉼똥 싸민 그 돛통드레 벤소 옛날 벤소 이서.

103003 @ 예, 도새기 기르는데예?

103003 # 응 그레 들이치민 도야지 똥도 싸고 그추룩 허영으네.

103003 @ 무신 것도 놔야 허지 안허여? 풀 같은거? 짹 닦은 거 안놔? 보리짹?

103003 # 아니 전시 짹이나 밧이나 쉼 먹으민 쉼똥에 걸름에 고치 낳으네 돛통드레 들이쳐. 들이청 돛통에서 그거 썩어. 그 출 두루 먹은 거영 썩으민 이제 흙 담주게. 경허민 이제 보리 갈 철 나민 이제 아방은 쉼스랑으로 골채레 담으민 또 딸 엇은 집은 어멍이 들렁 내어근에 마당드레 비왕이네 마당더레 조근조근 놓민 이제 보리씨 빼민 쉼스랑으로 보리씨 짓영 이젠 또 쉼로 불려 불령 또 똥쌍 또 불령이네 이젠 영영 데며. 막 너난이 데명이네 그때부턴 맥에 담양이네 밧디 시꺼당 탁탁 이

밭디 멧 개 어디 강 놀 거 허영 허민. 밧디 가민 어멍은 또 그 병탱이에 딸덜이나
놉이나 빌어근에 풀영 골채레 어디다 쥐사 허주게. 경허영 보리 갈곡 허주게.

103004 @ 언제쯤에 허는 거? 멧 월에?

103004 # 그거게 이제 가을 들민 시월 낭으네 가을 들영근에 허민 동지 선달에
걸름 내멍 보리 가는 거.

103004 @ 보린 누게가 갈아?

103004 # 그 집이 아방 시민 아방이 갈주게, 쉼로. 쉼로 걸름 낸 디 밧갈아.

103004 @ 아 밧을 먼저 갈아?

103004 # 아니 걸름 허데경.

103004 @ 아 걸름 먼저 빼여냥 그 다음에 밧을 갈아?

103004 # 어, 밧을 갈양 고지 멘들야. 고지 멘들면 자기대로 보리 나주게.

103004 @ 응 거난 어멍이 걸름에 헨 거 뿌리민 아방이 밧 갈양.

103004 # 응 밧 갈양 놔두민 이제 봄 나가민 보리가 나.

103005 @ 그럼 이거 보리씨 빼젠 허믄 어떻게근에 빼여야 잘 빼여지는 거라? 막
한 군데만 막 모여볼민 안돼잖아?

103005 # 아니 걸름에 놓민 걸름 마당에 골채로 아저다근에 조근조근 비우주게.
비우민 이제 벤소에 거 다 퍼당으네 마당 이빠이 고득게 놓민 이제 보리씨 어저당
으네 아무케나 막 뿌려.

103005 @ 아무케나 뿌려도 돼어?

103005 # 아무케나 마당에 걸름더레 보리씨 뿌리민 그 쉼스랑으로 영영영영 허멍
서꺼. 서끄민 또 쉼로 불러. 마당에서.

103005 @ 그럼 막 영 흐터정 이서? 한 군데 모이지 안허영?

103005 # 응 모이지 안허영 이제 쉼로 불러민 혼 번 돼싸. 그 걸름 블린 거 저레
내쳐똥 혼 번 돼쌍 또 이제 블린 이상에 다 불러정 씨 골로로 걸름 소곱에 물어정
잘 못 보는 동시엔 딱시 이렇게 메와 놓추게. 막 마당에 닌 거니까 이빠이 담야냥.
이제 그 맥에 담양으네 쉼 양착에 멧탱이 두 개로 담으민 쉼 양편이 툽툽 시경 강
으네 풀영으네 비우민 어멍네 갈젠 허민 또 어멍네가 보리 그 병탱이를 풀어쥐살
거 아니라 그러면 아이들은 강 골채에 다른 골채에 풀영 어멍 날라다 주민 어멍은
착착착 뿌리멍 그렇게 하민 뿌리는 대로 아방은 그대로 갈아. 계난 그 때는 비료도
엇엇어. 비료도 엇영 또 오줌 블르젠 한 걸 잘 행 나똥다근에 오줌 반양, 오줌 허벅
에 정 가근에 짹짹 뿌리민 특별리 뿌린데 보리가 그렇게 좋아.

103005 @ 그럼 그 오줌 걸름은 씨 빼여 냥 바로 허는 거라 흥똥 잇당 허는 거
라?

103005 # 보리, 오줌 뿌리는 건 보리 이제 밧디 강 난 이상에.

103005 @ 아 보리씩 난 다음에?

103005 # 응 난 다음에. 보리가 낭이네 자글자글 난 다음에 그걸 강 뿌리주게 봄
나가민.

103006 @ 응, 봄 나가민. 보리는 어떤 종류 어떤 종류 이서?

103006 # 그 땀 솔오리도 싯곡 곁보리도 싯곡 맥주 보린 내중에서 나서.

103006 @ 내중에서.

103006 # 맥주 보린 두 줄 보리.

103006 @ 두 줄로 영 난 거짜?

103006 # 응 두 줄로 난 거. 솔오린 그냥 영 행 멧 줄로 뵈 거고 곁보리도 멧 줄로 현 녀 즐산디 다섯 즐 산디 뵈는 거고. 맥주 보리렌 허는 거는 두 줄로만 뵈어. 맥주보리도 새해 난에 신식으로 그 맥주 보리가 육지서 저 허여오란 뵈거라. 연날엔 이디 곁보리, 곁보리가 그렇게 거칠곡이 곁보리가 맛도 엇엇어. 경행 그 맥주보리 요 어디서 오란 맥주보리 가난 맥주보리가 경 밥해도 맛이 좋고 또 솔오린 특별리 솔오리 갈민 솔오리 갈아근에 장만하민 솔오리로 개역해 먹고. 솔오린 껍데기가체가 없어.체가 엇어. 경혜근에 솔오리 밥이 더 문드로왕 맛도 좋고.

103006 @ 그럼 저 곁보리는 무사 뿌럼서? 다 솔오리 뿌리주.

103006 # 아이고 없는 사름은 곁보리도 허곡, 솔오리도. 맛이 좋은 밧은 이 좋은 밧은 솔오리 갈곡 맥주보리 갈민 잘 나는데 밧 나쁜 딴이 그거 안 타. 계민 곁보리로 연날 니 즐, 즐이 니 즐로 난 거 허영으네 곁보리 갈앗주게. 연날에.

103006 @ 아 땅이 안 좋은디?

103006 # 연날엔 곁보리 갈안. 이젠 참 신식이 뵈난 솔오리 나오곡 따시 맥주보리렌 현 건 두 즐 보리.

103007 @ 보리밧 영 밝아줘야 됩니까?

103007 # 불바취난. 연날엔 우리 어린 땀 안 불르단에 따시 개량뵈난에 보리 난에 탈박탈박 현 후젠 또 불리렌 해도 불리는 사름이 잘 없서서. 학생들 빌어근에 불리민 그 시절에 제국시절에 불림도 헤여서. 경해도 매 사름 밧은 불리지 안허연.

103007 @ 아 보리밧은 잘 안 불란?

103007 # 불려주민 돈돈헤영 땅에 보리 음넨허주만은. 경허곡 이 대정지기 위에 보리줄이 더 맛 좋코.

103007@ 아 이디 땅이 좋쿠나예?

103007# 응 대정 쪽 위에 보리가 더 맛 좋왕 저 정의, 서귀포렌 보리밥은 맛엇곡 서귀포렌 보리도 안 뵈어. 보리도 안 뵈어.

10308@ 보리밧에 검질은 어땡 맵니까?

10308# 보리밧은 검질이렌 현 건 대우리렌 현 거 이서. 대우리렌 현 거 보리 ㄱ치 나도 뜨난 거. 계민 검질은 잘 엇어. 그 대우리 메어불곡 허민 뵈곡.

10308@ 멧 번이나 메사뵈여?

10308 # 흔 번 메면 뵈곡게..

10308 @ 아 한 번 메민뵈여? 언제쑤에 메는 거짜?

10308 # 하엇튼 나민 메사주

10308 @ 아 봄 나민?

10308 # 봄 나근에 이제 저 보리 부루기 상이네 헤가민 그 대우리렌 현 건 딱난 종류난 알아져.

10308 @ 아 보리영 비슷해여?

10308 # 보리영 비슷해도 저 대우리렌 현 건 이런 이파리 돋은 디 눈이 엇어. 보린 잇는디 이파리 돋은 디 눈이 시난에 허곡 게민 캐기 전에도 눈 엇은 건 대우리로 알아근에 메곡.

10308 @ 응 보리밭딘 검질은 주로 대우리? 다른 검질은 잘 안나?

10308 # 잡검질은 잡검질은 잘 허민 그 즉시 나질 안헤낫어.

103010 @ 보리밭엔예? 이제 그른 보리 이제 멧 월달 이제 웨민 누렁헤집니까, 익습니까?

103010 # 봄 나민게. 봄 나민 이제 보리 이제 노랑행 익어가믄.

103010 # 베어사주예? 어떻행 비는 거라?

103010 # 비믄 호미로 다 비주게. 호미로 다 비어근에 이제 밧되서 물렁.

103010 @ 아 비영 영 그냥 영 널어놔?

103011 # 응 조근조근 비어낫당 물리민 이제 무꺼당 그뻐 클로 홀타서. 영 한 클로이. 클로 홀트민

103011 @ 집이서, 밧되서?

103011 # 집이서게. 마당에서 허여당 마당에 놀영 놀영 낫당 놀 빌영 홀트는 사름이 특별리 이서. 또 이거 영 앓아주는 사름도 특별리 아무나 이거 앓아주지 못헤. 확 잡아 덩기믄 확 주고 확 주고 헤사주게이? 경허난에 이거 쥐는 사름도 손 백른 사름, 홀트는 사름도 힘 좋아근에 허곡 그런 사름 택허여근에 아무날 우리 보리 홀타도라, 아무날 우리 보리 쥐여도라 허민. 홀트민 그래 영행 홀트민 고고리가 이디 털어러지는 건 털어지고 안 털어지는 건 또 젊은 어린 아이덜 현 열댓살 난 소나이래도 빌영 그걸 딱시 고고리를 이레 털어치워야 헤여.

103011 @ 어떻 털어치와?

103011 # 이렇게 클에 영행 홀트민 이디가 고고리 부튼양 싯주게? 부튼양 시민 이걸 잡아 덩경 저레 터리치와줘사.

103011 @ 다시 또 클에 혼 번 더허는 거?

103011 # 더허는 건 아니고, 터리치와다근에 또 이 저 맥타기로 두드나 맥타기 엇은 사름은 쉼로 불르나. 쉼로 반양 드러 블라. 불르멍 발로 그 고고리 젓어간다 젓어온다 영 불러근에 쉼똥 싸가민 솔방울로 똥고냥에 쉼똥 반양 다른 더레 던지곡.

103011 @ 아 쉼 블라가민. 보리냥 블를 때

103011 # 블라가민 똥 싸. 똥 싸 가곡 오줌 질질 싸 가민 박세기 들어근에 거름에 머허는 사름 아고 저 쉼 오줌 싹저 헤가민 그래 강 오줌 싹민 던지곡 똥 싸민 던지곡.

103011 @ 그른 그 밧되서 보리 다 비어근에 영 무끄젠 허민 똠로 무끄는 거라?

103011 # 무꿈은 그 보리로도 무끄고 또 새 비영 나뭇당이네 짹, 짹 닭은 걸로 새로 가근에 새왔디 강 비어근에 깨 털영 깨 털영 나뭇당근에 그걸로 무꿈도 허곡.

103011 @ 아 이 무끄는 게 깨?

103011 # 보리가 딱시 잘 나민 보리로 고고리로 혼 줌 쥐어 보리가 잘 안 나나민 그 보릿대로 못 무꺼. 그 보리가 낱이 나민 보리 고고리로 혼줌 쥐어근에 확 허게 오그리민 이거 별경 딱 무끄곡.

103012 @ 아 보리 낱으로도.

103012 # 응 보리로도 경 무꺼.

103012 @ 그럼 보리낱은 밧디서는 놀지 안허고 집이 왕 누는 거주예?

103012 # 응 집이 오랑 놀영근에 보리낱으로 불 싸멍 밥도 해 먹곡

103012 @ 게난 그 보리 다 홀타난 걸로 또다시 놀어?

103012 # 아 그 보릿대? 놀어야주게. 보릿대 그거 이제 영 홀탕 이레 놀민 그 사름 리 고고리 헉나 짹 심영 다듬으멍 그걸 이제 딱시 무꺼. 무경이네 놀어러. 놀영이네 허곡. ㄱ스락은 딱시 불려근에 헤나민 또 굴묵에 담아놔으네 굴묵 짓는 걸로 허곡.

103012 @ 그 혹시 저 도깨질도 헉니까?

103012 # 도깨질 허지 아니헌 건. 헌건 도깨질 못헤여게. 보리가 하질 아니헌 걸 무신거 댓 말쑤이나 헌 걸 도깨질헉 거니? 보리가 원체 하민이 도깨질 헉들영 못헤메. 도깨질 허당들 싸운 사름들도 이서.

103012 @ 무사?

103012 # 옛날에이 그 보리가 하민 참 마소라도 불령 홀타냥 마소로 불리멍 오줌 싸른 닭고 툽 싸면 닭곡 허는데 보리 하지 아니헌 건 그런 마췌도 엇인 사름들도 싹주게. 그러면 시어멍이영 메느리영 어양어양 허멍 도깨로 딱리는데 이제 냄펜은 그거 때리는 디 작대기로 영 뽕쓰고 경 허당근에 잘못허민 이 손등뎡이도 두드러지고이 이해성이 엇영 시어멍이영 싹는 수도 싹곡. 서툰민 손등뎡이 두드러 불주게. 서로 마주상이네 도깨로 딱리는데.

103012 @ 게민 이제 저 다 홀타나민 이거 보리쌀 행 밥 행 먹젠 허민 어뎡 행으네 허는 거짜?

103012 # 다 홀타냥 보리가 뽕민 연날엔 기계 엇은 뎡 물 ㄱ레에서 그 물 저다 놓곡 헤여근에 물 ㄱ레서 물이영 서경 보리, 걸보리 서경이네 방에 짜젠 허민 그 연날 그 연자방에 연자방에 미룻 물 저당근에 누가 서사주이. 잘못허민 스뎡 늦영 보리지도 못헤. 그럼 새벽에 우선 선발대로 허벅을 그 연자방에 물 저다 놓는 것이 순번이 뽕여. 경행 강근에 허민 이제 보리 어저당 그 방에 연자방더레 놓민 물 이제 그레 비우주게. 물 연자방에더레.

103012 @ 연자방에렌 헉니까? 돌방에렌 헉니까?

103012 # 돌방에, 돌방에

103012 @ 옛날엔 뽕엔 굴아나수과?

103012 # 방에렌 해주게. 경혜근에 돌방에서 물 서경 지명 허여근에 지민 이제 체영 쓸이영 서꺼질 거 아니? 서꺼지민 그거 이젠 다 이제 꺾테기 베껴지고 서꺼지민 이제 마당에 널어. 그 놈의 걸. 널었다근에 이제 물르민 또 브름 나른 불리고 그렇지 앓으민 푸는체로 쳐, 청이네 걸보리쫄은 초블 정 먹질 못허여. 경행 딱시 보리 쫄을 딱시 바삭 물렁 두 불 쥘. 두 불 지민 체 이룬디 박아진 거 또 푹푹히 저지주게. 경허민 딱시 마당에 널어근에 바삭 물리민 그레로 곶아

103012 @ 그럼 세 불 쥘는 거?

103012 # 그레로 곶민 세 불만 쥘는 거라. 그레로 곶아근에 청이네 소레긴 소레기밥허곡 그디 그루 난 건 그루 낱 걸로는 수제비 헤 먹곡 훑은 쫄은, 훑은 쫄 헤 먹곡 허단 기계 나난이 전시 기계로 가민 흥번에 다 정 나오랑이, 다 정 나오랑 먹단 이젠 돌방에 기계난 댐 돌방에로 저 낫주게. 경허당 이젠 또 기계가 정말 좋으난 마른 보리로 까까.

103012 @ 아 물 안 낱근에.

103012 # 물 아이 낱 가끄른 이 밥이 곤밥 닭양 맛좋은들. 경행 이제까지 헤여낫주게. 이젠 보리들 곶아근에 정 먹질 안헤영 산뒤 곶양 산뒤밥들로만 행 먹영이. 보리 가는 디가 드물어.

103013 @ 그른 보리쌀로 밥도 행 먹곡 또 무신 거 행 먹어?

103013 # 아 보리쌀로 밥을 주장 헤 먹주, 뭇 허느니게? 이제 딱시 개역도 행 먹곡 집이 이제 술 먹는 사람 이시른 보리허여근에 보리밥 허영 술헤여 낱도 념편에 게도 맥이곡. 경허여주.

103014 @ 그럼 보리낱허곡 보리꺾테기 같은 거영 다 어디어디 썬 마시? 데껴불진 안허지예?

103014 # 방에 지른 꺾테긴 도새기 맥이곡.

103014 @ 아 그건 뭇엔 곶암수와 보리채?

103014 # 보리채. 그건 도야지 맥영 키우곡 보리낱은 놓어두서 지들커허곡게. 불허는 지들커.

103014 @ 그시락은 아까 뭇헨덴?

103014 # 그시락은 곶목에 놉근에 곶목 짓고

103014 @ 아 곶목 짓고 그시락은?

103014 # 응 그시락은 곶목에 잔뜩 데멧당.

103014 @ 아까 그레에 곶 때 그 가루는 무신거렌 곶아. 이름 엇어?

103014 # 보릿그루.

103014 @ 그냥 보릿그루?

103014 # 보릿그루 곶명 보릿쫄 곶아나민 그루 나민 그건 딱시 저 누룩도 멘들고 이 그루로이 누룩도 멘들고 거기 또 즈진 보리쫄 이서 소레기. 소레기로 순다리도 헤영 먹곡. 게민 누룩 멘들 거로 헤엿다근에 겨울 때민 순다리 허여근에 헤 먹고 그추룩 허여주게.

103014 @ 보리허는 게 힘들어 낫지예?

103014 # 게 옛날에는 걸름 허멍 힘들엇주만은 요즘은 신식으로이 보리씨만 짹짹
빠여근에 비료 빼난에 막 살기 좋아시네. 이젠 보리도 아이 같아. 보리도 안 같아
이.

103015 @ 옛날 보리할 때 막 생각나는 일은 엇수과?

103015 # 생각나기는 그추룩 애만 썬주게.

103015 @ 아니 뭐 보리 헐 때, 뭐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현 건 엇수과?

103015 # 일어나지는 아니 허곡 그루후제 딱시 해방 뉘가난에, 옛날엔 보리 홀타
근에 도깨로 때리주게. 경허곡 한 사름은 딱시 몰로나 쉼로나 마당에서 불려근에
꺾스락 저 브름 나는 디로 문 들러당 그냥 들러 가져게. 그 무슨 골채로 허여근에
들러당 장남들이 들러당.

103015 @ 골채는 어떤 거?

103015 # 들러가는 골채 영 허는 거 이서. 경혜근에 불려다근에 또 방에 지민 그
것 보린 방에 지민 또 채가 잇주게. 채 시민 딱시 마당에서 물방에 정 물리왕 그
채 물리민 또 불려. 불령 이제 쓸 나민 쉼 도야지 맥이곡 딱시 물령 걸보린렌 현
건 멧 불을 저사 먹어. 초불 저선 이런 디 채 박아저근에 거칠영 먹질 못헤여.

103015 @ 보리를 막 하영 해나주예? 옛날엔?

103015 # 아이고 보리 하영 허곡, 경허단 보리 기계 난에 맥탁기로 때려 가가민
은 보리 서 못 어떤 집은 서른 섬 헛저. 멧 섬 헛저. 경허당 딱시 이 감저 절간허난
이 감저 빼때기 허영이.

103015 @ 감저 흐뎡 잇당 보리만 먼저 곶양 순서대로. 게민 보리 무사 옛날에는
보릿고개여 보리 익기 전이 강 타당 먹엇저 허는 말 허는디.

103015 # 보릿고개는 이 승년엔 보리 누릿누릿허민 이 가난한 집은 보리 익기 전
이 그 보릴 가근에 흐쫄 익은 디로 읊은 디로 비어당 이제 그 꺾스락 엇게 손으로
장만헤영 이젠 또 저 시리, 시리에 쳐 그 보릴 걸보릴 시리에 청 물르민 딱시 이제
시리에 청 이제 마당에서 물리왕 꺾로 곶민, 그때 사는 것이 사는 거냐이? 그
술오리민 허주만은 걸보릴 꺾에 곶명 영 꺾스락 그 채영 문 나가민 밥도 춤 입에
넣으민 수악행 먹도 못허명도 그것도 잇는 집이라사 엇인 집엔 엇어. 그런 것도 없
는 집엔 엇엇어.

조농사

103016 @ 그럼 이제 조 헤보게예, 조 줍쌀예? 조농사 허젠 허민 무신거 무신거
미리 준비헤야 됩니까?

103016 # 조허젠 허민 밧에 보리 그르에이 조 가져가근에 줍씨 빼영 갈민 이제
조가 검질 내영근에 조코구리 나민 비여당 이제 그 조코구리를 타당 고고리만 타당
낭뎡이에 이제 또 저 소 맥일 거로 허곡 허민 놉 빌어근에 앓앙들 막 조 타주게.
하영 부재침이사 놉 빌어근에 허주만은 가난한 집은 이녁 냥으로 타당근에 멧날메

칠 타당.

103017 @ 순서대로 헤보게예? 조팏딘 먼저 걸름 허매, 험니까?

103017 # 조팏딘 걸름 안 놔.

103017 @ 아 조팏딘 걸름 안 놔?

103017 # 응 걸름 아이 놔근에 그냥 허영 조씨 빼영.

103018 @ 언제, 언제 허여 조는?

103018 # 그건 게.

103018 @ 뭏 월에?

103018 # 다음에게 보리.

103018 @ 보리 혼 5월에 밍니까? 6월에 밍니까?

103018 # 5월 낭 비민 6월 낭이네 조를 허고, 7월에도 조를 허곡 순번으로게.

103018 @ 조 저 장마 끝나민?

103018 # 응 장마 끝나민.

103018 @ 허기 전이?

103018 # 장마 안 헤도 조 허곡 장마 끝낭도 이제 물 자꾸 앓는 딘 장마 끝나사 조씨 뿌리고 경 아닌 들른 및딘 장마 안에 헤여근에 마에 싹 나고.

103019 @ 아 마에? 줍싸 어떻 헝 뺨니까?

103019 # 그냥 그자 맥에 영영 뿌리멍.

103019 @ 맥 막 크지 안허여?

103019 # 멍텅이

103019 @ 멍텅이?

103019 # 들러 메영 멍텅이 들러 메영 빼여뒤근에 남젠 및 갈곡 허민

103019 @ 여자가 빼여?

103019 # 아니게 남자가 빼곡, 남자가 및 갈민 조 간딘 물로 불려야 조가 좋아. 안 불리민 안 뛴. 쉼로나 및을 브려야.

103019 @ 보리는 안 불려도 뛴는데 조는 불려사예? 줍씨는 빼젠허민 이것도 줍씨 쫓플락헌 거라부난 간딘 막 가고 안 간 딘 안 가고.

103019 # 경허난 아니 그래도 고지 길 잡앙 빠민 쪽 고르게 헤져.

103020 @ 아, 거문 아까 조팏 불릴 땐 어떻 헝 불리는 거파?

103020 # 조팏은 쉼 이신 사름은 쉼 이신 사름은 연매여근에 고지 잡앙 어려워 허멍 불려가민 줍씨 뛴 거 서꺼져근에 돈돈히.

103020 @ 무신거 매여근에? 연매여근에? 연이 뭐?

103020 # 쉼 두 개민 이리 연매여사게.

103020 @ 아 두 개 같이?

103020 # 응 게민 쉼 하나 큰 쉼 조름에 죽은 쉼 두 개 메곡 들 한 사름들은이 들 하민 들 하나 우미 심으민 들들은 와랑자랑 어랑자랑 ㄱ치 조름에 들민 ㄱ치 들야. 게난 우리 아방네도 들테가 시민 저 세계 사름들은이 여름 나민 그 조팏 불려

도렌 혜영이 우리 시집이 나 살 때 보민 비께, 비께 우선 선물로.

103020 @ 비께가 뭐?

103020 # 바당에 비께.

103020 @ 아 바닷게기?

103020 # 응 큰 거 스몹 가죽 벗겨뒀 혜 먹는 거. 그거 세계 사름들 우선 어저와. 조팍 불러 도렌. 조팍 불러릴 때 시아방이영 나영 들 몰양 가근에 와랑자랑 불러 오주게.

103020 @ 쉼 엇이민 혹시 낭이나 돌로도 영 험니까?

103020 # 돌로도 못헤여. 게난 쉼로 쉼 신 사람 쉼 하나로 불러민 졸바로 불러지 안 허주게. 게민 또 가시낭 비영 섬비 님은 거 허영 그레 돌 농곡 불러도 굴려도 불러지지 아니허민 어불통 어불통허민 그땐 저 섬비 쉼 조름에 그 섬비 매영근에 쉼 들멍 고르게 땡기민 문짝 바닥 골라 지주게.

103020 @ 섬비허는 건 무신 낭으로 험니까?

103020 # 산에 그 누룩낭이렌 현 거 이서. 누룩낭, 아무 낭이나 안돼여. 누룩낭이엔 현 거. 누룩낭으로 섬비 매영 영 행 매민 쉼 조름에 그거 허영 쉼 하나 두 개 불러민 건 골고루 불러지지 안허주게. 쉼로 멧 개 불러근에 마지막은 그 섬비로 ㅍ서 근에 조 나민 조킴질도.

103021 @ 조킴질은 어떻 맵니까?

103021 # 조킴질은 좇은 건 방 벌여근에 살려사주게. 방 벌영. 방 벌여사. 보리검질은 그자 나는 낭 좇이 나도 뒹곡 드물게 나도 뒹는다. 조는 좇으민 조코구리 이만씩 베끼 안허여. 똑 반 버무령 그자 허민 조쿠리가 이만씩 혜영 조도 좋곡.

103021 @ 어느 만이씩 벌령 허는 거짜?

103021 # 이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103021 @ 아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103021 # 응, 영영영영 매민.

103021 @ 그럼 조킴질 매는 건 힘들켜예?

103021 # 힘들어, 검질도 나곡 허민 검질도 초불 안 매여. 초불은 조 나민 소끄곡 두불은 검질 나민 검질 매곡.

103021 @ 아 초불은 그냥 소끄는 거곡 두불은 검질 매는 거고? 그럼 조킴질은 두 번 매는 거짜?

103021 # 응 두 번 매는 거.

103022 @ 보린 혼 번만 매도 뒹고? 그른 조팍디 검질은 어떤 검질 납니까?

103022 # 절완지

103022 @ 아 절완지?

103022 # 절완지영 복쿨이영.

103023 @ 복쿨이영 두 개가 쉼 하영 나? 조팍딘? 게민 이제 조 다 컨예? 조 비어살건디 멧 월달이민 조 빙니까?

103023 # 가을 들민 조 익어가민 비주게. 가을에.

103023 @ 어떻 비여 조는?

103023 # 호미로 조 비어근에 놔뒀당 물르민 무꺼당 집이서 이제 조코구리 툃앙.

103023 @ 응 보리허듯이? 보리랑 뭐가 달라?

103023 # 조코구리 이젠 집이 조 시꺼당근에 놔뒀서 조코구리만 따주게.

103023 @ 손으로? 손으로?

103023 # 호미로.

103023 @ 아 호미로, 흘테로 안 허고예?

103023 # 호미로 영 놔근에 조 이디서 잡앙 조코고리 따근에 이제 조짚은 그냥 무꺼근에 놓고 조코고리는 바삭 물리민 이제 저 물ㄴ레 강 물ㄴ레 강근에 조코고리 어정 가근에 빙빙 둘러가민 그 조 털어지주게. 게민 각지 허여근에 조각지 쉼 맥이고 조첸 도야지 맥이고 그추룩.

103023 @ 조는 이거 영 무끄젠 허민 하영씩 못 무끄지예?

103023 # 아니 이만씩 흔 아릅씩 무꺼.

103023 @ 흔 아릅씩 무꺼?

103023 # 조가 좋으민 조가 낭뎡이 낭 좋으민 조고고리로 확 오그령 툃 오그령 조낭 멧 개 헤영 탁 무끄곡 조낭이 낭 나지 안허연 건 새 비어당 어디 가근에 드르 팟에 강 새 헤여 어디 담에 새들 비영 그걸 깨 털어강근에 무짚 허민 조 깨 털영 무꾼 조코구린 요만씩허주게. 요만씩, 조 좋으민 고고리가 이만씩허민 조낭 멧 개 영 조코고리 싹 오글영 조 무끄는다.

103024 @ 그민 이것도 저 도깨로 헤근에 두드리기도 험니까? 조도.

103024 # 도깨로도 두들곡 또 물ㄴ령 가근에 고ㄴ리 어정 강 물ㄴ령서 둥그리멍 영영 허영 강메기 허멍 허곡

103024 @ 강메기가 뭐?

103024 # 그 각지, 각지.

103024 @ 응 조 꺾데기?

103024 # 조 고고리에 그 낭뎡이가 싹주게. 경허곡 채영 무시거 털어져도 그 터 력이 이서. 그거 조각지엔 헤여. 조각지 그거 조각지 다 털어지믄 털멍 허여근에 담 아당 쉼.

103024 @ 조강메기가 그거?

103024 # 응, 조강메기 그거.

103024 @ 그거 마께로도 영 뺏아?

103024 # 마께로도 두들곡. 하지 안헤사 그 한 것사 마께로 두드려지느냐? 거난 고고리 막 타당 조 한 사름들 열 말지기썸이나 허민 맥으로 멧 개 담아당근에 물ㄴ 레레 강 탕 나뒀서 흔번 놓아근에 방에서 둥그리민 각진 각지냥으로 조는 조냥으로 담아두곡 그거 막허영 이제 각진 조각진 쉼 맥이곡 이젠 채영 싹주게. 그건 딱시 집에 오랑근에 쉼막에서 푸민 조첸 도새기 맥이곡, 각진 쉼 맥이곡.

103024 @ 응 거난 마께로도 조끔만.

103024 # 마께로는 하찮은 거 두들리고 댓 말지기 여남은 말지기 허든 마께로 어
뎡 때릴 말이나?

103025 @ 게민 좁쌀 멘들젠 허민 들방에 가야 되는거예?

103025 # 좁쌀 멩글젠 허든 딱시 그뎡 기계 엇은 뎡이 물ㄴ래서 조 어정 강 바싹
들렁 물ㄴ래서 쉼내와근에 빠져.

103025 @ 그뎡 물 안 놔?

103025 # 물 아이 낳게. 물른 채 막 저가민 채가 나오민 이젠 딱시 그거 문딱 퍼
근에 또 푸는로 퍼. 물ㄴ래 신 디서 푸는채로 퍼근에 니 하나씩 시민 또 두볼 저.
두볼 저근에 그거 불려근에 좁쌀 헤 먹곡.

103025 @ 그디서 그냥. 집이 안 가정 왕?

103025 # 기계 날 뎡 기계에 가근에 한 번에 잘잘 기계에 느리고.

103025 @ 그림 그거 들방에 갈 때는 물ㄴ래 그거 허레 갈 때는 무신거 무신거
아상 가야돼여?

103025 # 물ㄴ래 갈 뎡게 무신거 어정 가느니? 그 저 조코고리 장만허레 갈 뎡,
장만허레 갈 뎡 그자 조코고리 강으네 물ㄴ래 낳으네 그 뺏아주렌 행 허민 이제 그
각지, 각진 이제 둥글치민 솔박 가져 강근에 하루 담으곡 또 채영 ㄴ치 담아 조 채
영 담양으네 이젠 경 두 가지에 갈려지민 조각지 그건 조코구리 부터난 건 그냥 털
명 조광울 아이 부뜨게 허영, 그건 그냥 무슨 맥에 담아당 쉼 맥이고 조채영 헌 건
집에 어져다근에 쉼막에서 퍼근에 조찬 도야지 맥이곡 조는 그대로 들렁 또 방에
지명 쉼 멘들곡.

103026 @ 좁쌀로는 무신거 무신거 행 먹는 거짜?

103026 # 좁쌀은게 보리밥 솟아근에 버질버질헤가민 좁쌀 서경도 먹곡 딱시 좁쌀
로 집이 술 먹는 사름 이시민 좁쌀 술헤여 낳근에 술도 허여근에 저 지주로도 쓰
곡.

103026 @ 떡도 행 먹고?

103026 # 떡도 행 먹고게, 좁쌀 떡. 맛종주게

103026 @ 보리밥에 영 흐쉴 놓는 거 말고도 좁쌀로만도 밥 행 먹어?

103026 # 조팍으로도 행 먹어. 좁쌀 보리쌀 겨울에 매 집이 시카부덴. 옛날엔 매
집이 엇어. 가난헌 집인 흐린좁쌀도 엇어. 모인 좁쌀로 밥허민 가르특허게 스뎡 밥
은 하영 먹어도 배고프곡. 흐린좁쌀은 찰기가 이서근에 부재칩이가 흐린 좁쌀이 싯
곡. 가난한 집인 흐린좁쌀도 엇어.

103026 @ 좁쌀도 여러 종류가 잇주예?

103026 # 게.

103026 @ 무신 좁쌀, 무신 좁쌀?

103026 # 흐린좁쌀이여, 모인좁쌀이여, 검은 좁쌀도 잇고 경허주.

103026 @ 조 뺏 뎡 무신 조, 무신 조 이서?

103026 # 조 빨 때게 검은조도 빼여근에.

103026 @ 그냥 검은조, 흐린 조만 험니까?

103026 # 흐린조영, 모인조영.

103026 @ 뭐 막 이름도 이선계만은? 개발시리어 뭐 강돌와리여 허는 거 이서라?
어떤 거, 어떤 거 이수과? 옛날에 뭐 하영 해나수과?

103026 # 동대기엔 현 거

103026 @ 동대기?

103026 # 응 동대기 고고리

103026 @ 그건 흐린 거?

103026 # 조팍 강 보민 고고리가 이만씩 해근에 막 허민 아이고 누게네 밧디 강
보난 조코고리 동대기 고고리가 물탁물탁 조도 좋아라 경허주게. 비료도 아이 주민
조코고리가 요만씩 해여.

103026 @ 조 종류가 여러 개 잇는게 아니고?

103026 # 응 여러 개 이서. 흐린조도 잇고, 모인조도 잇곡.

103027 @ 그럼 아까 조짚은 쉼 맥이고? 쉼 잘 먹읍니까?

103027 # 아이고 아니 쥬 못 먹나.

103027 @ 엇영 못 먹어? 쉼이 조짚을 좋아험니까?

103027 # 조짚게. 조짚을 누게 쥬서? 쉼 쥬주게. 산뒤짚이나 조짚이나.

103027 @ 산뒤짚이나 조짚이나. 조 농사 험 땀 뭍가 쥬 험든 거 뭍마썸?

103027 # 조 농사 험 땀? 밧이 흐쥬 쥬 밧은 쥬씨 빼영 공구리 쳐똥 돈돈히 블라
사 씨 잘 사. 두루 블리민 두루 블려진 딴 박씩 나근에 쥬씨가 안 사. 안나.

103027 @ 박씩 나근에? 박씩 나는 게 뭍?

103027 # 조 안 낭, 안 난 디 강 박씩 낫젠 허여. 기추축 허민 공구리 마당ㄴ치
쥬각허게 블리민 조가 구짜 나고 경허민 물테 이신 사름들은 저 세계 밧블리레 가
민 잘 블리민 조 잘나곡 경헤. ㄴ쥬 엇은 사름 이녁 쥬로 블리는 거 닥고 사름 발
로 흐쥬 블리민이 조가 쥬바로 안 나. 것도 험들엇어 옛날에.

103027 @ 거난 조 블리는 게 쥬 험들구나, 조는 예? 보리는 걸름 만드는 게 험
들고.

103027 # 걸름도 만드는 거 험들지 안허여. 옛날에 쥬 질르민 쥬걸름 돛통더레
들어치지. 또 보리 갈젠 허민 돛통에 걸름 마당더레 파내영 이제 골루루 뉘근에 블
랑 마당에 골채로 다 비우주게. 비우민 쥬스랑으로 영영 글라 우불두불헌 디 보리
씨 다 들어가카부덴 경허민 영영 탕기명 글라근에 이제 보리씨 빼영 빼여근에 이젠
또 쥬로 블려. 쥬로 블령 따시 이제 똬쌍으네 또 블령근에 이젠 영 똬민 맥에 담으
명 밧디 시꺼 가곡.

103027 @ 조 하영 해낫수과, 할머니 옛날에?

103027 # 조도 하영 허주. 이 대정 지경에 조가 맛종고. 대정 지경에 보리쥬이
맛 종곡.

103028 @ 얼마나 하영 험니까 보통? 부제칩이.

103028 # 부제칩이 어이구 조 멧 섬씩 허곡 보리쌀도 서른 섬 헛저, 마흔 섬 헛저. 옛날에게 하르방네도 보리쌀 멧 섬씩. 우리 거기 우리 저 하르방네도이 보리 섬 우리 집인이 보리가 원체 밧도 좋곡, 밧덜이 다 사계 밧덜이난이 보리 좋으므니 맥타기 허는 사름들이 저 내령 오랑이네 기계 맥타기 허젠 허민 강 가와들 빼어다근 에 우선 이녁 거 허젠 문 허곡 헤도 맥타기 임자네가 우리 보리 아무날 클 두 개 앞전에 장남 둘이 행 흘탐젠 허민 으레껏 허여도렌 헤도 우리 집인 오더라게. 보리 큰 두 놀 놀민 장남 둘이 빌령 하는 사름도 돌리 뒤치는 건 흘튼 디 빠내는 사름도 돌리 허영 허민 낭 무끄는 사름 허민, 게민 보리 홀타 논 것이 춤말로 눈 많은 두 개 허주게. 게민 옛날에 사름들이 맥타기 허영 보리 때리주게. 지네 걸로 알앙이네 우선 오랑 헤취라게.

콩 농사

103029 @ 게민 이제 콩헤보게, 콩, 콩은 어떻 허는 거파?

103029 # 콩은이 보리 쫓나믄이 보리 쫓나민 그냥 콩씨 빼영 갈아. 콩씨 빼영 갈곡 또 야속헌 사름은이 콩 빼영 간디 콩고랑에 녹디 흐나씩 문드려이. 녹디 문드려 놔두민 콩도 나곡 녹디도 나믄 녹디 먼저 게민 콩 비기 전이 먼저 뽑으멍 비멍 허영 장만허곡 콩은 말제사 장만허곡 요즘은 녹딘 잘 안 갈아도 콩을 경 하영 갈앙들 멧 섬씩 헛젠 허고 한다.

103030 @ 그럼 콩은 언제 가는 거파?

103030 # 콩은 이제 이 보리 쫓나믄 조 하는 때영 ㄴ치 골주게

103030 @ 그럼 이 밧딘 조 갈곡 이 밧딘 콩 갈곡 영 허는 거파?

103030 # 감저도 싱글 ㄴ리에 감저 싱그저 그뎨 여름엔 콩 갈저 조 갈저 감저 싱그저 잘도 바빠.

103031 @ 콩밧딘 걸름 안허여?

103031 # 콩에도 걸름 안허고 조밧딘 그자 조가 어떻 안됨직 허믄 비료나 흐쫓 주주 비료도 안 쥐낫어.

103032 @ 응 비료 엇일 뎨예? 콩씨는 게난 아까 밧 갈아난 디레 영영 골로 뿌리는 거파?

103032 # 아니 갈기 전이 콩씨 빼여.

103032 @ 아 갈기 전이 빼영 그 다음 갈아?

103032 # 빼영 그냥 갈아.

103033 @ 콩밧디 검질은 어떻 매어?

103033 # 검질은 매여사.

103033 @ 멧 번이나 매사?

103033 # 흐 번.

103033 @ 것도 흐 번이면 뉘어?

103033 # 콩 검질은 무조건 팔월 낭 흔 번 맨다.

103033 @ 팔월 낭?

103033 # 조 검질은 두 번 매곡. 산뒤 허믄 산뒤 검질은 세 번 매야.

103034 @ 콩밭된 어떤 검질이 하영 납니까?

103034 # 절완지영 그 복쿨이영 헨 것들 많이 난다게.

103034 @ 아 똑ㄱ타 조영? 무신 검질이 켈 매기 굿어?

103034 # 절완지가 짓으면 절완지가 매기 굿어. 절완지는 딱 줄 버드멍 땅 부떠네 절완지렌. 절완지가 매기 굿어.

103035 @ 게민 콩 다 익언예? 게민 어떻허여? 콩 어떻 타는 거봐?

103035 # 콩 이젠이 기계로 비어도.

103035 @ 옛날에는?

103035 # 옛날에는 손으로 콩 비주게.

103035 @ 어떻헤근예?

103035 # 손으로 호미로 비어. 비어 노민 이제 그거 매왕이네 기계로도 때리곡 집이 시꺼당 무경 시꺼당 마당에 낱도 때리곡. 흐뎡 헨 거 마당에 낱 때리지 이제 하도 신식이 뉘난 콩도 기계로 싹 강 비영 기계서 잘잘 나온다.

103035 @ 옛날에 옛날에 기계 엇일 때 어떻 헤나수과?

103035 # 기계 엇일 때 콩 거꺼근예.

103035 @ 콩 먼저 비영 호미로 비영 그 다음 어떻헤? 것도 그디서 불러?

103035 # 새 비영 꿰 털민 콩낭 이만씩 헤영 무경 이제 쉼에 시꺼당 집이 놉근예 도깨로 따려. 어야홍어야홍 따령 우이 다 따려진 거 털어진 거 닻으면 또 마당에 논 거 뉘싸. 뉘쌍 또 두드려 콩낭은 콩낭대로 허곡 콩은 따시 보름 나는 디 강 불리곡. 이젠 얼마나 살기 좋고 농사 짓기 좋암시니?

103036 @ 게난예 그럼 콩으론 무신거 무신거 헤 먹는 거봐?

103036 # 콩은 무신거 헤 먹느니. 옛날엔이 못 사는 사름들은이 조 모원 좁쌀이렌 헨거 이서. 모인 좁쌀에 콩 곱아당으네 죽 썰 먹곡. 콩국도 끌령 먹곡. 경허주마는 요즘은이 콩으로 음식 별로 헤여먹지 안허여. 메주나 허곡 그자.

103036 @ 콩늑물도 행?

103036 # 콩늑물들도 이제 낱 푼는데 시난. 옛날엔 식게 허젠 허민 두말들이 시리로 콩 놉근예 드리 물 주멍 헛다근예 콩늑물로 헨 이젠 제사 돌아와도 콩늑물 사당 먹곡.

103036 @ 콩ㄱ루는 뭐 행 먹읍니까, 콩ㄱ루 곱민.

103036 # 콩ㄱ루 헤여근예게 콩국도 끌령 먹곡이 또 죽도 썰 먹고 죽 쏘 뎡 엇은 사름은 모원 좁쌀에 콩ㄱ루 서꺼근예 물 삭삭 비어가멍 들이청 짓으멍 허영 늑물 썰어놉근예 콩죽 쑈곡 이신 사름은 고운 쏘에 콩ㄱ루에 서꺼근예 물 삭삭 정헤영 들이청 허영 따시 늑물 썰어놉근예 죽 썰 먹곡 기추룩 헤여.

103037 @ 그 콩꼬질? 콩겹데기? 콩대?

103037 # 콩깍데기. 콩깍지엔 허주게. 그건 쉼 맥이고.
 103037 @ 그 다음 낭은?
 103037 # 낭도 쉼 맥이고.
 103037 @ 낭은 뭐엔 글라?
 103037 # 그냥 콩낭이렌 허주게. 콩낭도 쉼 잘 먹으난게
 103037 @ 아 쉼 잘 먹으난. 것도 놀영 놔뒀당 쉼 주고?
 103037 # 흔 쉼이 데명 놔다근에 부제칩인 한다. 하간 것이 한다.
 103037 @ 콩 농사 짓는데 특별히 어렵거나 힘든 건 엇어?
 103037 # 어렵지 안허여. 콩농사 간단헤여. 콩은 갈앙 그자 콩 검질 간단허게 매
 곡 뒤 두 불도 아이 매곡 초벌 매영 내불곡 콩 거꺼근에 몰르민 어저다근에 이제
 두드러불민 뒤곡 이젠 기계 나난 콩 거꺼근에 메와노민 기계로 따려주곡 콩낭이 이
 만이 나민 기계 디밀앙 확 비명 두들곡 얼마나 살기들 좋아시니?
 103037 @ 옛날에는 경해도 콩이 흥끔 편안헌 거? 농사 짓는 거 중에서는?
 103037 # 응 콩은 편안헤여. 검질도 경 흔 번만 매곡.

밭벼 농사

103039 @ 그민 이제 산뒤. 산뒤허젠 허민 먼저 산뒤 허기 전에 미리 준비헤야
 돼는 거 뒤 이수과?
 103039 # 산뒤 허젠 행 미리 준비하는 건 엇어. 저 밧 변행 놔당 산뒤 허젠 허민
 검질 나지 못허게 내불민 검질 하영 날 거난 밧을 미리 미리 갈앙 놔뒀다근에 산뒤
 허민 검질 하영 아이 낭이. 산뒤 나민 초불 검질허민 산디도.
 103039 @ 아까 무신거 밧 변행 놔뒀당? 변허는 건 어떤 거?
 103039 # 흔 변 뒤쓰는 거.
 103039 @ 아 초불 가는 거구나예?
 103039 # 응 초불 가는 거.
 103040 @ 그믐 산된 언제 가는 거파?
 103040 # 산뒤? 산된 이제 오월들에들 가는 거주게.
 103040 @ 오월달에 보리 비기 전이?
 103040 # 응, 비기 전이 갈아근에 산뒤가 막 나.
 103040 @ 어 보리 빌 때 뒤민?
 103040 # 경헤근에 보리 막 장만헤 낭 그때 산뒤 검질들 막 매여.
 103040 @ 산뒤는 어뎡 행 가는 거 마씨?
 103040 # 산뒤도 그냥 바닥에 비영 갈아.
 103040 @ 아 먼저 뺨영 그 다음엔 쉼로 밧 갈아?
 103040 # 응, 산뒤 간 딤 넜쉼로 불리도 안허곡 그건 마에 허는 거난 마에 나는
 거난이. 경행 그자 산뒤 검질은 세 불 매여사허.
 103043 @ 산된 세 불 매사뒤여? 검질을?

103043 # 응 산뒤 검질 두 불 땀 땀 이디 문딱 누슬양 홀타불곡 야게기도 산뒤 이디 문 홀타불곡.

103043 @ 그거 영 자라면서 산뒤 자라면서?

103043 # 응 산뒤 영 세와농민 그걸로 누슬야 산뒤 그 냥.

103044 @ 산뒤 냥 이파리가 누슬야? 아까 산뒤 씨는 그냥 영영 빼면 똬는 거예? 그럼 산뒤 밧디 검질은 어떤 게 하영 납니까?

103044 # 산뒤 밧디 검질이렌 헌 걸 절완지, 복쿨 나오민 초불 매곡, 두불 매어도 또 검질 시민 세불ㄱ지 매여.

103044 @ 세불 땀 때도 젤 하영 나는 게 절완지하고 복쿨?

103044 # 응 하나씩 무끄는 것이 커근에 매여 불어사주 이녁 밧은이? 늬의 밧 보는 사름들은 졸바로 매도 아니헌다. 씨 제왕 내불어.

103044 @ 검질도 매젠 허민 수눌어 가명 늬의 밧디 매주곡 험니까?

103044 # 응 늬의 밧디 매어 쥬은에.

103043 @ 헤사 우리 밧디도 와서 헤주고? 검질 매는 거 흔 번 곱아쥬서. 어떻게 검질 맵니까?

103043 # 검질 매는 거게 이 밧디 멧 사름 매갓다 허민 멧 사름 수눌영 가근에 그 사름네 께 매어쥬 멧 사름 수눌영 딱시 사름이 부작허민 다시 매어주켤 헤근에 수눌어근에 강 매어근에 산뒤 검질도 두불 매곡 조컴질도 두불 매곡.

103043 @ 검질도 잘 매는 사름 싯곡 못 매는 사름 싯주예?

103043 # 그럼, 그럼.

103043 @ 어떻게 사람이 잘 매는 사름이파?

103043 # 아멩헤도 걸싼 사름이 잘 매주.

103043 @ 걸싼 사름? 그 어떤 게 걸싼 사름?

103043 # 잘 허는 사름. 나 미칠 사름은 엇어. 강 들어보라

103043 @ 검질도 잘 매낫수과?

103043 # 아이구 쥬로 밧도 갈아낫저.

103043 @ 검질 땀 때는 영 ㄱ치 영 앓양 쥬주런히 앓양 영 매여가?

103043 # 꾸작 앓아근에 헛주. 다 흔 고지쥬.

103043 @ 꾸작 앓아근에 흔 고지쥬? 케민 어떤 사름은 저만이 가고 어떤 사름은 막 조름에 떨어질 거 아니파예?

103043 # 떨어지면 어떻게 허느냐게 험 수 엇주게.

103043 @ 그럼 잘 허는 사름은 뭤엔 허고 못허는 사름은 뭤엔 허곡 곤는 말 엇어?

103043 # 잘 허는 사름도 못하는 사름네 매여쥬 ㄱ치 수눌영 가는 것이 쥬주게. 손 메영 가근에 허는 것이 쥬야.

103043 @ 손 메우는 건 어떤 거?

103043 # 아니 사름들이 험치 메왕 강 허는 거지.

103045 @ 아 여러 명이. 게민 이제 밧 산뒤 익언예? 그럼 그것도 비어사 험니께.

103045 # 비어사주.

103045 @ 호미로 영 비영 밧드서.

103045 # 물리와

103045 @ 물리와? 그냥 바닥이?

103045 # 응. 바닥이 그자 비명 착착 낱은에 물리민 놔근에 시꺼당 보리 흘트들이 영 홀타. 홀타근에 또 마당에 놔근에 도깨로 ㄱ스락 털어지게 두듬도 허곡 경아이헌 사름은 딱시 물 ㄱ레에 시꺼당 허는 사름도 싯곡 경헤. 우리 시집은 물이 하난 산뒤 하영 행도 물테우리 강 흥 번 와르르르 허민 물들이 와닥닥와닥닥 불려. 보리도 경허영 불리곡 경허더라.

103045 @ 아 물릴 때?

103045 # 응 물릴 때. ㄱ스락 털어지게.

103045 @ 아 ㄱ스락 털어지게 흥 번 영 블라불어? 홀타난 다음에?

103045 # 홀타난 다음에.

103045 @ 그 마당에 벧 좋은 날은 무사 명석 영 깔앙 날레도 널고 영 험니께?

103045 # 명석 아이 깔앙 흑땅에 그냥.

103045 @ 흑땅에 그냥?

103045 # 흑땅게 공구리나 다름 엇엇주게. 경허난 그냥.

103046 @ 거기 해근에 햇빛 난 날은 영 물리곡예? 경헛당 물방에 강 쫓으 오곡? 다른 거영 다 비슷비슷헌디 저 산된 경헤도 흥품 더 여러 번 험사험니까? 곱게 험밥험 맥이젠 허민? 멧 번이나 물방에 그건 험사뉘여?

103046 # 산뒤? 산뒤도 그 두불 진 뿐이주 두불 저. 조도 두불 지곡 다 두불 저도 쫓 나오게 쉨겨난이? 초불 저근에 푼대로 평 이젠 두불 지주게. 그 가을 곡석은. 조영 이젠 산된 허주마는. 보리는 물 ㄱ레서 물 낱으네 지민 물 ㄱ레 물허벽 저다근에 물 ㄱ레서 물방에 지민 채 나오민 또 그것도 이제 마당에 명석에 널영 그 채 물리민 이제 꽤 평 브름 나민 브름에 불리나. 기영 안허민 평 또 그 보리쫓을 바싹 물러 물렁 이제 두불 저사 먹주이. 또 이젠 두불 질 댘 또 이젠 물 저다근에 물 흥 쫓 낱은에 물 ㄱ레서 또 두불 저.

103046 @ 산뒤도 게민 물 ㄱ레서 두불 질 때 물 놔사뉘여?

103046 # 아니 산뒤는 므른 체. 조도 므른 체.

103046 @ 아 게민 보리만 물 놔근에 가는 거파? 다른 건 다 므른 체 허곡?

103046 # 조영 산뒤는 므른 체 허여. 경허난 보린 물 놔근에 두불도 초불 저놔근에 두불도 물 낱 저도 거칠어. 경허민이 ㄱ레서 곱아. 두불 진 것도.

103046 @ 거른 저 산뒤로 식게라도 밥 허젠 허민 그냥 물방에서 정 두불 지민 밥헤져? 또 ㄱ레에 안 곱아도?

103046 # 응 밥헤여. 산뒤밥 헤여

103046 @ 산뒤 쌀로 헌 밥은 평상시에 먹는 건 아니잖아예? 식게 때나 먹는 거

아니?

103046 # 식게 때나 먹주게. 또 일헐 때 서경 먹곡.

103046 @ 아 일할 때 서꺼근에. 무신거에 보리에 서경?

103046 # 보리밥 헐 때에게 우에 서꺼근에 장남들 맥이곡.

103046 @ 어. 게민 산뒤론 주로 식게 때 밥허는 거 일할 때 밥하는 거 말고 또 무신거 헝 먹읍니까?

103046 # 떡게, 떡도 헝 먹고 산뒤로 떡도 헤여근에 크게 출리는 던 시리 앓정 시리떡을 치곡 크게 안허는 던 새미 즘으나 송펜을 즘으나 허영 먹고 경허주게. 크게 출리는 집들은 시리에 처근에 곤떡은 시리에 비왕 빗떡으로 비곡 식게 하영 안출리는 집은 그자 새미 즘양도 먹곡 기추록 헤여.

103046 @ 빗떡? 빗떡은 뭐?

103046 # 빗으로 빈 거. 시리에 청 빗으로 빈 거.

103047 @ 아 시리에 청 빗으로 영 잘른 거? 산뒤집은 무신거 합니까?

103047 # 산뒤집은 쉼도 맥이곡게 빛을 허느냐? 그자 쉼 주장허주게.

103047 @ 쉼 주장? 뭐 헐 때 끌기도 허지 안헤?

103047 # 아니.

103047 @ 안 끌아? 그걸로 뭐 신발도 삼아?

103047 # 건 나룩집으로.

103047 @ 건 나룩집? 산뒤집은 안돼여?

103047 # 산뒤집 요만씩 헐 거. 나룩집으로 신 삼아.

103047 @ 그럼 산뒤집은 쓸 데 엇어?

103047 # 산뒤집은 쫄라근에 허지 못허여 나룩집으로 신 삼아근에. 나룩집으로 이제 맥도 즐곡

103047 @ 게민 산뒤집은 쉼 맥이는 거 뿐 헐 거 없구나예?

103047 # 쉼 맥이는 거뿐.

103047 @ 이거 거민 이것도 고고리나 껌데기 이수게?

103047 # 채.

103047 @ 채 것도 도새기 쥐?

103047 # 도새기 주고.

103047 @ 거난 주로 채는 도새기 주고 낭은 쉼 주고,

103047 # 산뒤.

103047 @ 산뒤도 경허고 콩도 경허곡?

103047 # 나룩도 채 쉼 주곡 나룩낭은 딱시 맥 좃곡.

103047 @ 나룩 말고 이제 산뒤, 산뒤는?

103047 # 산뒤낭은 맥도 못 즐아. 나룩집은 헛다근에 맥 이쁘게 좃는 사람 싯곡 명석도 좃곡 신도 삼곡.

103047 @ 아 나룩은. 이디도 나룩 헤 낫수과?

103047 # 나룩헛주게. 논덜 이션.

103047 @ 아 이디도 논 잇구나예? 아 요디 보성드레?

103047 # 아니 산을 막 난에 허연 밧디들 다 나룩덜 겁나게덜 헤 먹어났어.

고구마 농사

103049 @ 그럼 이제 감저 헤보게예 감저.

103049 # 고구마? 고구마 메 낫당 감저에 갈 때엔 탕은에 집이 낫당 봄 나민 이제 감저에 가근에 우영에 묻영 놔두주게. 묻어 놔두민 줄 나민 줄은 이제 질게 나민 이만큼씩 꼬창 가민 밧 갈명 툽툽 싱그주게. 싱경 놔두민 이제 감저 들민 그 줄 거뒀 비어뒤근에 감저 손으로 파고게.

103049 @ 계난 감저 허젠 허민 미리 준비헤 놔둬야 돼쿠다예? 어떻게?

103049 @ 계. 감저씨 놔 두젠 허민 이젠 감저씨 신식 나난 육지 강 사당 허곡 웨방 강 사단 헛주이. 옛날엔 감저 파다근에 우영에 구멍이 파. 구멍이 팡 보릿대 영 사방에 세와. 감저씨 이제 그디 으져다근에 비우주게. 비와근에 이젠 행 나뒀다 근에 봄 나가민 그 감저 내여근에 이제 우영에 묻영 놔두민 줄 나주게. 줄 나민 이제 비어. 요만씩.

103049 @ 줄만 비어?

103049 # 줄만 비어근에 밧디 가민 줄을 싱그는 거라 싱그민 감저 터.

103050 @ 감전 계난 언제 싱그는 거파? 줄 언제 강 밧디 강 심읍니까? 줄 요멘 씩 즐랑헌 거.

103050 # 감전 멀지 안행 가을쯤 팔 때 뒷주게. 파게 뒷어.

103050 @ 싱그는 건 언제 싱그는 거라?

103050 # 싱그는 거 봄 감저 내논다게.

103051 @ 아 감저 메는 봄에 놓는 거구나예? 감저 밧디도 걸름 험니까?

103051 # 감저 싱그젠 허민 비료줘사 주게

103051 @ 비료 안 날 때.

103051 # 비료 옛날에 안 쓸 땐 감저 즐바로 들어서냐게?

103051 @ 따로 걸름 주는 거 없구나예?

103051 # 엇어났어. 그냥 보리 그르에 갈아근에 감저 싱그민 감저 무시거 줄거리 만 존존 헛는디 이젠 신식 비료 다락 주민 감저 이만씩한 감저영. 우리 딸네 감저 하영 싱진.

103052 @ 계민 감전 아까 감저줄 싱그민 그디 영 밑에 영 나는 거구나예?

103052 # 감저 영 싱경 놔두민 줄로 감저 들어 줄로이. 감저 들민 이젠 또 그 줄을 걸주게. 거뒷불어 뒤근에 또 쉼로 이젠 기계로 갈주게. 기계로 갈민 감저 나오주게.

103052 @ 옛날에는 어떻 헤수과?

103052 # 줄 거뒷근에 쉼로 갈앗주게. 쉼로 갈곡 흐쉴씩 헌 건 손으로 파곡. 요

즘 밧 감저들 서뭇 열말지기영 무신 스무말지기영 현 사름들 손으로 파느냐? 줄 거 뒤근에 다 기계로 잘잘잘 갈민 조름에들 예펜들 막 좃어놓민 선별허는 사름들이 준 거 허는 사람 굿은 거 허는 사름 선별허영 탁탁 팔곡 나쁜 거 문 그차진 건 공장더 레 시끄곡.

103052 @ 옛날엔 줄 먼저 다 거뿔 그 다음 췌가 갈아? 췌가 갈민 좃어근에 영 감자 담양 오는 거?

103052 # 췌가 밧 가운데로 갈민 헤싸지민 예펜들이 앓아근에 그 좃으멍 놓민.

103053 @ 게민 감저 밧디도 검질 매사헐 거 아니짜예?

103053 # 매여. 감저 밧디도 매어.

103053 @ 그딘 멧 번 헤여?

103053 # 흔 번개

103054 @ 아 흔 번만 매민 웨어? 감저밧디도 나는 검질은 절완지?

103054 # 절완지도 나고 잠검질도 나.

103054 @ 잠검질은 뭐 이수과?

103054 # 복쿨영 뭐 허드랑헌 거 하영 나.

103054 @ 아까 복쿨이영 또 절완지 복쿨 말곤 또 엇어?

103054 # 췌비눔도 나곡 여러 가지 나. 하도 비료만 쓰는 따문 검질 종류가 하.

103056 @ 게민 감저 늘 헤근에 나뵤다근에 팜도 먹고 허는 거짜?

103056 # 이젠 감저 늘 허영 허지 안 허여.

103056 @ 옛날에, 옛날에.

103056 # 옛날엔 감저 우영에 구뵤이 팜 보릿대 영 문헝 세완 그레 헤영 놀르멍 뵤썩헛당 겨울에 먹음도 허곡 봄 나른 따시 그 감저 파내근에 따시 우영에 묻으주 게. 줄 나른 그 줄 나주마는 요즘은 이런 온돌방들 하난 박스에 담주게. 박스에 담 으민 온돌방이영 더운디 흔 멧 개 착착 놔두민 안 썩어. 안 썩어. 옛날엔 우리 어린 뵤 그 구들에 이제 무시거 백장이렌 현 거 이섯어. 이불 놓는 백장. 그 백장에 찻가 멩이로 담앗다근에 찻가멩이 채 다 세우주게. 구들 두 개민 흔착 구들 허민 세왕이 네 그리 이제 사발에 물 거렁 찻가멩이에 감저 논 디 툫툫 낡 놔뵤. 그 감저가 빨 아 먹는지 물 굴어. 경허다근에 봄 나민 그 감저 이제 허는디 요즘은 박스에 담아, 박스에 담아근에 이런 온돌방 저런 구석에 조근조근 데멍 나뵤 봄 나도록 먹어도 썩도 안헤. 안 썩어

103056 @ 안 썩어? 썩던데 나는?

103056 # 안 썩어근에 경허른 먹당 남은 건 허주게.

103057 @ 감저 빼때기는 어떻 헝 허는 거짜?

103057 # 감저 빼때기는 옛날엔 기계로 썰엇주게. 기계로 썰엇인디 요즘은 감저 빼때기 안 허여. 옛날엔 이디서 대정골서 감저 빼때기 헐 때 한 사름이 이백 개 헛 저. 삼백 개 헛저, 경헌디.

103057 @ 가마니로? 마다리로?

103057 @ 가마니로.

103057 @ 가마니로 이백 개 삼백 개?

103057 @ 응, 이백 개 삼백 개 헐 땀이 우린이 밧디 잔뜩 가마니로 담아 오라근에 대정골 오라근에 저울이민 글라. 이 대정골 보리도 덕수 밧디 보리허영 혼 말쑤은 더 낚사 근이 나가곡 이디건 혼 말을 덜 낚사 근이 댜어.

103057 @ 땅이 이디가 더 좋안예?

103057 # 응 고구마도 경헐어. 덕숫밧디 고구만이 그 가마니에 낚근에 우이 막 부수와근에 이빠이 담아서 제 근수 나가곡 이디에 가마니 주둥이에 오그리게 댜어. 이 대정골 건 근이 나가.

103057 @ 그럼 밧디서 옛날엔 빼때기 만들엇수과?

103057 # 아고 빼때기덜 이백 개 삼백 개.

103057 @ 그거 어떻 행 댜는 거과? 기계에?

103057 # 기계로 썰영.

103057 @ 기계로 썰영 밧디서 몰려?

103057 # 감저 이젠 파주. 파민 이제 메와노민 기계 어저다근에 막 썰주게. 썰민 그 감저 썬 건 골채에 담아다근에 주민 착착 뿌리주게. 그 밧에 전시 널어.

103057 @ 아 밧디. 뭐 깔앙? 바닥에 뭐 깔아?

103057 # 아니 깔아. 흑바닥에 다 깔아근에 이제 허대경 너두민 이젠 물름만 허민 들여야주게. 잘못 들인건 썩음도 허민 값도 아이 주고이.

103057 @ 비와불민 큰일나쿠다예.

103057 # 썩지 아니혀사 값도 잘 받곡. 경허여.

103057 @ 옛날엔 그것도 공출행 가난.

103057 # 공출은 아니허곡 그거 허연 돈 벌엇주게.

103057 @ 전분공장?

103057 # 전분 공장행 그건 딱시 감저 썰 나우 엇은 거 전분 공장에 지금도 전분 공장에 들여. 감저 막 꼬차진 것덜 이제 혼 착 꼬차진 것 존 거 ㄹ튼 건 사가지 아니허는 따문 그건 큰 마다리에 담으민 전분 공장에 다 시꺼가.

103056 @ 파치를 전분 공장에 보내는 거구나예?

103057 # 파치도 응 막 꼬차진 것덜 훤은 감저도 반씩 꼬차지고 허민. 고진 건 풀곡.

103057 @ 빼때긴 헛당 뉘허는 거과?

103057 # 이젠 빼대기도 안헤여.

103057 @ 게난. 옛날엔 빼때기 경 하영 행 뉘허는 거?

103057 # 빼때기 허난에 공출헤시네게.

103057 @ 공출?

103057 # 응 누게네 집에 멧 백 개 헛저 누게네 집에 멧 백 개 헛저 허멍 게난 이 대정골 보성 사름들은 빼때기 이백 개 헛저 삼백 개 헛저. 우리도 백 개 허는

디이 덕숫밧디 거 근이 안 나가라게. 이디 밧디 거여 오랑 허여 보민 골채로 반씩 은 더 놔사. 덕수렌이 흑이 죽으난이 메다가 안 나가. 보리도 그래 보리도.

103057 @ 감전눌 헛다근에 그걸로 다음에 씨고구마 허는 거지예? 씨감저예? 씨 감저가 그거 놔두는 거?

103057 # 씨감저 이젠 구텡이 팡 묻지 안허여. 방안에 낫당.

103057 @ 옛날엔 구텡이 팡 묻어 낫던 거예?

103057 # 다 이제 구들이 서너 개씩 해근에 시민 박스로 멧 개 톡톡 행 놔두민 게.

103058 @ 고구마 그 즐기는 감저줄은 뭐 허는 거마씨?

103058 # 감저줄은 옛날엔 쉼 먹엇주만은 요즘은 감저줄 손으로 것도 아니허곡 경운기도 문딱 부수멍 부좌불어. 기계로 다 썰어 불어. 썰어 불민 다음엔 이제 그 이파리 더러 시든 거 닦으민 뒷날부터 경운기로 달달달 다 갈아가민 감저 나오민 사름들이 감저 다 좇어넣은에.

103058 @ 옛날엔 감자줄 뭘해 나수과?

103058 # 옛날엔 손으로 거뒤근에 쉼 맥여시네게. 쉼 맥여.

103058 @ 응 쉼 맥영. 주로 감저줄은 쉼 맥이는 걸로만 씨? 다른 거 쓰는 건 엇어?

103058 # 다른 건 엇어난.

103059 @ 감저허멍 특별히 힘들거나 기억나는 일은 엇수과?

103059 # 기억 나는 건 엇곡 나가 우리 시집이 경 그추록 시어멍네영 살단에 시어멍 죽어불고 허난에 이제 그 밧 이제 덕숫밧디 열두 말지기에 반은 조허곡 반은 이제 감저 싱그난에 이제 수늘영 그거 판에 하루 이제 막 매와냥 기계로 그 댐 반에 기계 하나 나완. 그 반에 하나 나오민 순번 이서사 할거게. 경행 이제 동건이 어멍 빌언에 파난에 이제 또 지네거 허여 도렌 허곡 허여 가난에 재게 그거 썰진 못허게 댜연. 동건이 어멍네건 강 하루 허여뵈에 기젤 맞추난 이제 저녁 썰어사주 이제 저녁 안 썰민 순번으로 저 다른 사름 가민 저 대정골 지경 서들이렌 현디 가민 흘 사흘 서사 온덴 허난 아이고 계민 어멍허리 허연이 우리 셋년ㄴ라 감절 막 매와노렌 행 나뵈주게. 우린 일허러 뎡기멍 매와노렌 행 나두난 매와놔선게. 밤인 이제 우리 큰년은 나신디레 들러다 놓렌 허곡 셋년은 딱시 골채레 담아주곡 허연 그 밧디 썰어시네. 썰어네 이젠 이틀 시난에 비가 오게 댜여.

103059 @ 아이고.

103059 # 이틀 시난 비가 오게 댜난 아이고 비 오면 어멍허리 이거 썩으민 어멍허리 헨게 그자 그걸 그자 이틀 시들시들허난 이틀 뵈 날은 삼일 시민 비 온덴 허난 그거 뚜집게 썰곡 현건디 그거 나 문짝이 담아당이 마당에 널어시네. 마당에 너난 술내가 나라, 술냄새가, 그 썩은 냄새 술내가 팡팡 나도이 마당에 널어근에 이레 널영 뵈삿닥 저레 뵈삿딱 허멍이 옆이 피죽은이 토루 허고이 너풀너풀 감저 잘뵈난 훑은 거 지각허난에 이젠 공판 이젠 사해, 이젠 풀게 뵈 거 아니. 풀게 뵈난 저 서

부락 상사 저 끝에 시경 가렌 허민 쉼구루마도 엇곡 허난에 이젠 놈의 구루마 빌언
 에 시경 가젠 허난 시경 가난에 서부락 상사신디 강보난 질르레 밋밋 사름들 막 스
 못 하영 현 사름들이난 우린 저 도루묵더레 새동네ㄴ지 가사 그걸 놈의 구루마에
 빌언 시경강 푸게 뉘연. 푸게 뉘연 이제 간디 아니 가난에 이제 나도 이젠 그디 가
 고 현디 강 보난에 대정골 우리 어머니 육촌이 아덜이 감저 공판허는디 서기로 간
 게. 아덜이. 서기로 가난에 나 이제 그디 저울 잇는 거 보젠이 저울 떼놔근에 탁 저
 울이는디 보곡 검사 허는 거 보젠 들어 가난에 그 서기 현 아이가 아이고 누님도
 감저 허젠 읍디강 허난 어 감저 하진 아니허다마는 시꺼 오란 저디 잇저. 경허난
 놔둬서 이 저울신 근방에 다 자리 비우민 저울이영 들어가 나민 이레 어저 읍서 허
 난 나가 그거 어떻 그걸 저오느니. 경허난이 그 서기가 놔뒀당 이레 자리협썸 허난
 이 사름들 잘도 고마와. 대옥이넌 하나 어저다 주지도 안헤라. 서부락 사름들이 그
 말 들엇덴 화다탁 화다탁 그디 간 매영당 탁탁 놔 줘라게. 경허난 감저난 피죽은
 옆이 건이 딱로 허곡 너풀너풀허게 썸어도 썸은 거 몰라. 혁부떠부난이. 썸은 거 몰
 르고 놈들은 밋디서 난 거 푸린 곰팡이, 흰 곰팡이, 붉은 곰팡이 헤도 난 감저가 혁
 이 부떠부난 곰팡일 못 봐. 경현디 피죽으로 현 거 난 담양 갖주게.

103059 @ 피죽은 무슨거?

103059 # 피죽이렌 현 건 옆이 꺾테기. 꺾테긴 트루 골려. 트루 골런 이건 피죽,
 이건 이거우텐 허난 이제 그 이거 검사하는 사름ㄴㄴ라 아이고 나가 이거 나 혼자
 살명 밤인 기계도 엇연 밤이 기계로 빌언 썰곡 허난에 나 혼자 스못 기가 막히게
 현거난 양님 멧개 줍썸 헛주게.

103059 @ 양님이 뭐?

103059 # 흐쓸 생각해 도렌 현 말로. 양님 이거 멧 개 줍서게 허난이 그 사름은
 탁탁 검사만 행 가곡 도장 찍는 사름이 또 이서. 것도 육지놈 흐나는. 저 양반 보고
 곧으시오 헤라게. 경허난 그 사름은 아 나가 이만저만행 혼자 사는 사름인디 애기
 들이영 밤에 간에 썰언 이거 기가 막히게 현 거 요건 나쁜 거고 요건 좋은 거우텐
 허난 혁 부떠부난 곰팡이 핀 거 못 봐. 거멍헤부난이. 멘날 널었다 대쌌다 헤근에
 물리기도 잘 물렸젠 허고 허연 양님 주렌 허난이 스물 다섯 개 일등으로 줘라게.
 스물 다섯 마다리. 일등으로 주난이 하도 고마원게. 그 서기 어디 가불지 안헤시민
 우리 어머니 육촌의 아들인디 대정골 가인 살고 현디 오꼳 육지 가불언 만나지 못
 헤연. 너미너미 그 고마원이. 계민 이녁 핏줄이 좋은 거라. 핏줄이 경허난 그 서기
 가 누님이렌 허곡 허난 그 사름들 검사원들도 흐꿈 생각해주고이. 경허난이 이제
 우리 아기 아방이 그때 뒷 혈 때 산지사이 그 검사원들 돌아당 독 잡양 맥이난에
 일등헛젠 날 곱아. 아이고 그런 모략ㄴ지 헤라. 아이고. 사름이 경허는 거 아니주게.
 올바르게 깨끗허게 허믄이 경허난 밋디서 넌 건이 문딱 감저들이 이추룩 거못불긋
 거못불긋허고 검은 것도 모르고 붉은 것도 몰라 막 흑에서만 막 둥그려부난이. 꺼
 경봐사 곰팡이 핀 거 알주. 멘들어 놓난 물건 닳게 멘들긴 헛저게.

기타 농사

103060 @ 게민 이 동넨 수박이나 참웨 같은 건 안헤낫지예?

103060 # 전인 흐끔씩 헤낫저.

103060 @ 헤낫수과?

103060 # 겐디 이젠 안헤여.

103060 @ 거난 전인 어떻 행 헤낫수과?

103061 # 춤웬이 우리 사우가 셋사우가 모슬포서 춤웨 허민 춤웨 메놀 때 와도렌 현다. 춤웨 메 놓민.

103061 @ 메는 어떻 놓는 거파?

103061 # 씨로 하우스에서 메 놔. 하우스에서 메 놓민 이젠 또 호박 메도 놓주게. 호박메 놓민 그 호박줄이 저 실현 곱아. 춤웨 순 땅에 호박에 어디서 순 따근에 까까똥 요레 톱 부치민이 집게로 톱 잡아. 톱 잡양은에 그 하우스서 어느 정도 킁 줄이 요만이 번으민 또 밧디 강 싱경 비니루 더끄주게. 밧디 강 듨성듨성 싱성 비니루 더끄민 이젠 강 보민 드랑드랑드랑드랑 열암서. 열암시민 딱시 이제 그 이과 리 큰 이과리 일곱 개 하나 둘 일곱 개 세와난 다음엔 마지막으로 쫄르는 것이 이서. 마지막으로 그 쫄라불렌 허민 그거 가지 돌아근에 다 번잉이 춤웨가 이만씩 올라. 춤웨가 이만씩 열민 우리 사우네가 최고 춤웨 일등헤여. 게난 다른 사름들은 춤웨 죽어붙어저 밧헛저 헤도 삼 년이나 춤웨 헤영 막 잘뉘민 상인이 춤웨 헤여네 오랑은에 막 참웨 탐수뉘민 허민 날 곱아 오렌 헤영 현다게. 막 장남 빌어근에 날르민. 이디 우리 얘기 아방도 강은에 어쩔 땐 날르젠 허민 젊은 놈은 탁허게 콘테나 들른 디 진 못허켄 영행 오랑 날르곡 허민 춤웨 최고 고리 열앙 익은 건이 우리 셋사우가 저 후라시만씩 현 거 서너 개 탕 오랑, 탕 오랑은에 아니 춤웨 벌써 익어시냐 허난 최고 고리로 올라 익은 거는 아버지 드리젠 탄 와수뉘민 헤근에 서너느 개 탄 온다게. 매해 3년이나 경 타당 울 아버지, 하르방 맥여라게. 지네 아방 아니라도이. 경 맥이멍 허영 고맙곡 허연게 춤 그디 강 그추룩 허민 이젠 마지막은 마지막 비우게 뉘민 막 마지막도 춤웨 잘 열안. 잘 여난에 날 곱아 그 동건이네 친한 철에 아난 이제 이만저만헤네 그 어머니네 그 시퀸당 동건이네 보레 오랑은에 춤웨 오랑이네 마지막으로 탕 가렌 허렌 허민이 타당 먹으렌 허민 마지막 탈 거라도 탕 풀 거서도 안 타근에 내불민 올 때이 저 우리 큰집이 우리 하르방 각시허곡 동건이 각시네 두 가지 오랑 경운기 주렌 헤영 이빠이 타곡 딱시 이제 저 마다리에 또 타놓고 행 시켜 간다게. 시켜 가도이 지네 거 멧 년 미짱헤도 우리 아이네 미짱 요거 멧 개 어져당 주렌 우리 그디 덕수리 동부락이 가민 밧 댓말지기 싯저. 밧디서 경운기에 미짱 타근에 선과장더레 시켜 가명도 멧 개 쉼 먹어본디 엇다. 사름이른 쥐야허주이. 삼 년이나 그추룩 헤연에 해당 먹어라, 게도 하나도 아이 쉼게. 우리 사우가 마지막으로 호박 메 놔주커메 수박 메 놔주커메 어머니네 보리 비여나건 수박을 싱급써 헤라게. 경허난 경허켄 행 보리가 늦언 재게 못 비언. 못 비난 수박 메가 지레기가 이만씩 나불언게. 경허난 비언에 이젠 우리 사우가 허는 말이 보리낭 헤여근

에 다 무꺼근에 놀영 놔둡센. 놀영 놔두민 수박줄 받아가민 수박 줄 받는 데레 특
특 보리낭 서쿨씩 노민 그 보리데에 얽으멍 수박줄이 받읍니텐 혜연. 아니 그 수박
은 오란 신문지 질이 만씩 현 걸 어져 오란 싱근디 문딱 몰란 죽어불언.

103062 @ 어뜨난?

103062 # 몰라, 죽어부난 사우신디 수박 멘 다 죽어불엇저 허난 수박 멘 멩 겁니
다. 문 땡겨반에 프리롱 헛건 살아납니텐. 마 뉘민 그것이 살아납니텐 허난. 아 이
제 오란 문 혜 보난에 요추룩 현 거 파리롱 행 이서라게. 아이구 이젠 잘뻘젠 혜근
에 옛날에 통으로 오줌을 서너 개 받은 게 지난 하루방그라 시경 급센 혜연 바가스
에 비와네이 그 수박 싱근 곳에 좀 먼 발로 즐락즐락 쥘 놔뉘, 쥘 놔두난 마에 뉘
난 탁 벌겨네 이제 빛이 다 더꺼진 거 아니가? 더꺼지난 시에서 온 사름이 수박행
좋앗젠 허난 오란에 종지 만씩 현 거 미릇 수정 세영 오백원 주켤.

103063 @ 아 익기도 전이?

103060 # 응 타기 전이. 주커메 수정 세영 다 주켤. 경허난 게 다음에 오민 다음
에 들어뿡 사우한티 의논혜영 허켤 허난 사운 야 이만씩 현 거 오백원 주켤 헤라
허난 우리 춤웨 으져가는 상인헌티 곱아 보쿠텐 행 그 사름은 오란 또 그거만씩 현
걸 칠백 원 주켤. 칠백 원 주켤 허난 그 빛을 다 더꺼지난이 흐루 두 차 탐센 흐루
흐차 타렌 허민 저디 하르방 손지 달고 우리 셋뜰에 손지 오랑 하나씩 날르렌 허주
게. 날르민 행실머리 우리 하르방 나빠도 나가 이해혜영이 지네 손진 두 개 주곡
또 우리 손진 하나만 주는 거라. 경해도 곱갈랑 줍젠 나 일부로 곤질 안헛저. 그런
가 행 내불엇지이. 곱아가른 싸와지곡 허는다. 이제 큰집은 가게 보난 가게에 이제
냥 풀거메 존 것도 싯걸당 주민 하르방 존 거 멧 번 타가도 존 거 얼마사 받앙 풀
아신디 원 돈 한 푼 받아오는 양도 없고 현디 흐 번은 하르방 큰 아덜이 친구 하나
달고 허여네 탈탈이 몰앙 오랏어라. 수박 타주민 풀아다 주크텐. 수박 흐 탈탈이 타
주난에 풀아사 떡엇인디 어디사 혜신디 간 곳이 엇어, 간 곳이 엇어이. 그추룩해도
어땡 허느니 내불주이. 내불영 허민 나가 놋물 배추 저디 우리 오라방 허민 누님
쩍시 놔뉘수다. 우리 애기 아방이 덕수 살 때난 놔 뉘시난 캐어 가렌 허민 우리 애
기 아방 오랑 캐어 가렌 허주게. 게민 백열 풀기 캐어보든 백열 풀기라라게. 난 열
풀기만 허주 백 풀기는 시경 가민 이 선생 어명이렌 허는 사름 이서. 혜장, 혜장 허
는 어른이랑 다섯 풀기 주곡 그디 고야마할망이 식게 넘어나민 우리 애기 떡 주렌
행 주민 그 할망이영 서너 풀기 주곡 저 폭낭 아래 00어명이렌 현 사름 서났저. 지
금 죽어불언. 경 그 어른도 서너 풀기 줍센 허여 혜 놔두민 흐 얼마 시민 오랏어,
하르방이. 저 고야마 할망네영 배추 쥘 허민 주지 못허게 헛어 저 혜장만 줘서. 허
난 혜장은 멧 풀기 혜장 십 풀기만 줘서 다섯 풀기 더 주젠 허난 큰집이 주지 못허
게 해서 안 줘서게. 아니 무사 지네 거옌. 아니 나가 주렌 현 걸 무슨 따문 안 줘시
넌 허명이. 야 삼년이나 노물 캐강 경 주렌 해도 그 이선생네 어명이옌 혜장은 주
고 그 할망들신딘 하나도 아이 쥘게. 지거라도 헛티.

103060 @ 계난.

103060 # 그런 나쁜 사름이 어디 시느니?

103060 @ 계난 수박하고 참웨는 막 옛날에는 안 헤낫지예?

103060 # 응.

103062 @ 요새야 현 거주예? 나중에야예? 고치도 헤나수과?

103062 # 응 고치 허난이 삼 년생 사당 싱그난이 그디가 널르난에 뭇을 허련헝 고추씨 사당 막 널어 놔두난 팔월 나난에 고치가 지락허게 올라서라게. 여난 타당은 옥상에서 물리콧 타당 옥상 물리콧 허난에 큰 마다리로 아홉 개 물려져라.

103062 @ 아이고 경 하영?

103062 # 이젠 저디 저 서울 약국 우리 삼촌네가 저 우이 미깡 밧허난 날그라 놓 빌어근에 미깡 타도렌 허난 미깡 타레 가난 우리 서울 약국 어멍그라 양 나 이 상태 허여근에양 고치 아홉 마다리 물려져 십디다게 허난 집에 어저 오라 나 풀아주마 허연 집이 넌 거영 열한 마다리 시꺼간 그 삼촌네 한 마다리 물린 걸 큰 마다리로 하나 물린 건 먹읍센 허콧 열 마다린 풀아줘라게. 경허난 이 하르방이 우리집이 땡기단 죽은집인 고치 하영 열한 경헝젠 자랑허난 고치 도렌 헤렌, 큰집이. 도렌 허난 나 물령은 안 주켄. 혼물 익결랑 타가렌헝. 흐룬 시난에 오고렌 연락완. 저 차부에 오고렌 허난 하르방이영 간에 이젠 타레간에 이젠 탈만 헤신가 헝 강 보난이 정부미 마다리로 다섯 개 탄 여섯 개째를 앗앙 탐서라. 허난 저 알녁편이 두 판이 남아, 경허난 밍상발황 그거 다 타 가렌 허주마는이 지넌 그 사름들은이 우리 애기나 나나 우리 애기 제사 먹으레 가도 떡 혼 번 어저 오지도 안헌디. 저거랑 타가지 맏서. 뜰네 오랑 타당 먹으렌 허켄 허난 하르방도 맞다 허명 헝 헤신게. 나거 그만큼 먹어도이 지넌 손 폐우지 안허연 식게 넘어나도 우리 애기한테 떡 혼 번 날 쌍 강 주렌 안허여.

103062 @ 고친 거난 영 낭 싱그는 거파?

103062 # 응 낭 싱거. 그냥 고치씨 빼여 놔두난에.

103062 @ 씨 빼여 놔두민 기냥 나는 거?

103062 # 경허여네 고치 문 허엿주게. 경허영.

103063 @ 배추나 무도?

103063 # 배추도 무도 씨로 질르고 배추도 씨로 질와.

103063 @ 아 씨로 질러?

103063 # 경헤근에 사느디 이제 우리 아덜이 구월 들에 잔치 허젠 허난에 하르방네가 옛날 집이 살앗주게이. 옛날집이 검질로 불 숨는 디 살아나난에 우리 아덜 풀게 돼난에.

103065 @ 할머니 감저도 헤난? 아니 아니 지슬 지슬, 지슬도 이제 하영 허지예?

103065 # 이제 지슬 하영 헝들 지슬, 가을 지슬 이제 파게 뵈주게.

103065 @ 지슬은 어떻헝 하는 거파?

103065 # 지슬은 어떻허느니. 지슬씨 낫다근에 지슬씨로 강으네 또 논다게.

103065 @ 씨로 강으네?

103065 # 응 씨로 강. 지슬씨 놀 땀이 지슬썬 눈이 이서. 눈 시민 큰지슬 눈 신
달로 돌르멍 묻곡이 존건 그냥 묻곡이. 경혀근에 방 벌영 이만씩 묻나게.

103065 @ 아 방 벌영.

103065 # 응 방 벌영. 거민 훑은 건 썰영 그 눈 바리멍 눈 바리멍 썰어근에 눈
돌르멍 묻곡 족은 건 그자 반착 그차근에 묻곡.

103065 @ 거른 언제 짝 나근에 큼니까?

103065 # 기민 이제 봄이건 허민 이제 파게 뒤편. 이제 파게 뒤편주게.

103065 @ 그럼 두 번 봐여?

103065 # 두 번. 가을 지슬도 허곡. 봄 지슬도 허곡.

103065 @ 아 봄에 농민 이제 파게 뒤편 가을에 노민.

103065 # 봄이 파게 뒤편.

103065 @ 아 봄에 파게 뒤편? 두 번 헤지는 거구나예?

103065 # 응.

103065 @ 언제께 맛 좋습니까?

103065 # 응?

103065 @ 어느 게 맛좋아?

103065 # 아무 때라도 맛 존나, 지슬은. 고구만 이제 파게들 뒤편주게. 고구마, 꺾
슬 때는 이제 막 파. 작년이 고구마 우리 뜯은 밭 두 개, 삼년 인디. 이디서 멧 개
으져오라 이디서 멧 개 으져 오라 허민 팡이네 으져감을 바빴. 놉 빌언 문 배달해
시네.

10306 @ 옛날에도 감저 헤나수과? 아니 지슬도 헤나수과?

103065 # 옛날에 우리 어린 때도 지슬 헤난.

103065 @ 아 그때도 지슬을 헤난?

103065 # 그 때 지슬은 잘 안뒤편, 토종이여난이 안뒤편. 경헿게 이젠 막 지슬들
이만씩들 뒤편.

103065 @ 요번이 준 지슬 베경으네 준 것도 청 먹으난 잘도 맛좋아라.

103065 # 그거 고을 지슬 가네 그,

103065 @ 이제사 이제사 판 거.

103065 # 응 흐썬 파고렌. 먹젠.

103065 @ 먹젠? 아직 다 안뒤편도?

103065 # 응 흐썬 판에 이제 나신디 베경 두 봉다리 으져 와서라게. 겨난 이제
니 한 봉다리 줘시네.

103067 @ 모멸도 헤나수과 이디?

103067 # 모멸도 허주게. 모멸은이 칠월들에 모멸 놉근에 가을에 빈다.

103065 @ 금방 자라는구나예? 한 두석달 만에 나?

103067 # 아니 모멸은 이 칠월들에 모멸 놓주게. 우리 어린 때 우리 어머니네 칠
월들에 모멸밭 가젠 허민이 새벽에 칠월에 밭갈젠 허민 더우는 따문 새벽에 캄캄한

때 강으네 가민 모멸 갈 때 모멸 씨 불채에 서경 강으네 어머니신디 날라다주민 영 영영 방 벌영 영 놔. 기민 쇠로 갈아근에 가을 때민 그 뉘여근에 장만하곡 허주게. 경허른 그 모멸쓸도 모멸도 베씩 물리민이 그레에서이 두불 골락 세불 골락 헤영 모멸쓸 멘들기도 힘들어. 계난 모멸쓸 아무나 멘들도 못헤여. 계난이 이 공장에 오 랑 모멸 겁지레 온 사름덜 그 칠 중 몰랑 흘 중 몰랑 나 올린 어뜨난 모멸 겁짓는 데 와줍센 안험저. 올힌 모멸이 엇은그라이? 혼 댓헤이 큰 공장에 모멸 겁지레 오 민 삼촌 오랑으네 모멸 겁져줍센 허민.

103067 @ 겁짓는 게 어떻허는 거?

103067 # 꺾데기 벳기는 거. 기계로 벳기른 그 멧 번 치는 거라. 한 번에 치지 안히영. 큰쓸 멘들곡 줌진쓸 멘들곡 말젠 그루도 나오곡.

103067 @ 그거 뭐 따로 따로 이름 따로 이수과?

103067 # 계.

103067 @ 뉘렌 골라?

103067 # 훑은쓸은 모멸쓸 훑은 소래기쓸이렌 허곡 그디 그루는 논쟁이 그루엔 허곡

103067 @ 아, 논쟁이 그루렌 허고

103069 # 논쟁이 그루 범벅도 행 맛 좋곡 허곡 없는 사름은 수제비도 행 맛 좋 아. 지지미도 헤영 맛 좋곡.

103067 @ 옛날에도 모멸쓸 하영 헤 이수과?

103067 # 옛날에 모멸 우리 아버지네도 불채에 모멸 씨 헤영 어멍 강 영영 뿌리 민 어멍신디 모멸채 골채로 날라다 놓민 어멍이 경 헤여 낫주게.

103067 @ 옛날도 헤난예?

103067 # 이젠이 저 웃드르레 모멸덜 하영 갈아신디 어멍 안뉘신그라. 공장에 아 이 겁져신그라. 올헨이 겁지는디 와줍센 아니험신게. 작년이영 재작년에 멧 년은 나 가 그 웃드르레서 온 사름덜 젊은 사름덜 흘 충 몰랑 큰쓸, 죽은쓸 멘들지 못하민 날그라 오랑은에 험센 허민 그 사름덜 허영 가명이 소래기쓸도 주곡 논쟁이도 주곡 허민 벌영오랑 동네 사름덜 논쟁이 조배기 행 먹으렌 주곡 드러 나 경 헛주게.

103067 @ 그건 어떻헨으네 허는 거과?

103067 # 모멸쓸 겁지는 거?

103067 @ 응.

103067 # 채로 청게.

103067 @ 아 채로 청.

103067 # 응 채로 멧 번 쳐.

103067 @ 경헨 골라 내는 거? 큰 거, 죽은 거 영 따로따로.

103067 # 응 채 여러 가지로 쳐. 말젠 그디서 기계서 불리곡. 이젠 산뉘도 그냥 기계로 잘잘 나오멍 질는 거 아이가. 보리도 그냥 올리른 쓸로 나와. 옛날엔 물방에 정 공장에 강 물방에 정 채에 널영 드러 경 헤나져만은.

103067 @ 그럼 그거 말고 이 동네에서 다른 농사는 무신거 지읍니까?

103067 # 그거베피 안허여난.

103067 @ 미깡?

103067 # 미깡

103067 @ 미깡은 언제쯤에 해수과?

103067 # 미깡은 현 때 오렛주게.

103067 @ 멧 살 때 썸에 왕 현 거 닻으짜? 미깡은.

103067 # 우리 나 현 때엔 그 처녀 시절에부터 저 정의 사름들은 미깡해서.

103067 @ 이던 언제쯤에 해서?

103067 # 경헌디. 나두 어른 뉘난. 어른 뉘난에 대정집 우에 덕수가 쉼 몬저 해서. 덕수 화순더레. 우리 화순 이모네가 살아신게 화순 이모네가 미깡하민 날ㄴ라 미깡냥 싱글 때 오라 전정혈 때 오라 타레 오렌 허민 그거 강 주로 헤여나난이 미깡냥 나가 경 앓지는 걸 잘 앓져. 미깡냥 어린 거 허여 온 사름은 날ㄴ라 오랑근에 앓져도렌 현다. 경험 미깡냥 이렇게 가지가 영 돋우민 이것이 남쪽더레 가게 특 허게시리 영 앓져주곡 가진 북쪽더레 가게 영 헝으네 앓져주게. 경 헤여근에 허난 저 우리 하르방 아덜 그 학수 아덜네도 존 낭 오랑 앓져도렌 헝 존 낭 앓지고 훗은 낭 도 막 메어다네 오랑 앓져주렌 헝이 싱그단이 밤이 훗은 낭, 훗은 낭 메어단에 싱그단이 여섯 개 산디사 든 못 싱그난에 학수 아덜이 걸읍써 가게 허나난 우리 육촌 오래비네가 미깡 낭 훗은거 메당 싱그단에 댓개 남으난에 우리 싱그쿠텐 헝에 뒷날 싱그난 그 낭은 오꼳 죽어불어라게. 죽어부난 야 이거 밤이슬 맞아근에 널 오랑 싱그민 아니 산다, 아이 산다. 그자 구뎡이 파는 체만 헝 훗만 지치라, 지치라 허명이 밤 아홉시 뉘도록 찾불 세완에 그걸 싱것저만은이.

103067 @ 경헝 옛날에 그 저 미깡냥 헝 허민 어떻헤근에 질뉘?

103067 # 미깡냥 어떻허느니?. 미깡냥 메냥으네 개탕쉬냥 메냥 미깡냥도 메냥 개탕쉬냥 쫄랑 그레 이제 접붙영 미깡냥이영 접붙영 이제 크민 이젠 현 2년생 뉘민 밧디 강 싱그는 거주게.

103067 @ 아 경헝근에 싱그는 거구나예? 그문 이제 그 다음에 멧 년 뉘사 미깡이 열려?

103067 # 계난 우리 삼 년생 사당 싱건에 그 헤에 꽃 피난에 따분디 뒷헤에 또 꽃을 든따 따서. 따단에 낭 다섯 개 산디사 냉경. 하루방이 저 모슬포 아이덜 미깡도 엇인디 이걸랑 내불라. 뒤 콘테나 허건 아이들 타당 먹으렌 허게. 모슬포 딸들 우리 하르방 막 우찬허난게. 경허난 허게 허명 허난 경헤근에 헝 내부난 이제 그거 다섯 낭 파레 가가난 콘테나 열 개나 허카 허명 타레 갔주게. 타레 가난 이웃집 사름도 ㄴ치 가명 뉘허레 감수광? 허난에 새 낭에 미깡 다섯 콘테나 열앗젠 허명 타레 감쥬 허난 고치 강 보젠 허난 스무 콘테나도 더 나. 어이구 우리 미깡은 자바라 엔 현거. 일본서 묘목 깎아네 밧 빌어네 그 밧 메나든 싱거 즐거렌 싱그난에 현 녀 으난 이거 풀지 못헝 현 때 우리 간 그거 사단 싱그난. 싱그난 낭은 소낭 이만씩

헌거 비영 싱그게 똥거 아니? 비영 싱그게 똥난에 군에서 오라네 소낭 이만씩 헌거
 빈거 제 도장 노래 오란 군에서 서기 오란 이 미깡낭 어떻행 싱그젠 험수광? 허난
 에 어떻헤여 이 빨렁 몬 파똥 싱그켄 허난 놉 싱경은에 삼년 똥거 보다 더 잘똥니
 덴. 어찌어찌 구똥이만 팡이네 삼년 생이난 심거만 노민 놉 삼 년 심근거보단 이상
 똥니덴. 기추록 허난 그 낭똥리 이만씩 헌걸 창창 비어네 녹전에 도장 노래 온 사
 림이 경 고르난 그 낭똥리 번어가던 것이 다 얼거젓주게. 경허민 어떻 과당 보민
 허민 톱으로 찢다 스똥 나대로 그찢다 헤영 어떻행 앓지명 싱그는디 우리가 가명
 보민 그 저끗디 우리 밧 저끗디 벌통 논 사름 이서. 육지서 옛날엔 벌통 이디 제주
 도 하영 오라났저게. 경허민 그 수도에 오라근에 그 물 스피카통 같은 걸루 하나
 정 가. 정 가난 우리 저 이 스피카 통 서너 개 찢어 나똥신게 찢어근에 툇허게 찢
 영 물 시경 급썩. 물 시경강 똥허젠? 허난에 시경 급썩. 나가 수단껏 허쿠덴. 시경
 간에 이젠 그 벌장시ㄴ라 이 벌도 물 먹는 따문 벌도 저 그릇에 물도 놓고 헤라게.
 경허난 이 물 시경 오라시메 어디다 똥에 벌도 주고 먹고 허렌 허난이 고마운ㄴ라.
 그 사름 그 작산 거 삼천 오백 평이주게. 구똥이 파는디 매일 오랑 ㄴ치 헤줘. ㄴ치
 헤주난 그 낭 싱거시네게. 경허난게 그 사름 나도 폐우난 그 사름 싱거준 거 아이
 가. 게름이 자꾸 상추도 헤영 강 먹으렌도 주꼭이 꿀도 따지난 꿀도 줘라. 서로 고
 마와 똥영. 경허명 살앗저, 우린

103067 @ 거난 이젠 미깡을 제일 하영 허잖아예?

103067 # 쥬 하영 허연 미깡 그때엔 막 여난 일사 막 걸릴 때라. 막 잘 열안 일
 사 걸리난에 우리 삼 년을 찢저, 미깡. 일사 걸린 걸 신문지로 고무줄 베개만이 헌
 걸 사당으네 홀목에 고무줄 걸렁 신문지 반 열앙 스렁 신문지로 미깡 싸고 미깡 싸
 고 헤염시난 두 해째 쌈시난이 두 해째 싸는 해엔 어떤 사름이 넘어가단네 우리 바
 리명 ‘아이고 영감네 농사 잘 지었어요.’ 헤라게 들어오명. 허난에 예 허명 똥허러
 온 양반이여? 우리 하르방이 하난 극조생 사례 왔어요 허난 내중에랑 이것도 사 가
 렌 허난 그러지요 허명헤연. 아이고 미깡 엄청나게 잘 열앗네 헤라게. 경허난 경허
 썩 허단에 이젠 흔 극조생 산에 그 사름네가 우리 미깡이 극조생 탕이네 거자 이제
 두볼 죽게 똥가민 익는 미깡이라. 경헌디 두볼 타게똥 안똥디 흥루 오라네 아래꺼
 영 견영 보난에 퍼렁하지 안헤영 새울새울 헤연게. 색깔이. 헤슬헤슬허난 이젠 또
 신문지 썩거 영 똥건 보난 퍼렁허질 안헤연. 경허난에 영감 이제 이거 안 팔겠어
 요? 허난 사가켄허른 이제라도 풀지요. 허난이 두 차만 타 주세요. 이천 관이. 두
 차만 타 주세요. 경허렌헝 두 차 탄에 콘테나 시꺼 와선게 두 차 탄에 콘테나에 탁
 탁 제겨 노난 무시거 요만씩 헌거 헤똥헤똥헝 거 똥에 오늘 농난에 모리 농난에 썩
 비니루 견영 탁 시끄젠 헝 보난 노랑하게 고와라게.

103067 @ 약 똥에?

103067 # 응 경허난 그자 그 밧디꺼 무데기로 무데기로 영감 얼마 받으켄 허난
 삼천 오백 아이주카 허난 아이고 영감 너미 과헤요, 과헤요 허난 받을 말 하세요
 받을 말 하세요 막 헤라게. 경허난 얼마 줄첸 허난에 삼천 이백 주켄. 삼천 이백 주

켄 허난에 우리 하르방은 그러믄 안 풀켄. 이젠 다른 사름 아는 사람도 싯곡 안풀
켄 허난 게민 엇어 삼천 이백에 험시다. 허연이 삼 년간을 계속 그 사름 으져간. 삼
년간을 익건 으져가. 경허영 올 때엔 일반미 허나 찹쌀 혼 가맹이 두 가맹이 어져
와. 미짱 사래 오민 나 도랑 텡기멍 극조생 밧 고르침 몬 사곡 밧떼기로 타 놔기네
창고떼기 몬 사주곡 허민 그거 선달 그믐도록 우리가 담아주곡 헛주게. 경행 돈 벌
어져라 그때. 이 겁나게 벌엇어.

103067 @ 겁나게 벌언? 전이 뭐 무신 씨 행으네 어디 풀레 가고 헤낫젠 현 건
무신거?

103067 # 무시거?

103067 @ 무신 씨 헤근에 어디 풀레 가낫덴 허멍.

103067 # 무신 씨?

103067 @ 어디 뭐. 무신 씨엔 곶아라마는?

103067 # 지슬씨 저 수망리 강 지슬씨 사당.

103067 @ 씨장시 헤낫덴 허멍. 그건 어뎡 헤난거짜?

103067 # 큰 차로 강으네 수망리 강은에 지슬 구덩이 판거 뺑보민 수망리엔 헌딘
남원리 옥귀, 수망리엔 헌딘이 보리도 안 갈곡 여름 곡석도 안뉘는 데라. 보리 갈안
이 영 복다리 벗지 안헤네 몰라부렀더라게. 게난 이딘 보리 갈앙 아이웬덴. 보리 갈
앙 캐도 아니험니다. 내가 쓸 으정 강 이장네 집이서 그 쓸로 밥헿 먹어가난 이장
각시가 아이고 그 쌀라근에 우리 쥐뉘 갓셴 허멍 쥐뉘 갓셴 허난 쥐두고 그 집이
쓸로 밥을 헿 먹셴 허난 밥을 난 물 마치지 못헤라게. 사락사락 허난. 경허난 이젠
밥 먹고프도 아이 허고 허난 이젠 라면 사단이 나 산뒤쌀 으정 갖주게.

103067 @ 그거 언제짜, 게난? 멧 살 때 쯤이?

103067 # 그것이 나가 멧 살이엇인고이?

103067 @ 쉼 뉘영?

103067 # 쉼은 뉘주게. 쉼, 혼 마흔 일곱, 여답에 뉘실 거라. 그 때 이젠 산뒤쌀
으정 간에 산뒤쌀 익을만 허난 라면 대여섯 개 풀어놔에 이 다뉘하게 이젠 저녁 점
뉘들앗주게. 게난 이장네도 두 가지허곡 시어멍 시아방네도 서라게. 게난 읍셴헿 헤
여네 나 이상헌 거 헤수다 오랑 먹읍셴 허난 야 이거 벨 거 먹어점젠이. 곤쌀 난
단이 라면 난 푸난이 그렇게 라면 스프 농곡 허난이 맛 좋아. 아이고 영도 헿 먹읍
네짱 허난 이거 영 헿 먹어보지 안헿저마는 나 혼번 헤 봐수덴 헤연이 경허난 하르
방도 이거 벨 거 다 헿 먹어점셴 허멍 헨디 그딘 어욱 비어단 이파리 그치멍 불 슝
곡 어욱덴 뉘헿니짱 허난 거적 여경이네 영 비스허게 농민 밧드레 영 비스허게 노
민 무수 쉼어근에 생기리 지침 그것에 몰린덴 그딘. 무수만 뉘주 아무것도 안뉘덴.
경행 미짱밧도 뉘는 디도 없고 민민 돛박낭만 신 디라라. 경 현 디란게 지네 집에
오랑으네 돛박 타당 돛박 지름허영 아픈 사름도 먹영 좋고 폐병 들린 사름도 먹영
쉼넌 막 허난. 경행 나 감자씨 한 차 싯경 오란 사름들신디 줄 때 보난에 가이 봐
지난 야 니네 돛박낭 어뎡 헤시니? 허난 막 버랭이 일어네 스뉘 버랭이 일언 마루

레 기어간 우리 우영 밧디건 제초제 헤불엇수다. 허난 아이고야 무사 그거 헤엇 니게 니 돛박 지름 빠떡으켈게. 돛박지름 니 빵 먹으민 좋넨 헤라게. 니 그거 빵 떡으렌 허난 그 우녜 펜이 늬이 밧딜로 간딘 잇수텐. 야 그 돛박 기름 뵤 먹어간 그간 가인 오폏 도망가불언게. 도망가부난 막 좋난 가이 어멍이 오랑으네 돛박 이 거 쫓어 나뵤시난 한 말 으정강이네 지름 빠 떡으라 떡으라 허건데 뵤수텐 허멍 나 도 돛박 산방에 강도 타단에 돛박 지름 빵 아이덜 주곡 허멍 기추록. 작년도 돛박 지름 두 뵤 빠전게이 아이덜 문딱 갈란쥬시네. 게난 올힌 돛박 안 열안 이 낭이영 이 낭이영. 밧디 잇던 돛박낭 미깡밧 옆이 싱그난에 헤여전게 올힌 타레 안 가젠. 뵤들ㄱ라 타당 떡쿠건 허곡 아니허켈 허젠. 념은해도 지름 빠난 두 뵤란게 셋뵤도 지네 도렌헨에 지네 서방 아프난 맥이켈 허곡 죽은뵤도 으저가불곡. 이 쵸병이영이 거쵸병 아픈 사름도 돛박 지름 떡으민 경 좋아. 경행 나 그때 돛박 지름 산방에 간 타단에 두어헤 뵤 후제 우리 요 동녜집이 사름이 저 사름 돛박지름 빵 뵤겨나신게 서? 허난 어뜨난 마썰? 허난 어디 서촌서 어뜨 할망 오란 아들 군인 간디 막 아프 난 제주도 군인 대장이 제주도 강은에 돛박지름이나 상 떡어보렌 헨 이디 왓젠 허 멩 어디 돛박지름 풀 디 시넨 허멍 행 우리도 이 돛박낭 아이 싱근 때난이 경허난 전이 나 재작년이 허여난 거 검은 맥주뵤으로 하나 잇수텐 헤네 그 할망 주난이 좋 이돈이라도 주주마는 쵸돈으로 그자 슬우렝이 한 줌을 주건데, 나 아이 받으쿠다. 이거 으정 강 아들 떡영 병 좋으민 난 좋앗수다. 아니 받으쿠텐 허멍행 그냥 받읍 썸 받읍썸 헤도 아이 받안 쥬시네게. 주난 그 동녜집이 사름은 경헨 출 알아시든 나 도렌 허켈. 지 도렌 허든 나 돈 받주게이. 그 할망 어디 강 어디 걸영 오랑이 게 난 아이고 아덜 떡영 좋민 뵤수다 허멍 헤시네. 경행 나 경헤쥬저. 난 놨덜 드러 쥬 진다. 아기덜도 봐지민 드러 돈 주곡. 경 우리 그 하루방 큰 아들의 죽은 손지 군인 간젠 허난 이젠 돈 십만 원 아무것도 아난디 그 뵤 십만 원도 커라. 십만 원 쥬저. 나. 니 군인 강 오랑은에 대혹교 들어가민 나 백만 원 주켈 헌디 대혹교 아이 들어 가신ㄱ라.

103067 @ 게민 이제 농사는 그거 이제까지 말한 거 말고 또 다른 건 엇지예?

103067 # 다른 건 엇어.

103066 @ 이딘 피나 이런 건 안허지예?

103066 # 피도 아이 같아.

103068 @ 담배?

103068 # 담배는 옛날에 헤난.

103068 @ 헤낫수과?

103068 # 응.

103068 @ 담뵤 어떻게 허는 거과?

103068 # 담뵤 메 낵 싱경. 싱거근에 입담뵤 툷으영 우리 친정 아버지 담뵤 싱경 그뵤 담뵤도 공출헤나신디. 싱그렌 범이서 느려왕. 경행 담뵤 싱거근에 걸름 잘 쥬 싱그민 담뵤 이파리가 이만썸 허여. 게민 알있으로 문 툷앙 집에 오랑이네 이제 여

까근에 이런 그늘진디 뱃난디 안 몰려. 그늘진디 다 연 매영 몰리민 발갈게 몰려. 경혜근에 마지막으로 그거 이제 공판할 땐 시경가민 썩지 아니허곡 잘 몰리민 1등으로 값 주곡. 그 시절에 제국 시절에 경 혜났어.

103068 @ 아 제국 시절에.

103068 # 응, 경허고 또 담배도 삼동초엔 헌 거 이서. 삼동초엔 헌 건이 이파리도 몰리지 안행이 삼동초엔 헌 건 퍼렁헌 때 이파리 뜯어당 썰영 몰령이네 촌엿 하르방들 담배로 먹는 거, 삼동초. 경혜영 우리 친정 아부진 섹유통 양철 섹유통 뒤개에 잔뜩 담양 낫당이네 그거 통대로 이만이 담양이네 파삭파삭 피우곡 허당 하르방 죽어부난 섹유통으로 하나 남아선게. 하나 남으난 요디 늙은 하루방 으져단 주명. 난 막 놉 주지만 기릅나게.

103068 @ 담배도 옛날에 혜났구나예?

103068 # 응 삼동초엔 헌 건 그냥 몰리지 안허영 썩는 거고. 썰영 몰리는 거고.

103068 @ 건 다 이파리로 예?

103068 # 입추엔 헌 건 이파리로 막 몰령 공판에 1, 2등 매경. 썩지 안허민 일등. 노랑케 그늘에서 몰려.

103068 @ 그늘에서 몰려야 돼는 거?

103068 # 응 그늘에서 몰려사 문딱 여까근에 빈주룽케 세왕 창고에 빈주룽케 걸영.

103068 @ 뒤에 끼웁?

103068 # 응?

103068 @ 뒤에 널어?

103068 # 그거 거적 여끈 거 못 박아근에.

103068 @ 줄에 행으네?

103068 # 줄에 여깁이네. 이 저 노람지 여끄듯이 여끈 거 영 돌아 매영.

103068 @ 아 창고에?

103068 # 응 창고에 빈주룽케.

103068 @ 건 옛날에 제국 시대에만 허고 그 다음에는 안했지예?

103068 # 응 제국시대에. 제국시대. 일본 시대에이.

4. 들일

쇼 기르기

104001 @ 옛날에 췌 질좌났주예? 할머니네 집이서? 췌 질좌난 말 흥뽀 물어보쿠다예? 췌 어떻 질릅니까?

104001 # 췌 어떻 질르느니? 암췌 질루민 부랭이 훗이민 부랭이 놓민 새끼 나곡.

104002 @췌도 종류가 막 여러 개지예?

104002 # 계.

104002 @ 무신 이름 흐뎡 굴아봅서.

104002 # 일름 젓 빠는 소도 잇곡 그냥 새끼 나는 토종도 잇고 경허난.

104002 @ 아니 색깔에 따라서.

104002 # 색깔에 노랑쉐도 잇곡, 검은쉐도 잇곡 얼룩달룩한 쉐도 잇곡, 우린 노랑쉐만 질환.

104002 @ 노랑쉐만 질환? 이 빨 모양에 따라서도 이름 여러 개로 불릅니까?

104002 # 빨도 여러 갈로 불려도.

104002 @ 빨 영 쉐 쉐 머렌 굴아?

104002 # 바로 난 빨이 좋은 거주게.

104002 @ 옆으로 영 난 건?

104002 # 그건 몰라. 그런 건

104002 @ 영 오그라진 것도 잇지 안헤?

104002 # 예유 저 쉐 빨 오그라져네, 오그라진 건 만 뭐허여.

104002 @ 뭐허여?

104002 # 오그라진 쉐 빨 오그라진 건 잘 엇어.

104002 @ 아 잘 엇어? 소는 보통 뭐헐 때 씩니까?

104003 # 소 뒷 헐 때 쓰느냐? 옥으면은 밧 가는 거 짐 시끄는 거 배와근에 짐 시끄고 새끼 나는 암쉐 새끼 내우고.

104003 @ 쉐 처음에 처음부터 밧을 잘 갈진 았을 거 아니파예? 어뎡 질들입니까?

104004 # 쉐 처음에 코 꾸영 밧 가는 거 ㄱ리치젠 허민 코 꾸영으네 밧디 강 남자 어른은 그 장대 메우곡 코 쉐 건 이제 이끄렌 헤영 코빼기 코 잘못 허민 문 돌아나젠 바들랑 바들랑 허민 그 코 영 쉐 건, 쉐 걸 딱 심어근에 영 행 이꺼가고 쉐 부랑하민 코 쉐 더레 낭을 큰큰한 낭을 영 대영 꼬딱도 못허게 헤영이네 밧 가는 거 ㄱ리쳐. 았이 이끄는 사름이 서.

104004 @ 이 코 영 쉐 건 무신거렌 굴아?

104004 # 코 꾸우는 거렌 헤.

104002 @이 름 뭐? 코 꾸는 거 그냥?

104002 # 응 저 밧 갈진 허난 코 꾸엇구나게 허멍 ㄱ리치젠 험수다 헤영 쉐 ㄱ리치젠 험젠 경헤근에 허민 쉐 고개 쉐 건 안 쉐은에 어진 건이 그냥 이 성만이 코 쉐 걸로 코빼기 심어도 졸졸 가는디 행실머리 나쁜 건이 고개 털멍 난리가 나민 낭 이만이 헐 걸로 헤영은에 바짝허영 피뜰락도 못허게 았이 이끄는 사름이 이끄렌 헤여.

104004 @ 무사 돌도 꺷습니까?

104004 # 돌도 건 밧 갈 때 ㄱ리치는 거.

104004 @ 그건 어뎡헐 허는 거파?

104004 # 돌 그냥 떨어진 큰 돌 잇주게. 계민 멩에 씩왕으네 그 잠대 메우는 것에 끼왕이네 거리 빙빙 세세 ㄹ리쳐. 문 길로 텅기멍 ㄹ리쳐.

104004 @ 그거 무신 돌이엔 곶아?

104004 # 그거 췌 ㄹ리치는 돌이 이섯서. 큰큰헌 돌 넘쩍허연 ㄹ냥 떨어지민 낭 찢렁은에 그 낭에 똥꼬냥에 메영.

104005 @ 췌도 나이에 따라 곤는 말 잇주예? 혼 살은 무신거엔 곶아?

104005 # 혼 술은 금승, 두 술은 다간, 세 술은 사릅. 그거는 그거 뿐.

104005 @ 그거뿐? 세 술까지 베피 안헤?

104005 # 금승, 다간, 사릅. 사릅은 사릅 웨민 어른 구실 현다.

104005 @ 어른 구실 허는 거예?

104005 # 응 밧도 갈곡.

104006 @ 그다음에 계민 아까 잠대 메왕으네 밧 갑니께? 잠대는 일름이 막 여러 가지 잇수과? 잠대 무신 거 무신거 잇수과?

104006 # 이거 심는 건 잠대 거 뭐시렌 헛저만은.

104006 @ 양중머리?

104006 # 양중머리. 양중머리 심으라, 심으라, 심으라 헿 양중머리 심영은에 허곡 딱시.

104006 @ 벧도 잇고예?

104006 # 벧도 잇고, 그 무신 거 잠대에 걸려 메는 거, 거ㄹ라 머시여 헛저마는 무신 코엔 헛저만은 잇어불언 몰르켜.

104006 @ 잘 생각해 봐 할머니, 생각나는 거 잇수과?

104006 # 잇어불언 뭐. 옛날에 난 췌 ㄹ리치는디 췌 이견 더러 췌 이견 헤나곡 밧도 췌로 헤나곡 헤나난.

104006 @ 헤나신디.

104006 # 응 잘 몰르켜.

104006 @ 예 여기 다 가정 와수다. 한 번 봐 봅서.

104006 # 이견 이견 뭐시엔 헤신고?

104006 @ 이게 양중머리.

104006 # 양중머리, 이견 벧, 이견 보섭.

104006 @ 그 다음에.

104006 # 이견 췌 돌아매는 밧인고?

104006 @ 이견 뭐엔 곶아?

104006 # 잠대.

104006 @ 요건?

104006 # 그 무슨 거엔 헤라마는, 뭐시렌 헤라마는 잇어불언.

104006 @ 이견 무신거라 이견? 췌에 걸려 메는 거?

104006 # 멩에. 이견 무슨 모가지에 걸리는 거 잇어불언.

104006 @ 접개.

104006 # 접개. 이견 쉼 명에의 접개, 이견 쉼 명에 다 잇구나게.

104006 @ 계난 이디 저 인성리에서는 무신거엔 곶아나신고 헨에.

104006 # 꼭ㄴ타. 명에여 쉼 무시거여 다 ㄴ타.

104006 @ 질메는? 아고 질메가 없네.

104006 # 쉼 질메.

104006 @ 쉼질메, 질메는 질메도 이름이 여러 개 이수과?

104006 # 신디 옛인디 뉘.

104006 @ 질메에 뉘 앞가지 잇고 뒤에 잇고 뉘 넣는 거 잇고 쉼 우티 놓는 거 잇고 영 안해?

104006 # 명에 싯곡 쉼 등쾌.

104006 @ 등쾌 잇고.

104006 # 쉼 질멧가지, 등쾌 위 쉼질멧가진 곶치고.

104006 @ 무신거라 다시 이견 질멧가지예? 요 이디 밑에 영 저 아까 등쾌 곶앙예? 요건 뉘라 요건 쉼궁둥이레.

104006 # 쉼 조름에 허는 거.

104006 @ 응 이름 뉘라?

104006 # 양중머리렌 무신 건가? 무신거? 몰라 나도 잇어불언.

1040062 @ 이름 잇어불언예?

104006 # 나도 쉼로 밧갈곡 헨 다 알아정게 이견 산태.

104009 @ 계민 할머니 옛날에 쉼 목장에도 올려 보내고 헨니까? 그건 어뎡 허는 거?

104009 # 목장에 저 고지 강 놓는 거주게.

104009 @ 언제?

104009 # 봄 나민 겨울엔 막에서 멧당 봄 나근에 풀이 막 남직허민 농서 끝나민 목장에 다 올려. 올령이네 따시 일할 때만 또 몰아당은에 일허곡.

104009 @ 그믐 저 마을 사람들이 헨 명씩 대표로 헨 돌아가명 허는가?

104009 # 돌아가명도 보곡 이녁만씩도 보곡. 이 보성은 므을 목장이 막 널르고 물도 좋곡 허난이 목장에 보는 사름이 딱 이서. 그 목장에 쉼 어디 다른 목장드레 튀어 나는 수도 싯곡 또 다른 세계 사름이 그디 오는 수도 싯곡, 목장에서 살명 목장에 집 짓언에 보성은이 목장에 집 짓어근에 그 목장 직허는 사름 일 년에 보리 한 말씩 각 호에서.

104009 @ 그믐 뉘렌 곶아? 테우리?

104009 # 응 므쉬 보는 테우리. 경허영 살명 그 보리 받앙은에 살앗어. 보성만 경헨주. 인성더레 안성더레도 고지 쉼 올리는 사름이 잘 엇어난. 보성은이 쉼가 하곡이 보성 목장에 집 짓영 그 쉼 보는 사름 쉼 헨 마리에 얼마씩 받앙은에 허는 사름 이서났어. 보성이 막 살기 좋곡 보성 목장에 물 좋곡, 물도 좋아. 이 구역 사름

들이 보성 목장에 오랑 물 저당 먹곡 헛더라, 그때. 보성은이 목장더레도 산물코지
렌 헌데 이서서. 산물 나는 것도 잇곡. 그냥 소 먹는 물도 선 헌디 밧디 바당물만씩
헌 거 이서. 경헌디 이제 목장 파장돼부난.

104009 @ 마을 목장 관리하는 건 마을 사름들이 다 같이 허는 거지예?

104009 # 마을 사름들이 봄 나민이 강은에 다 가시낭덜 비곡 어욱밭덜 불 부찌곡
허영 새순 나게시리덜 호당 가 쉼 질르는 사름덜 호당 강은에 다옥에 부치곡 허영
가시 자왈덜도 더러 비어불곡 허민.

104009 @ 호당 가? 그거 아까 그거 무신 거?

104009 # 그 동네 사름 다. 혼 집이 사름덜 혼나씩 다 가.

104009 @ 혼 집에 혼나씩?

104009 # 응 다 가. 다 강은에 그추룩 허곡 담 넘어진 데 다른 더레 돌아나는
담,성담 잇주게, 성담 다 돌아보멍 다허곡 경행은에 그추룩 단도리 헛당은에 떨지
안헤영 쉼 놓게 돼민 그 고사리 묵은 고사리 다 불 부칭. 불 부칭 새 풀 나게시리.
경행 새 풀 난 이상엔 아무 날은 쉼 목장에 올리게 뵈젠 허민 전시 들양 몰아강덜
쉐덜 올려. 경행 혼 사름네 집에 쉼가 멧 마리씩 헨. 쉼 보는 사름 그 목장 안에 집
짓언 살멍 샅 받아난. 다른 세겐 경 안헤여. 인성도 그런 사름 엇곡 보성 저 안성도
엇언. 이 보성.

104009 @ 보성만.

104009 # 이 보성만 보성 목장이 널르고 물 좋곡 허난에.

104009 @ 게민 옛날에는 할머니 어렸을 때는 쉼 물 맥이레도 가곡 헤낫수과?

104009 # 응.

104009 @ 이경 강?

104009 # 응, 아니 우린 저곳디 물 신디서만 사난에.

104009 @ 아 경헨 필은 엇언? 쉼 풀 맥이레 올라가곡 안헤? 어렸을 때?

104009 # 쉼 맥이레들 그자 강이네 집에서 밧 가는 쉼덜 맥이레 강 그자 맥이곡
어디 출 좋은디 시민 예왕 내불곡 기추룩 헛주게. 맥이레 뎅기진 안헤연. 저 인성,
안성더렌 농장이 잘 엇은 따문 순번으로 쉼덜 메영이네 쉼 맥이레 가곡 딱시 그런
디 물 엇이문 저 보성 집이 오랑 물 맥영 혼 사름이 쉼 여남은 개 말양이네 오랑
물 맥영 그 자기네 안성집에 강 맥이곡 기추룩 헤라게. 게난 이 보성은 귀헌 것이
엇이 살았어.

104009 @ 응 아까 그건 그런 건 무신 쉼렌 헤? 번쉼렌 허여?

104009 # 번쉼.

104009 @ 맞아 번쉼?

104009 # 응 번쉼. 네 사름이 쉼 내방 돌아가멍 번쉼허는 거.

104010 @ 돌아가멍 번쉼허는 거? 응 할머니 소 질르멍 힘들엇던 거나 아니면 기
역 나는 거 이수과?

104010 # 엇서.

104010 @ 송아지도 나와난?

104010 # 송아지도 내왔주.

104010 @ 어떻게 내옵니까?

104010 # 송아지도 낳단에 노시 나도 말도 아니허난이 막 입담으로 드러 뭐시엔 골으른 무시것이 동티난덴 주갈주갈 허멍 허단 췌가 드러 누원 가달 등등 들르멍 흥흥 헤여가난 아이고 삼싱할망이나 번췌 것이 다 지컨덴 강 서근에 좋게 나살걸 좋게 나살걸 허멍 이 솔솔 쓸어가난에 췌가 응응 허멍 가달 들르당도이 흐췌 흐끔 숨 쉬어라게. 숨 쉬언 딱시 응응 헤가난 낳아라게. 낳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몬들락히 낳앗구나 허멍 헤나서 나가. 경행 이젠 우리 동네 사름 고침이 사름이 췌 새끼 난디 젓을 일절 아이 먹엄젠. 젓을 안 주젠 발로 영영 험젠 허건데 아이고 건 동티 낳수다 뭐 췌 새끼 난디 강 무시거엔들 ㄱ난 동티 낳구나게. 상불 폐우곡 장 정 허여근에 상불 폐우곡 아이고 철 모르는 사름덜 뭐시엔 곱아신디사 아이구 잘못 헛구나 헤영근에 상불 폐왕이네 헛주둥이 노려근에 내불어 봄서 어떻허느니. 경헛 당 송애기가 그레 가지 아니허건 송애기 이꺼당 그 젓신더레 허멍 그자 모든 동물 이나 생물이나 그자 죄 짓은거랑 사하게 헤줍센 헤여근에 곱으멍 상불 폐웁센 허난 요디 고침이 사름은게 우리 서로 오라방 누이 허는 사름인디 야 누이 말 들으난야 송애기 젓 먹엄저게 젓 먹엄저게 . 나 짐작 삼양 곱앗주게. 짐작 삼아. 경행 먹어라 게.

104010 @ 정성 들이민 다예?

104010 # 상불 피우렌 헤서. 무시거 새끼 남젠 무시거엿 헛주텨이 느련들 그거 아이라게 아이들이라도 빵.

말 기르기

104011 @ 몰도 질낳수과?

104011 # 몰도 질랐주게.

104011 @ 몰은 어떻게 질릅니까?

104011 # 몰은? 몰은 어떻게 질뤄? 몰은 그자 집에 매지 안헤여. 목장에나 우리 그 큰딸 하르방네 몰이 삼십일.

104011 @ 삼십일?

104011 # 몰이 서른 개 새끼 낳는 거 서른 개. 서른 개민 봄 나민이 봄 나민 문 짝 몰아당이네 올레밭디 낳 올레 저곳디 우리 몰ㄱ레 서. 몰ㄱ레 시민 몰ㄱ레서 하나씩 심으멍 몰 갈기 비곡 목장에 올려살 거난이 갈기 비곡 콩지 비곡 그추록 헤영 조박조박 무경 놔두민 저 서모관 사름덜 오랑 받아가.

104012 @ 다 잘라? 몰 터럭을? 몰총

104012 # 응 몰총, 이 뒤에 거영. 콩지에 거영.

104012 @ 그거 갓 만드는 거 망태.

104012 # 다 그디서 허영 그디서 현 거 다 그만씩 다 그 자국에 거 다 무경이네

잔뜩 헤 놔두민 저 모관서 탕건 입제허는 곳 안에 사름 받으레 와. 받으레 오민 그
물 심영이네 나 같기영 드리 비민 우리 시아방 그 판 돈 날 하영 주곡해난.

104012 @ 말도 종류가 색깔에 따라서 이름 잊지예? 뭐영 굳는 이름 이수과?

104012 # 물이 앞이 문 티끌이 간징이신 건 폐랍넨 헤여.

104012 @ 간징이?

104012 # 이디 흐솔 머리에 흰점이 시나 어떻허민 예효 물 간징 저런 거 물 페라
워 페라워 경허여. 새끼 나민 이런 디 흰 것이 시나 어떻 험다게.

104012 @ 응 그걸 아까 무신거엔 곶아마씨?

104012 # 간징.

104012 @ 간징?

104012 # 물 간징 신 모양이여. 페라우켜 경허여.

104012 @ 간징 신모양이여 페라우켜 영허여 응. 경허고 또 거멍헌 물 무신거엔
곶아?

104012 # 검은물이엔 허곡.

104012 @ 별경헌 들은?

104012 # 붉은물이엔 허곡.

104012 @ 하얀 건?

104012 # 흰물이엔 허곡.

104012 @ 뭐 이런 거 잊수게? 일가라, 이청총, 청총마 영 허는 거 잊수게.

104012 # 청총물?

104012 @ 응 그런 건 안 들어 받?

104012 # 아니 그런 거 들어도 그것이 그거라게. 청총마영 헤영 그자.

104012 @ 계난 그런거 잊지예? 가라물 청총물 영허지 안허여?

104013 @ 말은 뭐헐 때 쓰는 거? 밧도 안 갈곡

104013 # 밧도 안 갈곡 헤도이 밧 불린 때 시세 나곡이 물 낭이네 풀곡. 그 웅매
하난이 그자 주룻 그건 줄대헤영 메곡 수컷 놓고 기추룩 험다게.

104013 @ 웅매가 수컷 아니?

104013 # 웅매가 수컷. 경허민 그 수컷이 집이서 일도 하영 그것이 빌영 허곡 허
여.

104013 @ 무신 거 허는 일 허여?

104013 # 옛날 물 ㄱ레 방에질 때도 물 메왕이네 방에도 재곡 쉼보다 재여. 달랑
달랑달랑.

104013 @ 아 짐도 시꺼?

104013 # 짐도 시끄주게. 짐도 시끄곡,

104013 @ 어디 갈 때 탕도 덩겨난? 옛날엔?

104013 # 게 하르방 탕도 덩기곡.

104013 @ 아 하르방 옛날엔 탕도 덩겨난?

104013 # 게 경허여근에 그 물 웅매가 다른 물덜 오랑으네 그 자기네 가슴덜 허 카부덴 막 빨낭 형형형 허른 다른 물 텅기지 못하게도 감시하곡 허메. 사름보다 더. 쉐 경 아니헤도, 들은 저과.

104013 @ 말은 말도 나이에 따라서 이름이 트나지예? 혼 살짜리 이름은 머엔 곶 아?

104013 # 사름이엔 허곡 세 살짜린 사름, 금승, 금승은 이제사 난 거 금승 몽생 이엔 허곡.

104013 @ 금승 몽생이엔 곶아?

104013 # 쉐 다간 송애기 이제사 나근에 현건 금성 송애기엔 허곡.

104013 @ 몽생이, 몽생이.

104013 # 몽생이게.

104014 @ 거난 몽생인 한 살은 금승 두 살웨민 다간이렌은 안허주예?

104014 # 세 살 웨민 사름 몽생이.

104014 @ 사름 몽생이엔 곶아?

104014 # 쉐도 다간 송애기엔 허곡, 사름 쉐엔 허곡.

104014 @ 쉐 경 곤느디 혹시 들은 이수 삼수 영 안헛니까?

104014 # 무사 아니여게. 이수, 삼수 허주게.

104014 @ 쉐는 금승, 다간, 사름, 나릅 영 허곡 들은 금승, 이수, 삼수, 스수, 영 곤느 거 맞아?

104014 # 응.

104015 @ 들 질루멍 기억 나는 거나 아니면 들 질룰 때 재밋엇던 거나 힘든 거나 이런 거 뭐 잇수과?

104015 # 힘든 건 벨루 엇언. 목장에 강 놔볼곡 허영 그 밧 블릴 때 그자 몰앙이 네 몰앙 텅기멍 춤 시아방 몰앙 가가민 당신 들지 못허영 거두지 못허난 꺾치 글렌 헤영 강 허여날 뿐이난 그자 봄 낭이네 부종팻 끝나민 들 갈기 비게 웨민 돌아당이 네 올레에 집 이스 물꺾레서 갈기 비영 팔고 경허더라.

104015 @ 집 이스 물꺾레서?

104015 # 집 안에 물방에 이서서. 집 이스 물방에.

104015 @ 집 이스 물방에? 그디서 갈기 다 비어근예?

104015 # 시꺼당 딱 집 안에 메어근에 그 물꺾레 이런 거 잇주게. 이런 것에 딱 메민 오몽 못허주게. 경허민 이거 비곡, 풀리 비곡.

104015 @ 아, 경헤근에 풀앙예?

떡이

104016 @ 게른 쉐하고 들은 무신 거 멕입니까?

101016 # 출.

104016 @ 출.

104016 # 무조건 출. 물은 맥일 거 쉼만이 경 잘 맥이지 안하여.

104016 @ 그럼 물은 뭐 맥여?

104016 # 물은 그자 출만 비어당 출만 주곡 출도 집이 메영이네 출 주는 버릇 엇서. 물 밑으로 흐루 몰아당 빈 밧디 출 정강 허데경 내불민 지네 먹고.

104016 @ 응 집이서 메영 주진 안허고?

104016 # 응.

104017 @ 게믄 쉼 출은 어떻게 준비혜?

104017 # 쉼 출은 이녁 출밭덜 비영게 출밭 비어다근에 놀영 스뭇 저 낭만씩 놀영 멧 개 놀엇다근에 목장에 물그레 가멍 출 한 줌 정 강으네 동산에 사근에 웨여가믄 그 웬줄 알아. 저디서도 왈랑왈랑 몰들 돌아오민 그 출 풀영 픽픽 던지민 먹어.

104017 @ 게믄 주로 자기 네 출밭 이시민 혜도 엇이민 어디 강?

104017 # 엇질 안헌다게. 경허고 게 곡석낭이영 한다게.

104017 @ 아 곡석혜난 낭이영?

104017 # 경 매 사름 물이 하영 안 질좌.

104017 @ 쉼도?

104017 # 쉼도 매 사름이 경 하영 질르지 안하여. 저 셋동산에 셋동네 박부장네 물 혼 멧 개 실뿐이주.

104018 @ 출 베젠 허민 어떻 행은에 뵈니까?

104018 # 출 손으로 비주게.

104018 @ 사름덜 빌어근에 허여?

104018 # 응 사름덜 빌영. 비영 낫당 돌르민 강 무꺼.

104018 @ 뭘로 비여?

104018 # 호미로.

104018 @ 호미로? 손으로 다 일일이? 뭘 큰 거 영영 사근에 허는 거 엇어?

104018 # 아니 그거 이제사 벌초허는 기계도 낫주만은 그런 걸로 비민 허꺼정 무꺼져게?

104018 @ 아니 그거 말고. 큰.

104018 # 조근조근 비명 조근조근 낫당이네 새 비영 깨 털어근에 다 조근조근 무꺼사주. 경 무경 시꺼당 주곡. 메틀에 흐루 목장에 물 보레 가젠 허믄 혼 짐 정 강 동산에서 물 임제 말소리 나고 지침허는 소리 나믄 어후 올라가민 그 물덜 이녁 임제 알양 돌아오는 것이 저파.

104019 @ 기민 출 비어근에 그거 날랑 오젠 허민 어떻게 날라와?

104019 # 어떻 날라와? 다 무경은에 쉼로 막 시경 시꺼당이네 집이 오랑 놀영 놔두주게.

104019 @ 놀영 놔뉜. 그믄 보통 집이 쉼 지르젠 허민 가을 들민 강 출 헤와사웨는 거?

104019 # 게 가을에 집이 쉼나 드룻 쉼나 드룻 쉼영 드룻 쉼도 메틀에 출 정 강 맥이고 집이선 그자 매날 그자 아침, 저녁 맥이곡. 집이 쉼 밧갈곡 주장허는 거곡. 드룻 쉼 새끼 나곡 그자 뭐 허는 쉼라.

104020 @ 게민 아까 아까 곡석에 그것덜은 주로 콩허고.

104020 # 콩낭도 쉼 맥이곡.

104020 @ 조칩.

104020 # 조칩도 쉼 맥이곡 산디칩도 쉼 맥이곡.

104018 @ 콩허고 조허고 산뒤? 주로 이 세 개를 맥이는 거구나예? 보리낭은 잘 안 먹어?

104020 # 보리낭 안 먹어.

104020 @ 아, 보리낭은 안 먹어? 보리낭은 그냥 밑에 깬 거?

104020 # 응.

104021 @ 출 베는디 비 와근에 못허고 한 적은 엇수과?

104021 # 무사게? 출 비영 놔두민 비 오랑이네 오꽃 젖으면 더 메틀 물리곡 경 아니허민 재수 좋으면 일기 보명 물지 보명 비 언제 온텐 헤영 그 때도 허영 비영 그자 흔 사흘 돼민 화닥화닥 무꺼야지. 무경 시꺼오주

104018 @ 게난 출 날르는 게 제일 나뻑디다. 어렸을 때. 막 이디 뭐 올란예? 막 ㄱ렵고 허난 출 날르레 가는 게 제일 실폰디, 실퍼나신디.

104021 # 이젠 옛날엔 그 목장에 탕겨나민 서미역이헌 거 이서 소 부그리 닳은 거. 이런데 올랑이네 막 ㄱ리왕 보민 뺑끄랑케 먹영 싯곡, 이젠 그런 벌거지가 엇어. 저 웃드르 탕겨도. 웃드르 전인 무신거 허레 탕기민 이 아랫도리가 시빨겉게 쟈 쟈헌 거 막 올르는데 이젠 그런 것이 엇어. 고사리 꺼그레 탕겨봐도 그런 벌거지가 없어.

104021 @ 출 혈 때 힘들엇던 건?

104021 # 힘들든 무슨. 늪이영 대동허는 거난 허는 거로구나만.

멜감

104022 @ 옛날에 지들커는 어떤 거 어떤 거 헤근에 지들커 헤낫수과?

104022 # 옛날에 가을 들민 지들커 허젠 허믄이 소낭밧디 강 글갱이 이서, 글갱이로 그 솔잎 털어진 굽영 또 그 베로 무경 정 오랑이네 왕 놀영 낫당으네 그걸로 싯곡 곡석대 조대여 보릿대영 헌 건이 보리낭은 쉼 세왕에 쉼 메민 똥 밀터레 깎아 쟈이네 그거 걸름 멘들젠 허영 보릿댄 불도 안 습아. 아경. 그 쉼가 똥 싸민 오줌 싸곡 허민 그레 깎아줘사주게. 기추룩 헤영이네 허민 보릿댄 경행 이만씩 놀어도 경허곡 쉼 출 헤여당 멧 놀 놀어근네 쉼 먹영 뭐 그추룩 허난.

104022 @ 낭 허레도 가곡예?

104022 # 게 낭 허레도 이제 가을 들민 친구덜이영 낭 허레 가곡. 소낭밧디 강 글갱기로 굽어당 솔썩 굽영 또 무경 정 오랑 이만씩 놀명 살곡 기추룩 헤시네.

104022 @ 계난 저 소낭밭디 강 굽영 온 거영 그 다음 낭 행 온 거영 이걸로 지들커 행 살았구나예?

104022 # 응, 그런 거. 막 솔쩍 근어당이네 이만은 늘어. 늘어워서 그거 빠멍 짓곡.

104023 @ 계민 처음부터예? 소똥 말똥은 안헤낫수과?

104023 # 소똥, 말똥은 따시 좇어당이네 저런 마당 혼 췌이서 물령, 물령 췌똥이영 똥똥이영 좇어당 맥으로 좇어오랑이 경 좇어당이네 똥똥이네 굴목에 낳 굴목 때는 거라.

104023 @ 아 그건 굴목 때는 거?

104023 # 응, 경허민 늬보단 ㄱ슬에 조 헤나민 그르에 물이영 췌영들 놓주게. 경허민 늬보단 새벽이 가사 그 똥을 좇어. 문저 간 사름이 그 똥을 다 좇어.

104023 @ 아 좇어 가부니까.

104023 # 경허민이 요디 고침이 사름인디 죽은 각시헐 아덜 하나 난에 들안 사는디 그 큰어명이 그 죽은 각시에 아덜을 아기로 취급 아니헐영이 매날 똥 좇으레 가렌 헤영 막 허끄민 날보다 혼 살 위라도이 나가 다비져. 똥 좇으레 ㄱ치 새벽이 가민 난 거짓말로이 똥 수정을 세주게. 물 메운디 강 나 저 똥똥 저거 한 밧 두 밧 멧 밧이영 거짓말헤영 그 나 수정 췌 건 나 좇어난 다음에 남으민 좇어도 경 아니른 아니라. 솔직헐 남자가 이.

104023 @ 할머니꺼엔 나가 먼저 다 헤불엇어 영헐?

104023 # 응. 하나 둘 저거 나 똥 수정 췌 거 담지 말렌 허민이 그 사름 하나가 하나라. 솔직허연이. 경허연 다슴어명이영 살단 저 웃드리서 소가이 헤온 하르방네가 얘기 엇연 고침인디 얘기 엇으난 그 아덜 주민 핵교 시키켄 헐 국민학교 시키곡 대학 시경 그 아덜 그 하르방넌 믿는 사름이난 가이도 믿으난 영토당토 출세헐게. 날보다 혼 살 위인디.

104023 @ 혼 살 위?

104023 # 응 큰어명이영 살믄 밥도 졸바로 못 얻어먹곡이 노망허는 하르방이영 ㄱ치 누웁 자게시리 헤영이 허곡 허연 지네만 잘 살젠 헐디. 그 가이 못 살게 헐집이 얘기덜은 출세헐 얘기가 하나도 엇어. 그 사름은 그 웃드르 저 무*에 가서 소가이 헐 사름 얘기 엇인 사름 고씨난에 도렌 헐 키운 사름이 그 사름이 고씨 집에서 중학교 시건 고등학교 안 시겨도 중학교 시겨네 사는디 경찰관 똤연이. 경찰관 똤디 장개 가난 아덜덜이 머리가 좋아. 아덜덜 서너 니 성제 딸까지 다 큰 학교 헐 출세헤연. 경허난 그 사름은 경해도 그 집이 가네 학꼐 시기난 머리 좋난에 이디서 살명도 밧 이전 못허는 사름덜이 군에 강 밧도 이전헤 주곡 그런 거 허멍 살단 죽연. 경헐디 그 사름 아덜덜만 다 출세헤연.

104023 @ 계난 췌똥하고 똥똥은 어디레 담앙 올 거라? 똤에 담앙 와?

104023 # 똥다리, 똥 똥.

104023 @ 똥 들렁 가?

104023 # 맥 들렁 강이네 그 맥에 ㄹ득으민 또 정 오라.

104023 @ 아 정 오라 응.

104023 # 정 오랑, 정 오랑이네 젓은 건 마당 혼 펜이서 널곡 ㄹ른 건 굴묵더레 비우곡 혜영 굴묵 지딩 불채 나른 불채도 밧디 강이네 걸리곡.

104023 @ 아 걸름 허는 걸로?

104023 # 응. 굴묵 때사 방 뜻으난게.

104024 @ 아 방 뜻으게? 응 게민 아까 저 술썩 걸어난 얘기 다시 곶아줍서. 츠근츠근.

104024 # 술썩은 소낭밧디 강 글갱이로 걸영 이젠 막 메왕 놓주게. 이디 모닥 저 디 모닥 혜노민 혼 밧디로 메왕 대 이렇게 놔. 대 으정 강이네 시밧디로 대 낵 그 레 술썩을 풀에, 술썩 막 풀 잘 붙어. 영영 혜영 요레 놓곡 영영영 낵이네 이젠 들 리가 그거 묶으주게. 시밧딜로 대 낵 시밧딜로 무쟁이네 무꾼 이상엔 정 오랑이네 드러 걸어오민 놀도 놀곡. 술썩 놀도 놀곡 따시 그 술썩으로 불 슴곡 기추룩 허멍 살앗주게.

104024 @ 그건 가을에 허는 거주에? 술썩 좇으레예?

104024 # 응. 가을에, 응, 가을에.

104024 @ 그른 겨울 동안 그거 술썩 술썩으로 지들커 허는 거?

104024 # 응, 동네. 게. 경허민 저 덕수 지경은이 마가 심허영이 그 술썩은 마 타 질 안헤여. 놀영 놔뒤도이. 치박허질 안허영 우리 집이 살 땐 마에도 그거 강이네 골채 으정 강이네 골갱이로 박박 빵이네 정제 들엇당 슴으민 불도 슴곡 잉경이도 심경이 혜영 그레 고구마도 구웁 먹곡 헛는디 덕순 그런 술잎 허여당 줍지 안허곡 보리낭 놀엇당이네 보리낭은 추거워근에 내만 팡팡 나명 불 잘 못 슴더라게.

104024 @ 응 아까 잉경인 뭐?

104024 # 불 불 불 붙은 인쟁이.

104024 @ 거기다 무신거 현다고?

104024 # 인쟁이 이션. 그 불채 삭아지질 안헤연.

104024 @ 삭아지질 안 현 거.

104024 # 보릿텐 보리낭 슴으민 벌써 불 가가민 삭아지는디 술썩은 삭아지지 안 허여. 인쟁이 실강허민 고구마 그디 실강헌 디로 고구마 썰렁 놔두민 고구마도 익 곡.

104025 @ 낭 허레도 가 낫수과?

104025 # 낭 허레. 경허난이 시국 돼노난 이제 공출허렌 현 거지. 혼 집에 혼 다 라민 열 즐레라 열 개 무끄렌 허는 거주게. 혼 즐레

104025 @ 열 즐래?

104025 # 응 열 즐래.

104025 @ 낭을?

104025 # 응 무쟁이네 열 개. 낭 ㄹ 떼영이네 요만씩 혜영 무쟁 열 즐렐 바치라

허난 이젠 그 폭낭 아래 우리 시아방이 ㄹ치 이제 당신네 메뉴리 ㄹ치 강으네 허렌
흔 반엔 흔 반에 사름덜 빠지지 말앙 흔밧디 다랄 지스렌 허난 이젠 난 이젠 점심
싸고 행 강 보난에 우리 반에 사름덜 하나토 엇언게. 남자덜 신 집은이. 하나도 엇
으난 집이 오란에 이젠 시아방ㄹ라 아이고 반에 다 나가불언 하나도 어십테다 허난
에 시아방이 게른 어멍헐티 허난 나만이라도 가쿠다 허연 이젠 고지 간이 좁싸리왓
이렌 현 디 이서. 그디 가네 이젠 곳 트명에 창창 춤가시낭 이거만씩한 춤가시낭
창창 들어사난에 더듬단 보난 영 현 디가 춤가시낭 과짜 허연. 과짜허난 그까짓 새
끼덜한티 지렌헤연이 그 근방에 춤가시낭 이만씩헌, 이만씩 허주게. 이거보다 더 독
져. 이만씩헌 춤가시낭을 통케기로.

104025 @ 무신 걸로?

104025 # 나대로.

104025 @ 나대로?

104025 # 응 나대가 이서. 나대 알아져? 나대로 팡팡 못안, 툽으로도 안 그차. 툽
으로 언제랑 그치느니? 팡팡 서너 번 찍으면 탁 드러눕곡 팡팡 밋밋 드러눕지난에
땀도 바락 나곡 땀고 허난 수건 이젠 이렇게 졸라 메네 막 못앗주게. 갱 수건으로
땀도 썰고 앓앙 쉬언. 이디가이 콩, 콩방울만씩 다 붓물어. 붓문난이 그거 가지 다
듬젠 허난 다듬을 생각이 섬뜨근헤여. 눅져 놓은 현디. 겹불로 경허렌헨 장갑이 어
디서 그 시절에 장갑이 엇으난 수건 영 졸라 맺단 걸로 브런. 브런 요디 딱 졸라
매연 또 나대 심어네 그 낭을 가지 착착 허멍 이 지레기 이만씩 두 개씩 그치멍 막
내쳤주게. 내치난 한참 시난 시아방이 오란 어디곤 불르난 아무데레 읍서 허난 오
난 저딘 밧 하나 넘으면 질이난에 그레 그치멍 내치난 시아방 딱시 그디서 이젠 무
경이네 쉼레 시끄젠 허민 날ㄹ라 나오렌 헤영 흔 착 시끄렌 허곡 당신이 시끄곡 당
신이 정이네 좁싸레왓 너른 밧이 이서서. 글로 강이네 그 반에 사름은 다라시 쓰렌
현 밧이난.

104025 @ 다라시 쓰는 게 뭐?

104025 # 그걸 이제 영 조근조근 놓렌. 경허난에 간 보난 아무도 낭 허여다 논
것도 엇곡 아무도 엇으난 우리가 질 처음으로 낭 해당 조근조근 낫주게. 경허난 열
두 줄레 그거 영 묶으는 것이 열두 개가 흔 다라라. 흔 다라 헤여네 무경이네 재고
무경 재곡 허당 남으난에 쉼레 시끄곡 시아방도 지곡 허연 오게 돼도 그 사름덜 오
지 안헤여.

104025 @ 그 사름덜은 다 남자덜인디?

104025 # 남자덜인디.

104025 @ 할머니만 혼자 여자가 간?

104025 # 응 여자만 간. 기추룩 허멍 세상 살단 이제 감제 메 낫에 싱그레 가젠
허난이 장남 빌엇주게. 구루마로 잔뜩 감제길 하나 싯건 좁싸레왓이렌 현 거 열두
말지기 싱그레 가서. 게난 집이 사는 장남이영. 또 집이 이제 우리 시아방네 큰뜰에
손지가 이선에 지집빠 손주 가이 들곡 시누이가 처녀곡 허난 갓주게. 가난 밧디 강

기다려도 장남이 아니오란. 장남 아니오난 나가 우리 아버지 밧 갈 때 췌 이끄렌 허른 이꺼나난 그 멩에 찌울 중도 알곡 또 벳이 영 갈민 이레 질 거, 이레 질 거 알아지난 나가 갈아보쿠텐 허난 시어멍 어멍헝 니 알앙 헤질타, 멩에영 끼울 충 알아질타 허난, 아버지 허는 거 빵이네 헤 보쿠텐 헤네 우리 아버지 허듯이 멩에 이젠 췌로 헤연이 이거 허연 졸라 메고 이제 등에 걸로 헤연 그 잠대 빨에 이젠 감앗 주게. 감안에 시누이ㄴ라 심으렌헤연. 이끄렌, 질을 ㄴ르치레 이끄렌 허난 처암엔 고지 하나가 고지 하난데 이걸 이젠 처암엔 영 터가고 이디 영 타오난 이디 가운데 남았어. 남으난이 그걸 갈젠 허난 피들락 피들락 허멍 못 갈아. 한솔, 한소엔 한다. 한솔 못 털어. 못 터난 다음부턴 무조건 혼 번 갈곡 혼 번 갈민 이것이 고랑이 웨 더라게. 경헝 이제 감자 싱그는디 서녁밧은 닷말지기 검은 암췌 오란에 화순 사름 오란 밧을 갈아. 밧을 가는디 흐뎡 시난에 혼 열 시 밧 쬐은 웨난에 예펜이 점심밥 을 전 오멍 우리 밧들로 넘어가멍 아휴 대마도 물질 강 보민 물로 여자가 밧 가는 디 이젠 췌로 여자가 밧 갈암구나 허멍 곶으멍 넘어강게 이젠 밧은 그 사름 닷말지 기난 다 갈곡 우린 열두 말지기를 갈아사 싱그게 웬. 그 사름, 그 장남 오지도 안허 연. 무슨 사고사 나신디. 경허난 이젠 지네 밧 다 갈아지난 췌 흐췌 먹어사 이제 출 먹어사 이제 태역 밧드레 으져다 놓믄 출 흐췌 먹어사 밧 불릴 거난 갈아접수광 허난에 그 남자가 우리 한참 기다리단 허는 거 닷으난 어멍 헝 헝신고 오랑 반에 아이고 밧 잘 갈아젧수다 허멍 아이고 장남 빌언 놆두난 영허곡 정허곡 허연 할 수 어시 갈아보켄 웬 갈앗수다 허난 아이고 잘 갈안 잘 싱거젧수다 허멍 영헝서 나 갈 아주크텐 허난 막 고마완. 그 사름이 갈민 고랑에 풋을 놓나 이제 콩을 놓나 허민 씨 빼영 쬐씨 빼영이네 불리주게. 췌도 하나 그 밧을 불리젠 허민 언제랑 불리느니. 경허난 우리 시집이 물이, 불리는 물이 열 개 싯곡 응매 ㄴ성 탱기는 것도 싯곡 허 난에 집이 사는 장남ㄴ라 저 우이 강으네 물 몰아당 저 조팓 불려 주렌 허난 그 밧 되 물 다섯, 물 열 개에 몽생이 데려부난 열 밧 개에 몰아노난 그 밧으로 ㄴ득주게 이. 경허난 그디 주인 아주망ㄴ란 조름에서 물 떨어정으네 돌아나부는 거 매우멍 그레 조름더레 물렌 하고 우리 집의 장남은 영 빙빙 돌멍, 금새 밧은 불려 나완.

104025 @ 우리 집이 장남은 누게?

104025 # 장남 살아난.

104025 @ 아 살아난? 사람 데령으네? 일 허는 사름?

104025 # 일 허질 안허곡 우리 시아방 스춘의 아덜. 크민 장개 보내영 후손 나민 우리 애기 허젠 돌아오랏주게.

104025 @ 양제허젠.

104025 # 열 닛에 난 거. 열 니설 난 거 돌아오랑 사는디. 시아방이영 ㄴ쉬 보레 도 가곡이 드러허곡 허여신게 오꼳허게시리 우리 동세가 그 아일 막 곳은 체 헤연 지네 아덜 먹을 재산 갈라 먹을 거난이. 막 곳은 체 헤연 가이 못 살게 헤연 오꼳 보내, 곳은 체 헤부난 가이 냥으로 가불언.

104025 @ 아까 할머니 영 밧 여기 갈앙 영 돌아왕 요 가운데 무신거라?

104025 # 한소.

104025 @ 한소?

104025 # 응 가운데ㄱ라 한소 튼덴 한다.

104025 @ 한소 튼덴?

104025 # 한소 간덴.

104025 @ 아 가운데 영 가는 거를? 한소 튼덴 곶아?

104025 # 응.

104025 @ 응 너무 멀리 갈아지면 경허는 거?

104025 # 응, 경허난에 그거 이제 요추룩 헨 이젠 영 헨 가난에 요것이 남앗주게. 남으난에 이거 생밧이 튼 거 아니? 생밧이 튼난 또 그거 새로 갈아붙어사 양편 더레 갈려질 건디 갈질 못헤라게, 맹클맹클 허멍. 경헨 다음부턴 흐 고지 두 번만 갖다 오민 고지가 멘들어져. 경헨 그 사름 밧 불런 종곡 우린 딱시 밧 감저 싱경 좋고 헨 살아시네. 경허난이 시아방이 나를 막 자랑허곡 나를 애끼난이 어디 서방 언영강이네 트루 강 나강 살젠을 못헤라게. 경헌디 우리 큰딸 아방은 김은 ㄱ튼 김 씨라도 켜당은 아니주게. 우리 시하르방이 연날에 덕수 보섭을 잘헤, 저 쉼 불미를 잘허곡헌덴 허난에 쉼버랭이 좃으켄 시하르방, 우리 시아방 어린 때 돌안오란 어멍도 엇은 총각 돌안오란 살멍 헤연 이제 우리 시어멍한티 장개 간에 장개 간 새 서방 새 각신데 일본 강 살멍 공장 헤연 공업 공장 헤연 돈 벌멍 살앗주게. 경허난 돈 보내민 하르방네가 밧 사주곡 돈 보내민 뵈 사주곡 허멍 막 군물통 옆에 서편이 열두 말지길 사곡 또 질 우녀 편이 또 요답 말지기 사곡 허멍 막 밧 사주민이 고마왕이네 일본서 돈 벌멍 돈 보내난 지네도 그디서 때 먹으멍 살아실거여. 그 옥은 사름덜 쉼새끼ㄱ치 옥은 사름덜이난. 경허멍 일본서 오란 스뭇 그디 집 안팎거리 큰집 산에 살멍 헤연 아덜덜 그디서 풀곡 헛주게. 딸들은 일본서 큰딸들이영 다 풀곡 막둥이 딸허곡 우리 아즈방허곡 헨 서 오누이 들앙 오랑 사난 우리 아즈방은 일본서 큰학교 허난 오자말자 장개 간에 일본서 장개 간 오난 선생으로 허곡 우리 애기 아방도 일본서 학교 졸업헤여도 안적 직장 엇언 헤방이 그때 그 기계만 들어오난 서울 창고 허연 머치난 창고 흐 달에 두 번 세 번 강으네 보레 가주게. 어떡헨 신고 보레 강 올 땐, 그 때 구루무 일름이 '주주'라. 주주구루무 상 오랑 훌어멍도 주곡, 핫어멍도 주곡, 처녀도 주곡 한다.

104025 @ 핫어멍은 뭘?

104025 # 핫어멍은 서방 신 어멍.

104025 @ 아 서방 신 어멍은 핫어멍?

104025 # 응. 훌어멍은 서방 엇은.

104025 @ 거난 건 알고

104025 # 경헨이네 주민덜 스뭇 종왕 쌍이네 허멍 스뭇 우리 애기 아방 그.

104025 @ 인기가 완전 좋앗겠네.

104025 # 인기 좋아. 경허민 그 폭낭 아래이 우리 애기 아방이 육지 강 오민 유

헝가 하나씩 새로 노래가 하나씩 헤영와. 경허믄 우리 시누이영 그디 의자 으져다
농곡 진 기타로 맞춰. 소리 멩멍 헤영 맞춰 들리믄 또 떨렷젠 허멍 맞추고 경 노래
유행가 멧 개 일본 노래 배와줘라게. 배와쥬 노래허멍 살단 서방 죽어부난. 서방 사
난이 노래 잘허곡 우리 애기 아방 춤 잘 추민이 다른 부락에서 초칭 와. 잔칫날. 가
문 잔칫날 막 붉도록 놀아. 게민 난 애기 낳아근에 안 가켄 허민 우리 시어멍 아기
이리 들러다똥 가라, 가라 니 소나이영 가라, 가라 허민 막 서방은 가켄 헤도 안가
켄 허민 치메 저고리 트루 싸곡 수건 하나 싸곡 헤영 나영 그치 가가민 우리 시어
멍이 치메 안자룩 흐쫄 등기민 아덜 일름 불르멍 니네 각시 그 치메 자락 옷트레
쫘 잡아멩기렌 허믄 뒤에강 옷트레 쫘 올려주곡 헤라게. 그렇게 사이 좋게 살아. 경
강으네 이젠 막 노래 시작허믄 나 노래 한참 헤영 막 신나게 노래 헤가민 우리 정
자 아방은 포따리 으정 강 솔쫘 강 화장허영이 얼굴 에 화장허영 수건 썩 한복입영
춤추레 오민 체음엔 누게 허는 철이 몰란이. 막 스뭇 놀당 말젠 보민 아이고 우리
애기 아방이 화인이라 아이고 화인이로구나 화인이로구나 허멍 헤영 경 초칭허멍
허단 그 더러운 시국 나난이.

104026 @ 솟도 해낫수과?

104026 # 응?

104026 @ 솟 구워납디가 솟, 솟은 안구워난. 굽는 거 봐나긴 헛?

104026 # 솟도 이 대정 지경드렌 안헤여.

104026@ 플레 온 거 사긴 해난?

104026 # 플레 오민 삼은 허주게.

104026 @ 거 상 무신거 허는 거라?

104026 # 플레 오민 상이네 화리에 불도 살르고

104026 @ 응.

104026 # 이 저 퀘기 굴 때 화리에 살황 제숙도 굽고 경헛주게.

사냥

104028 @ 아, 혹시 사냥허는 사름덜도 봐납디가?

104028 # 응?

104028 @ 사농바치덜 봐납디가? 썩 사냥허곡 노리 사냥허곡.

104028 # 응 우리 동네 송칩이 하르방이 가족감티 쓰곡 가족신 멘들양 신곡 또
안성 오침잇 어른이 가족감티 쓰고 아랫도리도 가족으로 노리 잡으레.

104030 @ 아, 노리 잡으레.

104030 # 노리 잡으레. 우린 이제 보성 요 학교 뒤에 사난에 그 송칩잇 하르방도
학교 뒤에 살아 그 할으방 송칩이 하르방 아덜덜은 학교에 선생덜도 허곡 출세허고
저 안성 오침잇 아덜덜은 학교엔 안헤여. 경 그 하르방이 가족 감티 쓰고 이런거
가족 토시 손도메 이거 허영 찌곡 이 신발도 가족으로 신헤영 신영 아이고 저 하르
방넨 노리 잡으레 이디 송하르방 신디 오랑 우룩 맞찬에 올리로 안 강 우리 우영팻

으로 그디 성 영현 골목 이서. 우리 올레, 우리 우영팟디가 성 영 다젓주게. 영 성 다지민 요디 들어간 딜로 허영 산에 강 노리 잡양 온텐 허영 그추룩 헤영 가족신, 가족모즈, 이 손도메도 허영 강 노리 스망일민 잡양덜 올랑덜 그 송칩이 하르방네 집서 잡양덜 갈르곡이 기추룩 허는디 오침잇 하르방넨 아덜이 서너성제 뤼도 흑교 안 시겨신ㄴ라 출세 못허고 그 송칩이 하르방은 아덜 하난디 흑교 선생질 허단 죽 연. 그하르방 아덜은 출세허연. 게 손지덜도 막 으망져. 잘 뤼고.

104028 @ 그렇게 허는 사름을 사농바치엔 곶아?

104028 # 응.

104028 @ 사냥꾼?

104028 # 그냥 사냥꾼.

104030 @ 주로 노리 잡으레 다녀예?

104030 # 순 노리만 잡으레.

104029 @ 꿩은 안 해?

104029 # 꿩은 잡양 온 말 아녀고 노리 사농 감젠은 허더라.

104030 @ 노리 사농 감젠.

104030 # 산에 강은에 노리 사농 감젠.

104030 @ 경 헤낫구나예. 할머니가 거 허는 거 봐나진 안헛지예?

104030 # 마치고 뭐 허는 건 봐나지 안허고 잡아근에 정 오는 건 봐났어. 정오랑 이네 그거 송칩이 하르방네집이 송칩이 아덜은 선생이 뤼고 오침잇 아덜덜은 선생 뤼 사름 엇연.

5. 바다일

105001 @ 이디 인성린 바당 엇주예?

105001 # 바당 엇어. 이 대정골은 바당 없어.

105001 @ 바당에서 허는 일은 잘 몰르주예?

105001 # 바당엔 해녀덜 허고.

105001 @ 바당에 강 무신 거 잡곡 헤낫수과?

105001 # 응.

105001 @ 무신거 잡아납디가?

105001 # 바르도 테고.

105020 @ 바르가 뭐?

105020 # 전복새끼.

105020 @ 아.

105020 # 전복 새끼ㄴ라 바르.

105020 @ 응.

105020 # 강은네 나 바르 낭퐁이로 하나씩 잡앙 온다.
105020 @ 에.
105001 # 메역 허경 나쁜 눈 썩강 메역 헤여근에 우리 시누이 집이 혼짐 저근에 보내두곡 또 나 말젠 물친 잡앙 오곡.
105001 @ 메역도 허레 가 낫수과?
105001 # 메역허레 세계 바당에 강. 허경허민이 물꾼 허경허는 날이 이서.
105001 @ 응.
105001 # 해녀질 안 현 사름 혼 불 허렌 허민 그 굶디 든 거 허렌 허민 물꾼이엔 허영 눈 썩 나타나민 저 웃드르 해녀덜 못허게 막 허주게. 지네 해녀덜 거렌. 게민 눈 바당 안에 거자 강이네 그 사름덜 보지 못허게 눈 썩 들어강 메역허영 귀로 그 창이네 허리에 차사주. 베 즐라매영이. 허리에 차주. 귀에 안 그창이네 허민 질질 빠져붙어.
105001 @ 아.
105001 # 귀로 그창이네 허리에 톱 차민 빠지질 안헤여.
105001 @ 여기. 오.
105001 # 게민 탁 그창으네 허리에 창 싹 밀리고 탁 그창 허리에 싹 밀리고. 잔 툽 허리에 창 오민 큰 바구리로 하나 허영 우리 시누이신티 비와쥬 건 몰르게 허는 거주게.
105001 @ 응.
105001 # 몰르게 허영 정 혼저 올라가렌 헤팅 말젠 물친 잡으민 낭퐁이로 하나 바르 테고 구살도 테곡 헝 올라오곡.
105001 @ 해녀도 아닌디 그런 것도 잘 해낫구나.
105001 # 응, 게. 나 해녀질. 경허난 세계 진짜 해녀덜이 웃드르 해녀덜 저 해녀 질 아녀노렌 허명 헤영이네 눈이영 곱젓당 말젠 물에 들어강 눈 썩 문 헤염젠 막 헤여낫어.
105001 @ 허허허. 눈은 옛날에 두개 안경 닳은거?
105001 # 응 경현 거 썩 영 썩. 이제도 해녀덜 쓰는 거.
105001 @ 응.
105001 # 나가 손 걸영이 우리 시아방이 팔뻐열여드레 날이 시하르방 식게민 팔뻐 보름 뉘민 갯곳이 계속 가렌 헤영. 갱 바르 잡아당 적갈허곡. 물꾸럭 시꺼오민, 심어오민이 어뜬 댜 물꾸럭 두시 개 심어져.
105001 @ 에.
105001 # 경허민 상통이 뉘쓰지 말앙 그냥 오랜 허민 쉼고쟁이 으정 강은에 구덕 바위에 걸영 쉼고쟁이에 끼명 영 상통이 뉘쓰민 그 먹을 빠붙어사 헐거주게이.
105001 @ 응.
105001 # 상통이 확 뉘쌍 먹 빵 던져 불주게. 시아방 화병으로 그 먹 그냥 먹켄 허영 어뜬 댜 물꾸럭 시 개 잡을 때, 두 개 잡을 때.

105001 @ 아이고.

105001 # 보름 물찌에 하얏킨 일고 으담물 7지 계속 시아방 가렌 허영 강 오고. 바르 찻아은에 시하르방 삼월에 식게난 삼월 보름 가까울 때 식게난 적허고.

105001 @ 응

105001 # 그추룩 헤났어. 이제 나 이 우리 애기아방이영 살명도 갯곳이 강은에 모실포 바당에 강도 바르영 전복이영 하영 테고 물꾸럭도 흥번에 강 두 개 잡아지민 동넷 사름 서너이 갈랑 으지렌 허고 하나헌디. 이 보성사름덜이 도야지 잡고 알뜨르 먹으레 감젠 허멍이 이디 보성 강부장이엔 헌 사름이 무사 날7라 삼춘이엔 헤신곤 허난이 연날에 서부락에 사름이 강칩이 보성 강칩이 시집왔어. 딸이 시집오난에 아방 죽언에 고렘을 간 거주게이. 경허난 나도 그 이디 대정골 시집온 아이아방 죽은디 고렘 가명 보난이 그 동부락으로 영 나오민 삼커림이라. 삼커림인디 보성사름이 저레 막 뛰어가라게. 강칩이 사름이 막 뛰어가난. 야! 닌 무사 그레 감디 허난 말 맘서 말 맘서 허멍 점방 우트레 돌아. 어뜨난 말 말렌 허멍 들암신고 허난. 아 그디간 보난 청년덜이 싹 두줄로 산 어떤 놈 일러세완 팍 박천 발로 바락 불르고 팍 바천 바락 불르난 아 누게가 이디서 다 죽엄신고 그 사름이 하나 들으난 흑시나 대정골 사름인가 누겐하 허난 사름이 팍 두 줄로 사. 그사름 가운디 일러상 확허영 잡아 두들민 발로 바락바락 불르크 허난 요 흥줄에 사름 영 밀령 들어가난 이던 두줄로 사도 흥꿈 새가 늦언. 보난 이디 강칩이 사름이라게.

105001 @ 무사?

105001 # 강칩이 아인디 흥쉴 깡으로 흥꿈 논 아이. 아 경허난 거짓말로이 아이고 경허지 말라게 이거 우리 오라방 아덜이여게. 경허난 그 청년덜 싹 무너사라게. 우리 애기 아방이 그디서 청년덜 글 7리치고 막 헤어나난 산디사이. 아이고 느네 경허지 말라게 이거 우리 오라방 아덜이여게 허난 싹 무너사난 제우 일러세완 아니까진 디가 시냐. 부축허연 차부에 오란 버스 헤연 시건 보내시네. 시건 보낸 그 집이 누이 가게 볼 때 곱으난 아이고 고맙수다. 아이고 삼춘 고맙수다. 우리 오라방 깡패질 허는 따문 스몏 어디서 술 먹영 뉘 헤염젠 허민 우린 스몏 즘을 못잡니텐 아이고 삼춘 고맙수텐 허연 그 아이7란 아부지네 집이 올 때 곱으멍 허난 고맙텐 헤영 우리 아이 들안 올 땐 과자도 주꼭 헛게. 나가 이제 대정골 오란 살게 뉘난 그 사름네 농사 잘 아이 쳐도 두가시가 앓안 마농 깡서라게. 아이고 이젠 영 얹전 헤연 앓안 마농도 깡구나게 허난 예 허멍 아이고 아무때에 이만저만 헤신디 누게 날 딱릴 사름이 싹수과 허곳데 저디강 들어보라 니 하도 누겐 철이 몰란 흥 줄은 사름 못보게 딱 사고 두줄첸 흥 줄은 손으로 밀런 영 보난 고망난디 간 보난 느난에 아이고 우리 오라방 아덜이여게 느네 경허지 말렌 허난 싹 무너사난 나 차부에 시건오란 버스에 시건 보냈저게. 경헛 나 멧 년 전이 느네 이디 셋누이7라 곱앗저 허멍. 그땐이 오라방 아덜이엔 허난 고모, 고모. 미시거 영 봐지민 요샌 고모 뉘헛수과, 고모 영 못보는게, 못 보는게 허멍이. 영 넘어가당 놀레 읍서, 놀레 읍서. 이제 지금이라도 고모, 고모 허여. 사름이 인정이 경 허는 거라.

105002 @ 듬북이나 이런 것도 해납디가?

105002 # 응?

105002 @ 듬북, 감태.

105002 # 그런 거 안헤여.

105002 @ 밧디 걸름 허젠 허민 그런 거 행 와낫젠 헨게 만든.

105002 # 아니 그건 저 세계 사름덜 바당굿디 사름덜 이디 사름덜은 안헤.

105002 @ 이디 사름덜은 그런 거 안헤예.

6. 의생활

옷감

106001 @ 옷감의 종류에는 뭐 뭐가 있습니까?

106001 # 곳감?

106001 @ 옷, 옷 기지 기지 무슨 기지, 무신 기지 이서?

106001 # 옷ㄱ음, 옛날엔 베가 있고, 멩지 있고 광목이엔 현 건.

106001 @ 광목도 있고.

106001 # 미녕.

106001 @ 미녕 있고.

106001 # 그거 뿐.

106001 @ 이것 뿐.

106001 # 미녕은 멘네로 허영으네 집에서 미녕 차고.

명주

106002 @ 제일 처음엔 멩지.

106002 # 멩진 누에 질황.

106002 @ 그 멩지실은 어떻게 만드는 거파?

106002 # 누에 지를주게. 멘에 강으네 누에썰 받아왕 누에씨 무신거 쟈쟈현 좁쌀
닭은 거 이런 디 종이에 바짝 부텅이서. 흰 종이에이. 부텅시민 어디다 놔두민 게여
미 새까만 게여미 닭은 거 나와. 나와가민 뽕 여랑진 걸로 어랑어랑한 뽕잎을 텃앙
이네 막 즈질이 썰영으네 이젠 그 가물가물 대가리 그 동그락 동그락 현 것이 가물
가물 나와. 게여미 막 죽은 게여미 닭은 거 나오민 그래 영~주민 그것이 먹어가민
이 대가리가 헤뚜룩 허영 커가이. 경 행으네 쟈으네 허민 이제 누에가 이만은 크민
초불 즈, 두불 즈, 세불 즈 자민 고치 뉘게 뉘어. 게민 뽕 주민 경 먹으민 누에 한
값이엔이 구들 두 개에 낵이네 뽕바구리를 타당 탁탁 그냥 낵이네 쥐동 이디 오랑
뽕 정가 보민 벌써 다 먹어. 뽕 먹는 소리가 와상 와상 와상 와상. 경 허민이 난 뽕
강이네 툷아오고 우리 시어멍네이 이제 그거 허데경 쟈쟈허고. 밤인 딱시 쟈 잘 시

간 시냐. 그 누에 똥을 치와사주게.

106002 @ 똥도 치와야 돼여?

106002 # 누에 똥 똥글똥글 싼 거 자주 치와줘사주게. 경혜가민 한 밥 돼영 니불 쟁 잡 깨영 한 밥 돼민 뽕 주민 먹으멍 허당 실을 이른 디 흔들흔들 실이 나와. 실 나오민 이젠 올리게 똥젠혜영이

106002 @ 올리게 똥젠?

106002 # 올리게 똥젠이 이젠 이거 이제 올리게 똥젠, 고치 만들게 똥젠 혜영 이제 저 무시거 노물지지 세왕으네 유채낭 닳은 거 그거 허영 곱게 털영 무경 낫다이네 체업에 흐쓸씩 흘 땀 바구니에 담야. 그 유채낭 영 몽드그렁 바구리에 담양 그 누에 툽툽 올려와근에 바구리에 지냥으로 올라가근에 막 고치 짓영 고치 안에 들어가. 차츰차츰 들어강 고치 돼어. 경 막 한물에 돼민 차롱착에 저 동백낭 그쳐당 두드려 바짝 세우주게. 동백낭 오늘 그창으네 노민 이파리 영허영 안 돼어. 그창 흔이틀 돼민 이파리가 영 옹크리민 저디 동백낭 저런 서들기 그쳐당 구들 하나 잔뜩 노민 차롱착에 가근에 퍽퍽 던정 놔 두민 고치 낭 위에 올라근에 혜영케 고치가 열어. 혜영케 올라. 경 행 흔이틀 돼면 그도 이젠 타주게이. 내치멍 탕이네 이젠 뱃기는 거라 뱃경이네 이젠 터력을 뱃경 몽들랑 몽들랑 이제 고치 돼민 이젠 누에 싸는 어른 빌어당 솟디 낵 숲아. 솟디 낵 숲아가민 영영 허민 실 나와. 영영 이젠 것가락으로나 뒤신 실 나오민 실은 이젠 물레에 이렇게 감야. 물레에 감양이네 이젠 이디서 물레 영영 들르멍 실을 흐는 어른은 이걸로 짜룩 짜룩 허민 이디서 물레 감곡 그추룩 허영 가름짓주게. 가름짓어.

106002 @ 가름짓는 건 무시거?

106002 # 게 저 실이민 영 혜영이네.

106002 @ 영 옹크려근에?

106002 # 실이른 영 허는 거 이거 가름.

106002 @ 아 그게 가름지는 거?

106002 # 영행 가름짓영근에 낫다근에 가름 일단 짓은 다음에 한 며칠 돼민 이젠 메여사 허는 거라이. 메게 돼민 그른 무슨 것에 이런 디 그 줄을 다 고냥에 딸른 더레 다 끼왕 끼왕이네 이젠 이디 잡양땡경 그걸 이젠 다시 풀 썩 가시리 풀 썩 망문직겨근에 이제 저레 동경 강이네 이 도꼬마리 닳은 것에 이젠 줄라 매여. 대가지에 꾸영. 줄라매영이네 이제 풀 적지멍 이제 술술 쓸영 감곡 술술 쓸영 감곡허영 일단은 다 감은 이상에 다 헤지민 이젠 베클에 낵이네, 베클에 낵 차게 돼어. 베클 드레 낵이. 버디집 꾸왕 버디에 이젠 다 꾸와 버디에 다 꾸왕이네 이제 버디집 더경이네 이젠 허리에 창이네 이젠 이렇게 두들멍 차주게.

106002 @ 이거 이거 무신 거라?

106002 # 이건 꼬릿박.

106002 @ 꼬릿박.

106002 # 꼬리 감은 거 이제 그 꼬리가 이추룩 행 감은 거 영 감은 거 시민 이

감은 것이 요래 드리치주게. 드리쳐근에 올로 실 나오게 허영 영영영 드리차가민 그 실 이디 거 다 풀어지주게. 경 행으네 다 하영 창이네 허민 경허난 미녕은 흐루 서른 자 차져.

106002 @ 멧지부터.

106002 # 멧진이 하루 종일 체암에 종일 차난 흐 자베끼 못 차.

106002 @ 아, 경 힘들어.

106002 # 얼마나 즘진 거니게. 게고이 압이 진땀 압 브따사 흐쫄 압이 너무 진땀 어이구 어거 어느체랑 다시 멧지 찰 생각이 어선이. 그 때 멧진 흐 두 빌레기 헤연 제우 차난 다음부터 누에 질좌근에 실 멘들앙 실에, 저 호근리 사름들 오랑이네 멧지 으저오랑 바짜가민 바짜갓주. 멧지는 차보질 안 헛져. 힘들언. 미녕은 흐루 서른 자 차져. 아제기 일어낭이네 조반 떡곡 행 서른자 차가민 우리 시아방은 늣 빌영 차젠허민 곤쫄 서경 밥 헤영으네 맥이고 생선 사당 썩 맥인다. 저 메뉴리 햄시민 잘 허렌 허멍 허민 저 우리 시어멍은 하르방 안 곺아도 메뉴리 잘 행 맥염수다 허멍 쟁 막 날 애껴라게. 미녕차고 멧지차고 허연. 멧진 다시 찰 생각 었언. 멧진 허민 실로 주민 멧지 바짜. 게민 나 멧지로도 풀고 따시 시어멍 시아방 옷 행 입으렌도 허고이.

106003 @ 멧지실은 종류가 무신 실, 무신 실 두 개 이수게.

106003 # 두 개 었어. 단지 한 가지. 멧지실

106003 @ 생멧지 이런 거, 생멧진 뭐라?

106003 # 생멧진, 생멧지엔 현 건이 멧지 창이네 그냥 풀 안 행이네 그자 허영 습지 아녕, 습지 아녕 미녕 멧지 창이네 그냥 풀 맥인 거 그냥 풀만 죽여똥 생멧지로 그냥 상그랭이 잇는 것ㄱ라 생멧지지.

106003 @ 아. 따시 풀 헤영 막 다듬이 막 두 불 세 불 막 다듬앙 빗이 나게 현 거는 그냥 멧지엔 허고.

106003 @ 아, 그건 그냥 멧지고

106003 # 생멧지는 여름에 중이 적삼들 행 입고.

10600 4@ 아, 생멧지로~ 그문 이런 멧지로 행 입는 옷은 아까 여름에 행 입는 건 생멧지로 중이적삼 입고, 또 멧지로 무신거 행 입읍니까?

106004 # 저슬에 저 늣은 어른덜이 죽으민 죽은 바지, 저고리 행 입곡이 남자 어른은 동복. 여자 어른은 장옷.

106004 @ 아, 그건 다 멧지로?

106004 # 경 아무나 멧지로 허카부덴. 우린 멧지로 질르난 우리 시어멍도 멧지로 장옷 허고 시아방도 멧지로 도복 헛주. 경 허난 시아방이 나 죽어가건 니 헤 준 멧지로 헤 준 옷 입저드라 입저드라 헤도 못 입지고 시어멍은 먼저 죽어가난 나 손으로 문딱 목욕시키고 나 손으로 헤진 옷 입젓져.

무명

106007 @ 그민 이제 미녕에. 미녕은 종류가 여러 개 이수과? 무신 미녕 무신 미녕.

106007 # 게, 미녕도게 일곱.

106007 @ 광목도 미녕이주예?

106007 # 광목은 멘네로 제주도산 아녕 육지서 가.

106007 @ 닷새 미녕, 닷새 미녕 이런 거 이서?

106007 # 닷새 미녕 일곱새에 현 것은 일곱새에 현 건 줌진 거, 닷새 미녕이엔에 현 건 훑은 미녕.

106007 @ 아, 일곱새 미녕, 닷새미녕 영 허는디 일곱새 미녕은 줌진 거?

106007 # 응 줌진 거 줌질게 허영

106007 @ 일곱새가 무신거가 일곱새 거라?

106007 # 줌질게 허영이네 올도 더 놓고 꼬리도 더 들주게. 줌진 거 실이 줌진 난. 일곱새 미녕이 경 흐쉴 서툰 사름은 부릉부릉 좇아근에 닷새 미녕 아이고 쉽게 닷새 미녕 헛져. 허여도 왜냐 미녕은 서른 자 차져. 흐루에. 서른 자 한글리 차져.

106007 @ 게민 저 광목은 육지서 행 오는 거고 미녕은.

106007 # 광목은 육지서 행 와사.

106007 @ 육지서 행 오는 거? 생목, 토목, 생목 영허는 것도 이수과?

106007 # 엇어.

106007 @ 엇어?

106007 # 단지, 멍지 생멍지, 노인 멍지. 노인 건 이제 저 제혜영이 노영 보그락 허게 노인 멍지엔 허고 생멍지는 그냥 빨앙 생 걸로 바들락 현 것이라 생멍지렌 허곡.

106007 @ 생멍지허고 노인 멍지?

106007 # 응.

106007 @ 노인 멍지는 어떻 현 거라?

106007 # 노인 건 물 데운 디서게 빨아불민 그 흐쉴 발이 죽어지주게 실이 보도 라와. 노인 멍지는. 게고 쉐 거 그자 쉐 거로 헤 두민 보드락 헤영 생멍지 여름에 생멍지로 아이구 저 난닝구 헤연 입언 오난 안그랭이 잘도 조타 허멍.

106008 @ 미녕 다시 얘기할게예. 미녕으로는 무신 옷 멘들아 마썸?

106008 # 미녕으로 이불 안도 허곡, 감 들영으네 갈중이 짐뱅이도 허고, 또 없는 사람은 바지 저고리도 헤영.

106008 @ 미녕으로예? 주로 미녕을 하영 입엇구나예?

106008 # 미녕 주장. 하여큰 봄 나민 갈옷허영 감 들영 갈옷 그자. 매해에 갈옷 허주게. 흔 헤 현 걸로 입어지냐 매날.

106005 @ 그민 미녕은 어떻 행 멘드는 거짜?

106005 # 미녕? 미녕게 이제

106005 @ 멘네?

106005 # 멘네 갈양.

106005 @ 멘네 갈양.

106005 # 갈아근에 캐민 타당.

106005 @ 무신거 타당?

106005 # 멘네 타당게.

106005 @ 멘네.

106005 # 캔 거 타당이네 이젠 집이서 막 물려. 바싹 물렁. 메틀 메틀 물려. 물리지 안허민 버랭이 바글바글 일어. 물리민 이제 씨 빠는 거 이서. 물레 씨 빠는 거. 경 영 해가민 백여가민 썬 털어지곡 멘넨 베끗디레 나가. 나가민 이제 그걸 이젠 그디 닥살 휘초리로 몽땡이로 두들어근에 바싹 물렁. 이젠 그 멘네 태우는 클에 강, 클에 강이네 이젠 즘질이 태와가민 따시 저 대죽 복데기, 대죽 그 고고리 부튼디 대가 고는 거 곱닥헌 것들 잇주게이.

106005 @ 예.

106005 # 그거 이젠 허여당 놔뒹당이네 그거 태우레 가민 그거 멧 개 으정가. 게민 소게 태워가민 소게 으저당 잡아댕경 영 낡이네 대죽냥 낡 영영영 밀민 그것이 쪽 빠불고 허영 그거 이젠 멧 개 소랑허게 시리 멘들주게 막 멘들양 그 멘네 다 시빌레기 니빌레기 다 태우민.

106005 @ 시빌레기 니빌레기가 뭐?

106005 # 흔 빌이 마흔 자주게.

106005 @ 아, 흔 빌이 마흔 자.

106005 # 흔 빌이 마흔 자민게 허는 사람은 댓 빌씩도 허주게. 그추룩 허민 이젠 그거 이젠 그거 영 정 밀어당이 속에 태우는디 강 이 대죽냥 솔뚝이로 영 행노민 이젠.

106005 @ 흔 빌은 어마니허파? 흔 빌 어마니? 흔 빌은 어만큼 헌 게 흔 빌?

106005 # 흔 빌은 흔 빌은 어허연?

106005 @ 얼마니?

106005 @ 흔 빌은 마흔 자가 흔 빌.

106005 @ 게난? 마흔 자는?

106005 # 자로, 자로 재여.

106005 @ 자로 재근에, 멘네를 그렇게 행으네.

106005 # 경혜근에 그 소게 태왕이네 그 즈룩을 영 멧들양 무껍 오민 이제 집이 물레가 잇주게. 거민 이거 실 좀 빵이네 이제 고지게가 이제 노슨 거 끼우곡 물레 메우곡 허민. 이 실 빠 거 고지게엔 이제 어욱 꺾테기 이파리 신 거 떼어뒹이네 어욱 대여 꺼 영 영 떼영 그 고지게 쇠레 영 꼭 끼왕. 끼왕이네 이 실 꺾갱이에 흐쉴 그 심닭은 꺾갱이레 영 특허게 부쩌근에 허민 이거 영영 좃으멍 조르르룩 행 요마니 가민 초룩 허고. 조로로룩 행 초룩 호고. 허영 이만이 허민 그득으민 빠불고 헤영 말젠 이거 빠 거 이젠 꼬리 감양이네 그건 이거 꼬리뺨에 낡 차는 거고 이 이건

그냥 장지서로 허영 이젠 놀앙이네 이젠 풀 맥영 도꾸마리에 감앙 풀 싹싹 맥이고 솔로 싹싹 썰앙이네 이젠 그 그걸로 이젠 밀렸다 저레 밀렸다 막 헤영 곱게 헤지민 또 잡아텡경 허멍 행으네 허영 미녕을 웨민 베클에 이제 낡이네 발로 초신에 영 끼우고 이걸로 영 허민 착 착 착 착 쟁헤영 미녕 찾주게.

106005 @ 응

106005 # 게민 미녕도 체암엔 압 이디 너미 진 뎨 하영 차진 못헤여. 막 차기 존 뎨 서른 멧 자씩 차져. 멩진 다시 헐 생각 엇어. 이젠 멩진 기계로 이거 허난 허주. 이제도 미녕도 기계로들 육지에선 허지 안햐서게. 쟁허난 미녕도 시어멍꺼 두 클차. 게민 여름에도 마에도 쉼막에 베클을 앓아불지 안 허영 게민 칙칙허민 그스락 불클아래 피왕이네 마에도 그 미녕 나 거 차지, 시어멍 거 차지, 또 그 늪이 할망 빌영 꼬리 빌영 좃으민 꼬리 빌영 좃은 할망 거도 차주지. 스뭇 미녕 참으로 다 죽어.

106005 @ 응.

106005 # 게 멩진 다시 찰 생각 엇서. 멩진 그냥 질황 그자.

106005 @ 폼도 해?

106005 # 강이네 그 사름들이 멩지 언영 오랑 실 바파가.

106011 @ 흥세 미녕은 뭐마씨?

106011 # 흥세 미녕이엔 현 건 그거 결혼 허는디 미녕 혼 빌 그 새각시칩 집이 흥세미녕으로 으져가는 거.

106011 @ 거, 뭐렌 행 주는 거라?

106011 # 뭐 허렌사 줘신디 미룻 쟁.

106011 @ 옷 행 입으렌?

106011 # 꺾 닳은 것에 담앙이네 보내. 이젠 저 그런 것에.

106011 @ 함?

106011 # 함인디 이젠 그 비단 그튼 거 담앙 보내, 전인 중간엔 비단 그튼 거 담앙 보내고 행 그런 거주게.

모시

106015 @ 모시도 헤낫수과?

106015 # 모신 제주돈 안 헤난.

106014 @ 제주돈 안 헤난예. 모시로도 옷 행 입곡예.

106014 # 게 모시로 옷 행 입고. 모시로, 모시로 종이적삼 행 입고, 모시로 두루막도 행 입고, 팔월에 멩질에 남즈덜.

106014 @ 하양허게. 건 돈 한 사람이나 행 입주예?

106014 # 아무나 입으카부덴.

106014 @ 계난예.

106014 # 계.

106015 @ 제주도에서는 모시 잘 안 나는 거지예?

106015 # 안 낭으네 육지서 모시 오민 모시 상이네. 두루막 허영 입지고. 나 모시 두루막 허고 멩지 중이 적삼 행 입전. 멩질 먹으레 팔될 멩질에.

삼

106016 @ 베, 베.

106016 # 베도 육지서 오는 거.

106016 @ 아. 이디서 안 허는 거?

106017 @ 베는 어떤 옷 행 입습니까?

106017 # 베도게 중이 적삼 행 입고 (여름에?) 잘사는 사름이 중이 적삼 행입주. 아무나 행 입어?

106017 @ 모시나 베는 아무나 입는 게 아니구나예.

106017 # 게 나도 우리 사우덜 시 성제 다 베로 중이 적삼 허고 모시 두루막 행 입지고. 저 베로 중이 적삼 행 입으렌 베 흔 빌 으정 가난 베 중이 적삼행 입는 사 람 어디수과? 헤도 놔똥 오랏주게. 우리 아덜도 장게갈 때 멩지로 바지 저고리 도 북 멩지로 다 헤연 입지고. 베로 중이 적삼 헤여쥬 입으렌 여름에 입으렌 허고. 우 리 오라방 아덜도 베로 중이 적삼 헤연 줘지쿠데. 아덜도 허영 입으렌 베 얻어당 쫓주게.

도구

106020 @ 아까 미녕혈 때 저 예 멘네 씨 빠는.

106020 # 물레.

106020 @ 그거 무신거엔 곶아마씨?

106020 # 물레엔 허여. 거 씨 빠는 물레.

106020 @ 물레엔 허여.

106020 # 경허민이 물레 으추룩 허민이 이레 멘네 영 먹어가민 이레 멘넨 나가고 썩 이레 다룩다룩 털어져. 게난 그 제국시절에이 이 물레 소리 나민이 멘네 실 블 램젠 허영 공출 안 험젠헤연 고자질 헤노민 그 집이 미녕 흥나토 못 허게시리 헤부 는 따문이 이 퀴에이 저 지름을 불르나.

106020 @ 소리 안 나게?

106020 # 응, 경 헤여근에 멘네 즈룩 밤이 멘네씨 불르고 경해서. 멘네 갈민 멘 네 공출 얼마 허렌 딱 때려불민 미녕을 못 헨 입엇어 그뎨. 얼마나 제국 시절에.

106020 @ 씨 불르는 거 말고 그냥 영영 실 감는 물레도 이수게?

106020 # 그건 물레 좃넝 허여. 실 빠는 즐레. 그건 댓가지로 영 헤영 허곡.

106020 @ 그건 이름 뉘엔 곶아?

106020 # 것도 물레엔 허여.

106020 @ 아, 똑ㄱ치?

106020 # 건 물렌디 그냥 쉼 이젠 실 빵으네 감는 쉼 메와지주게. 경허민 요거

실 빵이네 요런 것에 매우민 영영 물레 좇으멍 헤가민 그 멘네 조르륵허게 실 나와.

106020 @ 응

106020 # 실 나오민 이 손잡이 기계 특 허영 영 허민 초록허게 그디 들이치민 그 게 감아지곡.

106020 @ 응

106020 # 쟁 헨 그거 고지게 빵이네 혼 빌레기 멧 개 헤지민 몽둥이에 감양 미녕 놀앙이네 미녕 차는 거주게.

106021 @ 베틀은?

106021 # 그거ㄴ라 베틀ㄴ라 베틀이렌 허주게.

106021 @ 베틀은 실 짜는 거주예.

106021 # 응.

106021 @ 그믄 저 아까 저 뭐지? 멧지 짜는 거영 미녕 짜는 베틀이 트나?

106021 # 트나지 안 허여.

106021 @ 아 ㄴ튼 걸로 그냥 허는 거파?

106021 # ㄴ튼 걸로 그냥 허는디.

106021 @ ㄴ튼 걸로 허는 거구나예? 옛날에 할머니네 집에 이서낫수과?

106021 # 셔낫주게. 셔난디 어디레사 다.

106021 @ 계난 어디로사 다 치와불엇인디사.

106021 # 보디집이엔 현 건 보디 영 허영 끼왕 허는 거고. 꼬리빱이엔 현 건 꼬리 감양이네 이젠 담양 영 허민 꼬리빱으로 왔다 갔다 허멍.

106020 @ 잠깐만예. 계난 아까 씨 빠는 건.

106020 # 물레씨 불르는 거.

106020 @ 씨 불르는 거? 씨 불르는 물레예. 그 씨 불르는 물레는 그것도 영 일 름이 다 이수게?

106020 # 응, 씨 불르는 물레 그냥 요만은 허영 저 멘네 영 백이멍 영영영 허민.

106020 @ 돌리는 건 이름 뭐라?

106020 # 그냥 이거 손잡이 영 돌림만 허민.

106020 @ 손잡이.

106020 # 그 멘네 썬 앞터레 털어지곡 멘넨 뒤터레 털어지주게.

106020 @ 계난 그거 이름 이 앞에.

106020 # 그냥 그거 물레엔 허메. 멘네 씨 불르는 물레.

106020 @ 그거 말고 이거 돌리는 건 손잡이. 그 다음에 씨 멘네 앞터레 털어지게 허는 영 바치는 거 이수게. 이건 무신거엔 곶아?

106020 # 거 썬 그냥 털어진텐 허영.

106020 @ 그냥 씨 털어진텐 허여?

106020 # 그냥 이런 디 받앙이네 허곡.

106020 @ 기둥 잇고.

106020 # 지둥 엇어.

106020 @ 바닥 잇고?

106020 # 바닥에 그냥 멘네씨 불를 땀 그냥 이 바닥에 물레가 영 놔. 농민 이디서 맥여가민 이디 멘네 그냥 가고 이레 씨 털어지곡 이거만 영영 들름만 허민 멘네 불르는 거나 뭐 어린 아이덜이라도 허는 거고. 경 허주.

106020 @ 영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뒹어 잇는 거. 파배기처럼 이렇게 뒹어 잇는 거 그 사이레 영 집어 넣으민 까지는 거 아니?

106020 # 톱니? 그건 무시겨 아니냐게.

106020 @ 씨 불르는 물레?

106020 # 씨 불르는 물레가 저 톱니 닮은 게 아니.

106020 @ 톱니 닮은 거 아니?

106020 # 무조건 이레 허민 두 개가 낭이영 두 개가 영 먹어가민 멘넨 저레 털어지곡 썬 이레 털어지곡. 톱니 헨 거 엇어. 멘네 씨 불르는 거.

106020 @ 그거에 이름들이 각각의 이름들 엇어?

106020 # 그냥 멘네씨 불르는 기계엔만 허여.

106020 @ 응. 물레 바닥, 물레 조륙, 물레 씨기, 씨앗기 뭐 이런 거 엇어?

106020 # 엇서. 물레 좇는 건 따시 이 물레 좇는 기계엔 헤영 영영영 좇이멍 빙빙 돌러가민 실 나오민 그 추룩허게 올리민 지냥으로 감아지곡. 실 이만은 나갓당 영 행 올리민 자룩허게 자기대로 힘으로.

106020 @ 물레가 이거밖에 없네, 이거는 그냥 물레지예?

106020 # 이건 저 실 빼는 거.

106020 @ 그저 실 빼는 거예?

106020 # 응.

106020 @ 그건 실 빼는 물레예, 그냥 물레예

106020 # 응. 실 빼는 건 낫사 건. 실 영영영 허여 가민 그 가레기 끼왕 가레기 레 실 올라가게 시리.

106020 @ 이거예 요것도 다 이름이 잇지 안 헤? 요건 무신 거, 요건 무신 거, 요건 무신 거 각각의 이름이 엇어?

106020 # 이건 물레엔 허여. 물레.

106020 @ 전체는 물렌디 요건 손잡이.

106020 # 이건 손잡이 들러가민.

106020 @ 요건 뭐라? 이름이 이름 엇어?

106020 # 일름 엇어.

106020 @ 요거는. 요거. 이름이 따로 엇어?

106020 # 따로 엇어. 그자 씨 빼는 물레엔 허고. 좇는 물레엔만 헤여. 그 땀.

106020 @ 좇는 물레에만 허고.

106020 # 씨 빠는 물레 빌리렌 허고.

106020 @ 그냥 그계 아까 쟁기처럼 잠대 일름추록 혹시 일름이 없냐고?

106020 # 없어.

106020 @ 이름 엇어?

106020 # 물레 씨 빠는 물레 빌립센 허고. 베클 그냥.

106020 @ 베클 말고 이것부터 이름을. 영 허민예 요건 손잡이. 요건 바퀴. 요거
는 뭐 받침. 이런 말 엇어?

106020 # 엇어.

106020 @ 괴머리. 물렛바퀴.

106020 # 그런 건 엇어.

106020 @ 가락.

106020 # 요건 그자 영영 들러가민 이레 실 나왕.

106020 @ 실이 감아지는 거?

106020 # 초록허민 요디 실 감아지곡.

106020 @ 실 감아지는 건 이름 엇어? 무신 거예 감아진덴 안 헤?

106020 # 이거 무신 가락이렌 헛어.

106020 @ 가락?

106020 # 무슨 가락이렌. 궂새 건 실 빠는 물레엔 허곡.

106020 @ 요기는 또 이름 엇어? 요 근처에는?

106020 # 엇어. 이거 그자 이건.

106020 @ 바퀴?

106020 # 바퀴엔도 안 허고 물레엔만 허난 몰라. 그 시절에.

106020 @ 다르게 얘기하는 거 이름은 엇어?

106020 # 응.

106021 @ 그믐 베클은? 베클에도 영 아까 보디집 허고 무신거 이서나수게.

106020 # 응.

106021 @ 뭐, 뭐 이수과?

106021 # 보디 잇고, 보디집 잇고.

106021 @ 보디 잇고, 보디집 잇고.

106021 # 보디엔 현 건 그 빗 닳은 거주게.

106021 @ 응.

106021 # 보디엔 현 건. 빗 닳은 거 영 올랐다 느렸다 잘 빗져지는 거고.

106021 @ 응.

106021 # 보디집이엔 현 건 그 냥으로 그거 끼와사 허는 거고.

106021 @ 보디하고 보디집허고 또 뭐 이수과?

106021 # 꼬리뺏게.

106021 @ 꼬리뺏도 잇고. 그 다음.

106021 # 물케도 잇서. 물케. 물케엔 현 건 여기서 차는 거.
106021 @ 어디 앉으는 거봐?
106021 # 이디서 차는 거주게. 이건 딱시 이렇게 요디서 앓앙 차주게. 거 보디아냐? 요거 보디라.
106021 @ 어느 게 보디?
106021 # 요 새에 꺼 요거.
106021 @ 요게 보디.
106021 # 이디서 이젠 이거 다 차민 또 낭으로 요디 감은거 낭으로 착 허게 밀령 탁 잡아댕기민 이거 감앙이네 이디 왓닥왓닥왓닥 허여.
106021 @ 응.
106021 # 요디 요 줄거린 영영영영 허여사 이 새에 엇갈멍 꼬리가.
106021 @ 들어가는 거. 꼬리뺨은 어디수과?
106021 # 꼬리뺨은 이디 엇은게?
106021 @ 이건 엇어?
106021 # 응.
106021 @ 꼬리뺨은 무신거 허는 거라?
106021 # 꼬리뺨은 꼬리가 이제 이레 들어가주게, 감은 거. 들어강이네 올로 드물랏닥 이착으로 드물앗닥 이착으로 드물앗닥 이착으로 드물앗닥 혜영. 발로 딱시 높엿다 낮앗다 그추룩 허는 거.
106021 @ 응.
106021 # 발론 요디 발쩍이가 서. 발쩍이시민 요 양 줄거리 잇지. 줄거리가 영헛다 영헛다 허민 이디가 어서꺼지멍 헤지는 거주게. 혼 밧디레, 요거 요 새에건 요건 꼬리뺨. 보디집이로구나 보디집. 꼬리뺨은 엇은게. 요건 보디집. 보디 요디혜영 요거 보디집이고. 꼬리뺨엔 허는 건 꼬리 감앙은에 들이청 들이쳤단 낫단혜. 꼬리뺨은 엇은게.
106021 @ 꼬리뺨은 엇어?
106021 # 응. 꼬리뺨 엇어. 꺷사 이거 감은 거 요 알로 탁허게 들이치민 영 일려 세우민 이것이 이리 오랑이네 또 허는 거고.
106021 @ 응.
106021 # 요거 보디집 요거.
106021 @요거 보디집.
106021 # 보디 그디 끼왕 요거 톡 허민 이 보디집이 손으로 영 밀럿당 앞더레 두 들엇당 이착으로 밀령에 이착으로 꼬리뺨만 이착으로 두들고 이착 허민 딱시 이착으로 두들고 양편으로 꼬리뺨 탁 던지민 이착으로 두들고. 이 꼬리뺨 일로 던지민 일로 두들고 경혜영 차 안주게. 왓다갓다 왓다갓다 발로 경행 이 새가 보따. 보뜨민 발로 딱시 낭으로 영 허민 그 물케가 들어뵙 또 일려세왕 이 앞에 늦게 허고.
106021 @ 물케가 뭐?

106021 # 뭘케. 뭘케.
106021 @ 그게 뭐?
106021 # 그게 이거.
106021 @ 어느 게 뭘케?
106021 # 이거, 이거. 낭으로.
106021 @ 이게 뭘케?
106021 # 요놈이 낭으로 풀젠 허민 낭 양착으로 요걸 탁허게 이 알 누들민 어퍼 지민 영 허영으네 감앙이네 허는 거.
106021 # 따로 꼬리뺏도 었은게.
106021 @ 계난? 사진을 하나 가져왕 할머니한테 잘 물어보크라.
106021 # 꼬리엔 현 건 이 장짓은 누리주게. 꼬리엔 현 건 이디 실 감은 거라 꼬리엔 허주게. 꼬리뺏이 영 가는 거 영 가는 거 었은게.
106021 @ 응
106021 # 아이고 그거 누게 벨 걸로 알앙 그거 누게 문화재 뭐 허켄 허멍 드렌 허멍 좇어가는디 놔두컬. 꼬리뺏이영 보디집이영 도꼬마리. 그 실 하영 감아진 건 도꼬마리.
106021 @ 도꼬마리.
106021 # 응.
106021 @ 아주망이영 영 앓앙.
106021 # 앓안. 맞아.
106021 @ 둘이서 영 앓아근에.
106021 # 요건 보디집 요건.
106021 @ 요거?
106021 # 영, 요건 보디집
106021 @ 이디 뭐 손에 뭐 심엇저?
106021 # 이거 꼬리, 꼬리.
106021 @ 이게 꼬리?
106021 # 응 꼬리, 꼬리.
106021 @ 그 다음에 발로 발에 뭐 무건?
106021 # 아래, 아래. 이건 기계로 이 이 이거 무꺼실 꺼라? 이거 초신 신은 낭 이, 초신 신언 이것이 영 허민 이거 우터레 올라가곡 영 늦치민 들어눅고 이걸로 요거 싯네. 이걸로 요거 영 허민 요것이 올라가고 (이게 올라가고) 딱시 영 놓민 이것이 또 들어눅곡. 경 허는 거.
106021 @ 다음에 요거 사진 제가 크게 하나 다시 뽑앙 왕 다시 잘 물어보쿠다 예.
106021 # 응.

바느질

106022 @ 다음엔 바느질, 바느질 허젠 허민 바느질 헐 때 뭐뭐뭐 이십니까?

106022 # 바느질 허민 뭇뭇 헤여? 옷 허는디 뭐 실도 꿰엿 허곡. 저고리도 멘들고 바지도 멘들고.

106022 @ 바느도 여러 종류 바느이수과?

106022 # 아니여, 바느은 크고 죽고.

106022 @ 큰 바느은 무신거 죽은 바느은 무신거엔 안 고아?

106022 # 큰 바느은 뭐 두꺼운 옷이나 헐 때 허곡.

106022 @ 무슨 바느 영 안 고아?

106022 # 안 고아. 바느은 그자 이녁 손에 맞은 거 놔두사 평생 쓰곡 허주.

106022 @ 바느허고 실허곡 영 담양 놔두는 그 통은 무신거엔 고읍니까?

106022 # 바느쌍지. 바느쌍지.

106022 @ 바느쌍지?

106022 # 응, ㄹ세영 범셋꺼고 ㄹ세영 실이영 바느이영 다 논 거. 실 감는 건 실패

106022 @ 실패. 게민 손에 영 바느.

106022 # 고메.

106022 @ 고메.

106022 # 바느으로 찢러 분덴헝 고메.

106022 @ 그 다음 바느 영 여러 개 어디 영 꼭 끼왕 놔두는 거 이수게? 바느예 이런 무신거예 영 끼왕놔두지 안 헤?

106022 # 고메 아니지. 것도 나도 서낫저만은 고지 못 허켜.

106022 @ 졸레? 바느졸레?

106022 # 저 속엔 소게 담아두곡.

106022 @ 맞아, 맞아. 소게 담양.

106022 # 소게 담양으네 고딱허게 멘들양이네 그레 바느 고고.

106022 @ 응 그거 무신거엔 고아? 고고 찢랑 놔두는 거예?

106022 # 몰라, 거 오꼐 잇어불언. 바느질 안 헝 고메 끼왕이네 이디 뭐 헝덴 고메가 잇고.

106022 @ 실을 아까 실패에 감지 안 헝 그냥 영영 뭉청 놔두는 걸 뭇헝 고아? 실패러미.

106022 # 가름 짓은 거? 실가림엔 허주.

106022 @ 실가림이엔 허여?

106022 # 뭇에 감지 안 헝 거 실가림이엔 허여.

106022 @ 바느 이디 영 실 끼우는 딤 무신거라? 바느귀?

106022 # 바느귀.

106022 @ 바느귀에 실 어떻 끼는 거라?

106022 # 응.

106022 @ 실 어떻허여?

106022 # 실 영 허게시리 빠령이네 특 허게시리 영 발리왕 꼭 끼주게. 바농귀도 늙은 어른들 끼지아녕 끼어드렌도 문 허곡 허더라.

106022 @ 저 옷 만들 때에 ㄱ세로 영 대충 영 말앙헙니께. 거 뭐렌 글아? 요센 말로는 옷 마른다 허는디.

106022 # 옷 돌르는 거.

106022 @ 옷 돌르는 거예.

106023 @ 그 다음에 바느질 허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 이수과?

106023 # 엇다.

106023 @ 영영영영 허는 건 꼬는 거? 영 끼엇당 영 끼엇당 영 허는 건

106023 # 바농질이렌허주. 뫼이엔.

106023 @ 그럼 영행 뒤로 영행 다시 끼우는 건 영 끼우는 건.

106023 # 그건 몰라.

106023 @ 우리 무사 바농질을

106023 # 바농질을 그자 영영영 이레 주웁이네 영 행 잡아당.

106023 @ 경허는디 무사 이레 영 찢렁 영 뺑 뒤로 강 다시 영 빼는 것도 이수게. 요기서 부터 이렇게 들어강 영 뺑 그 다음에 다시 뒤로 영 강 영 빼는 거

106023 # 뒷바농질 허는 거. 뒷바농질 허영.

106023 @ 뒷바농질 이서?

106023 # 뒷바농질 허는 건 그건 웨로 그냥 주멍 허질 안 허곡 곱잡젠 행 뒷바농질 허는 거주게.

106023 @ 곱잡는 건 뭐?

106023 # 바농이 이렇게 쥘이네 웨로 주민 제기 그차지곡 뒷바농질 영 주어낭 딱시 이 바농으로 두 번 끼는 거 ㄱ라 뒷바농질이렌 허여.

106023 @ 곱잡는 건 두 개 천 두 개 합치는 거?

106023 # 응. 이거영 이거영 영 두 개 영 부쳐근에 여기 저기 뒷바농질 행 합치는 거?

106023 # 응.

106023 @ 곱잡는 게?

106023 # 응.

106023 @ 그다음에 이런데 무사 이런 꼬맹인 영영영 허기도 허지 안 해? 끝에.

106023 # 감치는 거.

106023 @ 감치는 것도 잇고예. 그 다음.

106023 # 그랑그랑허민 그 바우 감치라영.

106023 @ 바우 감치라 영 허곡. 옷 단 ㄱ튼디 영 허민 옷 단 이런디 영영 헤근에 요기 헐 땀 어떻 해?

106023 # 거 그냥 옷 단 감치렌 허고 그냥 단 감치렌 허곡 경 허여.
106023 @ 아 그냥 감쳐? 이기도?
106023 # 응
106023 @ 옷 터지민 주영 입주예?
106023 # 응. 옷 쟁.

옷 종류

106024 @ 그 다음은 옷의 종류. 남자 옷은 무신 옷 무신 옷 이수과? 남자옷 위
에건?
106024 # 남자 옷 우이 저고리
106024 @ 저고리.
106024 # 쫓께.
106024 @ 쫓께.
106024 # 우이 제 맞젠허믄 두루막.
106024 @ 두루막.
106024 # 그거.
106024 @ 바지는?
106024 # 바진게 그거.
106024 @ 바지엔 안허고 뭇엔 곶아?
106024 # 바지엔 허여.
106024 @ 중이엔 안 허고?
106024 # 여름엔 중이.
106024 @ 여름엔 중이.
106024 # 저슬엔 바지.
106024 @ 저슬엔 바지.
106024 # 소게 논 건 소게 바지.
106024 @ 소게 논 건 소게 바지.
106025 @ 게믄 여자 옷엔 어떤 거 어떤 거 이수과?
106025 # 여자 옷도 그래. 치메
106025 @치메.
106025 # 속치메.
106025 @ 속치메.
106025 # 저고리.
106025 @ 저고리. 속곳은 무신거엔 곶아?
106025 # 속곳이렌 현 건 속곳 해녀들 입는 속곳 옛날.
106025 @ 해녀들 말고 그냥 여자들도.
106025 #그냥 입는 사람은 속에 입는 건.

106025 @ 뭐렌 곱아?

106025 # 그냥 다 속곳이렌 허여.

106025 @ 아, 다 그냥 속곳이렌 허여?

106025 # 옛날 어른덜토 해녀 아니라도 옛날 그 해녀들 입는 속곳처럼 행 입단 이젠 뻥스답게 해영 우리 이제 입듯이 입엄주게. 쉽게덜.

106025 @ 그른 여자 옷은 치메 저고리 위에 뭐 입습니까?

106025 # 치메 저고리에 뭇 입어?

106025 @ 뭐 안 입어? 마고자나 쪼께나 뭐 이런 거 안 입어?

106025 # 그런 거 안 입어났어. 마고지도 안 입고. 이제 신식이 똤난 우이덜 두 루막덜 행 입찌주. 여자덜.

106026 @ 아이옷은 애기덜 옷은 어떻행?

106026 # 아기덜 옷도 그거주게. 아기덜 옷도 그자. 소나이덜은 강알 터진 바지 허영 오줌 싸게 허고. 지지빠이덜은 그레 허고.

106026 @ 그냥 치메 저고리?

106026 # 치메 저고리엔 딱시 어린 애덜은 니치름 헛젠 행 특바지 허영 이제 침 질질 허게 니치름 흘리게 허고. 옛날 아기덜사 옷 줄바로 행 입어시냐? 요새 신식 애기덜 옷도 수정이 없어.

106028 @ 바지 허민 바지에, 바지가 영 이시민 바지도 이름이 다 잇지예? 요긴 무신 거엔 곱아, 바지? 바지 요 밑에는?

106028 # 바짓단.

106028 @ 바짓단.

106028 @ 요기는?

106028 # 허, 허리게.

106028 @ 허리.

106028 @ 요기는?

106028 # 그건 그냥 그런 말은 엇어. 바지 그건 바지 강알

106028 @ 요긴 강알 베끼 없고. 그 다음엔 저고리 저고리는 여러 개 이름 이수 게예? 이시민 영 이시민 요딘 무신거라?

106028 # 허릿짓 참 저고리짓.

106028 @ 저고리짓. 그 다음 여기 영 하얀 걸로 영 허민.

106028 # 동진.

106028 @ 동진. 요딘?

106028 # 건 소미.

106028 @ 요건 소미, 요딘?

106028 # 소밋즈룩.

106028 @ 소밋즈룩.

106028 # 요 구석은 저쟁이 즈룩, 저쟁이, 저고리 저쟁이.

106028 @ 저쟁이, 요단?
 106028 # 그딴 앞섰
 106028 @ 앞섰.
 106028 # 이 짝은 밧섰, 저 짝은 안섰.
 106028 @ 이디가 안섰, 이디가 밧섰?
 106028 @ 요건? 고름.
 106028 # 골름.
 106028 @ 골름.
 106028 @ 이디 영 단추 달민.
 106028 # 단추 들앙이네.
 106028 @ 이거 무신거엔 곶아?
 106028 # 그냥 단추만 돈.
 106028 @ 그냥 단추엔 곶아?
 106028 # 응.
 106028 @ 이디도 여기 뭐 이수과?
 106028 # 엇어. 이딘 진동이엔 허여. 진동. 저고리 진동.
 106028 @ 이디?
 106028 # 응
 106028 @ 진동?
 106028 # 진동.
 106028 @ 진동.
 106028 @ 그 다음에 치메, 치멘 이디 끈 이시믄?
 106028 # 치메 이건 허리. 치멧허리.
 106028 @ 허리. 요건?
 106028 # 이건 치메 골름이고게. 이건 아래 치메단.
 106028 @ 치메단.
 106028 # 단 오기는 거ㄴ라 치메단.
 106028 @ 요건?
 106028 # 고름게.
 106028 @ 고름? 치메 골름?
 106028 # 치메 골름. 옛날엔 치메 골름이사 고무줄 헤영덜.
 106028 @ 이건 이건 뭐엔 곶아?
 106028 # 치메 지러기지 뭐.
 106028 @ 그냥 지러기? 이거 여기에는 치메 폭?
 106028 # 응, 치메 폭, 폭은 이렇게 헤사.
 106028 @ 이렇게 나눠서?
 106028 # 게. 흔 폭, 두 폭헿

106028 @ 흔 쪽, 두 쪽행예? 다음에 하나 더예
 106028 @ 보선.
 106028 # 보선.
 106028 @ 보선도 일름이 다 잇지예?
 106028 # 앞코지.
 106028 @ 앞코지.
 106028 # 뒤척이.
 106028 @ 뒤척이, 그 다음.
 106028 # 거뿐.
 106028 @ 요딘?
 106028 # 그딘 신으민 발 들어가는 디주게.
 106028 @ 보선목?
 106028 # 보선목, 대비목.
 106028 @ 대비목?
 106028 # 보선목.
 106028 @ 그 다음에 요딘?
 106028 # 보선 코제비.
 106028 @ 여기가 코제비고 앞코지고. 이딘 엇어?
 106028 # 몰라.
 106028 @ 이디 터지민 천 받앙근에 이컨 뭐?
 106028 # 발창.
 106028 @ 이딘 그냥 발창? 이딘?
 106028 # 뒤창.
 106028 @ 요기 영 들어가는 건
 106028 # 뒤코지 찌저젯젠허여.
 106028 @ 여기 따로 부르는 이름 엇어?
 106028 # 응.
 106029 @ 단추는, 할머니 종류가 단추는 여러 종류 이수과?
 106029 # 응 못은 단추 잇고.
 106029 @ 무슨 단추?
 106029 # 못이는 단추. 못앙네 허는 단추가 잇고.
 106029 @ 못는 단추가 잇고.
 106029 # 구제기 단추가 잇고.
 106029 @ 구제기 단추는 뭐?
 106029 # 그거 아니가?
 106029 @ 이거?
 106029 # 응, 이거 구제기 닥살로 단추 멘들영.

106029 @ 아 구제기 단추? 아까 뭇는 단추가 잇고.

106029 # 뭇는 단추 그 형질 기지 영 브러근에 영 떼왕으네 뭇앙이네 적삼에 뭇는 것ㄴ라.

106029 @ 아, 그계 뭇는 단추.

재단과 염색

106030 @ 옷감 손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옷감을 손질할려면.

106030 # 옷감 손질허젠 허민.

106030 @ 게난 풀 맥이꼭 다듬이 허꼭 허는 거 어떻 허는지.

106030 # 뿔앙이네.

106030 @ 뿔앙이네.

106030 # 코콜이 뿔앙 풀 맥영.

106030 @ 풀 맥영.

106030 # 흐쉴 스뭇 물라불민 안 웨여. 흐쉴 보들보들허민 조근조근 개영. 올바르게 개영. 조근조근 블르나 두드나 또 어느 정도 허민 딱시 이저 베 ㄴ튼 건 두드리게 헤여. 두드려사.

106030 @ 두드려사 웨여. 뿔로 두드려?

106030 # 마께로게. 마께로 저

106030 @ 다듬이?

106030 # 다듬이. 다듬이 마께로 허여근에 다듬이 아래 것도 싯꼭 헤영 두들영.

106030 @ 뿔에 감앙?

106030 # 감지 안 허영.

106030 @ 아랫 건 무신거엔 곶아?

106030 # 것ㄴ라 무신거렌 곶아낫저만은 원 이젠이. 익숙어낫주마는 이젠 오래부난. 뿔이엔 곶아신고, 예휴 모르켜 잊어불언.

106030 @ 다듬이들, 다듬이 마께.

106030 @ 그 어디 멩질이나 허젠 허민 멩질 때 웨 가민 옷 다 그거 준비 행 다 놔뒤사켜예, 다 뿔앙이네 풀 베근에예.

106030 # 게 팔월에 다 풀 헤영 다령 싯허게 놔 두주게. 겨울에도 경 허꼭.

106031 @ 염색하는 거.

106031 # 물색 험젠 행.

106031 @ 어떻 행 염색헉니까? 먼저 갈옷은 어떻 염색허여?

106031 # 갈옷은 어떻 헤여? 갈옷 감 들이는 거?

106031 @예

106031 # 감 들이는 건 감 빼정이네.

106031 @ 지금 지금 뿔이네 헉니까?

106031 # 응.

106031 @ 이제 탕 감 덜 익은 거예?

106031 # 경 행이네 삐정.

106031 @ 이디서 삐정? 뭐에 낵?

106031 # 믹서에라도 갈앙이네.

106031 @ 옛날에.

106031 # 옛날엔.

106031 @ 도고리에.

106031 # 옛날엔 마개로 도고 방에에서 도고방에 그것에 삐정 경 행으네 쩍지라 근에 허는디 요즘은 저 다라에도 마개로 두드려 까정이 복삭 까지민 그 뭇은 거영 낵이네 옷가지 낵이네 막 놀러가민.

106031 @ 미녕으로?

106031 # 미녕이나 광목이나.

106031 @ 광목으로예?

106031 # 막 움직여 가민 풀 글루로르 감 물들어. 경 허민 감 주생이 탁탁 털어 똥 널영이네.

106031 @ 어디다 널어?

106031 # 널든게 그냥 옷 이제 거는 종난 거는 것에.

106031 @ 빨랫줄에?

106031 # 응, 걸주게.

106031 @ 땅바닥에 널어라?

106031 # 땅바닥에 년 건 기지로 현 거.

106031 @ 아, 기지로 현 거.

106031 # 기지로 허곡 땅 바닥에 편안히 널게시리 허고 지붕 위에도 널고 그래. 또 이슬 맞치젠 허민 아직 마당에 검질 끈 디 싹 허고 이젠 공그리 허난 똤. 옛날엔.

106031 @ 거 흔 번만 행 똤는 게 아니지예? 똤 번 헤사주예.

106031 # 똤 번 안 형 간단허게 재기 똤어. 이젠 장에서 그거 곱아주민 물 으정 강 버무렁 그자 널민 똤어. 옛날엔 스똤 똤앙 물 잘 안나민 구 지생이 낵 옷 낵이네 들어 부비멍 경 헛어.

106031 @ 경 행 널엇다 똤삿닥 헤사 똤어?

106031 # 이슬 맞추곡, 똤 맞추곡 경 헤사.

106031 @ 아, 똤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슬도 맞춰야 헤어?

106031 # 게 밤이 이슬에 내불민 붉으민 그.

106031 @ 들이지 안 행이네.

106031 # 고와. 고와.

106031 @ 그 물색은 어떻행 헤근에 염색 허는 거짜?

106031 # 염색 허는 건 그 검은 물 사당이네 물 끌렁도 허곡 늘물에도 보민 탕이

네 놀영 막 놀려. 놀영이네 험도 허곡.

106031 @ 물색은 거멍헌 거?

106031 # 응 검은 물.

106031 @ 또 다른 색깔도 물들여놔수과?

106031 # 다른 색깔도 다 들엇주게. 붉은 물도 들어나곡.

106031 @ 그거 사당혜?

106031 # 물색 거 푸는 사람이 옛날엔 이서 나서. 다 육지서 오란 그 물색 푸는 사람덜토. 지금도 이저 오일장 장날마다 이제 요즘 감 으져강덜 다 물 빼왓주. 스몫 비평이네 어떤 땐 간에 못 헤렌 허는 사람 성게. 감 으정가도.

106031 @ 무사 못헤여?

106031 # 막 비피영게 막 마타근에 그거 물 짜주민 물 으져오랑 옷에 들이젠 허민 바빵.

106031 @ 비피영이 뭐?

106031 # 바빵. 이승아시낭.

106031 @ 이승아시낭?

106031 # 건 일본말. 바빵.

신발

106032 @ 신발. 신발도 옛날 신어난 거 종류가 여러 개 이수과?

106032 # 게. 초신.

106032 @ 또?

106032 # 가막창신.

106032 @ 가막창신.

106032 # 고무신.

106032 @ 고무신.

106032 # 고무신은 이 제국시절 나사 이섯어.

106032 @ 낭신?

106032 # 그건 저 남신.

106032 @ 남신.

106032 # 옛날엔 저 제국시절엔이 신 어루난이 낭덜 게다 팡 이레 발가락 끼왕이네 게다 신언 뎡겨시네. 흑교에도. 집이서 낭 깡앙이네 줄바로 깡아지지도 안 허곡 이레 고양이 딸랑 친 들앙이네 율로 헤영 게다 신영 비들락비들락 제국시절엔 흑교 뎡겨서 아이구.

106032 @ 것도 멘들앙 신어납디가?

106032 # 멘들앙 우린 안 신언. 우리 아부진 신이 곱닥허게 삼아. 잘도 곱게 삼앙 새각시덜 신 삼아 도렌 허민 치지물 들영으네 곱게 신 삼앙 문 새각시신의 주곡.

106032 @ 신도 삼아낫수과? 할머니도 삼는 거 봐난?

106032 # 아니 신 삼는 건 봐낫주게.

106035 @ 어떻 험 삼는 거파 그건?

106035 # 우리 아버지가 보민이 짝, 짝 소독 빵 소독 빵이네 나룩 짝 서난디 그차 불곡 이제 원 다가리 그차똥 이디 것만 허영 이젠 또 숲아. 그것이 보다랍게 숲앗 당이네 그때 치지물이 이서이. 치짓물 그걸 들영. 들이민 우리 아버지가 이추룩 옷 걸영 그 치짓물 들은 것이 요추룩 현 것이 요레 영 허영 떼왕 영 허민 똥글락허게 시리 이추룩 허게 똥주게. 똥글락허게 노 짜지주게. 영 노 짜지민 신 삼을 때엔 요 것이 이레 삼아강 요거 농콕 요레 농콕 삼아강 요레 농콕허영 말젠 이제 이걸 요디 꺼 끼영 울로 끼영 울론 이제 초신 곱닥허게 똥고 두치긴 따시 영헤영 가 낱이네 똥치기 마지막으로 또 오기령이네 똥치기 멘들앙 그추룩 허고. 아버지 경 허더라.

106035 @ 응.

106035 # 거민 새각시 초신 삼아도렌 허민 치짓물 들영 그 소들기 짝 소들기 빵 치짓물 들영 곱닥 메경 이 옷 거똥똥 영 허영이네 멘들곡 영 행 멘들곡 허민 곱닥 허게 똥어. 노랑허게 곱닥 허게 똥민. 신 삼앙 새각시네 주민 없는 집은 노래도 이서. 시집간 짚신을 신어서 시집을 가느냐 허는 노래도 이서서.

106035 @ 응.

106035 # 게 시집 가는디 창신이 헤주는 건 보통이 넘은 집.

106033 @ 창신이 가족신?

106033 # 응, 가막창신.

106033 @ 가막창신은 어떻헌 거마씨?

106033 # 게 스방에 검은 걸로 허연에 검은 가족. 아메도 검은 거 맥인 거라 검은 가족.

106033 @ 가막창신?

106033 # 가막창신에 코제비렌 헤뚜룩헌 거 상끗허게 낱이네 예쁘게 허여. 에펜 신은.

106033 @ 창신은 시집갈 때 신으는 거?

106033 # 시집 가민 신랑칩이서 신을 내 똥.

106033 @ 아, 창신을 하나 헤 줘?

106033 # 응 게 엇인 집은 아이고 창신도 못헤쥬 쥘신 헤영 쥘젠게 노래도 시집을 갈 적마다 쥘신이 웬말이나 허주게.

106036 @ 초신도 종류가 여러 개 이수과?

106036 # 게게게 물에 들영이네 초신 곱게 허는 것도 짝 부병.

106036 @ 응

106036 # 애당초 각을 미리 부병 허는 헤시곡 삼으멍 구멍 각 나오고 삼으멍 나오는 건 농장에 똥기멍 신게 시리 허곡.

106036 @ 무신 신, 무신 신이렌 곱야?

106036 # 그냥.

106036 @ 깍 논 건 무신 신 깍 안 논 건 무신 신?

106036 # 무신 신 무신 신은 아녀. 각 부벼네 곱닥헌 건 저거 새각시 신이엔 허여.

106036 @ 응

106036 # 그냥 찻신은 무조건 삼으멍 이거 떼왕이네 좁고 이거 떼왕 좁극 허영 말젠 이렇게 끼왕에 뒤척이 차민 이디도 뒤치기 창이네 일루 영 허영 끼왕 허민 신 이 돼는 거주.

106036 @ 응

106036 # 그 미룻 나륙찍 소들기 허영이네 이디 미룻 부빈 건 곱닥허게시리 삼어 강 영 좃아가멍 톱 허게 맥이고 좃아가멍 톱 맥여근에 좃아가멍 톱 맥여근에 치깃 물 들영 요건 곱닥허게.

106036 @ 건 곱게 멘든 거고.

106036 # 곱게 멘들양 새각시 시집갈 때 삼아. 시집이서 그런 신 헤 쥐.

106036 @ 응.

106036 # 없는 집은 경 헤여.

모자

106037 @ 모자의 종류를 말해 보세요. 옛날엔 모자는 어떤 종류, 어떤 종류 이서 낫수과?

106037 # 옛날엔 모즈. 제국시절엔 그 복공 모자 그 폭발허민 쓰는 소계 모자이 그거 주장 행 췌주. 모자 헤영 쓴 지가.

106037 @ 무시거 헌 모자? 소계 행으네?

106037 # 소계로 이것이 소계 아니라게이.

106037 @ 예

106037 # 소계민 모자 영 헤연 이거 영헨 질게 헤영 영헤영 써낫주. 요 모즈가 엇어낫어. 엇어낫어. 모자 엇언.

106038 @ 여름에 쓰는 모자.

106038 # 여름에.

106038 @ 패랭이.

106038 # 패랭이베끼 엇어.

106038 @ 패랭이 무신 걸로 멘드는 거라?

106038 # 보릿 소들기 빵. 보리 소들기 빵이네 당. 보리 낭 소들기 빵이네 당이네 그거 뱅뱅뱅뱅 으끄멍 허영 망 멘들고 멘들양 헤낫주게.

106038 @ 건 보리낭 패랭이라?

106038 # 게 보리낭 패랭이.

106038 @ 밀낭 패랭인?

106038 # 밀낭은 밀낭으로 현 건 밀낭 패랭이주.
106038 @ 밀낭도 이서 낫수과?
106038 # 게 밀도 갈양, 밀낭.
106038 @ 주로 여름엔 패랭이?
106038 # 패랭이. 돈만 들면 별거 다 셔. 이젠 얼마나 살기덜 좋아시니? 패랭이도 멘들지 못 행이네 스뭇. 옛날엔 양말도 엇엉이네 미녕실 헤 놔뒀단 미녕실로 양말 짱 신젠허민 뒤치기 멘들충 몰란 뒤척이 날ㄱ라 멘들아 드렌덜 친구덜 오란 스뭇 나라비 허곡. 뜨시 앞이 앞척이 못아드렌 든 허곡.
106038 @ 샷갓 닳은 건? 샷갓?
106038 # 샷갓? 샷갓은 대나무로 행 샷갓헌 거.
106038 @ 샷갓도 이서낫수과?
106038 # 응.
106038 @ 그냥 샷갓이엔 헤?
106038 # 응.
106035 @ 삼으로, 초신인데 삼으로 삼는 것도 이서?
106035 # 삼으론 제주돈 안 삼아.
106035 @ 안 삼아?
106035 # 응.
106035 @ 짚신 삼는 건 짚신 뭐 헌덴 허여?
106035 # 짚신이엔 그냥.
106035 @ 집신 멘드는 건 뭐 엔 허여?
106035 # 초신이엔 허여.
106035 @ 초신 멘드는 거.
106035 # 초신 줄암젠.
106035 @ 줄암젠예?
106035 # 초신 줄양 에이구 하르방 멘날 앓양 초신 삼양젠도 허곡 초신 줄암젠도 허곡. 맥 줄암젠도 허곡 멩텅이도 짚으로 줄암주게.
106039 @ 털로 만든 모잔 아까 무시거라? 사농허레 가는 사람덜 쓰는 모자이십니께?
106039 # 털모জে게.
106039 @ 그냥 털모제?
106039 # 그냥 가죽모제엔 헤라 그맨. 털모제엔 이제 신식으로.
106039 @ 옛날엔?
106039 # 가죽감티 쓰고.
106039 @ 가죽감티.
106039 # 가죽감티 쓰곡 노리 잡으러 감서라 경.
106040 @ 감티. 이 동네는 뭐 양태나 멩건이나 이런 거 안 만들엇지예? 탕건이

나.

106040 # 안 멘들아.

106040 @ 이 동네는예.

106040 # 이 동네 옛날엔 이 동네 이 근방은 다 기생들만 사는 동네고 저 관계 허난 이 동네 뭇 멘들게 굴어시냐 ?

106044 @ 도롱이.

106044 # 조롱이 무시거?

106044 @ 비올 때 입으는 건 뭐?

106044 # 비올 때 입은 거 새로 멘들앙 쓰는 거?

106044 @ 응.

106044 # 그 일름 잊어불엇인게. 새로 멘들앙이네 영행 특허게 허는거.

106044 @ 응

106044 # 우리 대정더렌 그런 거 멘들앙 쓰는 사람 엇어. 우리 클 땐.

106044 @ 아, 산에 갈 때 입언게예? 산에 갈 때 쉼 보레 갈 때.

106044 # 게메 우리 동넨 쉼 보레 갈 때도 뭇 그런 거 썩 허는 사람이 엇어. 저 옷드레나 그런 거 싣주. 우리 어릴 때.

106044 @ 우장? 우장, 우장 쓴 텐 안 해?

106044 # 안 허여. 우리 나 어령이네 텡길 때 그런 거 새로 허영이네 무신거 노 랍지추룩 경행 영 쓰는 거 엇어서.

106044 @ 그런 거 엇어?

106044 # 응, 일본 시대난에 우리 어머니네 땃 오누이가 일본 간 사난 그런 거 구천 모르게 살안. 고무신도 이디 엇인 때 일본서 스뭇 고무신도 행 보내곡 험 쩍 신은 드러 삼앙이네 신어도.

7. 식생활

밥과 국

107001 @ 먼저 밥은 어떤 종류 어떤 종류 밥이 이서낫수과? 옛날엔?

107001 # 연날엔 보리쌀 영 습당.

107001 @ 아니, 무신 밥 보리밥, 조팍, 또?

107001 # 보리밥, 조팍, 또 쌀밥게 그거 뿐.

107001 @ 다른 건 엇어? 그민 밥 허젠 허민 무슨 쌀로 허여?

107001 # 밥 허젠 허민 미룻 보리쌀 씻어근에 솥양 조 엇은 사름은 보리밥으로 물 맞춰 그냥 그대로 도마리 뉘는디 밧 신 사름은 조 허민 보리쌀 낱 습당이네 물 이 흐쓸 거저 보리쌀이 익은 거 닥으민 줍쓸 우터레 서깁 서깁이네 흐쓸 보글보글 레영이네 뇌뿔당이네 배술기로 짓으민 골로로 줍쓸 서꺼정이에 밥맛 좋고, 보리밥

은 연날에 물방에 기계로 안 짚은 땀 방에로 지민 그 눈이 이서. 보리쌀. 눈이 성이네 줄바로 안혜근에 ㄱ레에 굴민 그것이 곧 입이 거칠어 낫어. 경해도 그 밥 엇영 못 먹어낫지. 경허단 이젠 기계도 잘나난 몬드레기 까끄민 곧밥 닥게 행게 보리밥 습다근에 물이 거자 바질바질 헤가민 좁쌀 낱이네 또 솥양 이젠 배술기로 젓영 낫당 또 이제 또 혼번 솥아 거 빨루는거엔 허영 물을 빠지게 하는 거영 경 행은에 거려냥 먹주게.

107004 @ 혹시 반지기 밥은 무신 거봐?

107004 # 반지기밥은 곧쌀 ㅎ쌀 서껏젠 허영 반지기밥.

107004 @ 아 보리밥에 좁쌀 ㅎ끔 서끄는 거?

107004 # 좁쌀 서끈 건 반지기엔 아니고 곧쌀 ㅎ끔. 아이고 이 집은 반지기밥 험구나, 곧쌀 서껏젠 현 말로.

107004 @ 아 곧쌀 서껏젠 ㅎ는 말로. 곧쌀 ㅎ끔 서끄민 그게 반지기밥.

107004 # 응, 반지기밥. 경 그 곧쌀 서경 먹는 집도 업었어.

107004 @ 잘 사는 집이나 경허는 거지예?

107004 @ 잘 사는 집도 업었서. 다 보리쌀 솥당 좁쌀 낱은에 먹어. 좁쌀도 모원 좁쌀 낱 허민 밥이 갈갈갈갈헤여. 흐린 좁쌀 놓민이 밥이 그자 풀풀헤여근에 먹기 좋고. 쟁 안허민 밧이 박헌 딴 모원 조 허는 거고 밧이 좋은 딴 딱시 흐린 조 같아.

107005 @ 흰 쌀밥은 언제 먹는 거라 ?

107005 # 흰 쌀밥이엔 현 거는 제스 때나 먹고 멥질 때나 먹었주. 멥질 때, 팔월 멥질, 정월 멥질 그레나 먹었주. 연날에 가난한 집은 곧밥도 멥질에도 첨 서속 서경 헤낫젠 허여.

107005 @ 서속이 뭐?

107005 # 게, 보리쌀이나 좁쌀이나 서경, 쌀이 부작허영, 우린 어린 때 그런 거 몰랐는다.

107005 @ 할머니네 부자랏구나?

107005 # 아니 부제아니라도, 농술지니까게

107005 @ 산뒤?

107005 # 산뒤지곡, 다. 아무디나 산뒤 안돼 혁 죽은 딴 산뒤가 안 돼어. 케영 나오질 못헤여. 밧은 산뒤가 나왕이네 흔들 흔들허지만은 경허난 조허는 밧도 밧이 좋아야 조허고 보리도 좋은 밧디 갈민 갈민 이 지경에서 세계 집에 강 보리 갈민 보리밥 맛이 더 특별허여 더 좋아.

107005 @ 사계가 땅이 좋구나예?

107005 # 응, 땅이 좋은디 만디 몰르는다 우리 시집이서 세계 밧을 일본서 밧 멧개 사민 그디 누게 벨렌헤영 주영 갈라 오라근에 방에 지민 들거리에서 방에 저봐도이 채도 노랑ㅎ고 쌀도 곱닥허게 헤져. 이 덕수 지경이서 보리낱이네 물방에서 쳐가민 채도 거명허고 보리쌀도 거명허영 두불 정은에 또 ㄱ레에서 굴곡헝 먹느네, 그냥 ㄱ레서.

107005 @ 땅이 좋아사예.

107005 # 땅 좋은 딴 초불만 저도 보리쌀이 고왕 먹어.

107005 @ 그믐 곤밥은 허는 방법은 어떻 행 허는 거파?

107005 # 곤밥이엔 허는 건 쓸밥게 제스때나 먹지.

107005 @ 허젠 허민? 보리밥이영 흥끔 트나주예? 이제사 밥통이 툭 눌러불문 웨 주만은.

107005 # 아니 그때도 곤밥은 맛이 이서.

107005 @ 헐 때 어떻 행 허여?

107005 # 씻영은에게 물이영 간 맛좌은에 밥통에서.

107005 @ 밥통 엇일 때?

107005 # 솟디도 영 맛좌이네 밥허민 곤밥이 웨어.

107005 @ 뜸도 들여야 될 거 아니?

107005 # 게 금방 거려지나게? 밥 허여동 국 현다 반찬 현다 짐치도 현다 헤가민 틈 자주게.

107006 @ 줍쌀만 낱은에 보리쌀 안 서경 줍쌀로만도 밥행 먹어낫수과?

107006 # 게 보리쌀은 부젓집이 서사 서경 먹지. 보리쌀 당대에 줍쌀 나기 전인 가난한 집인 먼저 먹어 조팝만 주장 먹어. 조팝도 흐린 조로 부제침이가 싯주. 모원 조허민 조팝허민 갈갈갈갈.

107006 @ 줍쌀로만 밥허민? 그건 밥 허는 방법이 다릅니까?

107006 # 게, 모원 줍쌀은 줍쌀팍을 허는디 물 팔팔 끼려가민 줍쌀 드리청은에 끼여가민 거자 어느 정도 뻗구나 허민 젓주게, 젓영이네 물이 바들바들허민 두께 더경 내불민 밥이 웨는디. 보리쌀은 보리쌀 솥양 부끄주게, 부경 솥양은에 보리쌀이 익을만 허민 또 줍쌀 우터레 산하게 허겨, 허경 또 솥당은에 또 그거 골로게 젓어 사, 쟁 서겨.

107006 @ 아까 조팝은 물 꿩은에 줍쌀 놓는 거?

107006 # 물 팔팔 끌렁.

107006 @ 처음 씻영은에 그냥 물 맞춰 솥는 게 아니고.

107006 # 줍쌀 연날 어른덜은 씻영 아니허여. 그냥 밧되서 허영 정은에 코콜이 불렁 망대기 통개에 담앗당은에 물 팔팔 끼려가민 줍쌀 으져당 산허게 낱은에 배술 기로 흥번 젓영 물이 어느 정도 맞을로구나 허영 불 솥당 밥 허는 사름 짐작허지게. 어느 정도 물이 뻗구나행 두께 저 불 게왕 내불민 틈 지왕, 게고 흐린 줍쌀은 맛 좋는디 모원 존 허민 모원 줍쌀이엔 현 건 거리민 달달달달 털어지곡이 모원 줍쌀 밥 하영 먹어도 배 고프고.

107006 @ 아, 모인 줍쌀은 밥 하영 먹어도 배 고프? 찰기가 없어가지고.

107006 # 진이 엇엇어게.

107006 @ 진이 엇어부난예?

107007 @ 풋도 낱은에 밥도 험니까? 풋.

107007 # 풋도개 풋 솥앙이네 풋이 솥아사 ㄱ찌 낱은에 밥 허여 풋밥.

107007 @ 풋밥 허젠허민 어떻 풋은 먼저 솥아?

107007 # 풋은 먼저 솥아 좁쌀에 풋은 허는 건 드물어. 보리쌀이영 곧 저 풋이영 ㄱ찌 솥당은에 물이 바들바들허민 좁쌀 우레 삭 서경은에 혼번 솥앙 흐끔 틈 잔 것 답으민 배술기로 골로로 젓어.

107007 @ 풋밥 헐 때도? 풋 놓을 때도 좁쌀도 놔?

107007 # 풋 놀 때도 보리쌀이영 ㄱ찌 놔.

107007 @ 풋 놓을 때 보리쌀하고 풋하고 같이 솥아?

107007 # 응, 갱 행은에 물이 풋도 익곡 풋도 익는 것도 보리쌀이영 똑ㄱ뜨지게.

107007 @ 똑같아.

107008 @ 혹시 이 동네도 피밥, 피로 행 먹읍니까?

107008 # 대정은 피 안 같아.

107008 @ 아, 피론 밥 안 행먹어예?

107008 # 아 저 동더렌 피베피 안 같아.

107009 @ 밥 헐 때 감저도 낱 먹어 낫수과?

107009 # 그럼, 보리밥 헐 때 보리쌀 솥앙은에 이제 귀주게, 귀민 이제 감제 씻 영 딱딱딱 썰어. 어느 정도 썰영은에 이젠 보리밥 위터레 낱은에 솥아가민 감저도 솥아지민 물도 끌곡허민 배술기로 골로로 젓영 갱 감저밥 허여. 그거 배불게스리 허는 거주 영양은 엇는 거. 감저밥만 갱 먹어노민 아이덜은 봄 나민 막 빈탱이 일 영은에

107009 @ 무신거 일어?

107009 # 이런디 막 빈탱이 답은 거 일어.

107009 @ 빈탱이 답은 거?

107009 # 문작허게 슬지지 아니허난게.

107009 @ 버즘 답은 거?

107009 # 응 경허여, 연날에.

107010 @ 혹시 늪삐도 밥에 낱 먹읍니까?

107010 # 늪삐 밥에 낱 먹음은 드물어.

107010 @ 드물어.

107010 # 응.

107011 @ 툷, 툷은?

107011 # 툷도 저 해변에서 영 밥에. 해변 사름들 없는 사름들 툷밥 행 먹엇젠 허는디 이 대정 지경엔 늪삐 낱 밥 허는 디도 나도 이거 살아도 본 디 없고 툷도 낱 허는 디 해변더레 못 사는 딴 그런 거 서경 허영 먹넨 그때도 들어났어. 무수도 썰영허고 그거 불루왕은에 배불게 하영 허젠 허난.

107011 @ 불루왕은에.

107011 # 응,

107012 @ 혹시 패밥은?

107012 # 패, 대정 지정인 안 같아 저 동터레 땅이 나쁜 디 그런 거 패 같고, 무수밥 허곡 허주.

107012 @ 이 동네는 그런 거 있어예?

107012 # 응.

107013 @ 계난 밥은 영 잇고 이제 국운 무신 국, 무신 국 이신고?

107013 # 국은게 느물 갈아근에, 배추국도 잇곡, 무수국 잇곡, 메역국도 잇곡.

107013 @ 주로 그거?

107013 # 응, 게고 이제 봄 나민 느물도 갈곡 이젠 여름 저슬 잇이 느물 갈곡 짐치 허는디 그 시절엔 여름엔 느물 갈앙 짐치허곡 그자 송키 먹을 거 허영은에 허민 동지 사명 꺼경 먹지만은 난쟁이엔 현 거 알아져?

107013 @ 예.

107013 # 이젠 주로 봄 나민 그 난쟁이가 시세 좋아. 막 케영 푸는 사름덜 이서.

107013 @ 옛날도 그거 행 국 끌려 난?

107013 # 연날도 그런 거 우영 시민 그거 ㄹ찌 헤영은에 느물에 ㄹ찌 국은 끌렁 먹엇지만은. 이젠이 그것이 더 맛이 쿠싱헌 냄살 나는 때문에 역불 그 난쟁이 켩덜 막 풀고.

107014 @ 음, 맞아. 게민 먼저 느물국부터에 느물국 허젠 허민 어떻게 끌리는 거 파?

107014 # 느물국은 이제 웬장 풀어냥 국 끌리당 귀어가민 느물 썰영 드리청은에 솥으민 느물국.

107014 @ 하하. 찬물에다 그냥 웬장을 풀어?

107014 # 응.

107014 @ 경행 끌려?

107014 # 응 귀어가민 느물 썰어냥

107014 @ 귀어가민 느물 썰어냥 게민 느물국 웨는 거?

107014 # 응.

107014 @ 뭐 무신 요즘엔 다시다 같은 거 놓주만은.

107014 # 연날은 다시다도 아이냥, 메르치도 우리 클 때는 메리치도 안 놔났어. 메르치도 없엇어. 경허민이 장 담양인에 장이 맞존 집인 장국 끌려도 맛이 잇는디 이 소금이 조종 못한 사름은 장 고리민이 그 집이 일 가민 ‘아이고 그 집이 일 가민 나 원 국 먹지 실편, 장 냄살 냥.’ 쟁해도 흘 수 잇이 그걸 냥 끌리지게. 그 사름넨 먹는 사름은 심상헌디 일허레 간 사름은 먹지 못헌텐 허여. 계난 장 담은 것도 기술이메. 메주 솥양인에 잘 티왕 소금으로 조종혜사주게. 조종 안허민 장이 고린내가 나. 고린내 나가민 또 버랭이가 바글바글 일곡. 그추록 허여. 난 장 담양 맞존넨 행은에이 그 우리 친구덜 밧기 가젠허민 웬장 밧디 으정 강 국 행 먹젠 허민 나신디 웬장 빌레와.

107014 @ 할머니가 잘해놨구나?

107014 # 그거 조정을 못허난. 하얏튼 장 담젼허민이 소금을 곱주게, 미룻. 소금을 곱양인에 허민 계란을 하나 툇 튀우민 구리전 돈만은 동글동글 터. 그거이 지금도 구리동전만이 동글동글 튀민 듯수 맞은 거. 경허민 메주 허영은에 그것에 들이 치주게 경허민 맞는다 어떤 사람은 싱겁게 헤영 고령은에 고령 장 국 허민 고린내 낭 못 먹으켄 허멍.

107015 @ 콩나물로도 국 끌렁 먹어?

107015 # 뭐?

107015 @ 콩나물.

107015 # 콩나물로도 콩나물로도 집어서 콩 낱은에 국 끌릴 때 드리청 먹어.

107015@ 응? 장국으로?

107015# 응.

107015@ 웬장 행은에?

107015# 응.

107016@ 응, 늣뻘국은?

107016# 늣뻘도 늣뻘 즈질이 썰은은에 꾸여가민 드리청.

107016@ 웬장에 행은에 장국에.

107017@ 콩 곱앗당 콩국도 끌려 먹읍니께.

107017# 콩 곱앗당은에 콩 ㄱ루영 없는 집은 좁쌀이영 서경 물 꾸여가민 그래 낱은에 젓으멍 부꺼븐 따문 젓으멍 허영 따시 콩죽이엔 현 건 누물 썰어낱 죽 썰은에 잉 먹곡 콩국이엔 현건 따시 ㄱ루 탕은에 물 꾸여가민 드리청 젓어가민 튀어가민 또 누물 썰은은에 콩국이 뒤고.

107017@ 콩국을 나가 멘날 맛없게 끌려 가지고 옛날 어머니가 끌려줄 때는 영영 뭉쳐지게 뒤는데 난 허민에 막예.

107017# 응, 덩어리저.

107017@ 덩어리 안정 막.

107017# 드글드글.

107017@ 그게 안 뒤어.

107017# 바당에 뭉 트듯이 드글드글 그것이 잘 뒤 거.

107017@ 어떻허민 잘 뒤는 거? 잘 헤집니까?

107017# 어떤 사람은 근을 맞춰야 물도 죽게 말곡 ㄱ루도 죽게 말아사 너미 물은 하곡 ㄱ루 죽으민 지르룩허여. 그것에도 마창.

107017@ 그민 그 ㄱ루는 물에 카근에 놓는 거지예?

107017 # 응.

107017 @ ㄱ루채 놓는 게 아니고예?

107017 # 응 물 꾸여가민 ㄱ루 캉것에 낱은에 젓어근에 또 어느 정도 바글바글 꾸여가민 늣뻘 썰어놓나 누물을 썰어놔.

107017 @ 계민 콩국 왜는 거?

107017 # 콩ㄹ루에 좁쌀 서경은에 콩죽이엿 허영이.

107017 @ 건 콩죽?

107017 # 갱 행은에 딱시 쓸도 익은 거 닻고 어느 정도 꺾여가민 느물 썰어낱 콩죽 행 먹고.

107017 @ 콩죽에도 느물 들어가? 죽인디?

107017 # 응, 콩죽에도 느물 들어가.

107017 @ 아 국도 아니고 죽에도 계난 콩죽은 아까 다시 한번 어떻한다고? 죽, 죽. 콩ㄹ루허고 좁쌀허고.

107017 # 좁쌀허고 서경 물 꺾여가민 드리청은에 그거 부껴붙어. 부끄기 전이 잘 말양은에 꺾여가민 느물 썰영 드리쳐.

107017 @ 계난 좁쌀이 들어가면 죽이네?

107017 # 좁쌀 들어간 건 죽이 돼고. 콩국은 그냥 콩ㄹ루만 놓고 느물 놓면 콩국이 돼고.

107018 @ 계민 호박잎국은?

107018 # 호박잎국은 박박 밀영.

107018 @ 호박잎을?

107018 # 응, 호박잎이 이제 텡가리 거 짹짹 찢영은에 박박 밀영 썰영은에 물 꺾여가민 호박잎국 장 놓고 간 맞창 먹는 거.

107018 @ 장은 간장? 웡장?

107018 # 간장 놔야지게.

107018 @ 장물이엔 허영?

107018 # 응 장물을 놔야지 웡장 아니놔 호박국엔, 호박잎국엔 ㄹ루 흐끔 서끄곡 허는 따문 웡장 안 놔.

107018 @ ㄹ루 서근 건 언제 놔? ㄹ루는 언제 놓습니까?

107018 # 호박잎 낱 꺾여가민 무슨 ㄹ루영 그레 ㄹ치 ㄹ루 사발에 텡당 막 텡영. 텡영은에 호박잎도 익은 것 담곡 어느 정도 이녀 짐작으로 웨민 장 신 사름은 장물 놓고 장 엷은 사름은 소금 놓고 그레.

107018 @ ㄹ루 푼 거 언제 놓는 거라?

107018 # ㄹ루 탄 건?

107018 @ 언제 놓는 거라?

107018 # 하튼 ㄹ루 탄 거 물 딱뺏헤가민 벌써 물에 낱은에 텡어사.

107018 @ 호박잎 놓기 전이?

107018 # 응.

107018 @ 먼저? ㄹ루 먼저 놓고 그 다음 호박잎 놓고 그 다음 장물 놓고?

107018 # 응, 호박잎 익은 거 닻으민게, 다 웡 거 닻으민.

107019 @ 몹국은 어떻허는 거?

107019 # 묵국은 묵 코콜이 빨앙이네 그자 썰영, 묵 코콜이 빨앙은에 썰영은에 장국을 수왕수왕 끼여가민 드리청은에 딱시 묵국.

107019 @ 아, 묵국도 장국으로 끝립니까?

107019 # 응 장물로 경행 묵국은 경허민 연날에 흐쓸 배불게 먹젠허민 그루가 잇주게, 모멸크루나 무신 그루 시민 탕이네 놓민 묵국 먹음 미도 허고.

107019 @ 미도 허는 건 뭐파?

101019 # 배가 불어. 연날 돼야지 잡는 잔치에 묵국 끌령들 다 먹어

107019 @ 그때는 국물이 돼야지 꿩기 국물로 허는 거 아니?

107019 # 응. 돼야지 국물에 그루탕 낱 먹는 거 흔 사발씩.

107019 @ 아, 돼야지 국물 엷이민 그냥 장물에 허는 거?

107019 # 응. 돼야지 국물 엷이민 그냥 맹물에 묵국 끌려도 먹고 바당에서 묵 딱시 빨앙 코콜이 빨앙은에 숲지 아녕 요리번 빨앙 문작허게 빨아지민 복삭허게 썰영은에 묵 채혜영 썰영이 양념 다 꿩영 마늘이영 다 낱은에 지름 문드리곡 행은에 그건 반찬으로.

107019 @ 그건 반찬으로 예?

107019 # 그런 거 맛종양 잘 먹어.

107020 @ 생선 낱은에 바닷 꿩기 낱은에 국 끌리는 건 어떻 국 끝립니까?

107020 # 바닷꿩기 미룻 비늘 신 거 다 베끼곡 행 미룻 바당 꿩기 숲아 바당꿩기 오래 숲아사 국이 맛종야. 널 어버이날이민 오늘 큰 꿩기 상 비늘 다 베끼고 썰영은에 오늘 저녁에 꿩왕 낱당 내일 아직한 어버이날이나 아직한 국 끌령은에 어른들 맥이젠 허민 낱이네 샹샹 꿩가민 이젠 메역 빨앙 낱은에 간 마치민 그렇게 맛이 종야. 우린 어쩌난 경 알아신고 허난이 우리 셋사우네가이 셋사우 아방네가 아흙 성 제라났어. 아흙 성젠디 이칩인디 모슬포 이칩인디 막 방상도 시르시르허난 우리 사우가 셋사우가 널 어버이날이면 오늘 꿩기 가져와. 가문돔이나 벤자리나 어버이날 아섯날 ‘어머니 이거 그날 당장 끌리민 맛 엷입니다, 바당 고긴. 꿩왕 낱당 바글 바글 꿩왕 낱당은에 아직에랑 메역이영 양념 낱은에 메역 놓고 허영 장이영 낱은에 국 끌여사 더 등거웁니텐’ 허난 우리 경행 먹어 보지 안헤서이.

107020 @ 응.

107020 # 우리 셋사우 곱으난 그때부턴 무조건 어버이날 아섯날 사와.

107020 @ 응.

107020 # 하늘에 해박은 해 안 사올 때가 없어. 족도 안행 큰 걸로 상 오랑 문딱 잡고 바당에 메역허영 문 썰고 행오랑 경험센 허민 경허민 우리 하르방도 그런 거 먹어본 양반가.

107020 @ 응.

107020 # 나영 살명 고급으로 참말 이거 처암으로 먹는 건디 이거 참 맛 종덴허여이, 맛 종덴 이디 오라방네 살민 처남 강 돌아오라 흔 스발 먹으렌 허영 돌아당 맥일 때도 시곡, 이 뒤침이 이선생이엔 허는 사름 이서, 이윤길이. 어명이 이디 오

란 고치 사난 휘장 휘장 헛주게. 제국 시절에영 막 늙은 어른 하나 ‘뒤침이 강은에 휘장 드아당 국 한 사발 주라’ 경허민 오랑 먹으민이 지네 아덜 국민학교 선생이난 올 시간 돼민 막 즈들아, 할망이. 우리 하르방이영 혼 동네 살아나난 ‘휘장 즈들지 맵싸, 윤길이 온 것에 어떻헛네까’ 아이구 이디 오난 동네 놀레도 가지 못허게 허곡 이 야시 시난 이디 오람주 아무데나 가지 못허게 허영 딱 문 종가불어.

107020 @ 집이서만 이시렌.

107020 # 집이서만 살렌. 그치록 허명 막 그 할망 고생허당 죽엇저. 게민 나 슬 짜기 불령 주곡 허당이 우리집 오랑 먹어가난이 각시라 곶아신디 문을 안팎에서 다 종간 할망 나오질 못허게 허여.

107020 @ 무사, 노실허여?

107020 # 몰라, 나오지 못허게 허민 메뉴리도 나쁜 사름이주. 나오지 못허게 허민 그 앞의 미깡냥 허끄만헌 거 시난 이때 막 배고프난이 그 퍼렁헌 미깡을 탕 막 먹어.

107020 @ 예.

107020 # 경허난 그 이 선생 각시신디 ‘니 무사 경헛디게 경헛디?’ 허민 ‘무신거 말이파? 아방이 경허렌 허는 걸 어떻헛니까? 어떻헛니까?’ 헤여. 경헛이 느시 이 집 이도 놀레 못오게 허민이 영 보민 마당에 텅기는 거 닭으민 메뉴린 어디 안 텅기는 사름이난 선생은 보성학교 가불고 허민. 텅기는 것 닭으민 쥘빵 시리에서 풀앗어. 전이. 무신 것에 치명이 가게침이서 풀민 강은에 쥘빵 두 개 상은에 그디서 종이에 쌓이네 올레 문 독독 두들려 할망이 마당도 쪼그만 헌디난게 요리 갖다 요리 갖다 허영 문 툽툽 두드려 가민 이거 으정강 곱정 강 먹으렌.

107020 @ 예.

107020 # 곱정 강 먹을 때 걸린 모양이라. 걸리난에. 그 아이가 누겐고 허민 우리 시어멍 오라방 웨손, 딸이주게이.

107020 @ 예.

107020 # 오라방, 오라방 딸의 딸, 딸의 딸이난 날 라 ‘무신거허젠 삼춘 그 빵 사단 맥염수과? 지체 못허게 맥이지 맵싸.’ 경해도 난.

107020 @ 고맙텐헤사주.

107020 # 나 자꾸 경헛 맥엇주게. 아이고, 불쌍허게 죽엇저.

107020 @ 생선국은 바당 퀘기는 무신 퀘기, 무신 퀘기로 국 끌려져?

107020 # 그뻬 북바리, 가문돔, 벤자리 그런 거게.

107020 @ 응.

107020 # 주로 게영 허젠 허민이.

107020 @ 응.

107020 # 연날엔 아기 어멍 아기 나민 짓이 엇이민 그 북바리 사당은에 국 끌영 먹으면이 짓이 경 자락 나와, 애기 어멍.

107020 @ 옥돔은 안 헤?

107020 # 옥돔은 그거 고급 거, 옥돔은 옥돔 경 아기 어멍 국 끌렁 쥐봐도.
107020 @ 옥돔은 무신 거엔 곱습니까?
107020 # 생선.
107020 @ 생선.
107020 # 저 돔이 큰개레 서귀포레 옥돔 나지 이 대정 지경엔 옥돔.
107020 @ 옥돔 안 나?
107020 # 게 경허민 지속허젠 허민 그런 거 다 사오주게.
107020 @ 그디 강, 큰개 강은에?
107020 # 응, 대포, 중문 근방에 강은에.
107020 @ 아.
107020 # 우리 아버지네가 원래 이 동네난에 대포 우리 아버지네 육촌간 시민 생
성 물리왕은에 우리집이 으정와, 지속허렌.
107020 @ 이 동네는 그제 없으니까.
107020 # 바당 꿩기 하영하민 우린 이디서 농스허여 지민 먹으렌. 그디 사름덜은
주로 바당에 거만 틀어 먹으멍 살난게.
107021 @ 미역 낱은에 국도 끌리주예?
107021 # 게 메역 낱게.
107021 @ 생선국 할 때만 메역 놓습니까?
107021 # 돼야지 국 혈 때도 메역 놔.
107021 @ 건 어떻행 끌리는 거라?
107021 # 게, 돼야지 꿩기 낱은에 솥당은에 끼어가민 메역 뿐 거 드리청은에 간
맞추고, 그 바당 꿩기도 꿩기 익은은에 삶으민 장 놓고, 메역 낱은에 끼민 간 맞창
은에 먹지.
107021 @ 웬장국에는 메역 안 놔?
107021 # 웬장국도 그냥 이디서 먹을 땐 웬장국에 메역 잘 안 놔.
107021 @ 녹물 놓주예?
107021 # 응.
107022 @ 냉국은?
107022 # 냉국이엔 헌건게.
107022 @ 어떻행 만드느 거파?
107022 # 냉국이렌 헌 건 메역 녹물 데왕이네 그냥 썰엿 맹물에 장 양념허영 거
그라 냉국이렌 허고. 또 메역국도 그냥 솥지 아녕 빨앙 문작하게 빨앙 썰엿은에 메
역에 장 문작 간 맞추주게. 간 맞추민 그레 물 낱은에 싱거우냐 짜냐 허민 것그라
냉국.
107022 @ 아, 건.
107022 # 끌리지 아니허난 냉국.
107022 @ 끌이지 안허난. 웬장으로 허는 거지예?

107022 # 응 웬장을 양념을 허나 장물을 양념을 허영은에.

107022 @ 아 장물로도?

107022 # 응, 경해민 메역 빨앙은에 다 장에 이제 마농 썰어 놓고 뭐 고치도 놓고 깨도 행 낱은에 장에 우선 놓주게. 메역 빨앙 썰어 거렁 낱은에 디불디불허게 서경은에 씨원헌 물 놓민 냉국.

107022 @ 옛날에는 밧디 갈 때 밧디서도 냉국 행 먹잖아예. 그뎨 어떻행 허는 거짜?

107022 # 밧디 갈 때 메역 냉국 해영 가는 디 없어.

107022 @ 밧디 갈 때 어떻허여?

107022 # 그자 느물 데왕 강 그냥 장도 안 버무렁 강은에 장은 이만한 단지에 가정 강 이젠 점심 먹게 돼민 이런 다라에 느물 데왕 썬 거 으정 강 웬장 버무렁. 밧디 가민 물이 시원허느냐?

107022 @ 계난.

107022 # 그 향아리에 허벽에 담양 강 그거 비왕 국 허민 그자 그것이 냉국 웨어.

107022 @ 응, 그냥 된장에 느물 데운 거.

107022 # 덕수가 그렇게 박허더라게.

107022 @ 이 동네에선 어떻게 마씨?

107022 # 이 동네도 경 박허는 사름는 허는디 그자락은 안헤, 바당 가까우곡 허난.

107022 @ 이 동네는 뭐 저 느물 데운 거 말고 물웬 안 놔?

107022 # 게 물웨도 썰어 가야허. 채소로 썰어 강. 물웨도 썰어 강이네 밧디 강은에 흠치 썰어 그릇에 담양 가. 그딘 가민 썰지 아니허민 안웨주게. 경허민 어떤딘 가민이 느물 썰지 아니허영 강 칼 아정강 확확확허게 시리 허영은에 웬장 버무렁 국허민 줌 무신 먹으멍들 뵈이엔 곱아. 흠치 집이서 썰어 오주.

107022 @ 썰어 오주, 안 썰어 왓젠?

107022 # 아이구 연날사 박허영.

107023 @ 성계국? 구살국?

107023 # 오죽 맛 좋느냐?

107023 @ 구살국은 어떻 끌리는 거짜?

107023 # 성계국은게 물 팔팔 끌려가민 성계 깡이네.

107023 @ 옛날 말로 곱아사 구살로.

107023 # 응 귀살 그래 깡은에 낱이네게 만딱 간 맞추고 메역 놓고 허영.

107023 @ 메역은 나중에 ?

107023 # 응, 메역은 나중에 경 먹주.

107023 @ 거 무신 날이나 먹는 거주예?

107023 # 아무나 먹도 아니허, 얼마나 빗나카부덴.

107023 @ 지금도 비싸.

107023 # 지금도 비싸. 우리 메뉴리 어명이 해년디 우리집 올 때 이만씩 현 거 열다섯 개, 열 개 혜영 으져와.

107023 @ 냉동 행? 생 걸로?

107023 # 아니 만짜 담양이네 무슨 무슨 상자에 담양이, 그 풀어지지 안하게 담은.

107023 @ 아이스 박스.

107023 # 응, 아이스 박스에 담양 오민이 아이덜토 갈라주고 나도 주고정 현 사름도 주고 그추룩 허는다. 막 고마와. 바당에 텅기당이 큰 꿩기 쏘아지민 똥 불렁은에 으정강 시아방 국 끌렁은에 허렌 허여. 우리 바당꿩기 국 끌릴 축 모르카부덴이 우선 강은에 저 바당 고긴 오래 숲당 꿩기 맛이 나. 경 강은에 느 손으로 허영 드리렌 허곡.

107023 @ 응.

107023 # 경허당 아이고야 깜짝이 해녀질 허당 바당에서 죽언.

107023 @ 보말도 국 행 먹읍니까?

107023 # 보말도 국.

107023 @ 그건 어떻행 먹어?

107023 # 보말 내영은에 그 닥살이영 다 다듬양은에 똥채 냇은에 메역 빨아냥 국 끌려.

107023 @ 먼저 보말 보말이엔 허여 무신거엔 허여? 그메기?

107023 # 보말이엔 헤여. 보말 일름도 이 저 문다드레기가 잇고 따시 코트데기엔 현 것이 잇고 헤여 문다드레기엔 현 건 닥살이 이래 딱딱현 거 이시메. 딱지 딱딱 현 거 허곡 코트데기엔 현 건 알룬 거 영 붙으민 내쟁허민 바농으로 그거 테어도 내기가 콧어. 문다드레기는 씨우릉형게 맛이 좋아. 코트데기렌 현건 그건 내기도 힘 드는다 맛은 좋아, 쓴 맛도 없고. 이 수두리 보말이렌 현 거 이만씩 현 거 훑은 거 잡아당은에이

107023 @ 응.

107023 # 나 바당에 가민 바르도 하영 잡고 구제기도 하영 잡고 메역도 바당에 세계 바당에 가민 허리 딱 무경 강은에 눈 썩 강은에. 몰로로 헤녀덜 못 본 때 바당에 메역. 귀 알헌디 들영 숨청은에 이젠 귀로 비어사 허리 차주. 귀로 비지 아니 허민 민민민 나오라. 귀로 그창 귀로 툭 허영 뒤터레 밀리곡 뒤터레 밀리곡 흔 허리 차근에 나왕이 숨비기왓에 왕이네, 이젠 숨비기왓이 없어.

107023 @ 숨비기왓이 뭐?

107023 # 바당 굿디 풀이 이만씩 현건 이서서. 낭 닦은 거.

107023 @ 응.

107023 # 경헌디 이서난디 그 숨비기가 그땐 우리 헐 때 시민 우리 씨누이 막둥이 씨누이 오랑은에 굿디 시렌 혜영 바구리영 으정 오랑 시렌허영 흔숨 들영은에

흔 바꾸니 헤지민 쥬이네 흔저 가렌 헤동 난 딱시 물천 잡아왕.

107023 @ 물천 잡아왕?

107023 # 하이구, 물천이엔 현 건 보말이고, 바르고, 물꾸러이고 닥치는냥 심영이네 와.

107023 @ 바르는 무신거ㄹ라 바르렌?

107023 # 전복 새끼.

107023 @ 아, 전복 새끼가 바르.

107023 # 쥬쥬현 거 바르.

107023 @ 넵패로도 국 헵니까?

107023 # 넵패로 국 허여.

107023 @ 그건 어떻게 먹어?

107023 # 넵패이 이렇게 볶이 나주게. 돌에 나민이 넵패 뽑양 넵패 그냥 국 끌리민 맛있어. 그 바당에서 박박박허게시리 밀영이네 바당 물에서 시청 오랑 이젠 집이선 물 아이냥은에 볶아. 보깡은에 어느 정도 볶아지는 거 닥으면 남자로 영영영 춤 부서지게 데경이네 그추룩헤영 넵패. 메역새렌 현 거 이서이.

107023 @ 응.

107023 # 그거 뽑양이네 넵패국이 등거왕 맛이 좋아.

107023 @ 아.

107023 # 메역새엔 현 건 쫄랍져. 메역엔 현 거 메역 닥은 이파리 닥은 거 허민 그거 뽑양이에 그거 이제 메역 사지 못허는 사름은 메역새 낱은에 그 제삿 때 게영도 허주게.

107023 @ 그걸로?

107023 # 응. 넵팬 막 맛 좋아. 넵패국은, 넵패국은 까릿까릿헌 따문에 허영 오랑 그 모살 부튼 거 돌 부튼 거 테어둥이네 돌에서 박박 밀영 싹영오주게, 바당에서.

107023 @ 예.

107023 # 싹영 오랑 솟디서 보까 물 아이냥. 보깡은에 어느제민 남자로 그거 영영허영 장 낱 국 끌리민 침 그거 장남털 흔 사발씩 시 사발 먹어라.

107023 @ 우미국?

107023 # 우미국은 우미엔 현 건 바당에 강은에 좇어당 이젠 벳디 낱 막 바래여. 헤영케 바리민 그 모살 부튼 거 잇주게, 그거 부떠난 자리에 이젠 몰르민 마께로 독독독 두드렁 털어지게 허영 이젠 그 우미 숲지게. 숲으면 삭 녹아불민 채로 걸렁은에 다라이에 영 놔두민 우미가 언디어.

107023 @ 아.

107023 # 우미 언디민 우미 그자 칼로 삭삭삭 썰영은에 시원헌 냉국허영 송키도 아이 낱 그자 마농 썰어 놓고 꿩나 놓곡 허영 냉국허민이 어떤 어른들은 뒤 사발씩 먹어. 그거 더우 탄 사름 우미국 먹영으네 더우도 갠덴 허고.

107023 @ 아.

107023 # 그냥 딱시 썰영이네 무청 반찬추록 그냥 거렁 먹음도 허고.
 107023 @ 예. 뭐 다른 거 안 놓고 그냥 우미만 놓는 거지예?
 107023 # 우미.
 107023 @ 요즘엔 콩ㄴ루 놓고 헹게만은.
 107023 # 콩ㄴ루난 먹지 아니헌디, 께여 무스거이.
 107023 @ 양념예
 107023 # 양념허영 우미국에 마늘도 썰어 놓고 경헝 먹엇주. 콩ㄴ루 요즘덜 놔실 거라, 콩ㄴ루 우린 안 서꺼받. 콩ㄴ루, 늘 콩ㄴ루 아니헝은에 보곤 콩ㄴ루라사허.
 107023 @ 파래도 국 끌렁 먹어?
 107023 # 파래는 아니.
 107023 @ 파래는 안 먹어. 옛날에도 물훤 헝 먹어낫수과?
 107023 # 응, 자리물훤 헝 먹지게.
 107023 @ 그건 어뎡헝 먹어?
 107023 # 자리 강. 사당. 비늘 베경. 대가리도 쫄라두곡 가시도 다듬어똥 즂질이 썰어 늙은 어른 신딘 더 즂질이 썰곡 늙은 어른들 엇이민 그자 자리 하나민 댓개씩 썰영은에 이젠 장에 양념허지 안허게. 장 이제 웬장에 고치장이여 고치ㄴ루여 문 서경은에 께영 버무렁 그 자리훤 헌것에 무청은에 물 놓민 그렇게 자리훤.
 107023 @ 뭐 특별허게 더 놓는 건 없고?
 107023 # 특별허게 놓는 거 엇어
 107023 @ 뭐 조피?
 107023 # 조피도 이 웃드르엔 조피도 엇영 안 놔. 해변 사림덜은 그런 그런 거 미릇 해당 조피 놔 우린 저디 조피낭 싱경은에 우리 딸네 홀터당은에 더러 자리훤 에 먹젠허민 우리 아덜이 자리훤 잘먹어. 똤야지 께기 잘 안 먹영이 네발 탄 거. 이 거 탕은에 자리훤 햐저, 오렌허영 우리 딸네 자리 허여 주켤 흔 사발씩 얻어 먹으레 뎡겨낫주.
 107023 @ 경헝 때 조피 놔? 조피?
 107023 # 웬장에 조피를 우선 놔 낡이네 발이 죽주게. 경허민 그 자리 즂질이 썰 영은에 그레 버무리민 조피 냄살 코시룽이 나곡이 우리 아덜이 자리훤 먹으레 오라 본 것이 흔 삼 년 똤실 거라
 107023 @ 무사?
 107023 # 오지 못헤영게.
 107023 @ 바뎡?
 107023 # 우리 아이덜이 바뎡산디사게 우리 셋뜰이 잘헝 맥연게 우린 원색이 흥 원색이여.

죽류

107024 @ 무신 죽, 무신 죽 헝 먹어나수과? 옛날엔?

107024 # 풋죽 행 먹고 녹디죽도 행 먹고 콩죽도 행 먹고 그추록 그냥 딱시 심심 허민 곤쌀 낱 흰죽으로 썰은에. 흰죽으로 썰은에 먹젠허민 흰죽이 너미 심심허민 이 늘계란 흰죽더레 탁 하나 타놓으민 이 젓어근에 먹주. 난 이 장남 빌영이 밧 갈젠허민 이 밥 사발 흐쌀 밥 사발 흐끔 거렁낱 그디 늘계란 탁 탕은에 우터레 밥 걸여불민 몰라 경행은에 밥상 들러가민 이 난 놉 빌영은에 밧 갈젠허민 시아방 밥 ㄱ치 출려. 시아방 상 경허민 ‘나 게민 니네 밧 갈암시냐게, 내불라, 내불라’해도 시아방도 밥 사발에 국에 밥 흐쌀 놓고 계란 하나 탕이네 우이 더끄민 우리 시아방 자꾸 허난 심상행 먹는다. 대옥이넌 경 안행 먹어 나시난 출령가민 밥터레 놓민 ‘아이구 이거 무신거 이거 무신거 잘못’ 시아방 상 든따문 ‘우리 메뉴리 특별히 그거 아무나 행 주는 거 아니여. 그거 박박 밥에 젓영 먹으라’, ‘기짱’ 허멍 경헌디 우리 시아방 우선 밥 들어가민 그거 젓어. 젓영 먹으난 아무나 경 계란 탄 밥 장낱 줘시냐? 그추록 밧 빌영 갈 땀 주고 잘 주당보난 늬 헐 땀 들양 가도 아니혀.

107025 @ 곤죽은 어떻 행 쭈는 거봐?

107025 # 곤죽이엔 흰 건 흰죽 기냥 곤쌀 낱 썰은에 쌀 익으민 게 곤죽계.

107025 @ 그건 어떻헐 때 먹는 거라?

107025 # 심심허민 흰죽이나 썰 먹으카 허영 아픈 사람도 흰죽 썰 주고.

107025 @ 아, 아픈 사람도 먹고.

107025 # 게난 흰죽은 심심허영 맛 었어. 흰죽 쓸 때 이 모멸쌀 사당 줌진 모멸쌀 사당 곤쌀 낱은에 든 익은 것 닻으민 그 녹물쌀 줌지롱헌 거 위에 더경 두어번 젓으민 흰죽이 그렇게 기똥차게 맛 좋아.

107025 @ 모멸쌀 흐끔 놓민?

107025 # 흐쌀 놓민 경허난 그거 아무 집이나 허카부덴? 쳇 우리 시아방도 체암 먹는데 헤라. 우리 친정에서 아버지가 술 잡수민 술 하영 먹은따문 우리 어머니 흰죽 주당 모멸쌀 낱은에 젓영 한 사발 으저당 보민 그것엔 흰죽 더운 죽 먹당은에 웬술 으저오렌헐 웬술 서경 먹고 경허는 거 봐난, 나가 저 흰죽에.

107025 @ 웬술은 뭐?

107025 # 웬술은 이 줍쌀에 술허여.

107025 @ 술 멘든 거?

107025 # 응, 줍쌀에 술 행은에 그 물은 청주엿 헤영은에 멩질에 지속에 쓰곡 그 건진 딱시 딱딱딱 때렁 낱당은에 그 흰죽 쓸 때 거려 낱 흰죽에 탕 먹어.

107025 @ 그게 웬술?

107025# 술 잡수는 분덜 그거 보기 허는 거.

107025@ 보기허는 거?

107025# 우리 아버지 산 때 경행 보기헤난.

107026 @ 조축은 줍쌀로도 죽 험니까?

107026 # 게. 그것이 조축이 줍쌀 죽이지게. 흐린 줍쌀은 죽 안 웨어.

107026 @ 어떻헐 헤여?

107026 # 모인 좁쌀로 헤사, 끌려사 죽 썬가민 풀풀허지. 흐린 좁쌀은 죽 썬가민 지르특허영 물 트로 건지 트로 다 죽이 돼도 맛이 업서. 모인 좁쌀이라사 죽이 맛 좋아. 연날 엇은 사름은 콩꺾루에 모인 좁쌀 서경이네 콩죽 썬덜 승키 하영 낭 먹 으민 빨루양 살아시네.

107028 @ 아 콩죽.

107028 # 콩죽은 부제침인 곤쌀 낭은에 썬은에.

107028 @ 아, 좁쌀 대신에 곤쌀 냐?

107028 #응 곤쌀 낭 쭈당은에 곤쌀 익은 거 닻으민 녹물 썰어 농곡 헤영은에 콩 죽이렌 헤 콩죽엔 승키 냐.

107027 @ 그러면 팻죽은?

107027 # 팻죽은 팻 슴양게 팻 슴양은에 연날에 팻 슴양 데경은에 문작문작 폭 슴아지민 데경은에 쫄 낭 쭈민 팻죽이엔.

107027 @ 어뎡헌 때 먹는 거과 팻죽은?

107027 # 팻죽은 동짓 때에 동짓날 돼민 팻죽 썬. 경허곡 사둔침이 갈 때 팻죽 썬 가는 거 아니가.

107027 @ 응. 상 낫을 때 누가 돌아가셨을 때?

107027 # 응 사둔네 죽엇젠 허민 팻죽 서너 허벅 썬은에 으져가주게.

107029 @ 모멸죽?

107029 # 모멸쌀은 따시게 물 팔팔 끌여가민 모멸쌀 드리청 젓어가민 모멸죽이 돼는 거 흰죽으로 그냥 먹는 거 곤쌀 흰죽으로 게 더 맛 좋아. 하엿튼 흰죽 썬 먹 쟈허민 곤쌀 흐끔 녀 슴당 이 모멸쌀 호쌀 놓민 죽이 들어. 그렇게 코싱허게 모멸 내음살 낭 맛 좋아. 환자덜 모멸죽 썬 먹네.

107031 @ 득죽?

107031 # 득죽. 득은 슴양은에 득은 건져 불고 득 슴아난 물에 쫄 낭은에 쭈는 거지게. 또 어떤 집은 우린 이 득 잡으민 득 알러레 쫄을 담양은에 득 다 슴아지고 쫄도 슴아지민 득은 털영 내치곡 그 쫄로 죽은 쭈는디 나 영 뎡겨보난이 득 슴아난 물에 곤쌀 낭 죽 쭈더라.

107031 @ 득죽은 언제 행 먹어?

107031 # 득죽은 아무때라도 득 많이 질루문게. 하이튼 촌에서 득은 정월 비에기 내리주게. 정월 비에기 내리민 유월 스무날 득 잡양 먹는 날이라. 그날은 득 하이튼 집이 식술 하민 서너 마리 잡아.

107031 @ 응.

107031 # 서너 마리 잡양은에 코콜이 그거 슴아난 물에 곤쌀 낭이네 죽 쭈고 또 식술 엇인딘 이 득 안터레 쫄 담양 쫄도 익곡 잤기도 익으민 잤긴 털곡 그 쫄로 그 디서 죽 썬은에 소금 낭 양념행 맞춰 먹지.

107032 @ 쟤죽도 이서 마씨? 쟤죽?

107032 # 쟤죽은 없엇어

107032 @ 채소 넣는 죽?

107032 # 채소 논 건 저 국죽, 국죽.

107032 @ 국죽? 그건 어떻습니까?

107032 # 국죽이엔 현 건 이 밥 먹당 식으민 밥도 많이 잇곡이 그냥 밥 먹고프지 아니허민 그 밥을 낱은에 쭈당 승키 놓민 국죽.

107032 @ 밥을 낱 끌리당 승키 낱?

107032 # 승키 낱은에 게민 그건 국죽. 콩죽이엔 현 건이 물 팔팔 끌려가민 콩궤 루에 찰에 서경 좁쌀이나 곤쌀이나 서경 이젠 부끄지 아니허게 잘 짓엉 어느 정도 이녀 짐작으로 웬 것 닻으민 무수 썰어 놓나 녹물 썰어 놓나 행은에 콩죽.

107032 @ 건 콩죽이고 응.

107032 # 국죽이엔 현 건 이 식은 밥 시민, 식은 밥 시민 그자 솟디 드리청 슻당 승키 낱은에 슻당 국죽으로.

107032 @ 건 뭘로 간 허는 거파?

107032 # 그건 녹물을 썰어 놓거나게 녹물 썰어낱.

107032 @ 장물로 간허여?

107032 # 장물이나 소금이나 간허여. 경허난 이 없는 집이가 국죽허지 잇슨 집인 국죽 안 쏘다게. 밥 먹당은에 하영 남으민 그게 불롭젠 국죽이엔 허주.

107033 @ 거 말고도 다른 죽도 이수파? 이제까지 말한 죽 말고 다른 죽?

107033 # 다른 죽은 엇어.

107033 @ 쨍죽?

107033 # 쨍 거 아무나 행 죽 쨍 먹느냐? 이 근간은 그런 것도 엇어. 연날에이 젊은 아이덜 저 쨍 잡젠 허민 드르팍디 강은에 섬비 비영은에 영 헤영은에 들어가 게 꾸리 그레 콩 즐레나 으저당 빼영 내불민 이 강보민 쨍들이 그거 좃어 먹엄시민 무시거엔 곶아가민 그 자왈러레 들어가노렌 밧 가운데 낭 비어당은에 이렌 죽게허 곡 저디 들어오는다 너르게 허민 그 쨍 공쟁이레 들어강 막은 창에 강 심어당은에 잡아당 먹곡 헛주게.

범벅

107034 @ 범벅은?

107034 # 범벅은?

107034 @ 무신 범벅, 무신 범벅 행 먹어낱수과?

107034 # 녹물 범벅도 허고

107034 @ 또?

107034 # 조팸벅도 허고.

107034 @ 또?

107034 # 그거 뿐이주.

107034 @ 모멸허고 조 두개?

107034 # 응, 딱시 연날에.

107034 @ 는쟁이, 느쟁이?

107034 # 는쟁이도 범벅허여. 모멸 는쟁이도 범벅허여.

107034 @ 감저?

107034 # 감저 슌으당은에 감저 익어가민 는쟁이 ㄹ루 허경은에 소금 낱은에 버 무령 는쟁이 범벅.

107034 @ 보통 무신 범벅 하영 행 먹어낫수과?

107034 # 우린 경 범벅 하영 헨 먹어보지 안헛저. 하르방 시어명이 ‘그디 보라. 식은 밥 시냐? 식은 밥 싯건 식은 밥 슌당은에 그디 는쟁이 ㄹ루 버무리라.’ 경허영 그추룩 행 먹엇주이.

107034 @ 식은 밥에?

107034 # 응 식은 밥 슌당 슌당은에 모멸ㄹ루 그래 버무령 젓으민 이 식은 밥.

107034 @ 그건 범벅이라 죽이라?

107034 # 범벅 웨어 불주게 ㄹ루 낱 버물이민 범벅 웨불어

107034 @ 모멸 범벅은 어떻게 멘들어마씨?

107034 # 모멸ㄹ루 물 팔팔 끼려가민 이 모멸ㄹ루 놓지. 모멸ㄹ루 놓고 소금도 이녁이 간 맞게시리 똑 놓추게. 경허민 ㄹ루 낱이네 바글바글 귀여가. 귀여가민 골 로로 ㄹ루 젓영 갱 모멸범벅. 모멸은 범벅헤영 먹지 안 허메, 아까왕.

107034 @ 아.

107034 # 모멸로 목허곡 모멸쫄 허주. 경헌디 모멸 곶아나민 는쟁이엔 현 거 잇 서.

107034 @ 그걸로 범벅 행 먹는 거.

107034 # 게, 그걸로 범벅 행 먹음 딱시 국 끌리는데 그 ㄹ루 쟁으네 는쟁이 즈 베기 툃툃 드리청 ㄴ물국터래 드리청 정도 행 먹고.

107034 @ 아, 아까 범벅은?

107034 # 범벅은 물 팔팔 끌려가민 ㄹ루 농콧 소금 낱이네 어거레 낱 아니혀. 저 물 팔팔 끓여가민 ㄹ루 낱 흐끔 슌아 가명 이제 소금 우터래 놓지게. 이녁 간 맞게 놓양은에 흐쫄 영 슌아져 가민 불 슌으명 막 젓어. ㄴㄹ루 엇이 막 젓으민 범벅이 돼는 거.

107034 @ 는쟁이 범벅 말고는 무신 범벅 이수과?

107034 @ 는쟁이 범벅 말고도 연날에 옥수수 아니 저 무시거 옥수수가 아니고 무신 대죽 이서서. 쫄대죽 이젠 그거 엇어. 그거 막 나 육지라도 텅기는 사름ㄹ라 허여다도렌 헤도 그것이 그렇게 맛 좋아.

107034 @ 그건 어떻게 허는 거?

107034 # 그거이 고고리가 뽕글뽕글 음아. 쫄대죽 육지 텔레비에 나와라 만든. 그런거 연날엔 이디 갈양은에 이추룩 몽클락 몽클락 헤여. 쫄대죽. 콩밭디 담에염엘 허나 흐나씩 서끄민 그거 헤여당 장만허민이 여물이 픽픽 음아. 으물민 이 ㄹ래서

흔 번 가르특허게 곶민 여물만 털어정 꺾데기 훌딱허민이 그 대죽 ㄱ루 곶앙, 곶앙 이네 범벅허민 기가 막히게 맛 좋아라.

107034 @ 응

107034 # 그 ㄱ루 곶앙 딱시 대죽떡 헤여도 맛 좋고. 이젠 이 그 씨 엇어. 육지에 땡기는 사름ㄱ라 그 씨 봐지건 헤여오렌 헤도 테레비에 보면 그 씨 서. 이추룩 허는 대죽 이서.

107034 @ 근디 제주도엔 그런 거 잘 안보여?

107034 # 엇어, 제주도엔 엇어.

107034 @ 옛날엔 행 먹어나신디?

107034 # 연날엔 콩밭 고랑에영 어염에 놓민 그거 허영 멧 말씩 허영 대죽 범벅도 행 먹고 대죽 즈베기도 허곡 막 못 좋아.

범벅과 수제비

107035 @ 즈베긴?

107035 # 대죽떡도 행 먹고.

107035 @ 대죽떡도 행 먹고.

107035 # 즈베긴 게 그 ㄱ루 쟁은에 툃툃허게 톳아 낱은에.

107035 @ 조베긴 무신 즈베기 무신 즈베기 이서 낱수과?

107035 # 모멸 츠베기도 행 먹고 대죽 즈베기도 행 먹고 보리 즈베기도 행 먹어 낱어.

107035 @ 보리 즈베기도 허여?

107035 # 게. 보리게 없는 사름덜은 빨롭젠게.

107035 @ 즈베기는 어떻 행 허는 거짜?

107035 # 즈베기는게 ㄱ루에 물에 쟁이네 영영 쟁 이제 그거 물 꺾어가민 툃툃 영영 헤영도 놓고 그냥 톳앙도 놓고 모멸ㄱ룬이 그자 이젠 반죽허지. 물 데왕 반죽 허민 물 팔팔 끌려가민 이제 돛베에서 납작납작허게 헤영이네 싹싹 썰영이네 그냥 들리청은에

107035 @ 칼국수 아니?

107035 # 응 칼국수추룩 칼국순 즈질게 헤도 즈질게 아니 훌게 툃툃 썰영 놓민 맛 좋아. 모멸ㄱ루로 무신 음식이라도 허기도 좋고 맛도 좋아.

107036 @ 칼국순 모멸만 행 먹읍니까? 다른 칼국수는 안행 먹어?

107036 # 모멸이 주장하더라게. 모멸 칼국수 허영은에 하르방덜 지름 농곡 행은에 드리민 맛도 좋고. 모멸 칼국수에 메역도 빨앙 농곡 허민 막 맛 좋아. 우리 친정 아방이 나가 시아방 들앙 살젠허난 ‘매날 밥만 먹지 아니헌다, 노영.’

107036 @ 맞아.

107036 # 밥만 먹지 아니허난에 좁쌀에 보리쌀에 서경 기계 강 곶아당 가만이 무신거 흔 사발 쟁 칼국수추룩 썰영 썰영은에 장국 헤영은에 ㄱ 헤곡 허렌허난이. 게

난 우리 첨 원색이 하르방이 '나 손에 별 거 다 먹어뵈저' 경 곱아라. 아니 먹어난 음식 나 손에 먹노넨.

107036@ 응.

107036 # 큰 메뉴리 죽은 메뉴리 딸덜 헤도 이런 음식 먹어 본적이 엇넨. 지름 놓고 헤영은에 하여 막 맛 좋아. 그 좁쌀에 보리쌀에 서경이네 쟁이네 막 달롭게 짜주게. 쟁이네 이젠 손으로 쟁쟁 누르떠근에 썰영이네 장국 깨우는다 드리청 지름도 놓고 허영은에 흔 사발 권허민 사발에 두 개 권허민이 하나만 먹카부넨 두 사발 다 먹어. 늬이 일 허레 뎅기는 할망이영, 하르방이영.

107036 @ 건 무신거엔 곱아?

107036 # 칼국수.

107036 @ 그냥 칼국수? 뭐 승킨 안 놔?

107036 # 승키 늬도 허지게. 승키도 놓고 마농도 놓고. 난이 아인때부터 마농 종류엔 현 건 못 먹어. 뉘야지 쉼기도 니 발 탄 것도 못 먹어난. 이제 니 발 탄 거 할 수 엇영 먹어져도 마농 종류 대신이나 무시거나 먹지 못허여. 연날에 마농 대신이 싱그민 테왕이네 지름장 무치민 먹는 사름덜은이 겹나게 먹어. 겹나게 먹어.

107036 @ 건디 그런 것도 못 먹어?

107036 # 난 마농 종류 새우리나 마농이나 그런 종류 못 먹어. 미나리 못 먹고.

107036 @ 먹으민 어디 아파?

107036 # 아니 어평은 아이 현디 비위에 안 맞앙 안 먹어. 양에 양에 알아? 양에도 난 못 먹어.

107036 @ 게른 뉘 먹영 삽니까?

107036 # 게메 경헤도 살아시네게.

107036 @ 건강하게 잘 살는 거 첨.

107036 # 우리 이젠 미깁 밧디 알로 좍 양에 싱그민 양옛근 흔 마다리씩 현다게. 경허민 씻어은에 뜰네 양펜이 다 가정가렌. 이 다 가져가고. 흔 열흘 전이 막 비올 때 간 거난이 양옛근 나젠 막 험서라.

107036 @ 응. 이제?

107036 # 이제 양옛근 잇주게. 경허난 딸덜ㄴ라 이녁냥으로 해당 먹으라. 난 이젠 못 헤다주켜. 허영 코콜이 씻어은에 서너 집이 갈라쉼. 우리 메뉴린 이 양옛근 그 냥 장 좁으멍 보삭보삭 잘 먹어. 마농도 깡이네이 장 좁양은에 마농 깡이네 우리 메뉴리 시집 오란 이거 멧넨 웬디 흔 삼십 년이 넘게 산디 이녁냥으로 마농 까본 적 엇다. 나가 곧장 대승 흔 뉘 두 뉘 깡은에 아덜 오민 가져가렌 우리 아덜은 마농내 난텐 차에 시끄도 못 허게 헤여.

107036 @ 늬새 오래 가.

107036 # 경헤도 쌍가렌 헹 쌍강은에 현디 올리도 마농 아파도 서넉 대 쫓주게.

107036 @ 응.

107036 # 오카부넨 깡 아덜ㄴ라 으져가렌 허난 두번이나 아덜 늬이 새끼 오라도

아니 으져 가난 문 썩언 낭 알더레 비와 불어시네. 아까우게 계난 그르후제 나 안
잡저.

107036 @ 마농 까는 게 요기 손 완전 아픏디다. 막 알리덴데 그냥 다시 난 마농
안까켜, 까진 거 사당 먹으켜 헛수다. 마농 흐뎡 까는데도 여기가 막 아파.

107036 # 우리 메누리 시집은 지 올리만 안 으져 갖주, 온 적마다 으져가렌 허민
메누리 닌 다 으져가. 양옛근도 장 좁양 놀차 보삭보삭 먹고.

107036 @ 마농을 짚더니 이룬디 막 알려.

107036 # 우리 아덜은 마농 차에 시끄도 못헤게.

107036 @ 념새가 오래 가, 오래 가.

107036 # 막 쌍이네 시경은에 가져가렌 허민 아덜 온 때 안 가져가 메누리 온 뎡
억지로 으져가고.

김치

107037 @ 짐치?

107037 # 짐치?

107037 @ 무슨 짐치, 무슨 짐치 이서 낫수과?

107037 # 배추 짐치, 무수 짐치

107037 @ 옛날에 두개가 주장?

107037 # 게.

107038 @ 배추 짐친 어떻 행 멘들어 낫수과? 옛날 해난 걸로.

107038 # 연날에 배추 케당은에 착 갈랑. 착 갈랑, 착 갈랑은에 이젠 배추가 가
운디로 착 잘르주게이. 갈르민 이제 배추 쉼 트는더레 소금을 놓멍 이제 배추 죽이
지게. 죽이민 코콜이 씻엉, 코콜이 씻엉은에 물 빠질 동안 이제 고추ㄴ루 위에 양념
이 마농 빼져 놓고, 꿩도 놓고, 고추ㄴ루 간 맞게시리 맞창, 맞창은에 이제 짐치에
버무리멍 조근조근 망대기레 똑똑 찢르고 또 마농지엔 현 건이.

107038 @ 마농진 흐뎡 잇당예. 할머니 배추짐치 옛날에는 더 어렸을 때 할머니
어렸을 때 어떻행 먹어난?

107038 # 어린 때도 우리 어머니네 그추룩 허더라.

107038 @ 배추가 옛날에 제주도예 배추가 속 앓인 배추가 엇어 나지 안헤수과?

107038 # 아이, 이서서.

107038 @ 이서서?

107038 # 우영예 갈앙은에 많이 속 앓기 전이 이녁 우영예 갈앙은에 속 흐쫄썩
앓아가민 케멍 먹음 시작허영 마지막은 속 앓아.

107038 @ 아.

107038 # 연날에도 이서, 우리 어린 때도.

107038 @ 고치ㄴ루도 얼마 엇어 낫텐 허멍?

107038 # 아이 고치 우리 어머니 산 때 주로 싱거.

107038 @ 밧되 싱근 걸로.

107038 # 싱겨. 고치 싱겨 고치ㄴ루 헤영 늣 엇은 사름 줌도 허곡 경헤여.

107038 @ 그디 뉼첫이나 이런 것도 봐?

107038 # 게 뉼첫 봐, 뉼첫을 놓나 딱시 저 바당 퀘기 무신 고기 다가리 젓 헛 거 그런 거라도 놓나 헤사주 맛좋아

107038 @ 그런 것도 봐? 이제사 놓는 게 아니고 옛날에도 봐놋수과?

107038 # 연날 우리 시고모가 바당에 시고모 냄편이 텡기문이 그디 각재기 다가리, 뭐 하간 퀘기 다가리 코돋은 망대기 이만헌 걸로 젓 담앙 집이 으져와. 시에 살멍이 으져오민 그거 그 국물로 짐치에 담으민 그렇게 맛이 좋아.

107038 @ 젓갈 대신에.

107038 # 응. 젓갈 대신 연날도 뉼첫 헤영은에 젓 담는 거 이녁 집이 다 뉼첫 담곡, 자리젓 담곡 촛에. 자리젓, 뉼첫 담는 집도 잘 엇으매.

107039 @ 열무짐치는?

107039 # 열무 짐치, 이파리. 열무 갈앙이네 그 죽영은에 허는 것ㄴ라 열무짐치.

107039 @ 옛날에도 행 먹어 놋수과?

107039 # 게 연날에 늣물, 열무, 무수 늣물 갈민 좗주게 좗아. 좗이민 더러 뉼앙은에 헤영 먹주게.

107039 @ 초마기 짐치는 뭐라?

107039 # 초마기가 열무. 이제 신식말로 열무. 연날에 초마기.

107039 @ 옛날에 초막이 그게 저 무수 갈앙 좗이 난 거 뉼앙은에 그게 열무고 초막이 딱 ㄴ튼거?

107039 # 드물게 행 놋두면 늣뵘 이만씩 크곡.

107040 @ 옛날에 물짐치도 행 먹어놋수과?

107040 # 물짐치도 허엿어.

107040 @ 그건 어뎡 허는 거과?

107040 # 물짐친 어뎡헤여? 초마기, 어린 초마기 나민 소약소약 쉼영은에 죽엿당이 물 잇게 헤영이네 마늘이영 뵘정은에 간 맞게 허영 그거 물짐치도 허곡. 또 무수가 들민 무수도 채소를 쉼영도 허영 먹어 그건 무채소엔 헌디. 그냥 물짐치도 늣뵘 이런 거민 짝 벌렁 소약소약 쉼영이네 소금에 버무렛당이네.

107042 @ 고추ㄴ루 안 놋은에?

107042 # 응?

107042 @ 고추가루 안 봐?

107040 # 고치ㄴ루영 다 서꺼. 물짐치에도 봐, 더러. 하영 놓치 아니혀. 벌정게 아니힘뿐이주. 물짐치엔 벌정게 버무리지 아니헤도.

107040 @ 이제사 행 먹는 거 아니고 옛날에 행 먹어 놋수과?

107040 # 우린 어린 때부터 허더라.

107040 @ 아, 어린 때도 행 먹어난?

107040 # 어린 때 어머니네 허난에 어머니 본 똥 나도 허엿주게

107040 @ 아니, 제주도에선 물김치 잘 안행 먹은다 헨게 만든 할머니넨 헤낫구나?

107040 # 우린 연날에 대정골 살명 녹물 갈랑 동네 사름도 주고 녹물 하영 갈아 지민 동네사름도 뽕양이네 넘어 감시면 으정강 먹으렌 행 막 주고 우жат 너른디 헤영.

107041 @ 동지 김치는 무신 거봐?

107041 # 녹물 동지 산 걸로 헨 거, 동지 김치.

10741 @ 녹물 이면 무수, 늣뻬?

10741 # 늣뻬 동지 산 건 허여보지 안헛주만은 배추 갈앗당 봄 나가민 동지 사주게.

예.

동지 딱딱 꺾어당은에 절이민 동지김치 맛 좋아.

107042 @ 늣뻬는, 늣뻬 김치는 어땡행?

107042 # 늣뻬 김치는 그자 통배기로 착 갈랑도 담앗당은에 건져 내영 썰명 떡곡 그러치 아니면 급허게 먹을 때민 즈질이 썰영도 떡곡 채소로 썰영 버무령 떡곡.

107042 @ 김치로?

107042 # 응.

107042 @ 지금 깍뚜기 허는 거추룩?

107042 # 깍뚜기도 지금 이제 허는 것도게 그 썰영이네 먹을 만씩 썰영이네 양념 버무령 장만허고.

107042 @ 아까 통배기로 허는 건 무수 반짜스로만 딱 썰영은에 김치 담그는 거?

107042 # 응.

107042 @ 경헛당 먹을 때 썰영 먹는 거.

107042 # 응.

107042 @ 아, 그렇게도 행 먹어 낫수과? 육지식 아니고 제주도식 그것도?

107042 # 게.

107042 @ 옛날에도 행 먹어 난?

107042 # 무수 착 갈랑 이파리 저 훗은 이파린 짜어똥 준 이파리 요만씩 헨 거 착 갈랑은에 소금에 절엿당은에 그냥 허영.

107042 @ 큰 이만이 큰 늣뻬도?

107042 # 게. 이마니 큰 건 절엿당은에 이제 그건 양념 얼마 안 놔. 그냥 절엿당은에 그냥 소금물에 절인 거난 죽엇지.

107042 @ 예.

107042 # 게민 썰영이네 그때 고치ㄴ루영 께영 버무령 떡곡 경 아니허민 그냥 먹는 수도 싯곡.

107043 @ 파김치?

107043 # 과집치도 과 다듬양네 꽤마농 짐치라도 대신인 짐치 못허는 거. 과 다듬양이네 소금에 절엿당 그자 양님 버무령 먹는 거

107043 @ 옛날도 행 먹어 낫수과?

107043 # 연날도 마농. 마농 하영 싱그난 들구 집이서 마농덜 싱그민 행 먹엇주게.

107043 @ 옛날도?

107043 # 응, 우리 어멍네 누에 질르고 우리 웨가에 교육자 집이난이 경 시시허게 반찬 안헤낫어. 우리 웨삼춘 연날에 우리 웨삼춘도 선생, 웨삼춘 아덜네도 다, 우리 어멍네가 팔 남텐데 오라방, 우리 큰오라방 난 다음 우리 어머니 낱주. 게난 오레비덜이 다섯 개. 형제간이 팔남매. 팔남매 막 착허게 살아. 게난 웨할망도 누에 질르난 우리 어머니도 누에 질르고, 우리 화순 이모도 누에 질르고, 나도 누에 질런. 이거 암에도 그런 것도 유전으로 가는 모양이라이.

107043 @ 할머니 여덟 번째 중 할머니 몇 번째?

107043 # 여자중에?

107043 @ 아니 다 합청은에?

107043 # 여즈 중에 나, 우이로 다 죽어불언게.

107043 @ 게난 경해도 몇 번째 할머니가, 여자 중엔?

107043 # 여즈 난 두 번째.

107043 @ 여자 중엔 두 번째.

107043 # 우리 언닌 일본 간에 념편이영 간 공장 헤연 살고 우리 동생은 또 육지 간 살고.

107044 @ 달래, 드룻 마농으로도 짐치 행 먹어 낫수과?

107044 # 응, 드룻마농 맛 좋아.

107044 @ 이젠 맛 좋게 먹주만은.

107044 # 이제도 맛좋아.

107044 @ 옛날도 행 먹어난?

107044 # 게 드룻 마농 헤당이네 콩국 끌리는 디도 농곡,

107044 @ 아, 콩국 끌리는 디도 봐?

107044 # 응 콩국 끌리는 디도 그거 썰어 농곡 콩죽 쑤는 디도 썰어 낱 먹고 경허여.

107044 @ 이거 하영 헤지민 이걸로 짐치도 행 먹곡?

107044 # 응, 빨리 다듬지 아니행 빨리채 그 동그라진 거 채 헤영은에 짐치 헤영 놔두민 밧디 일 가민 그거 으전 가민 이거 어디 션 헤시넨 허영이 연날에 저 알드르 뜬 땅에 그것 가민 바구리로 하나씩 헤영 오라낫저. 경허민 짐치 헤여.

107045 @ 갓김친 이제사 행 먹는 거주예? 제주도엔 갓김치 엇어 낫지예?

107045 # 응, 갓김치엔 현 건 그 무시거 아니라게. 저 저 일름? 유, 유.

107045 @ 아니 유 말고, 갓, 갓?

107045 # 나 술도 잘 혀고, 감주도 잘 혀고, 인성서 감주 혀여오렌 행은에 서구 포 오란. 인성 감주 헐 사름덜 엇고 술 헐 사름도 엇고.

107045 @ 갯늬물 갯늬물?

107045 # 갯늬물, 맞다. 갯늬물.

107045 @ 갯늬물로 짐치헿 먹어 낫수과?

107045 # 응, 갯늬물 짐친 새금트름헿 게 갯내음살 낭 좋아.

107043 @아, 제주도도.

107043 # 갯늬물 어린 때 혀영이네 짐치헿다. 향기가 그렇게 좋아. 갯늬물.

107045 @ 이제 혀는 갯김치하고 다르지예?

107045 # 다르지 아니혀. 똑가타.

107045 @ 이제 갯김친 육지서 가져옵니께. 영 길쭉헿 거.

107045 # 이디서 갯늬물 갈앙이네 짐치헿 보라 더 맛 좋나.

107045 @ 옛날에도 이런 것도 헿 김치 먹어난?

107045 # 연날도 그런 거 이서난. 갯늬물 지지 세왕 지름도 빵이네덜 먹고 그쭈 룩 헿낫어.

107045 @ 아 걸로 지름도 빵 먹고.

107045 # 응.

107045 @ 할머니 안 먹은덴 헿라만은 새우리 짐친?

107046 # 새우리 짐치헿곡. 새우리 아이 먹으난 짐치도 아이 먹어. 마농 짐치도 아이 먹어. 새우리 하민 짐치 혀는 거쭈게.

107047 @ 아까 저 배쭈 짐치영, 늬뻬 짐치영 예 짐치혀는 법 다시 한번만 곱아 줍서?

107047 # 늬뻬도 썰영이네 소금에 버무렷당 확 췌어뵤은에 양님 버무리고 배쭈도 게 착갈랑이네 그 새레 새레 소금 잘 들어가게시리 혀영이네 놉뵤당 죽은 거 닙으민 코콜이 췌영이네 또 양님 다, 마농 뻬정 놓고 양님 다 놉사헿 거 아니라게이. 이제 마농 뻬저놓고 고치가루 놓고 또 췌ㄹ루영 줍 서췌 췌강도 뻬아 놓곡 췌행이네 양념을 헿 장태허민 이제 이파리 곱으멍 영영 블랑.

107047 @ 건 이제사 혀는 식이여. 나 우리 이제 짐치혀는 식? 옛날도 췌헿연?

107047 # 연날도 그래서.

107047 @ 응.

107047 # 연날도 우영 밧뵤 갈쭈. 그렇게 헿어.

젓갈

107048 @ 젓갈은 무신 젓갈 무신 젓갈 헿낫수과?

107048 # 도야지 췌기

107048 @ 그런 젓갈 말고 자라젓 이런 거.

107048 # 자리젓, 뻬젓

107048 @ 또 무신 것 이서낫수과?

107048 # 그거뿐.

107049 @ 그거뿐? 보통 자리젓, 멜젓? 자리젓은 어떻게근에 먹어?

107049 # 자리젓은 자리 사당이네 소금에 간 맞게 시리 버무령 딱허게 돌 찢러 돌 지들령 놔두민 자리 익으민 자리 앗아내영 늙은 어른들 먹지 못허민 그 자리 돔 베 낱 막 못양 양념 버무령 농곡이 또 경안헌 사름은 자리채 고치ㄴ루, 꿩ㄴ루에 버무령 놓민 자리 들령 보삭보삭 씹으멍 먹고.

107049 @ 자리젓 허젠허민 자리 얼마나 소금 얼마나 놓니까?

107049 # 자리 흥 말이문 소금 그자 양재기로 자리 흥 말문 흥나 놔 살거라.

107049 @ 양재기로 흥나?

107049 # 싱거우민 고통 안돼곡이. 짜민 또 맛엇곡, 간 맞게시리 영보멍 장 담는 것도이 메주 슢양.

107049 @ 그건 흥끔 잇당. 젓갈부터, 자리젓 해난 거부터예.

107049 # 자리젓 짐작허영 버무려 보민 어느 정도 되는 거 흥쫄 알아져. 흥끔 영혜영은에 버무려지민 어느 정도는 돼카. 자리젓도 짜민 맛 없어. 흥끔 싱거와사 고르초롱헌 냄살 나멍 맛은 기똥차게 좋아.

107049 @ 멧 월 달에 허는 거과?

107049 # 허이튼 유월달덜 자리덜 상은에 젓 담는 거주.

107049 @ 메칠이나 이시민 먹어져?

107049 # 익어야 허주기.

107049 @ 얼마나 시민 익어?

107049 # 얼마사 익을디 놔뒀당은에 딱허게 자리젓 담양이네 이젠 그디 프리 아이 텅기는 풀이 이서서, 연날에. 프리 못 텅기는 풀.

107049 @ 풀?

107049 @ 응, 막 사름 이런 디 훑어부는 풀 비엇당이네 자리젓 담은 망대기에 영허레 위 바위 더경 돌 딱 지들왕 놔두민 프리가 그디 텅기질 아니혀.

107049 @ 무신, 이름은 몰라? 풀 이름?

107049 # 그 무신 풀인디. 그뎌 알아전게 놔덜 자리 담으민 그거 혜여당 허렌 굴아져전게. 가시 돋은 풀이라. 이 대에 가시 돋은 풀인디 이젠 몰라. 그런 거 하도 제초제 혜불고 해난 그런 풀도 저런디 안 나.

107050 @ 멜젓은?

107050 # 멜젓도.

107050 @ 언제 멧 월쫂에?

107050 # 멜젓도 봄이 허여.

107050 # 멜젓은 봄이.

107050 # 여름에도 허곡. 멜 나올 때 마다 혜여.

107050 @ 아, 멜 나올 때마다.

107050 # 여름에 보민 유월들에 연날에 날뵈, 멜 들주게. 멜 들민.
107050 @ 날뵈는 무신거?
107050 # 일과리.
107050 @ 아, 일과리.
107050 @ 그디 날뵈, 소금 졸레기 소금 졸레기 허는디. 그디 멜판 보리 이젠 멜판 보리가 없어. 멜판 보리가 막 마당에 놀아뎡겨이.
107050 @ 멜판 보리가 뭐?
107050 # 밥주리.
107050 @ 밥주리?
107050 # 응, 빨강헌 밥주리.
107050 @ 예.
107050 # 그것이 막 이젠 그런 것도 없어. 수정 엇이 막 놀아뎡겨가민 일 허레강은에 사름덜이 아이구 오늘는 멜이 땀직허다, 멜이 하영 나왔직허다 허멍 넨랑 새백이 멜 사래 가사켄 허여이. 섹유통 정 날뵈가, 날뵈 강이네 섹유통에 저사 조름에 그 바당물 흘치치 안행 허주게. 갱 사당은에 췌 담는디 멜켓 맛 좋아. 그걸로 짐치도 허곡 멜켓으로 이젠 다허영 푸는 따문 사당허주이.
107050 @ 건 소금 얼마나 놓읍니까? 자리젓보다 하영 낵?
107050 # 자리젓보다 하영 안 낵. 하영 안 낵. 꿩기가 족은 거난이 징어리 멜은 흐끔 하영 놓고, 꿩멜은 무신거 헤씩허게 낵.
107050 @ 꿩멜하고 무슨 멜? 징어리멜?
107050 # 징어리멜은 훤은 거.
107050 @ 아.
107050 # 소금 헛당 귀도 먹곡 막 멜 이만씩 헌 것도 이서, 징어리멜.
107050 @ 징어리멜.
107050 # 이젠 그런 거 잘 엇어. 못 봐.
107050 @ 헛당 반찬도 허곡예 짐치헛 때도 놓곡예.
107050 # 국 끌령도 먹고
107050 @ 국도 끌령 먹어, 젓으로 멜켓으로? 어떻행 끌령 먹어?
107050 # 멜켓 국물 낵은에게 낵물 낵 끌리젠 허민 맛 좋아. 자리젓도 국 끌리고
107050 @ 자리젓도 국 끌령 먹고?
107050 # 게, 자리젓도 저 자리 서너게 걸영이네 더운 물로 영영헤 가멍 젓어가멍 가시영 삭아지게 허영. 자리젓국도 맛 좋아. 연날에 경헛 살아시네.
107050 @ 웬장 안놓고?
107050 # 장, 안 낵 그것이 소금에 절여지난.
107050 @ 그게 장이난 그걸로 국 끌령 먹고.
107050 # 응, 멜켓도 낵 국 끌령 먹고 이젠 주로 짐치에만 사용허주.
107050 @ 계난예 이젠 짐치에만 허지만 멜켓이나 자리젓으로 국 끌령 먹고예.

107050 # 응, 자리것도 국 끌리젠 허민 자리 멧 개 거려당은에 꿩는 물에 낵이네 영영 헤가민 가시영 그 슬이영 허민 그자 쪼록쪼록 쫄라 낵 가신 던져볼민 자리국. 맞아서.

107050 @ 거기 무신거 낵?

107050 # 메역을 놓나, 누물을 놓나 헤여. 쟁행 먹어.

107051 @ 혹시 아가미젓. 이런 것도 헤놔수과? 아가미젓.

107051 # 아가미젓은 우리 이 촌에는 아니허고 저 시에, 시에서 바당에 텡기는 사름덜이. 우리 시고모가 녀뻬네가 바당에서 시에 서민이 아가미젓을이 코 들은 망대기 이만은 큰 걸로 하나 헤영은에 덕수 시꺼와. 우리 시고모네가. 시꺼 오민 아가미젓을 얼마나 맛 좋으카부덴.

107051 @ 아, 맛좋아?

107051 # 막 맛 좋아. 돛베에 낵이네 큰 꿩기 문 이 귀생이 ㄴ튼 거, 대가리 ㄴ튼 거 문딱 낵이네 젓 헤영 담양 오민 그 시고모 담양오민 스뭇 그거 빌어당 먹지 못행 광낭은에.

107051 @ 코 들은 망대긴 어떤 거?

107051 # 큰 망대기 코 들은 거.

107051 @ 옆에 영 들르는 거 이신 거?

107051 # 육지 망대기.

107051 @ 육지 망대기? 제주도 건 아니고?

107051 # 게게. 제주돈 코 들은 망대기 안헤여. 육지서 허영 그런 거 허영 오민 스뭇. 우리 시고모 오민 벨 거만은 알양 저꺃디 사름덜 헛 보시썻 주곡. 스뭇 그거 먹어나민 스뭇 입이 축축 다시명 지네, 우리 시어명 ㄴ라 이모 그거 헛쫄 더 도렌 행 빌어당 드려 먹고 헛 것이 경.

107052 @ 갱이젓?

107052 # 갱이젓도 허여. 갱이젓도 갱이 잡으민 그냥 온 채 젓 아니허는 거라. 갱이 탁탁 두드렁 배야지영 까쫄 경허영이네 소금허영, 갱이젓. 육지서 우리 메뉴리 성이 우리 자꾸 마농 보내난이 갱이젓 이런 거 행 보넛더라.

107052 @ 제주돈 그런 큰 갱이 엿수게?

107052 # 이만한 상자로 오난 이건 무시건고 이. 거 무신 박스에이.

107052 @ 응, 아이스박스

107052 # 응, 이거 무신거 스뭇 배달 오란에 ‘이거 뭐시파’허난 ‘몰라요’ 허명이 쥘된 간 딸덜 ㄴ라 오렌 헛 족은년신디 진화허난 받지 안허연 셋딸신디 허난 ‘야 이만저만 헛에 니네 아주망 성이 노렌 행 큰큰헛 상자에 열안 깡보난이 거평 닳은 갱이젓이여’ 허명, 이만헛 거이.

107052 @ 거평은 무신거?

107052 # 거평이엔 헛거 잇나게. 그런거 몰라도. 그 바당에 가문 거평 닳은 것에 도.

107052 @ 전북 말고?

107052 # 전북 종류라도 틀린 거. 그런거 영현 거 이서. 동글락행 영현 거. 경허 옛젠 허영 ‘아시ㄴ라 오랜 헐 거 아니꽈?’, ‘전화해도 아니 받암져’ 보난 성제가 와 선계 ‘아이구 이거 얼마나 맛좋은 거짱.’ 어머니 이거 생전에 먹어 보젠 해도 못 먹 음니덴. ‘아이고 얼마나 고마운 어른들이짱.’ 허명.

107052 @ 옛날에 제주도는 쪼그락 한 강이 이서나지 안헐수과? 요만헌 거.

107052 # 이제도 이서.

107052 @ 그걸로 젓허지 아니허여?

107052 # 그런 거 어느제랑 잡앙 젓허느니? 그런거 무신거 혼 사발쫂 잡아지민 집이서 오랑이네 물 팔팔 끌린 디 드리청이네 ㄴ루 허경 그 강이 지미엔 허영 그거 버무려근에 익으민 강이도 싯곡 그것도 먹곡행.

107052 @ 무신거 강이 지미? 지미가 뭐?

107052 # 그거 일름이 잊어불엇어. 강이 뒷이엔 허영. 쯤쨌헌 강이 이만쨌헌 거 잡아당 경행 먹어났어. 경허난 난 하나도 먹어보도 아니허고 우리 딸네 그자 갈라 단 먹어.

107052 @ 아니, 빼에 좋네 허명은에, 강이것갈.

107052 # 응, 강이 하영 잡아지민 뺏아근에 죽 썰 먹곡 허민 좋넨 헤. 경해도 경 하영 잡아지나, 이젠 못 잡나. 아무나 강 잡도 못허고 난 바당에 가민 재수 종앙 물 꾸럭도 서너 개씩 잡아지고.

107054 @ 출레는 무신거꽈?

107054 # 출랭이가 뭐시라?

107054 @ 출레, 출레

107054 # 출레이엔 헌건이 무조건 아무 반찬이나 짠 거이니까 출레.

107054 @ 아, 짠거니까 출레.

107054 # 응, 출레에 밥 먹으라 경.

107054 @ 출레에 밥 먹으라. 자리젓이나 멜젓 닭은 거?

107054 # 응, 경해도 그런 것에 먹으렌 허민.

장아찌와 회

107055 @ 마농지 말고 또 지 닭가 먹는 거 뭐 이수꽈?

107055 # 마농지베끼 더 이서?

107055 @ 유쨌?

107055 # 유쨌지.

107055 @ 양에?

107055 # 양에끈지.

107055 @ 그런 거 또 뭐 이서?

107055 # 거베끼 엇어. 유쨌도 하영 갈민 툫아당이네 소금에 버무렁. 유쨌도 밧

되덜 어정강 먹나만은 이젠 나 유도 아니 갈곡.

107056 @ 마농지 만드는 법?

107056 # 마농지. 마농지 철에 마농지 헐 때 난리가 나주. 사름덜 마농지 담젠 마농 사당이네 이파린 이파리로 떼뵤 대 썰영 소금에 버무령이 소금에 버무렷당 간 맛게 헛당 코콜이 씻어뵤이네 따시 어느 정도 먹어 뵤은에 툃아 먹어뵤 싱겨우민 흐끔 소금 뵤 놔두민 그것이 마농지 뵤더라.

107056 @ 아, 간장에 안하고?

107056 # 간장에 아니혀. 소금에 버물영

107056 @ 아, 소금에 버물영.

107056 # 간장엔 급허게 즉시 이젠 먹젠 허민 간장에 동가. 소금에 버물영 놔두민 마농지 뵤어.

107056 @ 그 마농대로 허는 거지예? 대신이 마농대로.

107056 # 응, 마농뵤대.

107055 @ 마농대로 예? 마농지 허는 거예? 근데 그 밑에 잇는 대신이 마농으로 도 마농지 허지 안헛니까, 무사?

107056 # 그것도 허곡. 대신 거 다 꺼끄명 풀주게. 요만씩 메영이. 풀민 그걸로도 지 답주게. 것도 썰영이네 소금 버무령 놔두민 좋아.

107056 @ 아, 소금에 버무령 놔두민.

107056 # 응.

107056 @ 소금은 어만이씩 놔야 뵤어?

107056 # 버무려 보민 어느 정도 알아지주게. 많이 놓지 아니허영이. 경허민 이 육지 우리 사돈집이 전인 우리도 마농 싱그난 우영에 마농 싱그민 마농뵤 굽으로 그창 츠근츠근헤영 무경 상자로 헤영은에 사돈네 사돈네가 뵤 시성제 아덜 헤영 다섯개나 육지 살암주게. 경허난 그레 우리 메누리ㄹ라 헤여근에 언니네 집이 보내렌 허민 그디 셋언니네가 큰 바당물츠룩 집안네 퀘기헤영 키우고 삼층에서 사스미 헤영 풀곡 막 허는 사름이여게.

응

퀘기 어딜로 강 시경오랑 어드레 시꺼가라 헤영 셋성네가 그 바당긔되 크게 집 짓 영 삼층엔 사스미 헤영 푹는디고 계난 그집이로만 주로 보내라게. 셋성이 집이 드 난 그걸 받넌. 지네 오라방네도 다 직장이선 아주망네도 가불고 주로 큰 성네 두가 신 바당에서만 살고 바당에서 들도 뵤곡 보름도 뵤곡 헛 살곡 허난 셋성네 집이만 경 보내난 셋성네가 강이 보넛어라. 이만헌 상자에. 아이고.

107056 @ 할머니 안 먹어도 매 헤에 마농지 허주예?

107056 # 게, 매헤 헤여.

107056 @ 반찬이난예?

107056 # 매헤 헤영이네 아이덜 으져 가주게.

107056 @ 더 옛날에는?

107056 # 연말엔 집에서 일꾼도 먹고.

107056 @ 일꾼들 먹젠 허민예.

107056 # 나만 안 먹주, 다 먹어.

107057 @ ㄹ. 자리ㄹ, 방어ㄹ, 이런 것들 먹어 낫수과?

107057 # 방어ㄹ 아니허고 비계ㄹ.

107057 @ 아, 비계ㄹ 행 먹어 낫수과? 옛날에.

107057 # 연말에 세계 사름덜이 바당에 덩기난 조팍 허민 불리젠. 우리 집이 들이 30필 시민, 보리 허게 ㄹ민이 보리덜 비영덜 보리 드러 허젠 ㄹ 때에 맥에 정오랑. 세계 하르방이. 저 으져오민 ‘아이고 ㄹ시광?’ 허민 ‘아이구 시원히 ㄹ 먹읍센’ 헤영 비계 으져오민 그디서 가족 다 베경 오민이. 콩다리 이렇게 무경 저런 도르 걸어.

107057 @ 어디 걸어?

107057 # 이거 영허젠 허민 도르. 도르엔 ㄹ다.

107057 @ 도르?

107057 # 응, 그레 영 못 박앙 걸민 먹지 기리우민 그거 칼로 강 흐쉴 그창이네 ㄹ 헤영 먹곡 허민이 우리 집이 보리가 서너 늘씩 늘영 허민 맥타기 사름덜 보리 조는 사름은 그 클 심젠 가와 벳겨가네 ㄹ 베껴가네 헤도이 우리집인 보리헤당 탁 늘엇다 허민 그 맥타기 보리 ㄹ리는 사름덜 즈원 헤영 와. 게민 그 사름덜 오민 아적이 나룩죽, 나룩죽 썩은에 말채 썩이네 보리 때리레 맥타기 사름덜 으라이 와. 기계 보는 사름이영, 맥는 사름이영 으라이 오민 나룩죽 썩은에.

107057 @ 나룩죽은 곤죽?

107057 # 곤죽. 나룩으로 곤죽 썩이네 사발 이만이헌 걸로 다 거렁이네 식어. 옷 가족 이디 식영이네 아이구 죽 ㄹ 식엄시메 먹으렌 허민 그 사름덜 먹영 또 낫인 그 비계 허영 ㄹ헤영 이만이헌 다라로이 ㄹ 허민 이 사름덜 어덜 읍데강이.

107057 @ ㄹ. 어떻행? 그냥 ㄹ기만 먹는 거?

107057 # 이디. ㄹ기에 ㄹ딱 하근 양님이영 다 썰어 낱게.

107057 @ 하간 갖은 양념 낱.

107057 # 그 웨도 썰어 놓곡이 웨도 막 썰영, 채소로 썰어 놓고 ㄹ도 썰어 놓고 마늘이영 ㄹ이영 다 낱이네 빠져도 놓고 게민 이만한 다라로 허민 그 장남덜 두 사발씩 먹어. 경허난 우린 보리 헤여와도 클 심으켄도 안허고 언제 ㄹ려 도렌도 아니형. 우리 보리늘 눈 거 닳으믄 클 임제가 언제 홀트쿠겐 허영.

107057 @ 하하하.

107057 # 클 두 개 낱 홀트주게. 하나만도 아니형. 장남덜 빌영, 클 두 개 헤영 재우는 사름도 ㄹ나고 홀트는 사름도 ㄹ나고 이거 지치는 사름도 ㄹ나고 허명 막 헤놓으민 스믈 고고리가 이만 허민 즈원행 우리집엔 오더라게.

107058 @ 거 말고는 또 반찬은 무신 반찬 행 먹어 낫수과 옛날에?

107058 # 그거베핀, 무슨 자리 반찬이 촌에선 주로이. 자리젓 못헌 사름도 한한

허여. 자리젓 못헤영 빌어당도 먹고.

107058 @ 응, 주로 반찬이 자리젓이영?

107058 # 응 자리젓, 멜젓은 그거 목적, 밀반찬으로 다헤여. 게민 우린 자리젓은 헤여도 멜반찬, 멜젓은 아니 헝은에 시에서 알개미젓, 그 고모가 허영 오랑.

107058 @ 응.

장 담그기

107059 @ 웬장은 언제 답습니까?

107059 # 웬장은 이제 가을에 솥앗당 가을에 메주 솥양 메주 솥양 티왕. 잘 므리왕. 잘 물리왕 코콜이 씻영 낫당 선들 그믐날 이디론 선들 그믐날 허젠 허민 미룻 이제 장 담는 통개.

107059 @ 응.

107059 # 통개, 이제 장 담양이네 큰 통개 장담양이네 존 그릇에 장물도 거리고 존 그릇에 그 웬장도 거리민 그 큰 통개 씻영 놔둘 거 아니라. 씻영 놔두민 장 담젠 이젠 허젠 허민 그 검질로 그 황 안을 불 살좌은에 기시려.

107059 @ 아.

107059 # 기시령이네 그 소독허는 거주게. 기시령은에 이젠 식으민 코콜이 씻영 어평 낫당 소금을 허주게. 소금을 허젠 허민 다른 그릇에 소금을 막 글멍 계란 티와.

107059 @ 아.

107059 # 계란 하나 티우민 계란이 저 노린 돈 구리전 돈 요마니 튼 거만 허게 독새기 동글동글허게 트민 간 맞아. 그것이 간 맞으민 선들 그믐날은 메주 미룻 씻어. 코콜이 솔로 다끄멍 씻영 물리왓당 선들 그믐달에 세백일 허나, 선들 그믐날 헤지건 들이치나 허영 헤 뜨기 전이 강 메주 드리청도 장 등그주게. 경헤영 장황 안에도 계란 하나 툅 등강 놔두민 돛수가 어느 정도 뻗구나 허민 간 맞앙. 그렇게 맛 좋아.

107059 @ 소금은 열만이 놔?

107059 # 그디서 장 흔 말이민 얼마 뉘는 거. 소금을 곁아보민 알아져. 경허난 요디 미자성이 ‘삼춘 장 담양줍서. 장 담양 줍서’ 허곤데 간 므 통개 불 기시리고 메주 흔 말 솥양이네 선들 그믐날 강 등갓주게. 그디 드리청. 소금물 곁아 낫다근에 드리청. ‘벧 나긴 메날 널곡, 두께 열곡, 비만 오라가민 더끄라이’허난 ‘알아수다’허연. 이제 뜨시 봄 나민 그거 거리사 할 거라이. 선들 그믐날 봄 나민. 거리젠 거리레 가난 장 맛 좋아라. 장물 줍아보난 맛 좋난 장물 팽이 질러주고 개미장은 우선 급허게 먹으렌 헤연이.

107059 @ 개미장이 뭐?

107059 # 웬장.

107059 @ 아 웬자이 개미장

107059 # 웬장은 임시 먹으렐 흐쓸 쥐두고 집에서 딱시 콩 흐 사발 삶아. 삶아지민 딱딱 빠져. 그 딱시 콩 삶아난 물이영 으저간에 웬장. 임시 먹을 건 걸려두고 그 웬장 쨍 놔당이네 이 장 다 먹어지건 여름 나건 먹으렐 허난. 아이구 그 동네 사름 날 봐지난 장 맛 좋게 담앗젠 허멍 저 할망 맛 좋게 담으난 우리 빌어단 자리훤도 행 먹엇고렐 허멍.

107059 @ 웬장을 거리민 메주를 거리민 또 다른데 통개에다 또 놔?

107059 # 그건 통개에 다 장물이영 다른 것에영 그 담아난 통개레 놓지게. 웬장.

107059 @ 장물은?

107059 # 장물은 다른 쨍에 질어.

107059 @ 장물은 먼저 따로 쨍에 질곡 경 그 통에.

107059 # 그 통에 그 말저. 그날 메주 삶은 거 집이서 빼정 가주게, 콩 삶은 거 뺏곡. 콩 삶아난 물이영 바가쓰 으정 간에 ㄴ찌 웬장에 소금 흐쓸 난.

107059 @ 서꺼?

107059 @ 쨍, 쨍네 망대기 딱 담양 놔뒀당은에 그 거린 장 다 먹어지건 먹으렐 허난 그 동네 사름 날 봐지난 장 어떻 경 맛 좋게 담읍디겐 허멍 자리훤 허젠 허난 빌어당 먹노렐 곱아라.

107059 @ 그 나중에, 웬장 헐 때 콩 삶은 건 얼만이 놓은 거파?

107059 # 하엿튼, 콩 하영 삶으민 하영 삶지만은 콩 흐말쭙 장 담은 메주 담은 건 무시거 양재기로 흐쓸 하영 삶앙이네 ㄴ작이 삶앙 물이 헤영 놔 삶앙이네 그거 빠져사 뺏앙이네 웬장. 장물 거려두고 웬장 임시 먹을 것도 뚱겨 두고 그것에 쨍 놔두민 익영 경 맛 좋아.

107059 @ 그디 뭐 놓고 허는 건 엇수과?

107059 # 놓는 거 엇어.

107059 @ 아무것도 안 놔도 웨어. 막 자랑헤여, 그 사름. 나 봐지민, 아이구 저 할망 장 담은 거 잘도 맛 좋아.

107061 @ 고추장도 험니까?

107061 # 고치장도 경 허주게.

107061 @ 고치장은 어떻 허는 거파?

107061 # 요새 고치장 신식으로 다 담은 모양이라라.

107061 @ 이젠 다 사당 먹주만은 옛날은 고치장도 담양 먹어 낫수과?

107061 # 담양 먹엇지게.

107061 @ 건 어떻허는 거파?

107061 # 고치장도 그 저 웬장 담은 것에 ㄴ치 서꺼.

107061 @ 어떻?

107061 # 웬장, 콩 복삭허게 코콜이 뺏앙이네 이 고치ㄴ루 서경이네 간 맞게 쨍이네 놔두민 썩어.

107061 @ 메주 헤 난 거?

107061 # 응. 메주, 메주 그 장 담은 거.
107061 @ 장 담은 거, 웬장 메주 해난 그 웬장에다가.
107061 # 메주채 드리치주게. 드리청 익으면 그 웬장. 개미장 건정이네 고치ㄴ루영 ㄴ치 쩡이네 ㄴ 맞게 행 놔두민 고치장이 돼더라게.
107061 @ 아, 웬장이영 서경 허는 거구나예? 고추장은 예?
107061 # 응, 서경도 허고 고치장만도 허는 사름도 이서. 고치장만 현 건 등겹지 아니혀.
107062 @ 메주는 어떻게근에 만드는 거마씨?
107062 # 메주는 콩 삶지게
107062 @ 가을 들영 콩 나민 콩 삶아?
107062 # 콩 삶양이네 무슨 것에 낱 막 뺏주게.
107062 @ 무신거예? 도고리에?
107062 # 게. 도고리에 놔낱 막 뺏으면 영 췌영 놔두주게. 췌영 메주 멘들주게. 메주 멘들양이네.
107062 @ 어디 걸어 놔뒀?
107062 # 응, 이제 다마네기 망사덜 잇잖아.
107062 @ 옛날에, 그거 옛일 때?
107062 # 그거 옛은 때 짹. 짹. 영 삼밭이로 낱 이레 툽 낱. 하나 낱이네 그거 멘드 거 하나 낱 그레 동그락허게 허영 이 새에 낱 메주 두 덩어리 낱 툽 졸라매영 돌아 뺏주게. 돌아매영 티와. 그 메주가 썩어야 썩어근에 장담젠 허민 그거 ㄴ령은 에 썩영 ㄴ령이네.
107062 @ 아, 다시 곰팡이 닳은 거 슌 건 다 시청은에, 다 시청은에 다시 또 ㄴ령?
107062 # 응, 썩영이네 ㄴ림도 허곡 막 ㄴ리주게, 썩젠허민 바싹 ㄴ령이네 코콜 이 썩영 그 물기 ㄴ이 또 ㄴ려야 허주게. ㄴ령 통개레 들이청 소금은 들이청이네 소금을 들이치민이 계란을 하나 툽 들이쳐보민이 계란이 동만현 동글동글 트민 간 맞아. 하나 죽으나. 죽은것도 계란 들이청 터보민 간 맞곡.
107062 @ 그 메주, 어디 찰리에 담양은에 막 ㄴ량은에 험게 만든?
107062 # 찰리에 담양도 허곡 그냥 도고리에서 마개로 ㄴ양도 멘들곡. 경헌다게.
107063 @ 혹시 장 담글 때 웬장험 때 이런 거 허민 안웬다 허는 거 이수과? 뭐 허민 안웬다. 장 담을 때 뭐 앓아 멩기민 안웬다 이런 거.
107063 # 그런 말은 없고.
107063 @ 장은 어떤 날 담아야 웬다. 담 날? 이런 날 ㄴ어?
107063 # 응, 그 그냥 존 날 ㄴ이네 담야. 토께 날 ㄴ튼디. 그자
107063 @ 토께 날 ㄴ튼 날?
107063 # 그냥. 모날 ㄴ튼날 드리치는디 이 췌날에 드리치민 ㄴ치름. 장이 ㄴ치름 웬덴 헤어.

107063 @ 쉼날은 허문 안돼는 거?

107063 # 경헌텐. 경허민 영행 선들 그믐날은 날도 이이보곡, 음력으로 선들 그믐날.

107063 @ 예.

107063 # 소금물 미룻 허영 소금물 곶앙. 이젠 계란 툼와 보민 동글동글 우이터. 튼냥 내불엇당 이제 선들 그믐날은 메주가 장 담는 통개레 비왕이네 딱시 그계란도 그리 드리청 놔두민 제대로 경 췌는 거.

떡류

107064 @ 떡은 무신 떡, 무신 떡 이수과?

107064 # 떡은 무신 떡. 침떡은 빗떡이고

107064 @ 침떡도 잇고.

107064 # 새미도 새민 줍고.

107064 @ 또.

107064 #중게.

107064 @ 중게도 잇고.

107064 # 중게는 영 소랑헌 떡. 압게는 넓은 떡. 솔벤은 딱시 반돌. 딱시 동그락헌 떡은 전벤.

107064 @ 절벤.

107064 # 응, 절벤

107064 @ 침떡, 새미, 중게, 압게.

107064 # 솔벤, 절벤, 침떡. 빗떡.

107064 @ 침떡은 빗떡. 절벤, 송펜?

107065 # 송펜은 딱시 그냥 안에 쉬 담는 거 송펜.

107065 @ 쉬 담는 건 송펜.

107065 @ 차례대로예 먼저 침떡은 어떻 행 치는 거파?

107065 # 침떡은 이제 강 ㄱ레 곶아당.

107065 @ 무신 ㄱ레? 쌀?

107065 # 기계에 곶아당.

107065 @ 쌀로 헤? 조로 헤? 산뒤 쌀로 험니까? 줍쌀로 험니까?

107065 # 줍쌀로, 곤쌀로도 허는 거.

107065 @ 옛날에 헤난 건?

107065 # 연날에 줍쌀 물 컷당 기계에 강 곶아당.

107065 @ 기계 엇일 때?

107065 # 기계 엇은 때 아니. 기계에 엇인 때 엇엇어.

107065 @ ㄱ레에 곶앙 안헤?

107065 # 아니, ㄱ레에 곶앙은 아니혀고. 줍쌀은 연날엔 저 줍쌀 물 컷당 방에에

서 몰ㄹ레서 빠지멍 체로 쳐. 체로 청이네 떡헐 때. 체로 청이네 침떡 시리에 놓고
곤솔도 방에. 연자방에에서 곶앙이네 딱시 시리에.

107065 @ 시리에 치젠 허민 시리에 달달달 털어져 불지 안해? 막아야 돼지 안허
여? 시리 고양이.

107065 # 고양이, 시리고양은.

107065 @ 뭘로 막아?

107065 # 요즘 험벽으로 깎는다 그뎨 방풍이엔 현 거 서, 방풍잎. 방풍잎이나 반
칫잎도 싹고. 반칫잎 커다란 현 거 이만은 현 거, 반칫잎. 연날에덜 헤당이네 거 치
정 시리 곶망 막아. 시리 곶망 낱이네 그레 흔 죽 허젠 허민 영 돼로 곶영 영 낱이
네 골로로 낱 그레 딱시 쉬 서경 또 ㄹ루 낱 허멍.

107065 @ 무신 쉬 놓니까?

107065 # 풋썰 허나 녹두썰 허나 허영 또 허곡 또 허곡 허영 시리 이빠이 허민
들러당이네 치는 거주게.

107065 @ 다 쳐지민 이제?

107065 # 다 쳐지민 들러당이네 이젠 이거 꽤우민 그레 팍 옆영 오꼴 들렁은에
식으민 비는 거주. 비어가민 쉬 눈 챙기 챙기마다 조근조근 아사져.

107065 @ 침떡은 어떻헐 때 행 먹는 거 마씨?

107065 # 침떡은 소, 대상 헐 때 허는 거주. 아무때나 침떡 허는 거 아니여게.

107065 @ 소,대상 헐 때만.

107065 # 응, 연날엔 소,대상 허젠 허민이 좁솔 흔 섬씩 곶앙. 얼마나 흐루 종일
그 시리로 큰 말치 시리로 들러당 비우곡. 아이구 그거 아무나 말치 시리 들러지카
부덴. 들러당 비우민.

107065 @ 두 말치? 시 말치?

107065 # 말치 시리로.

107065 @ 한 말 헤지는 거? 한 번 허민?

107065 # 흔 말치 더 드는 거주게. 게 말치 시리 이만이 큰 거. 큰 말치 앓정 허
는 거. 다두테기 허는 건 간단허게 들러지는다 말치 앓지는 건 이만한 것에. 하영
떡허는 집인 좁솔 흔 섬, 열 닷 말씩 떡해나서. 곤솔도 열 말씩 허고.

107066 @ 송편은 어떻행 허는 거 마씨?

107066 # 송편은 이제 ㄹ레 곶아당이네 반죽허주게, 반죽 허영은에 반죽 물 맞게
허영, 이젠 흐끔씩 즈앙이네 이제 동글렉이 멘들앙, 이제 영영 멘들앙, 이레 이제
쉬 답아.

107066 @ 무신 쉬 답아?

107066 # 풋썰 답으나 콩썰 답으나, 경허곡 요즘은 설탕도 낫더라. 이디 헤영 영
영영 멘정은에 송편 영 즈앙이네 잇당 낫당 바대에 낱이네 치는 것ㄹ라 송편.

107066 @ 바대에 낱은에 쳐. 쳐나민?

107066 # 쳐나민 들어당 비왕이네 식영이네 이른다 널주게. 새 허영이 널민 식으

민. 이젠 상헌 건 상헌데로 아이 상헌 건 손에 지름 불르멍 영영혜영 조근 조근.

107066 @ 무신 지름?

107066 # 춤지름게.

107066 @ 응. 송펜은 언제 행 먹는 거?

107066 # 송펜은 이 제스 때에 허는 거주게.

107066 @ 제사때에 허는 거.

107066 # 게. 제스 때에 큰 집이 크게 허는 단이 송펜 아니 허영이네 침떡 허고 절벤, 솔벤 허영이네 허여. 솔벤은이 놀궤루 쨍이네 솔썸 님은 거 요영 혜영 쨍 내 영 이. 떠 내영이네 물에서 강이네 숲으멍 건지고.

107074 @ 본으로 영 터내는 거?

107074 # 응, 본으로 떠내어, 본 서, 솔벤본 이서. 딱 솔잎 님으게 본 딱 떠. 절벤 이엔 헌 건이 또 이제 궤루로 쨍 동글동글 허영 두 개 짝 채와. 두 개 딱 채왕 절벤이엔 헌 건 동글락한 절벤이엔 헌 건 꼭 누드러. 꼭 누들민 절벤. 솔벤 우터레 놓는 거.

107074 @ 솔벤은 반짝짜리? 반달 모양?

107074 # 솔벤은 반달 모양.

107073 @ 절벤은 동글락 헌 거? 두개 영 붙이는 거예?

107073 # 응.

107073 @ 중게. 압게는 어떻 허는 거?

107078 # 중게. 압게는 그걸로이 중겐 영 진 거.

107078 @ 뭘로 허는 거라?

107078 # 곤솔,

107078 @ 곤솔로?

107078 # 모멸솔로도 허고 모멸궤루도 허곡.

107078 @ 곤솔로도 허고?

107078 # 곤솔로도 허곡. 요즘은 모멸 잇이난 곤솔로 주로 허영. 압게는 흐솔 넓은 거. 니귀방장헌 거, 압게.

107078 @ 그건 어떻행 허는 거파?

107078 # 그거 또 압게엔 헌 것도 저 곤솔 궤루로 멘들앙이네 밀영이네 중게 어느 정도 허여지민 우선 압게부터 먼저 허여.

107078 @ 압게부터?

107078 # 니귀방장헌 거부떠 먼저 허당 그 지끄레기로 또 소랑헌 건 중게지게. 중게 멘들아.

107078 @ 이거 언제 행 먹는 거파?

107078 # 어떻 행 먹어. 숲앙이네 시리에서 솔썸 농멍 혼 징 놓고 솔썸 농멍 혼 징 놓고.

107078 @ 시리에 치는 거?

107078 # 시리에 청이네 비왕이네 이젠 다라레 옆으지. 시리채 어평. 그 시리 앓 아동 그레 물 낵 영영 허영 솔썩 건져두고 솔잎떡 영허고 절벤은 그냥 ㄱ루로 익 영. 들레 멘드랑.

107078 @ 중계, 압계?

107078 # 게메. 그걸로 놀떡으로.

107078 @ 지름 블라 것도?

107078 # 놀떡으로 지름. 놀떡으로 멘들앙 딱시 물에 드리청이네 그 솔썩 놓으멍 익이나 허영이네 청. 익은 이상은 식은 이상엔 지름 블라.

107078 @ 아, 중계. 압계는 모멸썰이나 아니면 그냥 썰로?

107078 # 응.

107078 @ 쌀로 해가지고 물에 드리치나 아니면 시리에 치나.

107078 # 압젠. 저 이 절벤은 그냥 ㄱ루로 썩이네 동글레기 멘들앙 절벤은 멘드는 디, 중계, 압계는 ㄱ루로 썩, 압젠 영 사랑헌 거이. 또 중계도 사랑 중겐.

107078 @ 중계가 사랑헌 거. 압젠 네모방장헌 거.

107078 # 압계는 니귀방장 헌 거. 기추룩 허여. 솔벤은 영 딱시 반달 닳은 거.

107078 @ 중계 압계, 솔벤, 절벤은 알겠는데 중계, 압계는 뭐가 그거는 저.

107078 # 모멸썰로 허는 거주.

107078 @ 영 트는 거짜, 아니면 본으로 트는 거짜? 아니면 손으로 영 멘드는 것 짜?

107078 # 손으로, 중계, 압계는 그냥 밀영. 밀영이네 사랑헌 건 중계. 니귀방장은 압계. 칼로 썰어.

107078 @ 칼로 썰어.

107078 # 솔벤은 본으로 뜨고 절벤도 동그락 허영 두 개 부썩이네 절벤 본으로 누들고.

107078 @ 거난. 중계, 압계는 제삿날 쓰는 거 아니면.

107078 # 소장날도 쓰는 거.

107078 @ 이건 소장날 쓰는 거?

107078 # 소장날도 다 그거 치는 거. 큰집이 큰 하르방넨 식계에도 중계, 압계, 절벤, 솔벤 다.

107078 @ 아, 식계에도 허여.

107078 # 절벤, 솔벤 다 허여.

107078 @ 중계, 압계도 허곡.

107075 # 대중손 칩인 다 그거 쳐. 연날에 그 동그락 떡 절벤 우이 옛 즈배기 허 영 똑허게.

107075 @ 그건 무신거짜?

107075 # 동그락 허게시리 요만헌 동그락허게 멘들앙, 옛 멘드는 디 강 툯 좁아 당 그 절벤 동그락 헌 거 절벤 잇저, 그레 툯 하나 놔.

107075 @ 무사 놓는 거?
107075 # 그거 대중손 칩인 허더라.
107075 @ 대중손 칩이?
107075 # 너네 하르방네 집인 그거 허영 헐 철인디 그런 거 아니허더라.
107075 @ 소상 때 허는 게 아니고 식게 때도? 멩질 때도?
107075 # 멩질 때.
107075 @ 아 이건 멩질 때. 무신 떡이엔 곶아?
107075 # 동그락 떡 아니. 지름떡. 지름떡. 요만씩허게 동글동글동글허게 멘들앙
이네 그 옛허영 저 감저허영 딸리민 옛 웨주게. 그것에 즈앙 툃툃 노민 멩질 먹으
레 가민 그 상에도 그거 다 올리는 디 늙은 어른신된 그 떡을 절벤 우이 동그락 떡
위의 하나 놓는디 그냥 하가지 아이덜은 그런거 주도 아니허. 아무나 주도 아니허.
계곡 대중손 칩이 그거 허주 아무 집이나 그것 허도 아니허.
107075 @ 절벤 위의 놓는 쫄끌락헌 거예?
107075 # 옛떡.
107075 @ 옛떡.
107075 # 우리 웨가에 경 웨할르방 집이 가민 그거 그 떡 허민 그 떡만 하나 언
어 먹젠 스뭇 하르방 얼굴러레 훌떡훌떡 뵈려가민 말젠 불렁이네 주곡.
107078 @ 새미떡은 어떤 거짜?
107078 # 새미떡은 딱시 ㄱ루 쟁이네 밀영이네. 이영헌 본이 이서. 본 시민 동그
락허게 뜨주게. 동그락허게 멩. 그거 영 오그리민 새미떡 웨는 거.
107078 @ 아 반달 모양으로. 조개 송펜추룩?
107078 # 응.
107078 @ 속에 쉬는 뭐 놔?
107078 # 푯을 놓나.
107072 @ 은절미는 뭐짜?
107072 # 은절미는 중게. 압게에 들어가는 거. 은절미주게.
107072 @ 중게, 압게추룩 허는 게 은절미. 은절미는 따로 잇는 건 아니고 중게
압게 잇는 거.
107072 # 응.
107067 @ 빙떡?
107067 # 빙떡은 모멸ㄱ루 허영이네 후라이판에 ㄱ루 탁허게 거러냥 웨민 확 걷
어당 탁 놓민 무수 채소 허영이네 풀풀 감으민 빙떡.
107067 @ 무수 채소 헤근에.
107067 # 무수 채소.
107067 @ 무수만 놔? 무수에 무신거 놔?
107067 # 무수에 녹물 채소 썰영이네 데왕이네 그레 마늘도 농곡 꿩도 서끄곡허
영 그거 툃 즈아냥 툃 허게 몰민 빙떡.

107067 @ 어떻게 할 때 먹는 거파? 빙떡은?
107067 # 그 제스 때도 허여.
107067 @ 제스 때도 허여.
107067 # 응. 다른 떡 아니허영 그것 딱 하나 허는 집도 셔.
107067 @ 아.
107067 # 풋도 낱이네 풋 솥앙 풋도 뺏앙이네 그디 놓민.
107067 @ 아, 빙떡 안에 풋도 놓는 디도 이서마씨?
107067 # 풋 놓는 디도 이서. 무수철 엇영이네 허민, 경허민. 무수 논 것이 제일 맛 좋주게. 무수.
107067 @ 무수 놓는 게 맛좋아예? 모멸은 무수허고 맛나봐예?
107067 # 응 모멸은.
107068 @ 상웨떡?
107068 # 상웨떡은 쩡이네 저 무시거 보시로 툽허게 찌민 반들이 뒤주게.
107068 @ 새미떡 말고 상웨떡?
107068 # 상웨, 빵떡?
107068 @ 그건 어떻게 허는 거파?
107068 # 그건 ㄱ루 이제 쩡. ㄱ루 허영이네 순다리 잇잖아. 순다리에 쩡이.
107068 @ ㄱ루는 무신 ㄱ루?
107068 # 게, 곤살 ㄱ루테주게.
107068 @ 상웨떡도, 밀가루로 안허고?
107068 # 게 밀ㄱ를 허나.
107068 @ 빵떡허젠 허민.
107068 # 게 밀ㄱ를 허나. 이제 곤살 ㄱ루를 허나 허영이네 그걸 쩡이네 이제 낫 두민 귀는 거라이. 귀게 뒤민 쩡이네. 새미떡 허젠허민.
107068 @ 새미떡 아니고 빵떡.
107068 # 빵떡은 허젠 허민 손으로 만들어. 그 그치멍, 그치멍 만들앙이네 그 속에 앙꼬 낱이네 영영영혜영 마무리 뒤민 툽허게 놓민 빵떡. 쉬와.
107068 @ 빵떡은 언제 허는 거파?
107068 # 그 아무때라도 제스 때에 간단허게 다른 떡 허지 말앙 그것만 혜영도 먹는 수도 셔.
107070 @ 영장 난 디 부주로 행가는 건 무신 떡?
107070 # 영장칩이 떡 행 가는 거?
107070 @ 응, 빵떡 안 행가?
107070 # 그런 거는 소상날은 빵떡 사가고 따시 영장에 그냥 묻지 아니헌 딴 저 빗떡으로 청강은애.
107070 @ 그건 어떻게 허는 것파? 빗떡은?
107070 # 빗떡은 게 시리에 떡. 시리에 ㄱ레 곶아당이네.

107070 @ 아까 침떡추룩?

107070 # 경행 비어당이네 맥이고.

107070 @ 침떡은 빗떡으로 가정 가는 거? 상웨떡 가정 가는 거 아니고?

107070 # 새미떡 아니?

107070 @ 새미떡 아니고 빵떡?

107070 # 빵떡도 으져 가는 사름 싯곡. 그건 제라한 상제덜이 그런 떡 헤간다게. 우리 셋뜰 큰어멍 죽으난에 너미너미 고마우난 침떡 뒤세 개 행 강 장밧디 문딱 맥엇젠. 그디 뜰도 도로목 살아도 큰뜰도 아니헌디 우리 뜰은 강이네 문 맥엇젠. 시리떡 뒤시리 청 강 스뭇.

107071 @ 그냥 하양한 백설기는?

107071 # 게 그건 흰떡이엔 허여. 백설기는.

107071 @ 그냥 흰떡? 그건 그 위에 쉬 안놓민 그건 어떻허민 곱 갈라?

107071 # 쉬 안나도 다 곱 갈라져.

107071 @ 어떻? 붙어 붙지 안허여?

107071 # 아니 부떠 붙지 안허여. 시리에 낵이네 다 저 그 알룬 밋을.

107071 @ 천 놆? 알룬 형겁을 놆?

107071 # 아, 이젠 떡들 경 복잡허게 아니행 헌다게.

107075 @ 그 떡 위에 제일 위에 놓는 떡은 무신 떡 헵니까? 지름떡 같은 거 올려 놓니까? 아까 옛떡 놓는 건가? 이디선 무신거 올려 놓읍니까?

107075 # 이디서 이제 침떡 위의 중게, 압게엔 헌 거, 모멸떡으로 질게 허곡 넵게 헌 떡 우선 침떡 우이 낵 그 다음은 솔벤 반돌, 반돌 낵. 그 반돌 우인 동그락헌 절벤 놆. 그거 끝.

107075 @ 그 다음 옛떡?

107075 # 옛떡은 옛 조베긴 특별한 집이 허지. 아무나 아니허.

107075 @ 혹시 기름떡? 지름떡은 안헵니까?

107075 # 게메 게 그것이.

107075 @ 옛떡이 지름떡?

107075 # 이제 지름떡 허영이네 저 주는디 어디 이시느니? 그 집인 대중손칩이난에 우리 친정엔 경허난 그딘 다 절벤, 솔벤에 지름 부르멍 멘들아 내논 거고 그건 요만한 떡 허영 그 절벤 우터레 옛 즈양은에 톡허게 놓앙이네 옛즈베기엔 허영.

107075 @ 이제 요새 무사 별모양으로 영영영영 동글랑헌 거 지름떡 행은에 폼니까?

107075 # 요즘 허는 거 나 몰라.

107075 @ 동글락행은에 이디가 영영영 웬 거? 기름에 후라이팬에 지지는 거. 지름떡. 그건 이 동넨 안허여?

107075 # 안헤여.

107075 @ 안헤여예.

107075 # 다 뜰려.

107075 @ 다 뜰려예.

107075 # 그런 건 특히나이 대중손칩이덜 허여.

107069 @ 제사할 때 식게 허젠 허민 무신 떡 무신 떡 험니까?

107069 # 식게 험 때 간단허게시리 저 침떡을 허젠 허민이 떡 가지 으라 깎 헤사 허곡이. 경허난 침떡 허지 아니허영 모멸솔 허영 모멸 빙허영 그자 상에 올리고 간단허게 허영 좋아. 침떡 험 시작허민 중게, 압게 허지, 절벤, 솔벤 허지.

107075 @ 다 해야 돼어?

107075 # 게, 우짚헤야지.

107075 @ 우짚은 무신거?

107075 # 계란으로 요렇게 요렇게 헤영이네 계란으로 흐끔씩 허영 우짚으로 절벤 위의 톱 놓는 거.

107075 @ 그게 우짚. 계란으로 헝 놓는 거.

107075 # 응. 계란으로.

107075 @ 그게 우짚.

107075 # 게 시끄로와. 그런 거 요새 복잡허게 허는 집 어디 시카부덴.

107069 @ 옛날 허듯이 허민?

107069 # 연날 식은 헤여사 그렇게 허는 거지게.

107069 @ 연날 식은 식게 때 다 허는 거?

107069 # 게. 대중손칩인 다 허여.

107070 @ 게민 누게 죽언에 영장난 딘 떡 어떻 어떻허여?

107070 # 영장 난 디도 그 중게, 압게 허영 침떡이영 다 허주만은이 그추룩 오만 가지 귀긋지 아니헝 그자, 묵이나 허곡 그추룩 허영 간단허게 현다게.

107070 @ 아, 식게 험 때 말고 영장 난 집인 다 갖추지 안허고 침떡하고 중게, 압게허고.

107070 # 그런 거 현다게. 솔벤, 절벤 허고 경허영 그자.

107070 @ 다 귀긋치는 건 침떡, 중게, 압게, 침떡, 솔벤, 절벤, 우짚까지. 옛떡은 안허고?

107070 # 응.

107070 @ 옛떡 허민 우짚 안허고 우짚 허민 옛떡 안허는 거파?

107070 # 응, 옛떡은 좀 허는 집 안현다.

107070 @ 거난 옛떡도 허곡 우짚도 허여. 두개 다?

107070 # 아니 안현다.

107070 @ 두 개 다 안허여.

107070 # 응.

107070 @ 보통은 우짚허고 좀 허는 집은 옛떡허고 허는 거구나예?

107070 # 응.

107076 @ 당에 갈 때, 어디 하르방 당이나 할망 당에 갈 때 무신 떡 행 갑니까?

107076 # 간단하게 시리 허영 간다.

107076 @ 무신 거?

107076 # 아무거라도 당에 갈 때 집이서 허기 쉬운 거. 기냥 모멸궤루 시민 빙떡. 빙이리도 부경 어정가고 경 안허민 곤솔 궤루로 다대 멘들앙 동글락 동글락헌떡. 멧 개 멘들앙 가정 간다.

107076 # 다대, 다대가 뭐?

107076 @ 동글락헌 떡 멘들앙 동글동글허게 떡 멘들앙.

107076 @ 청은에?

107076 # 응, 솥앙 건정 경행 그계 메 허곡 당에 가는 건.

107076 @ 당에 갈 때. 곳 혈 땀 무신 떡 허여?

107076 # 곳 혈 때 녀삭헌 떡 허여. 녀삭헌 이만한 너븐 떡 허고 좁은 떡 허영이네 곳혈 땀 널븐 떡. 모멸떡으로 널븐 거 허곡. 흰떡은 딱시 족게 허곡 허영 곳 혈 때 다 올려.

107076 @ 떡 일름은 없고?

107076 # 응.

107076 @ 아까 모멸 넓은 떡. 모멸솔로 헌 넓은 떡허고 솔로 헌 흥끔 족은 떡허고 두 개만 험니까? 침떡 닦은 건 안헤?

107076 # 아니 허여.

107078 @ 사발떡 이런 거 안헤?

107078 # 사발떡도 허는 집인 허곡 사발러레 그냥 앓정 청 그냥 올리는 거. 그런 거 허여도 대정더렌 그런 거 안허여.

107078 @ 대정더렌 안허여. 만뒤떡도 이수과? 만뒤떡.

107078 # 대정더렌이 경 떡 막 으러가지 안허여.

107078 @ 아, 여러 가지 안허여.

107078 # 연날덜 우리 어린 때 보민 스뭇 옛떡이여 뭇시여 허영덜 허여도. 게난 하르방 조꼴디 앓앙 헤뜩헤뜩 하르방 주민 먹젠.

107078 @ 그 떡 말고 혹시 옛날 행 먹어 나신디 이젠 허는 떡 이수과?

107078 # 제스 때나 멩질 때 아니허는 떡 엇어.

107078 @ 옛날에는 행 먹어 나신디 요샌 엇인 거? 옛날에 행 먹어 난 거 엇수과?

107078 # 그냥 제스 때 아니영 그냥 행 먹는 떡?

107078 @ 아무 때나.

107078 # 아무 때나 이 대죽, 드룻밭디 대죽남 신 땀이 그런 걸로 떡 헤영 먹젠 헤영은에 허영 먹어 낫저만은 이거 어느제고. 우리 어린 때 그거 헨 먹어 낫주.

107078 @ 대죽으로 행 어떻게 먹어?

107078 # 옥수수 대죽 고고리 대죽 고고리 으물 쥘힌 거 이서 그거 헤영이네.

107078 @ 쓸 대죽?

107078 # 쓸 대죽. 그거 혜영이네 막 붓앙이네 쓸 멘들앙이 물 컷당 삐정이네 떡을 헤민 그것베피 맛 좋은 거 엇어나서.

107078 @ 그건 어떻 행 떡 헉니까?

107078 # 그거 ㄱ루로게.

107078 @ 떡 청?

107078 # 청도 먹곡 다대 멘들영도 숲앙도 먹고

107078 @ 다대는 동끝랑허게 손으로 멘드는 거?

107078 # 응.

107078 # 아무 것도 안 놓고 그것만?

107078 # 응, 잘도 맛 좋아. 겐디 그 대죽이 어루와, 이젠. 전인 막 그런 대죽 향이네 헤나신디.

107078 @ 그거 말곤 옛날에 먹어 난 떡 이제 안 먹는 건 엇어?

107078 # 엇어.

소와 고물

107079 @ 떡 그 속에 넣는 거나 아니면 침떡 위에 놓는 거?

107079 # 풋이나.

107079 @ 쉬예?

107079 # 응.

107079 @ 쉼 풋이나?

107079 # 녹디나.

107079 @ 녹디나.

107079 @그런 거 엇이민 콩 보깡 꿀앙이네.

107079 @ 콩ㄱ루? 콩ㄱ루나.

107079 # 응 보깡앙이네 ㄱ 거. 그런 것만 놔.

107079 @ 설탕이나예.

107079 # 설탕은

107079 @ 송편은 속이 그런 거 놓는 거라예?

107079 # 응

107079 @ 그건 그민 풋 놓젠 허민 시리떡에 풋 위에 쉬 놓젠 허민 쉬는 어떻게? 숲앙은예?

107079 # 숲앙 ㅼ앙.

107079 @ 아, 숲앙 ㅼ앙.

107080 # 숲앙 ㅼ앙 ㄱ루 논 다음에 손으로 골라 낫 다음에 풋을 이젠 더꺼. 풋을 더꺼 낫 또 그 ㄱ루 낫 혼 직허고 혼 직허고 게민 탁 비우민 썰민 또긋또긋 들르기 좋주게.

107080 @ 계란 떡 베끗디 놓는 것도 쉬. 떡 안에 넣는 것도 쉬예? 송편 같은 안에 넣는 것도 쉬?

107080 # 응, 쉬 풋.

107080 @ 베끗디 블르는 것도 쉬.

107080 # 아니 저 콩 보깡이네 그 두루루허게 곶앙도 그런 것도 흐는 집도 잇더라만은 보통으로 풋 주장.

107080 @ 다시 한번. 침떡추룩 떡 쳐 낭 그 위에 놓는 종류는 풋이나 녹디나 그 다음?

107080 # 거뿐.

107079 @ 거뿐. 그 다음엔 송편 행은에 그 소곱에 넣는 건 무신 거 이수과?

107079 # 녹디나 풋이나.

107079 @ 녹디나 풋이나.

107079 # 콩 보끈 거. 곤 ㄹ루도 놔.

107079 @ 요 안에? 송편 소곱이? 베끗디 부치는게 아니고?

107079 @ 아니.

107079 @ 아 요기 콩도 놓는구나예?

107079 # 콩 ㄹ루에 그냥 심심허게 안허영 설탕 ㄹ루 서경 흐쉴 줍아낭 멘든 디 싯더라. 우린 그런 거 안 해바난.

107079 @ 우린 옛날엔 뭐 엇이민 궤가루에 설탕 냥도 해난 거 님은디.

107079 # 그건 존 거주게.

107079 @ 그것도 송편 소곱에 놔나신디.

107079 # 그런 건 보통으로 그런 거 하영 허여. 콩 ㄹ루 경헌 건 드몰어.

107079 @ 콩 ㄹ루 그런 거 잘 안봐나신디예.

107070 # 응.

107081 @ 떡 무사 떡이랑 관련 뵤어 잇는 속담이나 떡 헐 때 영허민 안뵤다 허는 거 이수과?

107081 # 뭐이엔 곧지 아니헌다게. 속담에 아이고 떡이 영헛저, 정헛저, 설엇저 허명. 시리에 고장이 나. 떡 뭐헛젠 행 이상한 소리허민 떡 청이네 잘 익은 거 님은민 비와도 안 익은 디가 이서. 이상허메.

107081 @ 뵤렌 말 곶으민 안뵤어 떡 칠 때?

107081 # 경허난게 떡치는 디 절로 정지서 큰 시리에 앓정 떡 앓지민 예펜 활딱 들어오도 못허게 해낫어. 정성으로.

107081 @ 정성으로. 떡 칠 땐 화장실도 가민 안뵤어? 오즘 싸레도 가민 안뵤어?

107081 # 아니 그디 죽장 그디 허던 사름 갖다 오는 건 이신 디 새사름 들어오지 못허게 영영 헤여.

107081 @ 오지 못허게 헤여. 떡 헐 땐.

107081 # 응, 고장 잘 나. 경 폐랍게 허는 집인.

107081 @ 시리떡으로 점도 칩니까?

107081 # 시리떡 잘 돼민 좋으는 거고 시리떡이 자꾸 안돼민 흐쓸 그 집이 이 덤 빈덴 허고.

1007081@ 뭐 헨덴?

107081 # 쫓긴덴게

107081 @ 쫓긴덴.

107081 # 아이구 오글 오글 떡 잘도 돼언 좋다 영 허영.

107081 @ 막떡은 아이들 안 먹는 거여 영 허는 말허던데 그건 뭐파?

107081 # 막떡은 그 저 절변, 솔변 해낭 마지막으로 현 건 어린 아이 막 뵈 거난 아니 준 덴 허영 허지만는 요즘 그런 거 시냐?

107081 @ 아니, 옛날 곱아난 말. 마지막에 거는 어린아이 안 주는 거?

107081 # 주도 안허고 그거 마지막 허당 죽은 건 그냥 그 떡 치는 디 청은에 들 러내민 그디 들러내는 사름이나 심부름꾼들 줍양 먹영 어디사 가신 디.

107081 @ 절벤. 딱 붙어 진 거예. 떼영 먹으민 안웬다 헨게 마는?

107081 # 응 떼영 먹으민 안뵈.

107081 @ 무사 안뵈?

107081 # 몰라. 그것이 좋은 상사가 아니주게이.

107081 @ 쟁 이거 붙여진 채로 그냥 먹어야 뵈는 거? ‘떼영 먹지 말라’ 경헨게 마는. 이디서도 쟁 곱아예?

107081 # 응 어린 때. 우리 어린 때 그래

별식

107082 @ 수애?

107082 # 수애? 순대 담는 거?

107082 @ 그건 어떻 허는 거?

107082 # 순대 담는 건 모멸궤루, 모멸궤루에 피 서쟁.

107082 @ 무슨 피?

107082 # 뵈야지 피. 뵈야지 피 해영이네 그레이 쓸밥도 현 거 서끄고 경행이네 모멸궤루에 쓸밥에 서쟁 막 간 맛창 맛 좋게 간 맛창 순대에 질주게. 질영이네 치민 순대도 맛 좋고. 요샌 오죽 순대 새나게덜이.

107082 @ 요새 건 맛 엇어. 당면만 막 낵예. 옛날추룩 찹쌀 순대.

107082 # 아이구 그거 갑이 얼마고.

107082 @ 계난예.

107082 # 밀궤루 해영 버무령.

107082 @ 요샌 밀궤루영 당면 낵예. 맛 엇어. 그민 그 순대 창지는 어디서 낵 허는 거파?

107082 # 어디서 나? 뵈야지 잡으민 배설 아니가게. 배설.

107082 @ 그 속에 꺼 다 시청은에?

107082 # 코콜이 싯영. 코콜이 싯영이네 배설러레 ㄱ루 찢 거 담양 숲양이네 허는 거 아니라. 모멸ㄱ루 ㄱ튼 거 모멸 논쟁이 ㄱ튼 거 순대에 담으민 맛이 더 좋아. 그런 거 엇영 다른 ㄱ루 논 거 쿠살지고 맛이 엇어.

107082 @ 그건 그민 잔치 때나 행 먹는 거구나예?

107082 # 잔치 때도 허곡 딱시 영장 때도 심심허민 그것덜 담아덜 그냥 그 배설 내부느니 숲양덜도 먹고 잔치때 허영 난리가 나.

107082 @ 맛종양?

107082 # 계. 구경꾼덜이영 그거 막 먹젠. 숲양 건져 놓민 막 굽 들르멍 썰멍, 먹으멍 난리가 나주게. 그런 맛으로 허는 거주게.

107082 @ 그냥 아무 때나 행 먹진 못허주예? 수애예?

107082 # 계.

107082 @ 순대렌 험니까? 수애렌 험니까? 옛날에 고티난 말?

107082 # 순대.

107082 @ 옛날도 순대? 수애엔 말은 안 고티난?

107083 @ 두부?

107083 # 두분 딱시 콩 고티양게. 콩 고티양이네 짱. 콩 물르젯당 콩 ㄱ는 물ㄱ레 잇주게. 그것에 이젠 ㄱ루가 이젠 고티양이네 찰리가 이서. 그것에 짱이네 이제 그 물을 솟되서 막 숲아. 숲아가민 드불드불헤여이, 막 건지가. 콩ㄱ루가 덩어리 저. 계란 영 탕이네 숲아가민 드불드불허듯, 드불드불허민 막 트락트락 헤가민 그디 이제 놓는 바닷물 인디 무시거 흐끔 드리쳐. 드리청이네 이제 찰리더레 비왕이네 졸끈 좁아 땡경이네 짹 누들민 두부가 돼어. 맛 좋아.

107083 @ 그냥 두부렌 고티나뉘과? 옛날도? 둬비 안허고?

107083 # 둬비. 둬비.

107083 @ 옛날 말은 둬비? 바닷물 강 질렁 왕 허여?

107083 # 바닷물 아니민 소금물이라도 헤사. 바닷물이 더 잘 웬텐.

107083 @ 바닷물이 잘 웬텐 행 바닷물로 허는 거구나? 그냥 엇이민 소금물로라도 허고?

107083 # 바닷물이 곤 맞추게. 이디 소금물로 허민 짬도 허곡 싱거움도 허곡 허영 잘 안되는 수도 시난에. 큰 케 스뭇 대소상 허젠 허민 그런 거 허젠 허민 잔치라도 소문난 집인 그 물 강 질어당이네 두부허여. ㄱ레로 고티멍 두부덜 허영 허젠 허민.

107083 @ 허젠 허민 잘도 힘들 거라예? 그거예?

107083 # 아이고 찼.

104084 @ 메밀묵 헤난 말 흐끔 고티아줍서?

104084 # 메밀묵?

104084 @ 응 메밀묵, 어떻행 허는 거파?

107084 # 메밀묵 허젠 허민이 메밀묵은 ㄱ루 강, 솟디서. ㄱ루 강이네 들구 짓으 명 불 습지, 불 습양 풀추룩 막 허영 어느 정도 푸글락탁 푸글락탁 모멸ㄱ루 물 잇 이민 푸글락 푸글락 들구 짓으민 그 솟채 들렁 다라레 비와. 다라레 다 비와난 다음에 다라 혼글혼글 골로로 딱 쟈시레 놔두민 언티어 그건 청목이엔 허메. 그건이 묵을 언디민 두부 비듯이 비어. 두부 비듯이 비곡. 또 경 안행이네 간단히허 허젠 허민이 모멸ㄱ루 물에 탕 빙 허듯이 빙 짓듯이 두껍게 후라이판에.

104084 @ 후라이판에?

104084 # 영 낱이네 흐쉴 두둑히허 허영 익어가민 탁 데쌍 익영이네 이젠 딱시 묵 그런 묵 허는 거 잇지. 경행 비영이네 묵 허고 경허여.

107085 @ 청목은 저 메밀쌀로 헤가지고 영영 이경허는 거 아니? 찰리에 낱?

107085 # 찰리에 낱 아니 허여도 모멸ㄱ루로 즙질이 현 건 그걸로도 돼어. 모멸ㄱ루로 현 건 청목인디 좀헌 사름 쑤도 못허곡. 돼도 아니허. 근 맛취사주. 그거이 모멸쫄이 물 우쨌 막 쟈허민 이 막 웬 것 닳아도 스뭇 파글락 파글락 캄직히게 시리 현 후제 솟채 들렁이네 비우민 솟 바위 그릇을 혼글혼글 헤사 골로로 가는 거주게. 경허난 청목이엔 허는 건 막 힘들어. 그냥 ㄱ루묵은 썩이네 돼게 썩지민 보민 푸글락 푸글락 현다게. 푸글락 푸글락 헤가민 비왕이네 비운 그릇 탁탁 헤가민 골로로 싹 돼어. 경행 놔두민 언티민 칼로 그자 확확 비영.

107085 @ ㄱ루묵 허고 청목 중 무신거가 더 트나?

107085 # 청목은 짠 거.

107085 @ 찰리에 낱 짠 거 맞아? 찰리에 낱 짠 거 어떻행 허는 거짜? 다시 곶아 줍서?

107085 # 찰리에 그 ㄱ루 물 우쨌당 막 찰리에서 짜가민 흰물 나와. 주생이 모멸 주생이 나오민 그것이 이젠 근 맞추젠 허민 힘들어. 그것이 이젠 솟디 낱 그 물을 삶아.

107085 @ 그 물만 낱 삶아?

107085 # 그 짠 물 낱 삶으민 이 한들한들헌 게 곱닥허주게.

107085 @ 그게 청목예?

107085 # 그냥 묵은 딱시 드글드글허는 거고.

107085 @ ㄱ루로 강 탕은에 허는 건? 간단히허 허젠 허민 후라이판에 지지는 두껍게 지지는 거고 그것도 메밀묵이지예? 모멸묵예?

107085 # 그냥 묵 허젠 허민 딱시 ㄱ루로 풀 썩 허는 거고 경 아니민 모멸쫄 물 컷당 모멸쫄로 막 쟈, 쟈이네 모멸쫄로 물 컷당 말 밀명 쟈이네 밀경헌 물 허민 한들한들 허든 청목.

107085 @ 모멸묵은 세 종류구나. 청목, ㄱ루 낱 허는 묵, 그 다음에 지지는 묵.

107085 # 게. 청목 아무나 못허메. 익숙은 사름덜 허주.

107085 @ 계속 저어야 돼는 거 아니?

107085 # 게. 계속 져어야 파글락탁 파글락탁 물 잇이민 푸글락이 파글락 파글락

허주. 게민 청묵이엔 현 건이 아랑아랑헌 거 곱닥허여.

107085 @ 청묵이나 메물묵은 언제 행 먹는 거마씨?

107085 # 허이큰. 아무 때라라도 헤어지민 행 먹는 거주게.

107085 @ 식게 때도 허곡?

1070845 # 응, 식게 때도 허곡.

107086 @ 게역은 언제 행 먹는 거?

107086 # 게역은 여름이게.

107086 @ 무신 ㄱ루로?

107086 # 슬오릴 보깡을 허나 벵주 보리로 보깡 허나 기계 강 곶아 게역 간단허여.

107086 @ 그건 언제 먹는 거짜?

107086 # 여름이 시원히 물 탕 먹는 거 아니라게. 게역 먹을 타, 저디 싣저.

107086 @ 아니마씨. 게역 아이들 ㄱ루로도 먹고 물에 탕도 먹고, 밥 대신에도 먹고?

107086 # 연날 어른은 밥에 버무령도 먹고 시원히 게역 혼 적 도라행 물에 탕 시원히 드르쌌도 허고.

107086 @ 간식으로 예? 콩도 낱 헉니까?

107086 # 게역 허는 디?

107086 @ 예.

107086 # 콩 보리 보글 때 ㄱ치 보깡 허민 게역이 더 쿠시릉행 더 맛좋아. 실픈 때 밥 먹기 실픈 때 밥 거렁 낱이네 게역 낱 버무령도 먹으면 좀 먹어지고.

107087 @ 지지미도 행 먹어 낫지예?

107087 # 지지미. 떡 지지는 거ㄱ라 지지미엔 허는 거 아니.

107087 @ 어떤 때 허는 거짜?

107087 # 아무 때라도 심심허민 지지미 지정.

107087 @ 무신 거 낱은에 헤?

107087 # ㄱ루 낱이네 아무거라도 낱 헤영 먹지기로우민 ㄴ물이라도 썰영 낱이네 지정 먹고 경 안허민 말곡 허주.

107087 @ 덴부라추룩.

107086 # 덴부라추룩허나 쉽게 딱시 후라이판 ㄱ득게시리 허영 탁 데쌍이네 익건 썰멍덜토 먹곡.

107087 @ 요즘에 애기 헐 뎨 과전 이렇게 허는 데에 할머니 과도 잘 안 먹는 디 무신거 낱 헤? 새우리도 잘 안 먹고?

107087 # 난 그린 거 아니헌다. 게난 우리 집인 그런 거 허영 나신디 아이 준다. 주젠도 안허고 허도 안허고.

107090 @ 이번엔 슬 멘드는 거? 어떻행 멘드는 거짜? 할머니 누룩도 헤근에 널어 놔선게?

107090 # 누룩 혜영이네 다끄는 술 허젠 허민 이 보리쌀을 물 우짱 낫당 시리에 청.

107090 @ 보리를?

107090 # 보리쌀. 보리쌀을 낫당 시리에 청 시리에 청, 청이네 이제 저 누룩에 버무렁 시리에 청 식으민 누룩에 버무렁 통개에 드리청 나중에 바글바글 킨다. 귀민 연날에 고시리 서, 다끄는 거. 이젠 솟디에 그 술을 걸여 놓고 고시리엔 헌 건 그 이것이 솟이민 이 솟디 술 놓주게. 술 낱 고시리엔 헌 건 따시 이레 낱이네 고시리가 고냥 딸라진 거지, 이레 낱이네 일로 짐, 이 곳덜로 짐 나가지 못허게 술을 낱이네 발황 발황 삶는다. 허민 그 고시리엔 헌 건 그 짐으로 올라강, 짐으로 올라강 고시리 조쟁이로 졸졸졸 누리민 소주가 돼어.

107086 @ 응.

107086 # 소주가 돼곡, 웬술이엔 헌 건이 그냥 이디 청주엔 헌 건이 좁쌀. 좁쌀 강이네 곶아당 다대 멘들앙 솟디서 삶아. 그 떡 저.

107086 # 오메기떡?

107086 # 오메기 떡추룩 멘들앙이네 그냥 오메기떡 솟디 드리청 삶으민 놀어 불곡 데쓰도 못허민이 대쌈, 대쌈 헛당 솟디레 툽 낱. 그 떡을 멘든 건 이제 솟디 낱이네 발랑발랑 삶아 가당 데쓰게 돼민 그 대쌈을 싹허게 들으멍 툽 얹으민 데싸진 거.

107086 @ 하하하

107086 # 이젠 막 삶으민 오메기떡이 동글동글 터. 게민 어느 정도 익은 듯수 알아지주게 혜난 사름은. 알아지민 이젠 건정이네 식영, 삶아난 물도 식영 낫당 누룩 그레 강 문짜 곶아당 저것에 이젠 오메기고 싹고 허민 막 썬. 막 썬이네 통개에 드리청이네 어느 정도 돼겟다 듯수 맞창 모르게 혜도 아니 돼고 질게 혜도 아니돼고 어느 정도 뻗다 허민 이젠 바글바글바글 귀당 킨 흥 넘으민 노랑허게 청 앓아. 그 우이 물만 근근혜어. 그 술이 진짜 술.

107090 @ 그제 청주?

107090 # 청주. 경혜영이네 경헌디 그거 다 거린 다음엔 웬술 먹는 사름은이 저 흰죽 썬, 흰죽 썬이네 그 웬술 배술기로 딱딱 때렁 놔두민 그거 흥쌀 거려다 낱 탕 먹으민 막 좋덴 허는다, 웬술 못 먹는 사름은 애당초 그거 경허민 다음에 알룬 기지에 우의 거 거려볼민 죽 닳은 거 아냐?

예.

알룬 것에 쌍이네 툽 허게 놔두민 청주 물은 다 짜져. 다 짜정이네 건 청주로 고급술.

107090 @ 그 청주는 좁쌀로 행은에 허는 거고? 그 밑에 잇는 건 웬술로 행은에 흰죽 썬은에 그치 서경 먹는다고? 그게 웬술? 흰죽 먹을 때 먹는다고?

107090 # 흰죽 먹을 때에.

107090 @ 웬술 흥 잔?

107090 # 웬술 그 죽 풀풀헌 죽. 그 저 청주 빠분 거. 거러당이네 흰죽에 탕.

107090 @ 흰죽에 탕.

107090 # 탕 먹어. 우리 아버지 젊은 때 밧 갈래 가젠허민 아적이 웬술 그냥 풀 풀헌 웬술 혼 사발 주민 먹영 강 밧 갈양오민 어머니가 또 흰죽 썬. 흰죽 썬민 또 웬술 강이네 사발에 거러당 권허민 당신냥으로 흰죽더래 웬술 탕이네 먹으민 밥도 아이 먹곡. 밧 매날 갈아도 늦 씻으난 양지가 문닥행 지름 낫젠헤. 나 그런거 다 배 완.

107090 @ 감주는 어떻게 하는 거짜?

107090 # 감주는 이제 보리 골 놓지.

107090 @ 골은 어떻게 놓는 거짜?

107090 # 보리 이제 물 우짱 낫당. 물 우짱 낫당 밧이 나. 물 우짱 자꾸 물 쥐가 민 밧 나민, 보리 물에 컷당 건정 밧이 나민 이젠 자꾸 마다리에 놔둬서 물 으져당 축축축축 뿌리민 밧은 먼저 나고 말째 이제 순나는 거 이만씩 뽕뽕뽕 나. 남 시작허민 혼 번에 물리민 맛이 엇이는 디 흐루 물리왕 또 더경 낫당 물리곡 흐루 물 리왔당 더경 낫당 허고 천천히 물리민 그 놈의 골이 맛이 좋아. 경허민 이젠 웬술. 감주헐 때이 그 골을 감주헐 때엔 밥 허영이네 조팝허영 그 감주썰에 밥에 ㄱ루 이제 버무령 놔두민 바글바글 귀민 이 쨍찌랑이네 감주. 딸리민 감주 돼는 거

107090 @ 감주는 보리골에 조팝 행 서경은에.

107090 # 경허난 저디 밥춘이엔 흰 거 혼 삼년이나 골 놔도렌 우리집이 오랑게. 놔줘도 갑도 안 허는거. 혼 번은 보릴 으져온 거 보난 이수쟁 열 개에 질언 오랏어. 그 물쟁에 질어다 놓난 그것이 슬오리민 잘잘 나걸 어디 간 걸보리 꺼레기 부튼 거 그디 담아놓난 그거 파내젠 허난 부애가 어떻게 난디. 경허난 막 툇ㄱ라 골앗주게. 보리도 그냥 마다리에 비왕 문 비왕 오랑 골 내도렌 썬 여남은 것에 나 비우젠 허 난 멧 시간 들고.

107091 @ 엇은 어떻게 만드는 거짜?

107091 # 엇은 그 골에

107091 @ 보릿골에?

107091 # 응. 골행 낫당 조팝허주게. 조팝허민 조팝이 식어. 식게 썬 놔뒷당 이젠 그 조팝에 이젠 골을 버무령 게민 조불조불 물 잇게 버무령 놔두민 두께 더경 놔두 민 귀여. 귀게 돼어. 푸그락 푸그락 귀어 가민 그때 그것이 체 받앙이네 짜.

107091 @ 그게 감주렌 허지 안헐 아까?

107091 # 게 감주게. 짜. 막 쨍이네 딸리민 감주 돼고 너미 딸리민 엇 돼고.

107091 @ 아, 더 오래 딸리민 엇 돼는 거? 감주를?

107091 # 응.

107091 @ 아, 감주영 엇이영 허는 건 툇ㄱ튼 디 오래 딸리민 엇 돼는 거?

107091 # 썬 득 잡앙이네 저 시민 득ㄱ치 엇을 바글바글 이젠 쨍찌랑 귀여가민 그 득을 드리쳐. 득을 드리청이네 문작이 감주에서 익으민 건져내영 썬기 막 치정

이네 그 감주 귀는 드레 낱이네 짱은 좃어두곡 딸리민 득엇 웨어. 빨강헌 게 맛 좋아. 우리 하르방 일 년에 엇 열 번 헛져, 열 번. 득 잡앙 엇허지 웨야지 퀘기 잡앙 엇허지 허멍 진 맥경이네.

107091 @ 도새기 퀘기도 경행 엇 허여?

107091 # 도새기 퀘기도 엇 헤영이네 감주 허영 쨍질지. 쨍지랑이네 보글보글 귀 게 웨가민 도새기 퀘기 그디 줌질이 썰영 드리쳐.

107091 @ 경허민 엇 웨는 거?

107091 # 경허민 막 딸리민 발강허게 엇 웨어.

107091 @ 아까 저 누룩하고 좁쌀은 쨍찌랑은에 건져 불고 국물만 허는 거지예?

107091 # 응.

107091 @ 누룩은 어떻 멘드는 거과?

107091 # 누룩은이 보리ㄹ루 해당 보리 신 사름은 보리 굴앙이네 쨍이네 다대 멘 드는디 다대 멘들랑 티우민 누룩이 웨는 건디. 방에 지는 디 갓단에 저 누룩, 보리 ㄹ루 담아 단 누룩허연에 봄이 나 다음해부난에 저추룩 문 헤싸전. 누룩허영 자꾸 퇴와가민이 따시 다른 검질 낱 썩곡 헐 건디 아판에 드르던정 내부난 저추룩 문 부서지멍 헤도 저거 미깡밭 허는 사름이 미깡 밭 허는 사름 누룩이 하민이 무시거 물통에 저누룩 담곡 검은 설탕 담곡 경허영 그 미깡 파치 던져 부는 거 담곡 허영 낫당 그것이 액비라. 액비 웬 거엔 행 미깡냥에 쥐도 좋고, 다른 농사허는 디 뿌려 도 그렇게 좋아.

107091 @ 비료로?

107091 # 그 물로게, 영양제 물로

107091 @ 거름으로? 누룩은 보리ㄹ루로?

107091 # 보리 ㄹ루 멘들앙게.

107091 @ 떡 멘들아?

107091 # 떡 멘들앙 뭐 더경 놔두민.

107091 @ 뭐 더꺼?

107091 # 터. 아무거라도.

107091 @ 풀? 보리썩?

107091 # 보리썩이나 아무거나 시민 더경이네 잘 헤영 낫당 따시 낱 내불지 말앙 따시 영 보민 텃시민 따시 자리 바짜주곡 헤사여. 이디서 물 울어불곡 허민.

107091 @ 거름 안웨고?

107091 # 영 따시 헤주곡 헤주곡 헤가민 누룩 낱살 낭 막 좋다. 경헤영 그거 물 르민 누룩허민 밥 떡당 실퍼도 뒤 즈베기 그창이네 밥 줌앙. 무신 그릇에 줌앙 ㄹ루로 허지 아니혀. 요만썩 줌앙 들이썩당 건져뵤 순다리로도 먹고.

107089 @ 순다리는 만들영 먹는 거 아니?

107089 # 그것이 순다리 멘드는 거주게.

107089 @ 어떻행 순다리는 밥으로 행이네 허는 거 아니마썩?

107089 # 밥허민 그 누룩병탱이 놓민 ㄱ루 놓민 곶아당 놓민 허주만은 밥더래.
107089 @ 밥 먹당 남은 걸로 허는 거 아니? 식은밥으로.
107089 # 응 식은 밥 남으민 물 낱 줌주게. 줌아지주게 자불자불 줌아지민 병탱이 그창이네 혼 멧 개 놔 그레. 낱 놔두민 그거 응집으로 그디가 다 꺾여. 귀민 딱시 골로로 영 짓엉 내불민 귀엇당 영 흐쉴 약허민 그디 누룩 병탱이 영 수꾸락에라도 누들어 불꼭 그러치 아니허민 그거 좃어똥이네 순다리로 먹엉 막 좋아. 그 즈베기 건정이네 바삭 들렛당이네 그거 들이쳐도 순다리 똤어.
107089 @ 헛던 거 또 써도 똤어?
107089 # 응, 였로.
107089 @ 게민 누룩은 순다리도 만들고 술도 아까 멘들고?
107089 # 아니 누룩은 보릿ㄱ루로 멘드는다.
107090 @ 어디 놓는 거파? 누룩은 만들민 무신 거 혈 때, 무신 거 혈 때 써?
107090 # 누룩은 멘들민 순다리 혈 때나 쓰꼭게 술이나 험시민 술에.
107090 @ 술 혈 때도 쓰고?
107090 # 게. 술 허영이네 술 귀민 술이 똤는 거지게. 돛수가 넘으민 술이 똤는 거. 나 술도 혼 번에 열 향씩 헤낫저. 큰 향으로 열 개씩 허영.
107092 @ 그거 말고 또 옛날에 이런 거 말고 또 먹어 난 거 이수과? 이젠 안 먹는데 옛날엔 이런 것도 먹어 낫저 영허는 거?
107092 # 연날에 아이 먹어 난 거 옛이큰게.
107092 @ 먹는 거 다 곶아진 철인가?
107092 # 다 곶아진 것 닻다. 난이 나이 먹은 건 하난 다 곶아진 것 닻다.
107092 @ 하하하.
107092 # 미깡빳 허는 사름은 누룩 허영이네 미깡 던저 부느니 썩는 거 그거 통개에 담꼭 그 누룩 담아 흑설탕 행 놔두민 액비가 똤어. 경허민 미깡냥 영양제로 쥘이네.
107092 @ 흑설탕?
107092 # 흑설탕. 게민 스피카 통으로 그걸 뿌리젠 허민 스피카 통에 이제 이수 쎡으로 물쎡으로 하나 낱이네 미깡냥에 뿌려주만은 딱시 열 말 통에 허젠 허민 스피카 통으로 하나 물을 놔야 딱시 열 말 돛수가 맞앙이네 뿌리고 미깡에.
107092 @ 스피카통 어만이 현 거?
107092 # 저 우리 이디 그.
107092 @ 약허는 거. 영 행 약허는 약통?
107092 # 약통도 싯꼭. 그냥 그 약 으져오민 그 통이 잇잖아게. 들르는 그 지는 통 브럭진 답아지는 통으로 하나.
107092 @ 그게 스피카통?
107092 # 응, 그걸로 하나 열 말 물. 그 물 더레 허젠 허민 그걸로 하나 탕이네 그 빳 뿌려도 똤고 미깡 영양제로 막 좋아.

107092 @ 할머니 저거 누룩 뭐허젠 헛수과?

107092 # 저거 누룩혜영이네 그 저 미짱 나오건 파치덜 내부는 이 액비 멘들젠 혜영 놔누난에 저추룩 든 혜싸전.

107092 @ 순다리 행 먹는 건 아니고?

107092 # 순다리 행 먹는 건 더 깨끗하게 혜사주게. 저건 그냥.

107092 @ 나중에 비료로 미짱밭이 주젠 현 거?

107092 # 응.

107088 @ 이제 무사 오메기떡, 오메기떡 행 막 풀고 험니께? 풋 혜근에 풋 쉬 부쳐근에.

107088 # 오메기떡 행 푸는 던 못 봤어.

107088 @ 할머니 안 먹어 봤구나. 나 다음엔 사오쿠다. 오메기떡 행 예 만들어근 에 다 풀아. 그냥 예 찹쌀인지 그냥 저 좁쌀인지 모르겠는데.

107088 # 여기선 이 오메기떡이엔 허민이 큰일침인 떡 허젠 허민 흰ㄱ루 썩이네 이젠 동그락허게시리 오메기추룩 혜영 가운데 터좌. 영영 가운데 터짱이네 솟디 물 에 낵 솥아 그 오메기 건지렌 행 건정 그 식으민 막 썩이네 절벤도 멘들고 밀멍이, 절벤도 밀곡, 솔벤도 밀곡 경 허메. 오메기떡이엔 이딘선 경골아.

107088 @ 아, 잠깐만. 솔헝 때 오메기솔헝 때 허는 게 아니고 떡 헝 때도 오메기 떡 멘들앙은에 밀멍은에 절벤도 멘들고 솔벤도 멘들아?

107088 # 응

107088 @ 영 도나스추룩 영 동그랑허게 혜근에, 이게 오메기떡?

107088 # 응, 그냥 그 ㄱ루로 오메기 멘들앙 솟디서 솥앙 건져 내영이네 썩이네 절벤 따시 허멍 누들민 절벤 웨고 따시 이제 그 솔잎떡 본으로 뜨민 솔벤 웨고 경 허는 거주게.

107088 @ 다시 치지 안행 거문?

107088 # 응.

107088 @ 아, 원래 쌀가루로 헝 때는.

107088 # 쌀ㄱ루로, 쌀로 ㄱ루로 헝 때는 따시.

107088 @ 쳐야 됩니께?

107088 # 치곡 또 오메기 솥아야 허고. 오메기 습젠 허민 영영 멘든 거 그 이제 동그락 떡 멘든 건 습젠 허민 그냥 이 대썩을 으져당 낵 그 오메기 멘든 거 잊지, 솟디 낵 습당 데쓰젠 허민 요것이 싹허민 데싸져. 게고 솔벤은 그냥 ㄱ루로 썩 솔 벤 본으로 딱딱 떠.

107088 @ 계난.

107088 #솔벤으로 뜨민 무사 솔벤이엔 허민 시리에 솔잎을 깔앙 솔잎 깔앙 그 우 터레 떡 놓민 또 떡 우터레 솔썩은 솔솔솔 더경 또 더끄곡 더끄곡 혜영 시리 이빠 이 허민 이젠 시리에 치당이네 다 익은 거 닦으민 큰 동이에 물 낵, 물 낵 그 시리 채 탁 어평 시리 들러 똥이네 영영영 헤가민 솔썩 트로 이레 가곡 떡은 떡대로 건

정 경행 그것이 솔벤.

107088 @ 솔벤. 아 게난 오메기떡은 무신 헐 때 쓰는 거?

107088 # 오메긴 그자 절벤 헐 때 쓰는 거주게.

107088 @ 절벤헐 때도 오메기로 헤? 솔 헐 때만 허는 거 아니고?

107088 # 솔헐 때도 오메기 허영이네 오메기로 허영 솥양이네 그 누룩에 버무령이네 솔허곡

107088 @ 거난 떡헐 때도.

107088 # 오메기 말은 늘채 멘들앙, 늘채 멘들앙이네 솥양이네 누룩에 버무령은

107088 @ 솔 웨고.

107088 # 따시 이제 절벤도 그 오메기로 쟁이네 밀영 판이로 꼭꼭 누들민 절벤떡 웨고 솔벤떡 웨고.

107088 @ 오메기떡 솥양은에 절벤 본 찍은 건 또 치진 안허고 그냥 허여?

107088 # 안 쳐. 지름 불르멍 딱딱 썬내주. 솔벤 불량 솔잎떡 그냥 청이네 탁 시리채 비우민 솔썬 노리치멍 그거 썬영 이젠 새 깔주게, 새 깔민 그레 짝 널영 시들 어 가민 좃으멍 상헌 건 상헌 대로 ㄹ진 건 ㄹ진 것 데로 손에 으정 지름 영영 불르멍.

107088 @ 그럼 솔벤 만드는 방법이 두 개? 두 가지?

107088 # 하나.

107088 @ 게민 오메기 솥양허는 건 뭐라 게난?

107088 # 오메기 솥은 건 그저 절벤게.

107088 @ 게난 절벤.

107088 # 절벤은 동글락떡.

107088 @ 아 솔벤 아니고 절벤은 오메기 솥양은에 영영 행은에 딱 찍으는 거? 또 치지 안허고

107088 # 응.

107088 @ 또 치지 안허고?

107088 # 안 쳐. 솥양 건정 오메기 솥양이 건정이네 바삭바삭 데불멍 쟁이네 이젠 동그레기 멘들주게 동그레기 멘드는 사름 뜨나고 두 개 부청이네 영영허민 본으로 딱딱 뜨민 절벤.

107088 @ 절벤은 원래 가루로 반죽행 안만드는 거파?

107088 # 아니.

107088 @ 만드는 방법이 뜨나구나.

107088 # 솔벤은 ㄹ루로 멘들앙 늘ㄹ루로 멘들앙이네 이제 영영 밀영 그 솔벤 떡으로 떠. 뜨민 이제 시리에 솔썬 깔고 그레 툃툃 놓고 솔썬 놓고 툃툃 놓고 허영 다 익으민 시리채 이젠 그 다라레 들러당 탁 비왕 시리 들러뵤 그레 물 근근 놓민 영영영 솔썬 이레 활활 옳더레 가고 솔떡은 좃영이네 새 넌더레 짝 널고.

107088 @ 이젠 오메기떡이엔 현 건 할머니, 요만이 행은에 저 찹쌀이나 좁쌀로

행은에 만들엉 이디에 풋 막 부친 거. 그게 오메기떡이엔 행 풀암서.

107088 # 이젠?

107088 @ 응.

107088 # 그것ㄴ라. 오메기떡?

107088 @ 응.

107088 # 게 오메기 경 만든 건 오메기떡이엔 해도.

107088 @ 요렇게 도나스처럼 안 만들고예 그냥 동그락허게 행이네.

107088 # 게메게. 입으로 난 것 다 그렇게 곱으민 돼는 거게. 오메기 솥앙이네 건져내민 바삭바삭 손 데어 불어도 그거 막 찌민 이젠 동글락 동글락 떡을 멘들민 두 개 합청 본으로 딱 멩 절벤.

107088 @ 그게 절벤.

107088 # 영 데쌍 누들곡 영 데쌍 누들곡 경 지름 블르멍 놓고 솔벤은 솔잎 깔멍 청이네 씻으멍 놓고.

8. 주생활

구조

108001 @ 옛날에 집 지어난 경험 잇수과?

108001 # 응 집 짓젠 허난 이디 토신제 헤여. 이 툄 토신제 놉 빌언에 허연. 이젠 목시 빌언에 집을 짓게 돼난 목시영 계약 헤연 얼마 허켄 헨 그 때에 집을 그 사름 시거리 마타서. 집을 시거리 마탄 지스는디 우린 밥을 아니 헤 주기로 허여네 지네냥으로 오랑은에 밥 먹영은에 집 지스기로 허연. 허엿는디 경해도 너미 미안헤 영이 저녁엔 오랑이네 보민 인부들이 가지 아니시민 일꾼들이 안 가시민 너미 미안헤영 요 집이 판매칩이난 고기 몇 근 사곡 산디출 밥 허영 일허는디 쉬렌 허여근에 이디서 주난이 그 사름이 놉의 집보단 더 잘헤줘. 재게 헤줘. 재게 해주고이.

108001 @ 이 집 짓을 때 말이주예?.

108001 # 음. 재게 헤주고 또 낭을 전시 집 시 거리에 거 전시 이 근처 오란에 놉 뒤서. 우리 거 다 지서가난 저 동부락 사름은 우리냥으로 낭 뽑아단에 좋은 걸로만 지섯젠 허멍 우리신디 막 시비허멍. 저 인성 사름은이 허곡. 보성 할망은 지네 서방은 늙어부난에 어멍 헤도렌 허지 안헛젠 헤영이 우리 집 지스 거 오란 보난 이것도 잘허고 이것도 잘허고 딸들 들안 오란이 그 사름도 아들 성제 신 사름인디 딸들 들안오란 아이고 하르방 동산에 잘헤도렌 현디 니네 아방은 곧지 안허노난 이것도 죽영 허고 이것도 죽영 헛젠 허멍 우리 집이레 왕 울멍게이.

108001 @ 응.

108001 # 우리가 무슨 잘헤도렌 그 사름네보다 잘헤도렌 현 것도 아니고 그 사름네 영 꼭ㄴ치 돈 내방 꼭 ㄴ치 지스 건디 경허영 우리신디 막 스뭇 엄살허영근에

몸새허곡 그 할망 경혜가난 우리 아방은 아니 나가 무슨 우리 낭 좋은 걸로 뽑아도 렌도 아니허곡 우린 낮에 일 강 오랑 보민 드러 험시민 미안혜영 우리 애기 아방은 술도 아이 먹는 사름이난 미안혜영 술 대접 혈 중은 모르곡 고기 사당은에 이디서 구웁이네 먹으렌 허게시리 혜영 고기 사당 이디서 구멍 이제 우리 그때 우리 하르 방은 우린 보리밥 먹을 때 그 사름은 우리 주인은 곤밥 먹으멍 살앗주게. 게난 당 신 밥허는 쓸로 밥 낭푼이에 혜영 오란 고기 구우멍 먹으렌 허난 특별히 잘헤쥬게. 특별히 잘헤쥬난 양펜이 오란 양펜이 사름들이 문딱 낭도 좋은 걸로 빼어젓젠 우리 하르방이영 막 시비허멍 썩젠 허곡 헤나시네게.

108001 @ 이 집은 지슨지 얼마나 뵈수과?

108001 # 이 집 지선 얼마 뵈신고?

108001 @ 혼 20년 뵈신가?

108001 # 20년 더 뵈서.

108001 @ 더 뵈서?

108001 # 게.

108001 @ 경해도 그때 막 큰 집 아니파예? 이거 이 집예? 이 정도 허문예?

108001 # 응. 그 때 우리 애기가 이디 오란 중혹교 들어가신디.

108001 @ 아 이디 왕 중혹교 들어간?

108001 # 큰아들.

108001 @ 그른 30년 넘엇인게?

108001 # 게.

108001 @ 아들이 중혹교 땡겨시민게 이제 혼 오십 뵈지 안허연?

108001 # 오십 더 뵈저게.

108001 @ 거난 경허민게 예

108001 # 경혜연. 이 집에서 살멍.

108001 @ 혹교, 중혹교 허젠 허난에.

108001 # 흐썬 어려워 뵈연에 뵈 허난에 모실포 우리 셋딸네 집에 간에 일 년 살 앓주게. 일 년 살젠 허민 돈을 노랑 구리전 바팡이네 똑 모실포 강 올 때 돈을 주 주게 아길. 경 주멍 혜여전게. 오랫주게. 노랑 구리전 줄 때난이. 경허연, 저 모실포 송악허연. 모실포서 고등혹교 허난 그디서 공부 잘 허는 아이 육지서 회사에서 지 네 회사에 강이네 그디서 일등한 아이들 회사에 강 공부시경은에 큰 혹교시기켄 헨 에 추천을 오난 우리 아들도 가지 기루완이 돈 아이 들언 어무니네 아버지네 돈 아 이 들영이네 혈 거난 가지기루완 막 허난 우리 하르방은 큰아들네도 머리 엇영 큰 아들도 머리 엇영 공부 못한다 그거 하나 어디 노동하멍 못 시기느넨 절대 안 보내 쥬. 쥬 못 보냈주게. 우리 아들 친군 그 회사에 가네 홀어멍 아들이난 그 회사서 공부허연 출세허연 잘 뵈곡 우리 아들은 이디서 허연.

108001 @ 이디서 헤도 출세 헛주 무신.

108001 # 이디서 혜연 대혹교 시험 치러도 일등으로 뵈연게.

108002 @ 거난. 옛날에는 예 할머니 옛날 할머니 어렸을 땐 집은 무신 집 무신 집 잇수과?

108002 # 옛날 집 이간집 잇곡.

108002 @ 아니 초가집 이런 거.

108002 # 초가집 이간으로.

108003 @ 응 초가집.

108002 # 초가집 이간으로 지섯주게 다. 이간으로 짓곡 따시 흐쫄 큰 집은 세간 러이. 삼간집이영 허곡. 또 잘 사는 집은 스간집이엔 행 구들 두 개 정지 허영이네 짓는 거주게. 거난 이간막살이, 삼간막살이, 스간집은 부제침으로 짓곡.

108002 @ 기와집은?

108002 # 기와집은 이정도 웬 거 기와 올리면 기와집이랏주게.

108002 @ 이디 옆에 혁으로 지으면 혁집이엔 허고 돌로 지으면 돌집이엔 허는가?

108002 # 계게.

108002 @ 주로 옛날엔 뭇로 혁으로 헤신가 마씨?

108002 # 혁으로게.

108002 @ 혁으로예?

108002 # 주로 혁으로, 혁으로 그자 저 거적 여쁜 거 닳은 거 여깁이네이 대나무로 여깁 혁덜 안팎이서 블르명 혁집헤낫주게. 경행 마 뉘가든 혁 털어져가든 또 헤당 블르명도 허고 경헤난.

108002 @ 돌집은 어떤 디 지어낫수과?

108002 # 돌집은 대걸름 담 다근에 문 들 디만 옆이 다 돌집이 다 경헛주게.

108002 @ 그런 집도 이서난?

108002 # 게 이섯주게. 하영 이섯주게.

108003 @ 그른 영 집이 이시민 이디 안에는 안거리 저 베꿏던 밧거리 영 헛니께 예? 보통 경허든 집은 어땡 안거리는 뉘 거리나 뉘는지?

108003 # 안거리는 잘사는 사름은 스간이영 행 안거리이 구들 양편이 잇곡 스간이영 행 잇곡 밧거리는 그자 방 하나 이간허여근에 흐 뉘이 쉼 매곡 흐 뉘인 따시 사름 늘 방 하나 멘들영 밧거리엔. 경허곡 헤낫주게.

108003 @ 밧거리 말고는 또 뉘 잇수과? 모커리 이런 거 이서?

108003 # 엇어. 모커리가 밧거리.

108003 @ 아 모커리가 밧거리? 저 대문 문 잇는 올레에 이신 거?

108003 # 올레에 대문 돌아낫주.

108003 @ 그거 무신 거엔 곶아?

108003 # 이문이엔, 이문거리.

108003 @ 이문거리? 그른 이문거리 잇곡, 밧거리 잇고 안거리 잇고. 모커리엔 한 건 모커리나 밧거리나 똑 ㄱ튼 거? 그른 삼칸 집을 짓젠 허민 세 칸 집을 짓젠 허

민 어떻행은에 지서사 되는 거짜?

108004 # 삼칸집이엔 현 건이 구들 하나하고 마리하곡 정지 혜영 그것이 세 칸.

108004 @ 아 그게 세 칸 집이구나예? 삼칸집예? 보통 계민 경행 짓곡.

108004 # 그건 가난한 사름들은 그거 세 칸. 이 정지, 마리, 구들만 혜여근에 세 칸만 짓어. 채암이 들어오는다 정지 이거 구들 저거.

108004 @ 마리?

108004 # 마린 가운데게.

108004 @ 아 마린 가운데 잇곡

108004 # 저 펜 거 구들 경행 세 커리만 잇는데 이젠 다 잘 사난 삼간집이 었어. 옛날에이. 다 이추록 멋지게 지성. 우리집 지슬 때도 이거 옛날.

108004 @ 집을 짓젠 허민 밑에 먼저 주춧돌 넣고 지등 세우고 영 험니까? 그건 어떻행 허는 거짜?

108004 # 그건 먼저 이런 집 아닌 땀 우선.

108004 @ 초집 지슬 때.

108004 # 초집 지슬 때 초집 옛날에 지슬 때 삼각받이로 영 행은에 쉼 혜영은에 영영 허민 삼칸집은 짓젠 허민 주춧돌 이디 세우고이 세왕이네 그거 바트곡 요디 강 주춧돌 영 세우곡 허영 그자 삼간집 간단하게 짓주게. 경허난 이제 이 우리집 지슬 때도 주춧돌도 었이 그저 밋밋 그자.

108004 @ 이건 다 벽돌로 행은에 지으니까.

108004 # 응 벽돌로 허연 그자.

108004 @ 옛날에 할 때 초집 짓을 때 험 때는 낭 혜당은에예?

108004 # 낭 혜당게. 낭 혜당이네 다 정지도 건상으로 잇곡 부엌도 건상으로 이성 마리 하나만 지등 삼앙이네 서리 영 허영이네 마리 하나만 지등 삼아근에 지등 요디 세우고 요디 세왕이 요디 정제레 가는다 세우고 요딘 딱시 구들레 가는다 마리에 세왕이네 지등 양편이 세와. 양편이 세왕이네 큰 팡 양편이 저ㄱ지 세왕 기추록 허영 지슨 거주게 옛날에. 경허민 우에 서슬도 곤냥 비어당

108004 @ 무신 낭?

108004 # 서슬이엔 현 거. 곤냥 비어당 큰 낭들 영영 험시민 이디가 혁 더꺼정 허민 곤냥 비어당 이디들 만딱 여끄명 혜영이네 이디 혁 털어지지 아니허게 영 마당에서 혁이영 그 우터레 혁 블라. 지봉 우터레 혁 블라근에 다 블라지민 그 땀 새 올려 급하게 새 올려근에 그 혁 위 새로 더꺼근에 집 위로근에 줄 놓왕이 줄 낭 줄로 열건. 요즘 집 짓음사 기가 맥히주. 지인들도 돈만 내놓으민 착착 짓곡

108006 @ 계난예? 그 혁질 허는 건 어떻 혁 혜근에 허젠 허믄 마당에 다 혁 다 파다근에 그건 어떻허는 거짜?

108006 # 애당초 그 마당에 혁이 서. 그 마당에서 새로 갈아. 마당에 혁 깰앙이네 이젠 저 다른 데 혁 족으민 으져당 시경 마당에 낭 이젠 그스새나 뭐 째 ㄱ튼 거 보리낭이나 낭이네 쉼로 막 블려 혁을. 막 블령 이젠 딱시 지봉 우터레 올리명

혁으로 대갈랑 더끄주게. 어느 정도 더꺼전에 들성들성 더끄민 그땐 이제 새로 집 일민 초가집 지스민 영 누민 하늘이 배롱배롱 봐져. 우리 어린 때 이디서 우리 오라방네가 성제 우리 우이 우리 언니 우로 오라방이 흥역 행 둘이 죽어부난 이젠 우리 언니 다음 나, 나 다음 우리 남동생 시난 막 우리 어머니네가 화난 위에 오레비 덜 아들 성제 죽으난 화난에 허난 우리 외삼촌네가 우리 어머니네가 팔남매 그 집에서 살명 다 키왕 출세하난 우리 어머니 큰오라방이 우리 목은 집 대강 집을 짓영 살렌 경허난 그 때에 우리 오레빈 나영 아파서. 우리 오라방은 다 죽고 언닌 아니 아프고 나 아팠 막 죽어가난에 동네 켤당 할망들이 아이고 지집아이 이젠 큰일이여 큰일이여 하단 보난 난 빼죽하게 살고 우리 오레비가 그 시간에 다 죽어가난이 그 집은 그날 이제 누계가 우리 사는 집은 사례 와서. 우린 이제 저디 강 살젠헨 사례 오난 아이고 썸엿거리 옛인 건 살아나고 날그라 썸엿거리 옛인 건 살아나고 우리 넷할망이 오란 아이고 썸에 건 아이고 쓰메거 저것 아이고 썸에거 어떻허리 아이고 썸에 거 썸엿거리 옛인 건 살아나곡 아이고 썸에 건 다 죽어감젠 오레비 다 죽어감젠 경 허멍 해연 그집 흥성 할때엔.

108006 @ 썸에거 뭐? 썸에거.

108006 # 썸엿거리 옛인 건.

108006 @ 쓸 데 없는 거?

108006 # 쓸모 옛인 딸년은 살아나고 이제 살 아인 죽엄젠 허먼 막 하난 그 아시 날까지 나 다 죽엄젠 할망들이 조들던 할망이 난 살아가난 좋덴 허곡 죽어도 좋덴 허곡 우리 오레비가 다 죽어가난. 게난 집 산 사름이 빵떡을 산 오란 허난 빵떡 먹으렌 해도 나도 눈리 발안 아이 먹으멍 헨 뒷날은 혁질 하는 집이 업영 강 보난 누우난에 하늘이영 봐지는 집이 뵈게. 우리 오레비 그디서 크고 딱시 우리 어머니도 죽은딸도 그디서 나고 허연 서오누이 컷주게. 킹 살단.

108007 @ 방은 네칸집이 허민 방은 몇 개나 됩니까?

108007 # 네칸집이 이것이 스칸형이여.

108007 @ 거난 방 요기가 큰방?

108007 # 응.

108007 @ 요거는?

108007 # 것도게 그튼 방이어서 스칸이엔 헤여.

108007 @ 요기는 뭐라? 요기는.

108007 # 건 작은방이엔 헤여.

108007 @ 옛날에 이렇게 큰집 허기 전에 초집헨 때는 이디가 큰방 이디는 작은방?

108007 # 작은방.

108007 @ 이딴?

108007 # 건 이추룩 현 방이 어서.

108009 @ 고평은 뭐라?

108009 # 이거 대신 고팡.
108009 @ 거난 옛날엔 이디가 고팡예? 그른 저딘?
108010 # 부엌계.
108010 @ 부엌 가기 전이 이딘 뭐라? 찻방?
108010 # 청방마리.
108010 @ 청방? 응 청방마리 예. 부엌 가기 전이 청방마리. 그럼 여기는 마리?
108008 # 응 마리
108007 @ 방에는 백장도 이서 낮지예?
108007 # 백장 잇주게.
108007 @ 백장 이디 큰방에도 잇곡 죽은방에도 이십니까?
108007 # 다 이서.
108007 @ 아 다 이서 백장이.
108007 # 게 다 이성은에 백장 위에 이불 낮주게. 이젠 백장 필요 엇언. 단스들 허난이.
108007 @ 계난예. 그른 옛날에는 백장 엇인디난 이불상 이런 것도 헤난건가? 이불상 이신 디도 이서라.
108007 # 이불상은 이불 놀 때 엇인디 상 이불상 허영와.
108007 @ 이디도 이불상 헤난?
108007 # 응.
108007 @ 백장에 이불 안 낡?
108007 # 백장에 이불 아이 낡은에. 백장엔 퀘난 시난. 시집 올 때 시집 올 때게 백장에 이불 시난게.
108008 @ 이런 마리는 낭으로 헛주예?
108008 # 낭으로.
108008 @ 낭으로 어떻헝은에 허는 거?
108008 # 낭으로 이제 큰낭들 영 낡은에 널판으로 이만씩헌 거 놔 낮주마는 우린 이거.
108008 @ 보일라 낡예? 지금 말고 옛날에 낭으로 헛 때는 널판으로.
108008 # 응 널판으로 요만씩헌 널판으로.
108008 @ 그른 요디 무똥에는?
108008 # 요기 무똥에는 난간 낮주게. 낭으로 난간 낡은에.
108008 @ 난간 낡.
108008 # 저 아렌 신 벗영 들어오곡 난간더레 신 신은 양 올라오지 못허게 허곡.
108008 @ 신 벗는 딴 그디 돌멩이 무신 거엔 곶아?
108008 # 그딤 그자 무똥에 신 벗주게.
108008 @ 무똥에 그냥 신 벗어?
108008 # 응.

108008 @ 그디 돌에 돌 영 낳은에 돌 우트레.
108008 # 아 어떤 텐 보민 돌 서도 이 대정골은 돌 신디는 엇곡 부엌더레 가는디
돌은 요만히 잇더라 초가집이.
108008 @ 그건 무신거 허는 거라?
108008 # 정제레 넘어 오젠 허믄 흐쫄 발 지프기 힘드난.
108008 @ 안에? 정제 안에?
108008 # 응 정제 안터레 들어오젠 허민. 정젠 옴탕허난.
108008 @ 그믄 마리엔 뭐 놓는 거 엇수과?
108008 # 마리에 놓는 건 아무 것도 엇영 곡석 놓는 두지베끼 엇어.
108008 @ 아 마리엔 두지? 이쪽 뒤쪽으로도 문 잇지예?
108008 # 게 뒷문.
108008 @ 이게 대문?
108008 # 대문.
108009 @ 요디 뒷문? 이디 고팡.
108009 # 이진 고팡
108009 @ 고팡에는?
108009 # 향달이영 곡석 놓는 거
108009 @응, 거기 혹시 영 창문도 하나 영 멘듭니까?
108009 # 창고냥.
108009 @ 창꿈? 창고냥?
108009 # 창꿈 영허영 그자.
108098 @ 창꿈?
108009 # 응
108009 @ 창꿈 영 멘들양 그디로 바람 통허렌?
108009 # 바람 통허거들랑 그자 영 북게꿈 영 허영 그디도 가라스가 엇어도 무시
거 탕기지 못허게 영영영 헤여.
108009 @ 응 맞아. 중이라도예? 들어오민예? 저 어디 저 어느 쪽드렌 이디 고팡
에 무슨 칠성도 모시고 헌텐 헨 게 이딘 그런 거 안 허지예?
108009 # 이 대정드렌 칠성 엇어.
108009 @ 칠성이 엇지예?
108009 # 저 정의렌 다 칠성 모시고.
108009 @ 다 칠성 모시고 허는데.
108009 # 그런 칠성이 하서.
108009 @ 그럼 저 고팡에 식게혈 때 고팡드레 뭐 올리고 허는 거 잇수과?
108009 # 우리 집은 그런 것도 안헤여.
108009 @ 그런 거 엇지예?
108009 # 그런 거 허는 집 이 대정도 드물어.

108009 @ 거난 이쪽드레 드물어예?
108009 # 정의에서 시집 온 아이덜 살아난딘 경.
108010 @ 케민 정지레 한번 가보게예? 아까 영 정지드레 들어가민 정짓문 열영 들어가민 돌 영 지평.
108010 # 영 한 돌 지평 정지레 들어오랑 불 습는디 아궁이 허곡.
108010 @ 불 습는디 솟덕 앓지는 디 잇곡 그 다음 또 옛날 집으로.
108010 # 솟덕 앓진 다음엔 요만은 가민 물항 잇곡 옆펜드레 뒷트레 가는 뒤에 잇주게. 뒤에 장독 놓는 뒤에.
108010 @ 그거 장독 놓는 된 무신거엔 곶아?
108010 # 장팡뒤.
108010 @ 장팡뒤? 장팡뒤드레 가는 문 잇어? 정지에?
108010 # 응.
108010 @ 살렌 어드레 뇨니까?
108010 # 살렌 그레 가는 요짜드레 농곡.
108010 @ 재 모아 놓는 데도 따로 잇어?
108010 # 게 불 습는디 재 올리는디 부엌에 이섯주게.
108010 @ 응 지들커영 막.
108010 # 지들컨 이레.
108010 @ 데명 놔두곡.
108010 # 이것이 부엌이면 요디 지들커 데미곡 이디 솟 앓지민 이디 불채 불사명 이레 불채영 모다지게 허곡.
108010 @ 거른 아까 나가는 문은 어디라 장팡뒤로 가는 문은 어디 신거라?
108010 # 장팡된 그 장독 논 디레.
108010 @ 응 그레 문 하나 더 잇고?
108010 # 문 하나 더 들안 거기 장독 놓주게. 정지 옆편디레. 그런 옛 보기 힘들 거라.
108010 @ 기지 옛날에 해난 말 물어보는 거주마씨.
108010 # 응.
108012 @ 옛날에 문은 이디 대문은 무신 걸로 만들어?
108012 # 낭으로.
108012 @ 낭으로 큰낭으로? 널로 헤근에?
108012 # 옛날엔 다 큰낭. 널착.
108012 @ 아 쟁 그 문 영.
108012 # 문찌들이 이디 나오곡 이디 나오랑 웃지방에고 알지방에고 이것추록 허 주게. 경헤네 문 열영 영 허곡.
108012 @ 그걸 무신거엔 곶아 그걸? 영 허는 거.
108012 # 요거? 돌조쟁이 문 좇 빠전에 저 문 털어지켜 영.

108012 @ 무신거 무신거라?

108012 # 문 무신 이거 지들이 빠정이네 저더레 털어지켜. 영 열민 잘못 열앙이 네 요레 벗어지는 디 서. 하도 이거 다하고 열앗다 열앗다 하는 따문, 저 문 지들이.

108012 @ 문지들이?

108012 # 응 문지들이 저거 오꼳 벗어정 저 문 털어지켜 저거 강 잘 노렌 허민 강은에 톡 놓곡.

108012 @ 문 영 잡앙이에 여는 건 뭐라? 영 문잡앙 여는 거.

108012 # 문손.

108012 @ 문손?

108012 # 손잡이

108012 @ 손잡이. 이런 거는 문지방? 예?

108012 # 응 문지방.

108012 @ 그문 뒤에 뒷문은 어떤 문이파? 뒷문도 널문?

108012 # 뒷문도 널문 허주게. 널문혜영 가르쌍이네. 다 이런 이렇게 널착문 이렇게 행 싯주게이. 다 이렇게 혜서 영 열곡 영 열곡.

108012 @ 아, 이런 방은?

108012 # 이런 방은 이추특 살.

108012 @ 창호지.

108012 # 창호지로 불라

108012 @ 창호지로 불량예?

108012 # 이 문은 하도 험 창호지로도 아이 불량 종이로 불르당 보민 막 두꺼와. 창문은 저 베끗디레 가는 거는 창호지로 불라.

108012 @ 아 베끗디으로 가는 것만 창호지로 불라.

108012 # 응 붉게시리 이것사 붉지 안혀도 될거난이. 막 불라불민 두꺼와.

108012 @ 아 두꺼와. 그문 저기 창문 창호지로 허민 비 허민 다 젓어불지 안혀여?

108012 # 경 저디 영 가까워사 비 허주게. 저디 잇주게.

108012 @ 베끗디 또 창 하나 더 이서?

108015 # 창 하나 잇지 안혀고 그 비 들이지 말게시리 폰채 달아 폰채.

108015 @ 아 폰채 달아 창문에도?

108015 # 응 창문에도 이 대문으로 그 우테까지 쪽 폰채 달아 저 무땡에.

108015 @ 그 이디 영 창호지로 요 방에 창호지로 문 영 들민 누게 사람 왓신가 해근에 요기 흐뎡 영 뜰랑은에 유리창 박은 거 잇수게?

108015 # 그런 것도 허여.

108015 @ 그런 것도 허지예? 그건 이름 혹시 따로 잇수과?

108050 # 일름 따론 엇고 사름 소리 남젠행 누게가 왓신고 영 보긴 헤여. 가라스

붙여 가라스. 벌러진거 쪼끔해당. 그 가라스로. 보라 사름 소리 난 게 누게 왓시냐 영 .

108015 @ 그 창문은 종이 불르젠 허든 어떻 얼마네 한 번 씩 불라야 돼어?

108015 # 해킨 팔뿔 나민 딱시 불라.

108015 @ 팔뿔 나민 불라?

108015 # 팔뿔 나민 시커멍 허고 마 살아나고 딱시 아이덜 터주와불민 다른 종이 또 부쳤당 또 부쳤당 허민 팔뿔 낭이네 막 일기 좋곡 허민 문 떼영이네 종이 불라난데 특허게 물로 씻곡 저기 세왕은에 창호지 사당 싹 불르곡 유리 딱시 창문에 유리 요만이 헌겨 달주게. 그것두 이제 영 해영은에 부치곡 헤여. 사름 소리 나민 이 유리로 사름 누젠고 행 바래.

108013 @ 옛날에는 옛날 살아난 그 집이서 호령창이엔 헌 거 잇수과? 호령창.

108013 # 호령창이 아니고 저 무시겨 정제레 가는디 정제레 가는디 검질 데미는 아이고 잇어부러져. 고랑케.

108013 @ 고랑케?

108013 # 응 고랑케에 검질 영 들어가는데 요거 닭게시리 요것 닭게시리 검질을 막 데명 놔뒤. 고랑케 검질 소곱에 무된 놔뒤저 그거 앓앙 내라 영허영 영 보민이 술썩 해당 여기 물어 놔두민이 겨울엔이 감저 과당은에 우리 어머니네가 몇 마다리 싹 술썩에 물어. 문으민 그 고랑케 감저 강은에 댓개 내놔 요 살불러레 꼭꼭 찢러당 먹으라 경해.

108013 @ 쟁 고랑켄 어디 마리에서?

108013 # 마리에 나가는 데는 엇곡 정제레 나가는 데 요 영한 고랑케가 잇주게.

108013 @ 정지서 어디로 가는 거? 밖으로 나가는.

108013 # 밧거리로 가는 바깳드레 가는.

108013 @ 아 바깳드레 가는 데 요런 이런 데가 잇는 거? 아 그걸 고랑케렌 글아?

108013 # 응. 고랑케에 검질을 데미주게. 검질도 보릿대 안허여. 술썩을 데메야 술썩에 소곱에 그 감질 물어놔당은에 저 화릿불 살랑이네 조민 화릿불레 꼭꼭 찢러당이네. 이 어머니가 그 아덜 하나베끼 몰라라게. 밧디 강 우리 어머니네영 강 오랑 보민이 우리 오레비 흑교 강 오민 주젠이 화릿불에 감자 꼭꼭 찢러당이네 오게 돼민 어떻사 아는지 코콜이 먼지 닭고 해영은에 저런 그릇에 톱 낫당 흑교 강 오랑 아이고 울 아덜 흑교 강 오는구나 손 실려냐 허멍 영 쥐언이 요레 듯은 데 앓으렌 앓청이 감저 그 차롱착 그 풀블른 차롱착에 감자 쥬어멍이 꺾데기 벳경 요디만 아 이 벳경 마 먹으라 먹으라 허멍.

108013 @ 오레비?

108013 # 응 오레비. 옛허민이 말차로 옛 허나허민 걸일 땐 우리 딸들을 쥐. 거른 다음에 흰단지로 하나 솜뽕 걸연. 궤 우이 톱 놔뒤. 궤 우이 놔두민이 아덜 흑교 강 온 것 닭으민 어머니가 구들서 미녕 좃당 아이고 울 아덜 손실렸지 요레 노라

요래 노라 요 굴묵거리레 손 놓렌 혜영 영행 었더지민 혹 일어사낭 손 풀어져시냐,
이 옛 떡으라 행 단지채 쥐.

108013 @ 아들신디만?

108013 # 응 그든 울 오레비 흑교 가불곡 허민 우리 아시영 나영 베개 노라. 굽
으렌 혜영 수까락으로 아시 입드레도 호쓸 걸어내곡 나도 거려놓당 어평행근에 문
드린 걸 발견웨민 막 스뭇. 이 지비년덜 지 오레비 먹는 걸 덜헛젠 욱 듣곡. 우린
그 때 솟디 걸털 때 뿐 못 먹주게.

108014 @ 못 먹어? 굴묵은 어디 이신철이과?

108014 # 응?

108014 @ 집 옛날 초집 허민 굴묵은 어느 짝에 이신 철?

108014 # 굴묵엔 이짝엔 부엌 시민이 저짝 굴묵 뒤에 고스락도 놓곡 굴묵 짓는
디가 있어. 이짝 굴묵.

108014 @ 이쪽으로 영? 방 저쪽으로 행은에. 영 방 듯게 .

108014 # 요 영헌디 돌민.

108014 @ 이쪽으로 영 돌민?

108014 # 굴묵에 똥이여 고스락이여 데명 놔둬서 굴묵 짓주게.

108014 @ 방 뜻으게?

108014 # 응 그걸로 불그네로 불채 파내영 그걸로 파내영이네 불채 파는데 딱로
놓곡 또 옆이 고스락이영 똥이영 그데 담양 잔뜩 밀리명 담양 불 부찌른 구들이 뜨
셔.

108014 @ 불채 영 담아 놓는디 엇어?

108014 # 불채 담아놓는 덴 요펜이 요 담 당허네 허민 그레 담아놔이네.

108014 @ 그딘 이름 머엔 곶아?

108014 # 그 불채 놓는디영 허주게. 경허여근에 허민 이제 농사철엔 그 불채 파
내영 불채 씨에 보리씨도 버무렁 보리 갈곡 또 이제 칠월 나쁜 모멸 놓젠 허민 새
백이 그 불채 밧디 시꺼가 모멸 허젠 허민 이젠 모멸 안허도.

108014 @ 불채 놔두는디 불챗막이엔 안허여?

108014 # 응?

108014 @ 불챗막.

108014 # 불챗막 딱루 지서근에 담양도 놓곡 혜여.

108014 @ 아 경허기도 허곡 그냥.

108014 # 그디가 ㄴ득어 가민 파당. 경허민 칠월달에 모멸 가는 거난 칠월달엔
파내영은에 모멸씨 마당에서 불채에 서경 밧디 시꺼당이네 이젠 어머니ㄴ라 불채
놓렌 허민 우린 불채 그거 맥에 으져당 어머니는 손부리로 탁탁탁탁 불채 잡으멍
놓민 아방 갈아 모멸 웨는 거. 칠월달에 가는 거 모멸은. .

108015 @ 아까 저 푼채? 문 앞에 영 드는 거.

108015 # 푼채.

108050 @ 그건 창문에만 답니까? 요긴 엇어 앞에는?
108015 # 대문까지 짝 돌아.
108015 @ 아 대문까지?
108015 # 정지만 내부러똥.
108015 @ 아 정지만 내부러 똥. 비 빠지 못허게.
108015 # 응.
108015 @ 그믐 그건 날 좋은 땐 세윗당?
108015 # 아니 그냥 그대로.
108010 @ 아 그대로?
108015 # 막 오라가민 그 작대기가 흐쓸 영 헤어볼곡 경 아이허면 영 과짜 세우
곡.
108015 @ 아 작대기로 과짜 세왓당 흐끔 내럿당.
108015 # 일론 이웬으론 문으론 다 돌아 멘거난 계난 작대기가 비 오라가민 비
들이카부텐 작대기 안터레 영 쪽허민 소곳허곡 날 좋으민 영 허민 허는 거.
108015 @ 거믐 집에 영 잇는 거 말곡 세우는 것도 잇수과 폰채?
108015 # 폰채?
108015 @ 세우는 건 엇어? 비 빠지 말렌.
108015 # 폰채 비 빠지 말렌 허영 들러단 톡 세우는 거.
108015 @ 거난 들러당 허는 것도 잇어?
108015 # 게 것도 폰채.
108015 @ 영 부터 잇는 것도 잇고 그냥 들러당 놓는 것도 잇곡. 그건 뭘로 멘드
는 거?
108015 # 낭으로 멘글랑 새 비어당은에 그레 느람지추룩 여끄멍 다 즐라 매어.
경 잘잘 비에 해가민 내리게.
108016 @ 비 내리게. 물 질레도 하영 뎡거낫주예? 물 질레.
108016 # 물 질레 가주게.
108016 @ 물 질레 가젠 허믐 어뎡허여?
108016 # 물 허벽에 물 허벽 낡이네 정 강.
108016 @ 구덕에?
108016 # 구덕에.
108016 @ 그 다음 허벽 놓고.
108016 # 응, 허벽 놓고.
108016 @ 또 무신 거 놔?
108016 # 허벽 놓고 물 구덕에 아렌 댓가지도 여깡.
108016 @ 댓가지로 여깡
108016 # 여깡이네 물구덕에 허벽 낡 정 강은에 팡에 부렁 그 허벽에 물 질언 일
렌 들어다낡 이젠 향드레 팡팡팡팡 비우곡.

108016 @ 팡팡팡 비우고? 대밭인 무신거?
108016 # 대밭인 죽은 거.
108016 @ 애기덜 허는 거?
108016 # 조그만헌 거 대밭이.
108016 @ 조그만한 물허벅?.
108016 # 대밭이 새끼.
108016 @ 대밭이 새끼? 그른 물 질레 가민 그 저 물허벅으로 영 허지 안헿 뵤로 영 거러 놔살거 아니?
108016 # 거러놀 때도 싯곡 물 골리민 그냥 허벅더레 팡팡팡팡 그득으면 오꼳 들 러움도 허곡.
108016 @ 아침에 멘날 물 질레 가난 할머니?
108016 # 아직이도 가곡 저녁에도 가곡.
108016 @ 하루 몇 번이나 해야 돼여?
108016 # 하이컨 정제 밥 허는 향엔 다 그득이곡 도야지도 물 저당 주젠 허민 곳 은 물 저당 도야지도 농곡 요디 산물 잇엇어. 우물. 우물 허영이네 저물아 가민 우 물 저당이네 여름에 느물 데왕이네 냉곡 허곡 겨울엔 손 실리민 뜨슨 물 이디것 저 당이네 느물 싯곡. 경헌 물 각처에 물 파부난 저디 내리진 안헤여. 게도 막 그문 헤 도 밀창엔 물이 잇어. 밀창에 허벅 정 강 저 아래 정 강 부렁 이젠 박새기로 그 물 허벅에 낵 깡이발로 팡이영 손잡이영 다 잇어. 툫툫 헤영 올라오랑이네 .
108016 @ 게른 물 정 오민 물팡은?
108016 # 쟁 물 허벅더레 영 팡팡팡팡 영 허민 항더레 비와지민 허벅 부리는 물 팡도 잇주게.
108016 @ 허벅 부리는 물팡도?
108016 # 응 정지 옆펜이 툫허게 .
108017 @ 올레는? 올렛질.
108017 # 올렛질은 게 저거게.
108017 @ 이딘 올레 별로 안 질어예? 옛날은 올레 올레 진 집이 좋은 집?
108017 # 아니여. 진 집 올레 더 들어간 디 더 곳주.
108017 @ 더 구져?
108017 # 게 우린 항상 질 가까운 디만 살앗주, 질 들어간 딴 가보지 안헤연. 저 보성 우리 막 아관 죽어가난에 큰 물 어염에 질긧집이 살메 넘어가단 사름 물 먹켤 허여근에 어떤 땀 댓 사름씩 오랑 물 주렌 허곡 그디 초등학교 잇어나면 물통에 물 먹으레 가주마는 물 먹을 시간 뵤민 그디 서당 허난 우리집이 막 나라비 헿 물 먹 영 가민 나 어떤 때 주지 말젠 헤민 우리 아버지 말라 물 췌이네 막 존나 오랑들 다 먹으라 다 먹으라 헤여. 경헤여.
108018 @ 문간채 이문간은 뭐하는 거짜?
108018 # 이문간은 올레레 가난디 이문 짓주게. 이문 지스민 사람 나가난디 잇곡

흐 펜이 또 소 질르는 막 잇곡.

108018 @ 아 쉐막을 그디 해. 이문간에?

108018 # 응 이문간에 흐 간은 이문간, 이문 두간을 허주게. 사름 가느디 허곡
딱시 흐 펜인 쉐 매는 두 간 짓어, 이 집 원자리엔 이디 이문 방 두 개 서난. 이딧
하르방은 옛날에 막 높은 사름해여난이 므을 일 보는 사름이 저 올레서 아뢰옵니다
허민 이거 이침이 살아난 하르방인디 올레서 막 울러도 대답 아니헤여. 게민 드러
헤가민 또 이디 심부름 여자 영 심부름시민 저 누게 오라네 뭐 험수다 허민 들어오
라 허민 그 이문 안에 들어오랑 또 그디 였더정 또 뭐시엔 곶으민 가까이 들어오라
허영 그 하르방 난간에 턱 이디 동더레 돌아진디 높은 집 자리라났어. 이 참사라고
현 참사 하르방. 경 영허민 들어오라고 허렌 허민 마당 가운데로 오랑 딱 였더지민
그 사름 보고 현 말 허젠 허민 그러냐고 알앗젠 허민 이젠 그냥 가렌 허카부덴 허
민이 가지 말렌 허렌 정제서 무신거 주렌 그 사름 주렌허민 뵈습니다 였더져두서
뵈습니다, 뵈습니다 헤도 심부름꾼이 으져다 주민 먹영 가곡 허더라. 게난 이집이
하르방 아덜이 막 공부도 잘 허곡 훌륭한 사름인디 갑자기 아판 아판 큰곳도 몇 번
허당도 버치난에 여수 그 시절에 여수 믿엇어이. 여수 믿으난 그 아덜이 완전히 낫
안게.

108018 @ 경행 낮아?

108018 # 완전히 낫으난 이젠 이 집을 동드레 앓아난 집이주게. 이제 이문 잇곡
** 현 디. 예배당 헤부러저게 예배당터.

108012 @ 아 여기 원래 예배당 터?

108018 # 경헨에 그 어른 막 일름나게 살안 아덜들 일본 가곡 손지덜 그디 손지
가 나영 동갑이라난디 지집아이. 근디 일본들 가부런. 그 하르방넨 이디서 죽어불
곡. 이디서 스못 큰 어른이라났주. 이참스, 이참스허명.

108018 @ 게민 놀은 어디 놀니까?

108018 # 놀 누느디? 저디게 놀덜 막 놀어낫주게.

108018 @ 어 저 짝드레. 놀은 멧 개나 놀니까?

108018 # 놀은 게 농사허여 오민 농사헌 놀도 놀곡 쉐 메민 쉐 메는 놀도 놀곡
기추룩 허주게.

108018 @ 그믐 마당이 막 널러사켜예? 놀도 놀곡 요기 앞이 날레도 널곡 허젠
허민예?

108018 # 이젠 놀 집에 아이 놀어.

108018 @ 게난 지금은 안 놀주마는 옛날 놀 때.

108018 # 옛날에 마당에.

108018 @ 놀은 어떻게 누는 거파?

108018 # 놀은 그자.

108018 @ 밧에 무신 거 봐?

108018 # 밧엔 돌멩이만 논 디주게. 돌멩이만 농민 보릿대고 무신거고 조근조근

이 머리로만 조근조근 조근조근 농명 허영 이디 소가 골르지, 소 골르민 소레 왔다
갓다 왔다갓다 농양이네 또 우터레 조근조근 농명 차츰차츰 올라강 누는 거주게.

108018 @ 기민 켈 우인?

108018 # 막 현 이상엔 느람지 싹 폐왕이네 주제기 더끄는 거주.

108020 @ 느람지 영 폐왕 주제기 더끄는 거? 응. 그문 도새기 질르는 딘?

108020 # 도새기 질르는 딘 요펜이 담 당이네 똥 싸는 디딜팡 두 개 허영 도새기
들어가는 집 싯곡 혼 펜 구석에 집 싯곡 사름 강은에 똥싸는 디딜팡 우에 영 걸터
앗앙 똥 싸곡 디딜팡 옆이 돛도고리 돌로 현 거 이만현 거 싯주게. 그레 이제 체도
거려농곡 물도 거려 농민 오랑 먹고 돛집에 강 살곡.

108020 @ 도새긴 거난 밥 먹당 남은 거 주는거파? 아니민

108020 # 밥 주느냐게. 보리 갈아난 보리체영 물 위에 그냥 황엿물 주지게. 그릇
씻어난 물이영. 밥 남은 거 옛날에 밥 남은 거 주느냐. 옛날에 누녕밥도 강아지도
아이 준다, 아이구. 그 땐 동냥바치들이 어떻게 많은디 말도 못헤여.

10802019 @ 옛날엔 무사 나도 할아버지네 집이 강은에 똥 싸젠 허민 도새긴 막
밋으로 막 예? 들어오고 문도 막 잘 안 달리고 막 영헌디사 헤난거 닳은디 근 똥싸
레 가민 어떻헤여? 도새기 잇곡 허문.

108020 # 도새기 어떻헤여. 도새기 들어와도 그저 똥싸민 털어지민 도새긴 먹곡
그디 검질 보릿대 보리낭 혼 못 놔두민 그거 빠내영 똥꼬냥 쓸영 그디 들이치곡.
종이가 어디서? 첩.

108022 @ 계난예. 창고 ㄱ튼 건 어디서?

108022 # 창고 ㄱ튼 건 옆이 지스민게.

108022 @ 어디 지서? 이문간에? 아니민 밧거리?

108022 # 이문거리도 싯곡 탁터진 밧거리에 지서근에게 쉼도 메곡.

108022 @ 그럼 잠대영 이런 건 어디 놔둬니까?

108022 # 잠텐 어디 강 놓느니. 그 저 헛간에 놓주게.

108022 @ 계난 그제 어디 잇어? 밧거리에 이신거라 이문간에 이신거라?

108022 # 밧거리로나 이문간에 헛간 시문 잠대 ㄱ튼 거. 잠텐 간단허주게 낭계기
에 영헌 거.

108022 @ 아니 잠대 말고 이것저것 놔두는 디가?

108022 # 그거 저것 다 창고에 놔둬.

108022 @ 거난 그 창고가 어디. 이 집이면 어디 놔두는 거파?

108022 # 창고 지스디로 놔야 허주게.

108023 @ 쉼막은?

108023 # 쉼막이 창고주게. 혼 작은 쉼 메곡 혼 작은 창고 쓰곡.

108023 @ 밧거리에 헛 때도 잇곡 이문간에다 헛 때도 잇곡.

108023 # 응. 이문거리에도 허곡 옆이덜도 놔둬도 하곡.

108023 @ 보통은 집이 쉼 몇 마리나 질락?

108023 # 보통은 집에서 메는 쉼 두 개. 경 아니면 산에들 낱 내붙어. 저슬이고
여름이고

108023 @ 게민 쉼막에 쉼메민 먹을 것도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예?

108023 # 출 놀주게. 하영 혜영. 출 이만헌 출놀을 멧 개씩 혜영 놀메. 드러 출
빵이네 드러 줘놓민 이젠 쉼막 고득으면 소 베껏드레 내똥 그 걸름을 또 돛통드레
다 들여. 똥 산 쉼걸름. 들영이네 딱시 돛통에서 걸름웨민 보리 갈젠 허민 또 마당
더레 퍼내영 보리씨 서경 밧디 가는 거주게.

108024 @ 아까 뒤에 장항은?

108024 # 장항은 정지 뒤에 돌 끌고 행 돌 위에 장항 낱 장 담곡.

108024 @ 그건 무신거엔 곱아 그디를?

108024 # 장팡뒤.

108024 @ 장팡뒤예? 장팡뒤에 장항은 보통 몇 개나 놓니까?

108024 # 장팡뒤에 그릇 하면 서너 개 농곡 장물 놓는 항 싯곡 웬장 놓는 항도
싯곡 처암엔 큰 항에 장 담갓당 걸영이네 허벅에도 장물은 질어 농곡 경헿.

108024 @ 조금만한 단지도 망대기도.

108024 # 존존한 그릇들도 장팡뒤에 씻으멍 툫툫 얹어놋당 뭐 지 담을 때 사용허
곡.

108023 @ 아까 혜난 그 춤항? 아니 춤이엔 안허곡 동백 동백낭 이신디 새로 영
꼬왕 허는 거 그거 혼 번만 더 곱아줍서.

108023 # 게 저 돛박낭에 새 허영 느람지추룩 চে음엔 여꺼. 경혜여근에 이젠 이
먼끄쟁인 다 영 졸라 매영 문딱 먼 끄쟁이 다 졸라 매영 낯당이네 오월 장마에 비
चे음 오랑 자르르룩 크게 곱은 거 다 씻어준 다음에 그 머리 단 거 항 두쟁이 앗앙
툫허게 춤 밧주게. 경헿 우리 시집이선 그걸로이 식게하곡 그 물로 다 범색엇이 그
걸 정성드령 그 물을 허더라. 여름에 냉국 시원히 먹젠 허민 그 낭알에 난 물이 시
원혜영 그 물 으저다 냉국 헤먹곡 경허더라.

108023 @ 그거 아까 춤 받은덴 곱아? 춤.

108023 # 응 춤 받은 항에 밧앗당.

108025 @ 춤항에 밧앗당?

108025 # 경허민 비오랑 딱 꿇으민 딱시 그 용기 그릇 항 뚜께 더꺼붙어.

108025 @ 아 비 와가민?

108025 # 다 꺾나민 그 항 ㄱ득으민 .

108025 @ 아 항 다 ㄱ득으민.

108025 # 또 비 음 시작혜영 초벌 낭 다 씻영 느린 다음에 그걸 이제 느람질 항
더레 들이쳐. 물을 깨끗하게 밧아. 경 물 받으민 그 물을 제스힐 때 쓰곡 그냥 멘입
에들 먹젠 허곡 그 밥 보리밥이나 허지 안허더라. 그 밥 물을 어렵게 알안이.

108025 @ 예.

108025 # 이집 말아 우리 나 아관 죽어가난에 저디 혁질허연 그자 그스새 더견에

그집이 보릿대 정지에 끝안 다 죽어가난 오누이간 그디 간 살안 커시네.

초가 지붕이기

108026 @ 옛날엔 초집 지붕 다 해놔주예? 집이서예?

108026 # 옛날엔이 초집이 다 그 물구덩 영 허는 것처럼 다른 낭 해당은에 그 서리가 영영 행 싯주게. 서리 시민 그 서릿 새에 영영 놓명 그 노 꼬왕이네이 손노끼 꼬왕이네 손노끼 엇이든 저 산에 강 짝 걸어당 짝 짝 아나?

108026 @ 예

108026 # 짝 걸어당이네 그 낭 영영 고무난 이견 큰 낭이지?

108026 @ 아 짝은 큰 낭? 어뎡헌 거?

108026 # 낭, 낭. 낭 이제 산이 강은에 이레 더끄는 낭 존존허게시리 저런 섬비덜 비어오민 큰 서린 이렇게 싯주게. 서린이 이렇게 시민 그것이 영 노명 이렇게 노명 지붕 우에서 지러기 널르민 세 사람 앳앙이네 그거 노명 그거 노 꼬나 칩을 허나 허영 그 서리레 엷어. 지붕 곳에까지이 상마리로 시작헤영 곳에까지까지 이제 여끄민 여까진 거 아나? 여끄민 이제 축브람도 이제 댓가지로 저추룩 허영이네 이제 축도이 댓가지로 딱시 여까. 경 다 그 노 꼬앙이네 짝으로 노 꼬앙이네 댓가지도 못 아이 박앙이네 다 여깁이네 허민 마당이 혁 시꺼다냥 마당이 혁 시꺼다 냥이네 마당도 갈곡 꺾치 마당도 갈곡 허영 물 져 오랜 허민 동네 아주망들 허벅으로 물 져 가민 그 혁곳디 신 사름은 이까지 빠지명 장화도 엷어. 그냥 멘발에 이디 들 어강 잠방잠방허명.

108026 @ 하하하.

108026 # 허벅 앳아내영 팡팡팡팡 비우곡 팡팡 비우곡 허영이네 이제 물 어느 정도 받아지민 이제 그디 새 싯은 거나 고스락이나이 이젠 그 혁 물 논더레 딱시 더꺼. 더경이네 이젠 쉼로도 불르곡 사름도 불르곡 허민 혁이 다 병탱이 지는 거 아나? 병탱이 지민 이젠 요만씩 멘들명 지붕 우이 이거 여깁주게. 서리 논디이 섬비로 다 여끄난 지붕 우트레 던지든 마트명 이디 흔 멧 개씩 놓으명 영 허곡 멧 개씩 놓으명 영 허곡 허영 다 허여지민 그 고대 올리는 거영 허여 고대 올리는 거엔. 지붕 우에 고대 올리는 거엔. 경허영 다 현 이상엔 또 새 올리주게. 새 올링이네 더경 이젠 또 줄로 매영 경행 초가집이 경행 허는 거.

108026 @ 계난. 새는 흔 멧 년에 한 번씩 지붕 새로 해야 뉘는 거파?

108026 # 계난에 일년에 처암 새로 짓은 집은 올리 허영 새해 일어사

108026 @ 일년에 흔 번?

108026 # 아니 두 해에 흔 번 해도 새로 짓은 집은 새로 지스난에 좀 지각허지 아니 헐거주게. 계민 올해 집 지스명 혁질 허명 이난에 흔 칸이 곧장 허지 못헐주게. 혁 병탱기 싯곡 그자 그 상뒤 어른들 올랑들 막 웃음 벨탁 허명 허여불민 그 해 구물영 새해에 딱시 새 비영 흔 번 일민 두 해에 흔 번.

108026 @ 아 그 다음엔 두 해에 흔 번씩?

108026 # 두 해에 흰 번 줄도 농곡 이제 줄로 낫다당은에 새 올령이네 허곡 허민.

108027 @ 언제쯤에 허는 거짜 그건? 가을에 허는 거과? 겨울에 허는 거짜? 언제 허는 거?

108027 # 겨울에게. ㄱ슬에. 여름에 저 동짓달 나민 새 빈다.

108027 @ 아.

108027 # 동짓달 나민 동짓달 초 하루가 새 허경 옛날에.

108027 @ 응.

108027 # 새 아무 때나 못 비어.

108027 @ 맞아.

108027 # 새 비민이 저 모슬봉 오름에 새왓이 엄청나게 우리 가명 이디 새왓이엔 물 파노란 헛젠. 그디 거이 대정지기에 사름 그디 새로 인다. 게민 췌군들 오랑 막 비영이네 이녁에 올리 안 일 사름은 풀곡 일 사름은 으져가곡 경허민 그디 미룻 새 임제 이신디 말헤여. 새 멧 못 줍젠 헤여. 경허곡 따시 이녁냥으로도 밧 신 사름은 새 들여. 새 불리 사당이네 무딩.

108027 @ 응

108027 # 경혜근에 이녁 새왓 허여은에 새 비어당도 허곡 기추룩 허지. 두 해에 흰 해라. 게민 새 허경 동짓달 나사 새 허경 허주게. 새 허경 아니 흰 때 도둑으로 새 비영 덩기당은 걸려. 게난 새 허경 헤사. 아무날 새 허경이여 허영 대정지기에서 말 나민 새 정 덩겨도 늪의 새 강 도둑질로 비엿당 정 오랑도 허경 허난 전 왓신가 허주.

108027 @ 응.

108027 # 경 아니헨에 허경 아니헨 때 이녁 밧디 비어 덩기당도 늪의 거 헤엿젠 헤영은에 막 구체주고 경허여. 거난 이녁밧도 허경 아무 날 허경이요 허민 허경 마 타근에 강 헤.

108027 @ 응, 동짓들에?

108027 # 동짓들에.

108027 @ 게민 그 각단은 무신거?

108027 # 각단은 그 새 줄른 거게. 새 질지 못한 거. 새 질지 못한 건 각단은 비민 거꾸로 느다냥 무끄주게. 일로만 메민 등케긴 득지고 풀렝인 빠져불어. 게민 올로 흐꿈만 엇곡, 올로 흐꿈만 거꾸로 느다 허영 오랑 집으로 낫당 각단으론 줄 놓는 거.

108027 @ 어 줄은 어떻게 누는 거짜?

108027 # 줄은 이젠 어든 하르방이 이젠 이렇게 줄 놔가민 이제 새 헤영 저 이거 새민 이거 호렝이 으져와. 영 뚱그런 거.

108027 @ 예.

108027 # 으져당 이제 새가 영허게시리 그 코걸이에 걸어. 코걸이에 그 앓은 하

르방이 걸어. 걸민 이젠 영허영 이레 대민 새 이레 영영영영 맞일만씩 주민 그래서 떼와 가면서.

108027 @ 떼와 가?

108027 # 응, 술술 저까지 강 저디 공쟁이, 지러기 재어근에 공쟁이 박주게. 이디서 지봉 우에 공쟁이 딱시 진 줄은 더 질게 허곡. 경해영이네 그디 강 ‘고만 험서’ 허른 이제 영 헤여뒤근에 또 그냥 이디 영 나뒤. 이레 발로시.

108027 @ 아.

108027 # 줄 체암에 이제 저디 강 다왔수다 ‘고만 험서’ 허민 그 사름은 그거 빵이네 그 못더레 박아똥 올 동안은 요거 흔 착 부찌지 아니헌건 하르방이 요영 디더. 영 블랑이네 또 새로 시작해영 새로 시작해영 저디 가든 다 왔수다 허민 요것에 영 부쟁 돌리민 잇어져.

108027 @ 응.

108027 # 잇어지민 요레 딱시 낭 헤영 요거 톡 걸주게이.

108027 @ 예.

108027 # 요디 진진 현 낭 톡 걸고 그 사름은 저레 강 찢르곡 그추룩 헤여. 그추룩 헤연에 말젠 이제 줄 이거 두 개 노 꼬는 거추룩 어울리젠 허민 또 이디 고냥 이만은 딸른 거 시민 그것이 이것이 두 곱 친 거 이레 찢러. 이레 딱시 영 허는 거 찢르민 저디션 이제 둘이가 그 하나씩이, 하나씩 두 사름이 영영 둘러가민 이디션 또 이거 영 둘러민 한 사름은 이디 오랑이네 그거 영 헤영 심영 자르르륵 헤가민 노 꼬아져. 흔 사름은 저디까지 강 ‘고만 읍서’ 허민 이제 ‘그만 읍서’ 허민 이젠 하르방은 이거 픽 던져똥이네 딱시 다른 거 딱시 요거 끼웁시민 그 사름넨 저디서 말저 딱시 그거 이제 요만씩 허민 그 사름넨 그디 상은에 빠블민 안된덴 허난. 이거 딱시 영허민 그 사름넨 다 빠민 요 고냥더레 꼭 찢렁은에 어우러지게 풀어지지 아니허게 헤영 픽 던지민 그 지가 영 노 꼬아간 사름이 그걸로 사려. 동글락허겔 사리나 또 그냥 저 촌에서 짐패 사리듯 영 헤영 사리나 허영 픽 허게 던져.

108028 @ 그 진 줄도 잇곡 쫄른 줄도 잇어?

108028 # 게 진 줄은 지러기 맞추곡 쫄른 줄도 지러기 맞췄이네 헤여.

108028 @ 어떤 지러기가 진 지러기?

108089 # 진 지러긴 이거. 이 그룬 지러긴 쫄른 거. 이 기력인 질주게이. 방 여러 개곡 이 지력인 이 지러기 뿐이난.

108029 @ 흐뎡 쫄르난. 그문 이거 험 때 아까 영 돌리는 거 이거 이름이 뭐라?

108029 # 흐루기엔 헤여.

108029 @ 흐루기?

108029 # 흐루기 으져 오렌 허여.

108029 @ 흐루기 으져 오렌? 흐루기 말고 그다음 또 줄 영 어울리는 건 뭐라?

108029 # 이거 뒤치는 것이라 또 뭐시엔 골안게 잇어붙어서.

108029 @ 뒤치는 거?

108029 # 이디서 하르방이 영영 그 사름 영 행 가민 이디사 영영 들리쥬사 저디 서도 오곡 허멍 노 꼬아지는 거주게. 그거 잊어부러져. 저 흐루기 저것들. 뒤치는 거엔만 허든 웨여.

108029 @ 뒤치는 거엔만예.

108029 # 뒤칠 때 여즈도 이거 허곡 남즈도 허곡 허는 거난이?

108029 @ 쟁 줄 다 멘들른 줄 어떻행 매어?

108029 # 줄만 딱 매민 개영 갓당 날 황 본 날, 불양 보름 엇어사

108029 @ 아 보름 엇인 본 날.

108029 # 보름 엇어사주. 새 그냥 영영 작두 질처음에 이제 새가 질처음에 무조건 이 집가지 넘어가주게 차례로. 등케기로 영 행 넘어가민 빙빙빙빙 그 지붕 이는 사름이 집가지 어염으로 먼저 널민 등케기 이레 오는 거라. 게민 딱시 새 어정 그 등케기 우터레 더끄면 또 허영 상머리꼬지 오랑 저 우녜펜이영 우녜펜으로도 이젠 그추룩 헤영 오민 우녜펜인 요초룩 크게 일로도 오곡 일로도 오민 요디 오민 그거 막아지게시리 새 이레 짝 끌아불민 또 어욱 막아정 오는 거라. 경허든 줄 매영은에. 쩍른 줄 맬 땀 절루도 사름 상 ‘어이’ 허민 ‘어’ 허멍들 줄덜 잡아댕겨.

108029 @ 던져? 영 던져?

108029 # 지붕 위에 낱은에 줄을 양편더레 늘주게, 게민 줄 심영 잡아댕기켄 헤영 흐 밧디서 먼저 심은 사름이 ‘어이’ 허민 이 짝에서도 ‘어이’ 허영 서로 잡아댕경은에.

108029 @ 어디 무꺼?

108029 # 그 저런 서리레 무꺼.

108031 @ 서리레 무꺼. 그럼 여러 사름 이서사켜예? 허젠허든예?

108031 # 게민 지붕 이는 사름이 싯곡 줄 때는 사름 서이면 웨여.

108032 @ 서이. 그건 잘 허는 사름 빌어사 허는 건가?

108032 # 집 이는 사름은 잘 허는 사름. 잘 못 빌민 흥정이네 새 간 디도 싯곡 아이 간 디 시민 글로 물 앓앙이네 아이고 집 이는 사름 잘못해부난 오곳 지붕엔 흥져네 물 샘엄젠 허메. 게난 우리 친정 아버진 이런 거 줄도 농곡 이런 호레기도 싯곡 뒤치기, 뒤치는 것도 잇곡 허민 그거 나 줍센 헤여근에 이제 가을 들영 봄 나가민이 그거 노래 막 맞춰. 하르방덜 맞추곡 딱시 지붕 일때도 우리 오레비 일름 거널으멍 아이고 가네 아방 빌어사 지붕 골지지 안허주, 아이고 다른 빌지 못허난 에 허엿당 골져 불언 스뭇 그 어른 오랑은에 그 골진 디도 문 손 봐줍센 헤사켜 행 우리 아버진 늣도록 헤라, 늣도록.

108032 @ 잘헤낫구나예?

108032 # 손매가 좋아. 경행 또 젊은 사름덜 아들 풀젠 허민 신이 엇어지. 신이 엇으믄이 나룩짹 소들개 빵, 소들개 빵이네 이제 치깃물 들영, 그때 치깃물 들영이네 이제 들르민 나룩 소들기 그 말뚝으로 영 빵이네 이 나룩 꺾땡이 부떠난 거 안 들게시리 요 새에만 허영 치깃물 들영이네 들르민 이젠 하르방이 이젠 다리 영 걷

어근에 그 그걸 이제 영 허게 때왕 툅허게 놓민 요초록 코거리 웨게시리 툅 허게 멘들왕 툅 놓곡 툅 놓민 신 혼 베가 멧 개민 그거 이제 신 삼을 때 그 코거리 낵이 네 이레도 놓곡 이레도 낵곡 행 삼아낵이네 말젠 그 콜 이제 다 끼왕이네 다 잡아 다니든 곱딱한 노랑한 치깃물 들은 초신. 경 새각시덜 창신 못헤 준 집인이 아이고 어떻헛네깁? 아즈방 새각시에 허젠 허난 돈 엇영 못허곡 헤여줍서, 헤여줍서 허민 허여. 이디 우리 쁘당 삼촌네도 아덜 성제 쌍둥이 꼭는다 다 그 초신으로 새각시 주더라. 초신 삼앙.

108032 @ 아버지가 다 헤썬 경헛?

108032 # 아버지가 선사로 곱게 헤썬.

108032 @ 게민 그 줄 허당 남은 그 집줄 허당 남은 거 썬른 거 처음부터 썬라불 지 안헛 나뵤당 썬르지예?

108032 # 나뵤당은에 툅 자민 지봉에 툅 자민 이젠 또 잡아헛기멍 다 무꺼. 무경이네 그 썬라멘디서 요만썬만 낵기영 몰썬 그쳐. 그치민 그 썬거리, 그 썬거리이 또 부억에 앓는 썬방썬 멘들어. 방썬, 영 동글락허게 멘들어 낵 그걸로 영 감곡 영 감곡 허민 정제 부인들 앓앙이네 낵앙 앓는 썬방썬. 그 일름은 썬방썬.

108032 @ 아, 썬방썬.

108032 # 거 아무도 못헤여. 우리 아부지가 선수로.

108032 @ 잘 허는 사름이 헤사주?

108032 # 방썬도 곱딱, 그런 걸로 멘들민 아이고 아즈방 그거 허건 방썬 멧 개 멘들아뵤 갱서 허민 에에, 실폰디 손도 아프곡 실폰디, 아이고 어떻헛니까? 어떻헛니까? 헤연. 이젠 낵 방썬이여, 고무 방썬이여 벨 거 다 썬주만은.

108032 @플라스틱으로예

108032 # 응.

연장

108034 @ 집 지을 때 연장 ㄱ튼 거 있어야 됩니까. 툅이영 뵤영 이런 거예?

108034 # 게 툅이영, 자귀영 이제 그 못 엇영 그뵤 곱기 딸라근에 그레 드물뵤 멘들앗주게. 옛날엔. 뵤으로 안 박앙. 그추룩 허민 그런 꼴이영 곱기 딸르는 꼴도 서사 낵 그치멍 꼴도 서사.

108034 @ 툅도 종류가 여러 갱가?

108034 # 게, 줌진툅이영 훗은툅이영. 밧뵤 강은에 허는 건 훗은툅이고 존툅 헤영은에, 이 창살도 다 툅으로 옛날엔 이제 기계로 헤도 다 손으로 창살 멘들앙이네 저거 ㄱ늘이 만들영 문딱 헤영 창살 멘들엔. 옛날 창은 스뵤 뵤지룅케이. 기추룩. 그런 건 목시가 헤 목시.

108035 @ 목시가예.

108035 # 문차는 목시.

108035 @ 못 영 박은 거 빼는 것도 따로 잇수과?

108035 # 펜치.

108035 @ 펜치로 빼? 아니 왜 이렇게 돼 잇는 저 망치 가튼 거 뒤에 이렇게 허민 영 돼는 거 잇수게?

108035 # 게 그런 걸로도 빼곡. 그 집이 그런 거 다 귀긱추느냐? 목시네 집엔 다 귀긱추주만은. 못 들민 요거 속 허영 빠는 것도 잇곡. 옛은 사람들은 그 못이 잘못 돼영은에 오꼳 꺼꺨지나 어떻허든 그걸 빠똥 허젠 허민 펜치 늬의 집에 강 빌어당 그거 떼우멍 빵이네 하고 기추룩. 집집마다 그런 기구가 옛날엔 없어.

108035 @엇어예.

108035 # 응, 우리 아버지 귀긱앙 스뭇 아이고 야 니네 아버지 시냐? 엇수다. 야 엇은디 니네 아버지 연장 그 논 디 강은에 그 펜치 흐쫘 빌어다도라, 앓아도라, 앓아도라. 앓아나민 아버지 오민 옥 허민 난 몰라 몰라. 아이고 나 오기 전이 곱으켜 곱으켜.

108036 @ 그 목시들이 허는 거주마는 나무 영 멘썩허게 하젠 하민 미는 거 잇수게.

108036 # 대패.

108036 @ 대패예? 그것도 목시네 집에만 이신 거?

108037 # 게 목시네 집에만 이서. 우리 아버지네 집인 대패도 잇곡, 끌도 잇곡 다 귀긱아.

108037 @ 이서난? 응. 자도 여러 종류가 이신가? 자, 잣대?

108037 # 자? 게 잣대 여러 종류.

108037 @ 영 기억 자로 된 것도 이신가?

108037 # 기억자로 현 것도 잇곡 기냥 영 조근조근 잇당 싹 풀민 질게 돼는 것도 잇곡. 그건 말짜라 가난 일본시대에이 지러기 요만한 허연 막 개어정이네 질게 재젠허민 싹 풀민 저꺨지 강 채곡. 옛날에 그거 아니난 땀이 옛날에 우리 삼촌네가 다 일본 살안, 저 외삼촌네가. 일본 사난에 그 우리 아버지가 소소현 이 썩막 ㄱ튼 걸 지스레 텅기난에 흐 번 오랑보난에 그 곱은자가 잇주게, 곱은자로 영 재영 가곡 허여가민 큰 건 영 찻다 영 찻단 막 헤난에 아이고 형님 나 이번에 강 일본엔양 싹 페우민 이꺨지 큰 자가 잇곡 딱시 요 정도 돼는 자가 잇수다. 하나 상 보내쿠텐 허민이 우리 말썬 삼촌이 그거 두 개 상 보내여. 영 페우민 이꺨지 오는 자가 잇곡 요만한 자가 잇곡. 곱은잔 제우 요디서 요만은 행 영 곱은자는 딱시 채곡 딱시 채곡 허니 이 널판이 싹 페왕이네 재렌.

108038 @ 이것도 목시들 허는 건데 떡통하고 떡줄 이런 거 잇수게? 어떻 허는 거짜?

108038 # 떡통은이, 떡통이엔 현 건이 낭으로 이것이 낭이난 이레 홈 파지? 홈 팡이네 떡 곱앙이네 숨놔. 숨.

108038 @ 숨이 뭐?

108038 # 소게, 소게.

108038 @ 아 소개.

108038 # 소개 놓민 요기 고냥 딸라이. 고냥 딸르민 그 실은 딱시 이디 실감는 것 이서. 실 감는 거 시민 이레 먹물 낱이네 그 소개에 막 허민 그 실을 이레 빠멍 먹물을 막 들여, 시커멓게.

108038 @ 응.

108038 # 들영이네 이 감아가민 요건 콩지 싯당 감아오랑 문 감아지민 헛당은에 무시거 영 줄 발리젠 허민 이거 저레 강은에 박으렌 혜영 요레 강 박으민 차르르륵 허게 이디 오랑 이건 그냥 농곡 이것이 그 사름 꺾어당 경허민 가운데로 탁 허민 먹물 착허게 그릇이 굿어져.

108038 @ 아.

108038 # 실을, 실을 탁허민 짝 그릇 굿어져.

108038 @ 어. 그거 먹통이엔 곱아?

108038 # 게 이게 담는 것이 먹통, 이디 흙 팡 낭 이 정도허게, 이 정도허게 이디 흙 팡 이레 숨을 농곡 먹 근 거 놔. 놓민 이딘 고냥 딸랑이네 무신 거 요런 거 덩겨, 못이나 하나 등기곡 이딘 딱시 감는 것이 이서. 감앗다 풀엇다 이젠 딱시 머리에 실 감는 거 이디 안에.

108038 @ 아.

108038 # 이거 저레 강은에 발류라 행 죽허게 발리민 어느 정도 허민 하르방이 가운데로 강 탁 허민 그릇 탁 굿어져.

108038 @ 이 실은 무신 거엔 곱아?

108038 # 그냥 먹술 아니냐 먹술.

108038 @ 먹술?

108038 # 응 먹술. 게난 먹 부쩍에 허난게. 먹술. 먹통 으정 오렌 허곡. 그 먹통 으정 오라 이거 발류사켜, 먹통 으저당 짝 발류민

108039 @ 흑질할 때 할머니 손으로 허여? 무신 거. 영.

108039 # 손으로게. 그냥. 헉 꺾어근에 손으로 영영.

108039 @ 손으로 영영 헤? 나중에 뭐 영 허는 거.

108039 # 없어.

108039 @ 목시들은 무신 뭐 낭으로 헨 거 멘짜허게 허는 거 잇수게.

108039 # 엇어. 그건 말자라 가난. 새 세상 나가난에. 저 두 불 도비 헐 때 두불 도비할 땐 초벌 도비헐 땐 그순새영 보릿대영 낱이네 막 허지. 갱 두 불 도비 헐 땐 고스락만.

108039 @ 응.

108039 # 굿은 거 엇이 병텅이 엇이 그스락 청이네 혁만 부청 막 반죽 곤솔 반죽 허듯이 막헌 이상엔 요만씩 요거만씩 으저당은에 그릇더레 놓민 하르방들은 요만씩 혜영 짹짹 불랑 다 이디 블라지민 손으로 영 영 허면 판씩 뒤어.

108039 @ 옛날엔 다 손으로예?

108039 # 손으로 으정 영 혜영 영허믄 축브름 경허민 이젠 그 문 혼 착 요딘 다
블라지민 물 툯 적저근에 우로 삭삭삭삭 허민 문짜헤져. 경 행 그 혁 물르민 어디
똥종이 사당 블르곡 엇은 집엔 아이덜이 글 써난 거 데작데작 블르곡.

108039 @ 데작데작 블르고.

9. 신앙

109001 @ 집에 무사 조왕에도 신 잇고, 문전에도 신 잇고 영허텐 헉니께. 집에
여기 집에 신이 이신가?

109002 # 아니 그거 먹는 집이도 잇곡 안 먹는 집이도 이서.

109002 @ 대정골쪽은?

109002 # 대정골은 잘 아이 모사. 저 동드렌 그거 막 모사근에. 딸도 동드레 시
집 아이 보내젠 허곡 동이 새각시 허여 오젠도 아이 허곡. 이젠 동이 새각시도 오
곡.

109005 @ 이젠 그런 거 안 허니까.

109005 # 이젠 경 안허난이. 그거 막 동이 새각시 허여 오민 막 무섭게 생각해
여. 잘못허민이 오꼳 척허여 불곡.

109005 @ 척허는 게 뭐?

109005 # 게 아팠. 정성 안 들이민.

109005 @ 경해도 집 지스민 성주는 느려옵니께예?

109002 # 게 성주허주게.

109002 @ 성주 어떻행 허는 거파?

109002 # 성주 어떻헤게. 집 지스민 이제 심방 돌아당 성주허젠 허민 성주 굿허
주게. 경허민 목시 강은에 불러당은에 집 짓는 녀으로 강태공 서목장아 어디 강 죽
엇저 살앗저 허멍 신방이 막 허영 ‘강태공 서목시’ 헤도 대답을 안헤여. 대답을 안
허면 혼 서너 번 아이고 어디 강 죽엇인ㄴ라 소식도 엇다 심방이 드러 주죽 거리당
이 딱시 ‘강태공 서목시’ 허민 흐꼬만허게 ‘예’ 허민 아이고 어디 먼 디서 소리난디
기산디 아이산디 모르켜 입으로 심방이 요런 대문 발라 상 헤여. 게민 그디 이거
두둔 사름들이 아이고 혼 번 더 크게나 불러봍서게 저 소리가 어떻 잘 아이 들렘사
험신디 크게 불러봍서 허민 딱시 힘내영 하는 듯이난이 ‘강태공 서목시’ 허민 또 무
신거엔 절로 이디 서두서 ‘예’ 하민 아이고 아이고 우리도 들어점 땐 아이고 살앗수
다, 살앗수다 또 불름생 행 막 불러가민 아이고 살앗구나 크게 그 사름이 ‘예’허고
오랑 마당에 오랑 그 멩탱이 둘러메곡 도치 들른냥 마당에서 한참 춤춰. 춤추당은
에 이젠 들어오렌 허민 강태공 서목시 걸리렌 헤여 그 이제 광목 무시걸로 허영이
‘강태공 서목시’허멍 요 신 벗는 디 오민 탁 걸령이네 탁 잡아댕기민 마리레 탁 걸
려근에 아이고 죽엇인가 살아신가 허단보난 살앗구넨 허멍이 기추룩 헤여 신방 말

로.

109002 @ 응.

109002 # 강태공 서목시 호는 사름 막 우습게시리 소리도 좋곡 혜사허여. 그거 울 아부지 허레 텅기메. 큰 심방 동네에 ㅋ시허젠 허민 아이고 저 보성이 이제 저 누게네 저 누님 서방 우리 삼촌의 선생이난 이 선생 누님 서방 그런거 막 잘헌덴 허메. 저 인성서만 오랑 빌어간다.

109002 @ 걁 무신 거 영 올리지 안허여?

109002 # 무사 올리주게.

109002 @ 어떻 행 허여?

109002 # 꿩풍 청이네 막 ㄱ 허는 거 떡 같은 것도 올리고게.

109002 @ 아니 지붕에 무신 거 올려야 돼네?

109002 # 지붕인 아니 올려. 아니 올령 강태공 서목시 허영은에 ㄱ ㅁ칠 때사 그 걸명 허영 제사 때 걸명 허영 강태공 영 불러 오민 집을 어떻게 짓어지자 허민 이제 바닥에 집 짓는 녀식으로 그 심방 칼로 다 그디서 뭐 삼간이여 이간이여 뫼이영 허명 이젠 요런 쉼 영냥 아고아고 이제 상머리가 흥글흥글햅저, 뫼햅저 심방은 헤여가민 아유 강태공 서목시가 어뜨난 잘못 허당 혼 잔 먹언에 손 털엄시냐, 뫼햅시냐

109002 @ 하하하.

109002 # 막 구정거려. 심방이 구정거리민 아니 술이 나뻐산디 혼 잔 더 드령이네 정신 출리렌 허렌. 이거 두드는 어른은 큰심방으로 굴으민 혼 잔 이거 더 먹영 정신 출령은에 잘허렌이 집을 잘 지스렌 허민 먹는 체헤여. 이젠 그 집 짓는 너드레 허주게. 경허민 그 사발에 상머리 걸치는 거, 도리 걸치는 거 그 큰 다라에 낭으로 댓가지로 허영이네 딱시 저 상머리레 올라감젠 허명 무시거 영행 잡아땡경 떡 걸어. 떡 걸영 올라강 아이고 잘 뫼엄젠 허명 딱시 앓은 심방 북 두는 심방들 아이고 목시가 여간 아니 춤말로 야속한 어른이난 아이고 집도 곱게 잘도 올라감젠 헤영 집 그 상모리 탁 올라가민 그 하르방이 이제 발리주게. 그디 발리민 원 잣대 노나 아녀나 눈이 좋아 불써 착 허게 상머리 잘 올라갓젠 경행 이젠 입성게로 허여. 입성게로 그 심방들이.

109002 @ 그 뭐는? 득 득 머리 잘르곡 영허메? 그건 어떻게는 거?

109002 # 득 머리 쫄랑이네게 대가리 저 던지고게. 그런거 막 한다. 이 가을 들민 ㅋ시허는 디마다 강이네. 우린 아부지 가지 말렌 막 허여도 그 사름덜 오랑 빌어가민 흘 수 옅이.

109003 @ 문전젠 지냅니께예?

109003 # 응?

109003 @ 문전 제사는 지냅니께. 제사할 때 문전제 허듯이

109003 # 게.

109003 @ 그 집에서 명절 안 허는 사름도 집에서 문전은 헉니께.

109003 # 게, 문전 이녀집이 이 집 짓을 때 성주혜나부난, 성주혜나부난 제스 다른 애기덜 물러가도 아적이 팔월애나 두 번 두 번. 옛날엔 서너 번 헤낫저만은 요즘은 아덜네 다른 디 집 짓영 강 다 물러가민 문전제나 어멍네가 살아도 무시거 늘레 난 거 국 끌리곡 출리지 안헤여. 밥 메나 하곡 허영 지주 혼 잔 허곡 올련에 문전제 헤뵤 아기네 집에 멩질 먹으레 가. 나도 경한다. 나도 팔월에 기자 이디서 밥 허곡 그자 아이덜 퀘기덜 사 온 거 시민 국 혼 적 끌령. 우리 하르방넨 술을 아이 먹는 따문 술은 아니 올러. 게민 기자 팔월에 그자 감주 허엿당 혼 잔 올령 그 감주레 무시거 허영 걸멩허영. 게난 나 올히 하르방 식계에 감주 아니 헤다 주켜. 그디 어멍 죽영 고치 상에 올림시네. 큰어멍 죽영.

109004 @ 조왕은 이제 안허지예?

109004 # 조왕은 아니허여.

109005 @ 칠성도 안허곡예?

109005 # 칠성은, 시는 집은 칠성 현다.

109005 @ 아 이디도 험니까? 동드레만 허는 게 아니곡?

109005 # 이디도 시는 집 서. 우리 친정엔 칠성도 엇어. 우리 저 큰꼈 어멍네 할망네 집에도 칠성 엇어라. 어쁜 집이 칠성도 싯곡 안팡에도 허곡 헤여.

109005 @ 안칠성? 응. 할머니도 가낫수과?

109005 # 그건 양팡더레 차롱에 허영 올리곡이.

109005 @ 고팡애?

109005 # 고팡애.

109005 @ 고팡이영 양팡이영 똑 ㄱ튼거?

109005 # 응, 고팡에게 곡석 농곡 향아리 낱이네 옛날엔. 쓸 놓는 디.

109005 @ 그디레 헤? 갈 때 무신거 행 가?

109005 # 그디도 허곡 조왕에도 허곡. 문전에도 허곡 경허여. 경해도 우리 친정에 어머니 산 때 보민 문전에만 허연게 나도. 나 이젠 그디 큰어멍이 ㄱ치 하르방이영 죽언에 상에 팔월 명절이곡 정월 명절이곡 허는 따문에 나 문전제 안헤. 들어내여불언에. 난 이제 믿어불카 허멘.

10. 세시풍속

정월

110001 @ 정월에는 정월 멩질 허주예. 처음에예?

110001 # 응.

110001 @ 정월 멩질은 어떻게 허는 거?

110001 # 정월 멩질은 어떻게 헤사.

110001 @ 언제 허는 거?

110001 # 정월 멧질은 정월 초하루날 허는 거 아니?
110001 @ 응. 옛날엔 그냥 음력으로 안 행 양력으로도 헤나서예?
110001 # 아니. 양력으로 안연. 음력으로만 항상.
110001 @ 음력으로만 항상.
110001 # 응. 옛날엔 정월 멧질도 허곡, 오월 단오 멧질도 허곡.
110001 @ 한식도 허고예. 팔월 멧질허고예. 네 번 헤낫지예. 정월 멧질 허는 건.
110001 # 응 덕수선 오월 멧질 헤낫저. 나 간 때까지도. 다른 디덜은 오월 멧질은 안 현다. 오월에 멧질 허당이네 보리 비여근에 비 오라가민 멧질덜 허는 집은 제 허곡, 안 현 딴 보리 빈 걸 무끄렌덜 스몹 들고. 난리가 나곡헤낫주.
110001 @ 할머니네 옛날에는. 옛날에 어렸을 때는?
110001 # 우리 집 대정고을엔 오월 멧질 허는 사름 엇어. 덕수 강 보난 오월 멧질들 햄서라.
110001 @ 햄십디가?
110001 # 응.
110001 @ 정월 멧질날은 무신거 험니까? 아침에 일어나민.
110001 # 아직 일어나민.
110001 @ 멧질 출리젠 허민.
110001 # 멧질 출리젠 허민.
110001 @ 아니 전날.
110001 # 전 날 다 멧질 헐 거.
110001 @ 떡 헐 거 다 예.
110001 # 다 헤영이네 다 차룽에 헤영이네. 멧질 지넬 방더레 어디다 다 놔두주게. 짓갈이니 떡이니 범세거 멧질 놀멍 헐 집은 따시 채소 곱든 거 아직이사 또 허곡. 흐쓸 인척 허는 집은 저녁에 다 채소 곱든 거 고사리여 이제 콩노물이며 저녁에 삶아 낫당 맞청 놔두곡.
110001 @ 정월 멧질 허젠 허민 준비허젠 허민 막 힘들켜예?
110001 # 응?
110001 @ 며칠 전이 준비해야 돼네예. 그믐 힘들쨌다고.
110001 # 계. 이 저 덕수 가난에 오월 멧질덜 헤라. 이 대정골은 오월 멧질 우리 어린 때 허는 사름은.
110001 @ 엇어예?
110001 # 보지 못헨. 우리 외가에 고침이도 막 방답 때령 하도 허는 거 엇고. 송침이도 허는 거 엇고.
110001 @ 멧질은 멧 밧되나 행. 할머니 어렸을 때 이디 대정골 살 때.
110001 # 대정골 살 때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만 혼자 오난 우리.
110001 @ 혼자만?
110001 # 멧질 허연 먹으민 외가에 가시네계. 이 침이 가민이 저물야. 종손침이

떡젠 허민 저물야. 막 하. 갱 중손 칩이 이 칩의 중손 칩이 가민이 절벤 솔벤 허영이. 절벤이 동글락 떡 하나 헤영이 옛 무청도 줄벤 우터레 툽툽 농민이 하르방덜신 딘 그거 주어. 아이덜토 안 주곡 여자 어른덜토 안 쥐. 그 옆쪽베피 낱 안 쥐. 경허민 하르방 얼굴에 헤뜩헤뜩 바리민 할르방 아이 먹언 고개 고딱고딱 나 딱라오라 강 아저가.

110001 @ 세배도 드립니까. 과세 헌덴 허여?

110001 # 응. 아니 서배엔 헤서. 옛날.

110001 @ 서배예.

110001 # 영 이젠 신식으로 과세엔 허주. 다 절허여. 경해도 옛날은 세뱃돈 주도 안 허여.

110001 @ 세뱃돈 아니면 뭐 동고리라도 하나씩 테와?

110001 # 아무 것도 안 테와 옛날엔. 우리 클 때엔 돈 테우는 거 엇어서. 우리 옥은 후제 다 돈덜 테왔주.

110001 @ 할머니 옛날에 어렸을 때 세뱃돈 받아난 기억 있어?

110001 # 엇어.

110001 @ 엇어예. 그믐 세배허레 이디 저디 다 다닙니까. 나이 든 분들 잇이민.

110001 # 다 절만 허영 나오주. 경허민 그 집이 켜당네 집이 강 절허민 멩질 넘어난 거 적꼬지에 떡이영 궤기영 궤영주민 영 들렁 집이 오민 허여도.

110001 @ 아, 그거 들렁 와?

110001 # 응. 집이 으져나뵤 또 다른 집이 절허레덜 막 여러이 그자 사촌들이영이 패짓영 텅기민 다 이치룩 허연. 또 이제 소상허는 디 가민 아이덜은 궤깃반 환장해. 옛날에 어떠난이. 돼야지가 귀하덴 행 헤끔씩 주곡. 어른덜은 하영 주민 하르방네가 먹지 아녕 적꼬지에 궤영 집에 으정강 먹으렌 허민 적고지에 궤영 손에 강 적행 오단 보민 가메기 오란 확 떼영 돌아나불곡.

110001 @ 아이고 죽헌 거.

110001 # 게민이 드러 울곡이. 소레기 놉덜도 어떻산디, 그 팔월 멩질에나 송악 새나 거 똥소레기가 그렇게 텅겨. 가메기영. 가메기 못 보당도 그걸 곱정 오주만은 영 적고지에 궤영 영 들렁 오단보민 확 허게시리.

110001 @ 아이 안 다침도 다행인게예.

110001 # 그치룩 허연. 오죽 옛날에사 궤기도 귀허곡 그런 것도 귀헤시냐게. 이젠 스뭇 궤기 지체 못헤영 쥐도 안 떡곡.

110001 @ 쥐도 안 먹어 이젠. 맛 엇덴예. 정월 멩질에 특별히 먹는 음식 이신가?

110001 # 특별히 먹는 음식은 엇어.

110001 @ 이제는 막 떡국도 행 먹고 험니까예? 옛날엔.

110001 # 이젠 떡국도 헤영이네 멩질에도 떡국에도 올리는 사람 서도 우리 집인.

110001 @ 떡국 안 올려?

110001 # 안 올려. 떡국 아니 헤여.

110001 @ 저 어디 동더레는 떡국 멩질 행은에 험디다.
110001 # 우리 저 외가에 이 칩이도 막 방답 하영 헨에 저물도록 험도 떡국 안
허여. 멩질만 허지.
110001 @ 멩질헨 때 그른 무신 거 무신 거 올려?
110001 # 게. 떡도 그 자 다 전이 멩젤 허듯이 경허여. 정월 멩질엔 떡국 아니험.
110001 @ 떡국 안 험? 떡허고 적갈허고 채소허고.
110001 # 게. 지지미 ㄱ튼 거 다 험.
110001 @ 지지미 ㄱ튼 거 허고 밥 허고 국 허고예?
110001 # 응.
110002 @ 정월 대보름은?
110002 # 대보름은 뭐 이 무시거 신 집이나 허주. 옛인 집은 그런 거 허지 안 험
여. 대보름도.
110002 @ 달 뜯니께. 보름달 뜨민 뭐.
110002 # 안 험여.
110002 @ 안 험여?
110002 # 안 헨 사름이 하.
110003 @ 뭐 방사험으로 뭐 허진 안 허여?
110003 # 장사 허는 집이나 또 뭐 허는 집인 그거 대보름 어느 제 허젠 허는 거
답덴헨이네 험여도 보통으론 허는 집 엇어.
110002 @ 이젠 막 무사 오곡밥 헨 먹은다 무신 뭐.
110002 # 대보름에 오곡밥은 집이서 그자 허영 먹으민 허여도. 어디 위허지는 안
허여.
110002 @ 위허지는 안 허여예?
110003 @ 뭐 무신거 딱딱헌 거 씹어 먹으민 뭐 허물 안 난덴 허곡 허는 거.
110003 # 그런 것도 안 허여. 이젠 이 신식으로 미신을 이젠 잘 허질 아녀.
110003 @ 무신 하늘 애기치록 방시허는 걸로 액막이 허는 걸로 허는 거 이수과?
110003 # 그런 건 집안이 흥쓸 곳으민 나그네 돌아당 액막인 험도 그런 방법 허
는 건 엇어.
110003 @ 방법 허는 건 엇어?
110003 # 응. 나그네 돌아당.
110003 @ 나그네가 누께?
110003 # 심방 허는 사람.
110003 @ 심방 허는 사람이 나그네?
110003 # 그것 ㄱ라 나그네엔 험여.
110003 @ 무사 나그네?
110003 # 몰라.
110003 @ 남자?

110003 # 남자고 여자고 나그네 온 거 다투아라 그 집이. 경허여.
110003 @ 심방을 나그네엔 골아?
110003 # 응.
110003 @ 정월에 액막이 허는 걸로 허는 건 엇어?
110003 # 응 경허는 집이서 흐설 좇겨가민 아이고 정월에 그 집이 나그네 온 거 다투아라 드러 좇기는 게 그계.
110004 @ 정월에 무사 마을제 지내고 험니까?
110004 # 마을젠 므을 사름덜이 그 회관에서 문 허곡. 상례 땡기는 사름덜은 상례 강 혼 일주일 그기서 살명.
110004 @ 상례가 어디?
110004 # 큰 이제.
110004 @ 아, 향교, 상교.
110004 # 응, 단산 앞이. 그 디 강이네 각 처에이 남군에 사람은 그 상례에덜 물관 쓰곡덜 큰 옷 도복덜 입곡 영 허민. 혼 일주일 그디서 문여자덜신디 조엽 안 허게 시리 방에 눕져. 눕것 당이네 그디 지크는 사름이 돛도 잡고 쉼도 잡곡 허영 그제 지내나민. 그디서 마냥 먹고 제관덜 쉼고기여 뉘야지 퀘기여 다 거기서 큰 제관은 퀘기 흐설 크게 얻고 크게 주곡. 또 그 하가지덜은 퀘기 보통으로 흐꿈씩 주고 경행덜 퀘기 으정오고 헤여.
110004 @ 물관은 어떤 거? 물관이 뭐? 물관이. 머리에 쓰는 거?
110004 # 응. 말관. 이만헌 걸로 허영 말관 썩.
110004 @ 말관?
110004 # 그디도 큰 어른덜이 도복입곡 그것 허주. 매 사람이 그것 입영 절허지 아녀. 덕순 므을제도 헤여났저. 이젠 헤염신디 말암신디. 므을제 허민 그 므을에 장계 간 사름, 그 해에 장계 간 사름 그 므을제 허는디 일주일을 각시신디 못 가게 헤. 그 해에 장계 간 사름이 일주일 각시신디 못 가게 헤영은에 그 토젯단이엔 헌디 있어. 덕수. 토젯단에서 그디서 살아.
110004 @ 이디 인성린 엇어? 인성리 포젯단 엇어?
110004 # 옛날에 잇어나도 우리 어릴 때 흐꿈 잇어나도 덕수추록 열심히 안 헤. 우리 덕수간에 살도록도 장계간 사름덜이 우리 아방도 그디 간에 일주일을 살안. 니 바글바글 옷에 일민 먼 발로 강이네 옷 들이치민 옷 입영이네 옷 벗은 것 딱시 던지고. 게민 기린 사름 본댕헤영 일주일 그디서 살렌 헤. 게난 덕수 젊은 사름덜 막 얌전헤라게. 그뎨이. 저엽이 엇영이. 췌 장계 간 사름덜 각시영 뉘 자젠허젠 허민 일주일 그디 살민 어떤 사름은 몰르게 곱양이네 각시신디 오랑가젠 그 올레도 안 열양 담 넘영오단 그디 지키는 사름 걸령 난리가 낭이네 제도 못 말게 허곡 욱 얻어 먹고. 경허더라.
110005 @ 안택허는 것도 험니까?
110005 # 응?

110005 @ 안택.

110005 # 안택이엔 현 건 집이서 허는 사름덜 우리 대정골은 그런 거 있어.

110005 @ 엇어예.

110005 # 응.

110006 @ 정월에 보리밭도 블라?

110006 # 보리밭도 이 대정골엔 안 해.

110006 @ 보리밭 블르는 것도 안 해도 돼어?

110006 # 응. 옛날에 제국시절에 일본 시대에 보리 갈민 보리덜 블르렌 헤영 학생덜 밧디 강 두루 블라났저. 이젠 보리밭 안 블라. 제국시절에 학교 강이네 시간에 보리밭 블르렌 허민 블람신디 말암신디 밧디 담아들영이네 우릉당 우릉당 허당덜 그냥 오곡했저.

110006 @ 그거 무사 블르는 거?

110006 # 돈돈허영 땅 돈돈허영이네 보리 여물렌 허는 거주게. 막 겨울에 눈 오랑 고사부난에 보리 여물지 안 헌덴 헤 블르곡. 그 때 일본 시대에 블르렌 헤서. 고지줄 잡앙 블르렌 허곡 경 아니른 학생덜 제멋대로 블르민 이리 와릉 저리 와릉 돌아댕기멍 블리는 체만 허곡. 야속헌 선생은 가민 학생덜 다 혼 고지씩 상 조근조근 블르렌 허곡 쟁 아녕 선생은 마음대로 허렌허든 그자 뭉 돌아댕기듯 돌아댕기당이네.

110007 @ 걸궁도 헤나수과?

110007 # 걸궁은 헤났저.

110007 @ 걸궁은 어떻게 허는 것과?

110007 # 걸궁은 막을에 사름덜 문딱 스뭇 다 걸궁 모저 멘들앙 문 이디 꽃 달리고 북 두드는 사름 대양 두드는 사름 걸이 빙빙 돌멍 당당 허영 그 집이 강은에 그 마당에 강 돌아가민 술도 주곡. 돈도 그 받는 사름 있어. 받는 사름덜도 돈도 구리전 멧 개 던지곡 허민 잘 때렁 들어 허곡. 우리 어릴 때 경허민 그 사름 들랑덜 스뭇 이 인성이고 안성이고 밤 새낭 ㅁ치 돌단 집이 오주게. 구경허곡.

110007 @ 아이들. 건. 무사 허는 거?

110007 # 몰라. 뭇사산디. 이젠 걸궁도 안 허곡. 아무것도 안 허곡 흑교 아이덜도 자유로 기자이 훈련도 안 시키곡이. 아이고 그 뻔 위험헤났어. 아이고 선생덜이 왜 독허는디이 이젠 선생 독헌 거 써 먹지 못 헤어.

110008 @ 자, 이젠 경찰이 다 잡아가. 입춘에는 뭐 헤?

110008 # 입춘이엔 현 건 새해 셋날 들으민 글 썩 대문이고 올렛문이고 입춘이엔 현 거 딱 딱 부껴나서.

110008 @ 입춘 뭇엔 새철 드는 날이엔 곱아?

110008 # 응 새철 들게 돼민 글 썩 낫당 새철 드는 날 아제기 새벽이 올레 문 사름은 올레 대문이영 말이 대문들 허영이네 그거 한글로 너베기 이만씩 허게시리 너베기 허영 글썩 딱 딱 부천.

110008 @ 새철 드는 날은 놈의 집이 안 가는 건가?

110008 # 계. 안 간덴 헤여. 여저 경허난 그거 아무 집이나 허지 안 헨덴 헤라. 경해도이 공부 꽤나 헨 집이 사름덜은 그런거 딱딱 공부 꽤나 헨 사름덜.

110008 @ 옛날도 그런 거 헤나수과?

110008 # 응.

110008 @ 어렸을 때도?

110008 # 우리 어릴 땐 스뭇 그런 집 하. 우리 외삼촌에도 다 스뭇 옛날 옷 대부분 경 글덜 좋고 선생덜 허는다. 미룻 썩이네 오란 아덜덜이 하르방네 집이 딱 딱 부치곡. 우리 외삼촌네가 다 선생.

110001 @ 정월 초하룻날은 무시거 허민 안 된다 이런 거 엇어?

110001 # 그런 거 헨덴 행 못 헨다 정월 초하룻날 멩질 행 먹영 그자 놈이나베 피. 허는 거 엇어. 우리 어린 땐 정월 초하룻날 멩질 끝나민 그자 돌아테니멍 놀젠 만 허엿주.

110001 @ 선들 그믐날 즘자민 눈썹 흰다 영허는 건?

110001 # 선들 그믐날 이래 정월에 나민 옷 헤영 입젠헤영 늙은 어른덜 옷 기지 엇으민이 미녕 검정 물들영 저고리께나 허곡 미녕으로 보선 양말이 어디시니. 보선 멘들곡 경허민 어멍은 스뭇 밤 새낭 그거 정 행 허민 스뭇 그 옷 허민 입어보젠 오 득하게 앓앙이네 녁 자민 눈썹 흰다해도 녁 자민 눈썹도 안 희여.

110001 @ 어멍 옷 허는 거 보젠 녁 자지 말젠 허는 거라?

110001 # 몰라산디 녁 자민 눈썹 흰덴 허영이네 녁 자도 눈썹 힘이랑 마랑.

110001 @ 힘이랑 마랑?

110001 # 경해도 머리 질황이네 붉은 텡긴 곱닥허게 붉은 텡기 멩지에 물들영 텡긴 헤주더라.

110001 @ 설날 새로 옷 행 입지멍.

110001 # 응 머리 땅 질게 행 머리 땅 텡기 돌렁.

2월

110009 @ 이디도 영등 험니까? 영등할망 허는 거.

110009 # 이디 대정은 안 허여. 날로 뵙이네 오늘 영등할망 드는 날이여 오는 날이여 경은 헤도 안 허여.

110009 @ 그때 무신거 허민 안 된다 허는 것도 엇어?

110009 # 엇어. 이제도록 살멍도 영등할망 허는 거 엇어라.

110009 @ 영등할망은 바당에 텡기는 사름덜 허는 거난?

110009 # 응. 바당에 텡기는 사름만

3월

110011 @ 삼월 때면 한식.

110011 # 옛날에 우리 어린 때 한식허는 거 아긴때 살 때 봐난에 세벽이 뵈당 보민 한식이엔 행이네 무시거 허는 거 봐났주. 역은 후젠 그거 이 제국시절 나난 다치와부난. 허지 아년. 제국시절에 뭐 일본더레 공출허렌 허영 뭐 밥을 줄바로 먹겠 굴어시냐. 양석 옛언 배고팡덜이 안덕 사름덜 이 대정 다 넘어오란 살아시네. 덕수 사름덜도 대정골 하영 오란 살아.

110012 @ 청명에는 뭐 헤?

110012 # 청명이엔 현 건 몰라. 청명이 뵈산디. 청명에도 뵈 안 여. 이 대정더렌. 청명이여 뵈이여 헤도 무시거 허지 안 허더라.

110001 @ 아까 할머니 정월에 무시거 현 덴 곶아신디?

110001 # 정월에. 정월들엔 어떤 집인 ㅋ시도 허곡 토신제도 허곡.

110001 @ 건 어떻 허는 거라?

110001 # ㅋ시엔 현 건 심방 돌아당 곳 허명 허는 거고. 토신제엔 현 건 밤이 제관 빌영 제 지낸 거라 토신제엔 허주. 토신에 축 고허곡덜.

110001 @ 집집마다 허는 것과 그건?

110001 # 허는 집이 싯곡 안 허는 집이 싯곡.

110001 @ 허는 집인.

4월

110013 @ 게민 이젠 사월달 뵈예. 사월 초파일.

110013 # 초파일도 절간에 가는 사름이 허주. 그냥 이 스가의 사름들은 뭐 안 혀. 초파일 뵈민 절간에 다 가.

110013 @ 할머니 절간에 안 다녀?

110013 # 절간에 죽장 뵈겨났주게.

110013 @ 게난 초파일 날엔 무신거 험니까? 가민.

110013 # 초파일날 절간에 강이네 불공허는 거주게. 불공허영 강이네 쓸 상 가곡. 촛대 사곡. 돈 강이네 부처님신디 올리곡. 쓸도 그 조끗디 강 놓곡 허영이네. 그 부처님신딘 흥쓸 돈 하영 올리곡. 갓다네 그자 요즘 돈으로 천 원 가치있게 그자 올령 그자 절만 허당이네 시간 뵈민 불공헤 가민 스님 곧는냥 들어 절만 절만 허당 그냥 문 허민 밥 먹영 오곡.

110013 @ 등 싸고 영은 안 헤?

110013 # 등은 싸주게. 등 쌀 때가 있어.

110013 @ 초파일날 허는 게 아니고?

110013 # 초파일날.

110013 @ 이젠 초파일날 허는다.

110013 # 초파일날 등 싸. 아기 적시덜, 아덜 적시, 손지 적시 다 드랑드랑 싸. 경헌디 우리 아덜에 손지 지집아이가 소나이가 손지가 소나이가 울고 지집아이가 어린이집이 가난 보통 독헌 것이 아니라이.

110013 @ 응.

110013 # 그디 어린이집 못살게 굴언 그디 아이덜을. 그거 지네 흥칩이 종네기엔
굴아. 그것어. 아덜은 어진어진이. 딸은 지네 그 고모덜 닥양산디사 그렇게 독행이
네 어린이덜 못살게 구난. 어린이집을 시 밧디 웅겨. 그 선생 딱리민 그까짓신디 안
가켄 허멍이. 느시 안 가곡 안 가곡 허단보단 마지막은 강 보난 절간 믿는 집이라
라게. 그 선생이. 스님 각신디 누겐디 허난. 흘 수 엇이 그디 가난에 아기도 그디
절허렌 들어허곡 허난 아기가 어질언. 경허난에 나 해년마다 이디서 메누리 적시영
아덜네 적시영 등 싸단에 ‘야, 이제랑이네 니네 아기덜 돈이랑이네 보내라. 니네 아
기 돈으로 등 싸켜’ 허멍 허난 메누리가 ‘어머니 싸지맙써. 우리가 이디서 어머니
손지 스못 독헤노난 네 집이 허당보난에 스님네 아주망네 어린이집이 오난 등 이제
작년부터 씹수다.’ 어머니 이제랑 설러릅센 경허곤테 설러부런. 게난 아이 막 착현.
지집아이.

110013 @ 초과일 날 아기덜 머리 영 까까주곡 험니께? 건 무사 경 허는 거?

110013 # 게 좋으렌 까까주는 거주게. 초과일날 어린애들 문드락이 다 가까.

110013 @ 옛날부터 경 헛지예?

110013 # 옛날부터. 우리 어린 때부터.

110013 @ 여자 아이덜도 박박 밀언예?

110013 # 응. 어린 때.

110013 @ 어린 때.

110013 # 소나이덜이나 박박 까끄주. 지집아이덜은이 가끄지 안 헤라. 어린 때
우리 어린 때 준갑 땅이네 뒤엔 딱시 붉근 뎅기 들이곡

110013 @ 준갑은 여기 영 허는 거?

110013 # 준갑은 막 땅이네 또 이제 뒤에 땅 이제 뒤에 다민 뒤에렌 뎅기 들영이
네 놀멍 들러켜가민 뎅기가 폴짝폴짝 ㄴ치 놀곡.

110014 @ 뭐 사월에 입하, 소만 이런 거 잇인디 그런 때 무신거 허는 거 엇우
과?

110014 # 엇어. 이 대정골엔 경허는 건 엇어. 대정은 그렇게 깨끗허여. 동더렌 잘
도 하.

5월

110015 @ 오월달에는 단오 이신디. 대정골은 단오 안 헌덴 헛지예?

110015 # 단오 안 혀. 그 덕순 단오 허더라.

110015 @ 할머니 어렸을 때는.

110015 # 안 혀여. 대정골.

110015 @ 애기 땀?

110015 # 애기 때도 이 대정골엔 우리집 아닌 놈의 집도 다.

110015 @ 단오 허는 거 안 봐뵈?

110015 # 응 덕수 가난에 덕수서 단오 허는 출이 알았주.
110016 @ 하지. 낮이 제일 긴 하지 돼민 뭐 허는 거 엇어?
110016 # 엇어.

6월

110017 @ 유월에예. 유월에 득 잡아 먹는 날.
110017 # 유월 득 잡아 먹는 날은 대정골도 다 득은 잡아 먹어.
110017 @ 어떻 행은에 허는 것과?
110017 # 그자 득 서너 모리 잡앙들 죽 썰들 그자 득 잡앙 먹는 날이엔 아무 날은 득 잡앙 먹는 날이란 말 잘 들으라. 득들 잡앙 주켜.
110017 @ 득은 집이서 다 질르지예?
110017 # 아이고, 집이서 바글바들 질봐. 정월 빙에기 놀란 바글바글 질르곡. 늦은 빙에기 놀아가고. 맨 득.
110017 @ 정월 빙에긴 뭐? 정월에 난 거?
110017 # 응. 정월에 노란. 그것이 유월에 잡아먹기 좋주게. 훗어. 유월 빙에긴 줄앙 잡아먹지 못허곡. 갱 잡앙덜 말 잘 들으민 득 혼 마리씩 잡앙 주켄행 정월 빙에기 다 혼나씩 잡앙 쥐. 잡앙 숯앙 먹으렌. 혼 번에 먹지 아녀. 먹지 못 허여. 그 숯아난 물엔 또 죽 썰이네 먹고.
110017 @ 녹디? 녹두죽? 아니면 그냥 흰 죽?
110017 # 그냥 흰 죽 그자. 득 숯아난 물에 이젠이 득 숯으는디 녹디 낱이네 죽을 쑤민 그렇게 좋덴행 막 녹디 씻어나난이. 우리 밧딘 녹디가 간 거 아니. 작년에 갈다네 나가 아프난 녹디 잘 장만 아년 내부난. 그장 털어지고 데고 허연근에 마농 싱그레 박박 메어넌 던져된. 마농 뜰네가 싱거선게. 어떠난에 마농 내여네 비니루 견영 보난에 그디서 문든 것이 녹디가 하나씩 난. 나난 녹디 빼잉이네 굴갱이로 굵으카 허단네 나 녹디 마농 그르에 갈켄허난 ‘아이고 어머니 아광허멍 어떻 형 마농 그르에 녹디 갈앙 어떻 장만허쿠광?’ 허난네 ‘게메이’, ‘제발 치웁서. 먹은 성 버립니다’허난 아, 이젠 마농 메연네 이젠 그 마농 툃으멍 보난 녹디가 솟암서이. 그디 내부난 도난. 도난 썬 앗앙 그 밧 전시 나시민 저푸게 날 건디. 도 나난 잘도 아까 완이. 잘도 아까완에 영양제 아과도 가네 영양제 뜰 모르게 강 뿌렷주게. 뿌리난 다 글다글 좋안에. ‘어멍, 저 녹디 뿌련?’ 허난 ‘아니.’ ‘녹디 막 좋아선게. 좋으난에 우리 밧디 저 미짱 밧디 영양제 주단네 두 번이나 쥐수다.’ 경 허여. 게난 녹디 낱 하나 이만씩 벌개져. 게민 이젠 ‘녹디 막 잘 열아십니다’허멍 헤여근에 간 보난 벌썬 열안에 더러 익어서라게. 익언 타단에 오란 장만허난 두 돼라라. 툃박으로 돼난 두 돼난. 이거 뜰네 강이네 양펜으로 혼 돼씩 주카허당 에, 강은에 혼 번 쓸집이 이층이 빙원 서. 그디 강 주사 맞곡 들어봘어. 게난 ‘녹디 살 거?’ 허난 ‘아이고, 벌썬 녹디 나와수과?’ 그래. ‘아니 어느젠 강 경 녹디 나와수과? 사쿠다.’허연 저울이난이 삼만 칠천 원을 쥐. 게난.

110017 @ 두 댜에?

110017 # 응. 삼만 칠천 원 주난 ‘아이고 이 녹뎨 얼마나 스뎨 어려운 거과. 어떻 허난 재기 나수과? 갈앙 이제 안 나실건디 안 나실건디’ 허난. 녹뎨 임제가 게 쓸 임제가 경 허난. 아니 이만저만 행 나 돈 앓앙게 헤연. 아니, 게메 이제 녹뎨 안죽 은 안 난. ‘녹뎨 얼마나 좋수과. 득 잡앙 먹는 사름덜 녹뎨 낡 쭈민 그렇게 보기 좋넨 험수게.’ 경 허명. 아 게난 막 지꺼정. 다음에 오란에 탄에 열만 철인 모르곡 강 댜난 오만 열만가 주는 거라. 아이고 지꺼정이.

110017 @ 게난?

110017 # 지꺼정 이제 딸라 그거 헤영 두 번첸 허여네 풀고렌도 안 허고 한 번 해 강 포난 ‘야 얼마라라게’ 경 허난 ‘아이고 그거 잘헤수다.’ ‘니네 주첸 허단에’ ‘에에 우리랑 주곡 안 주곡 이전이 어머니 준 거 넘은 해 어머니 준 거 서네 싯수다.’ 그치록 허난 세 번첸 허난에 두 댜가 넘으쿠편 셋뎨네 며느리 아기낫첸 허곡 겸사로 으정강 쥐두곡. 경헤네 이제 네 번체 장만허영 따시.

110017 @ 나도 주곡

110017 # 네 번첸 장만허영 풀지 안 헤네. 동네 사름덜 양재기로 하나씩 쥐 불엇 저게. 쥐 두곤 허영 남으난 닐 쥐시네. 쟁 어제 강 저거 마지막으로 낭 강 어지려 완. 어제 험시난 동녜집이 사름 그치 저거 무지러쥬게. 시마이 댜연. 게난 ‘아이고 이제 어는제 갈아수과?’ 허난 ‘간 거 아니.’ ‘어뎡행 마씨?’ 녹뎨 갈앗단에 말저 타기도 싯프고 허난네 그냥 모사불렌 행 모사뎨두난 넘은 해 다 나시카부덴 허난에 마농 메언에 즐르레 강 보난 그자 그 마농 메어난 곁으로덜 하나씩 솟아시쿠편 마농 확 쥬라뎨 비니루 걸으난에 하나씩 천 리 하나 만 리 하나 나선게 경 헛첸허난 ‘아이고 게메 이제 녹뎨 날 철이 아난디 뎨.’ 첸 돈 벌언.

110018 @ 복날은 무신거 헤?

110018 # 응?

110018 @ 뎨 초복, 중복, 말복 영 허는 날 이수게?

110018 # 초복, 중복, 말복에도 음식 허영 먹는 사름덜은 허영 먹어. 올힌 남만이 막으난에 쥬 좋넨 험게 올히 쥬들이 경 좋아. 아이고 나 경 험 줄 알아시민.

110018 @ 뎨 허민 쥬 좋아?

110018 # 앞이 막앙 남하늘 막으난 북쪽으로 막지 안 헤언에.

110018 @ 남하늘 막은 게 뎨?

110018 # 올히 남 막앗저, 북 막앗저, 그런 거. 경허난 올히 저 알르레 막으난에 쥬 좋은덴 험 게 올히 쥬가 잘도 좋아. 쥬 간 사름덜. 서녜 밧뎨 그거 혼 말 쭈민 쥬 갈컬. 우영팻. 서녜 거. 기냥 내부난 호레기 돈 헛저.

110018 @ 보린 언제 비는 거과 게난? 오월에, 유월에?

110018 # 오월에 비는 거주. 보리덜 이제 익영 비엄실 거라. 더러.

110018 @ 이제사?

110018 # 게.

110018 @ 팔월이다.

110018 # 아, 보린 장만했구나.

110018 @ 다 장만했지.

110018 # 다 장만해영 개역도 해서라.

110018 @ 계난? 보리 갈아나민 보리 그르에 그 다음 무신거?

110018 # 보리 그르에 조 허곡계. 감저 싱그고.

110018 @ 조 허고 감제 싱그는 건 혼 유월에 허는 거라?

110018 # 계. 유월에덜 감제 우리 딸 서너 밧 싱것젠. 작년이 감제 하영 싱건 돈 하영 벌어진. 작년인 덴날 파민 서귀포서 밧 개 시경 오라 시내서 밧 개 시경 오라 허민 사름 빌명 시꺼가명 막 풀아시네. 작년이 난 감제 파는 디 가보도 못 허곡. 보리도 막 서너 밧 싱그고렌. 죽은딸. 우리 셋딸은 감제 ㄱ튼 거 아녀. 콩 갈곡 깨만 갈고렌.

7월

110020 @ 이제 칠월 뒤민예. 칠월 칠석은 뭐 허는 날이과?

110020 # 칠월 칠석에 절간에덜 간다. 절간에 불공허레.

110020 @ 불공허레.

110020 # 칠석 불공 막 허느네. 크게 허메. 이젠 절간에도 안 뎡겨.

110021 @ 옛날엔 쉼 질를 뎡 칠석 때 뭐 아니 백중이구나예. 백중 때.

110021 # 백중 때 쉼신디 강은에 출 아저당 주곡

110021 @ 응.

110021 # 그디 따시 밧가는 쉼 몰아당 그날 궂 숲양 맥이곡 허. 경허더라.

110021 @ 무신거 숲아?

110021 # 보리 숲양.

110021 @ 보리 숲양 맥여?

110021 # 응. 밧가는 쉼.

110021 @ 어디 영 제지내고 허는 건 엇어?

110021 # 엇어. 쉼 백중엔 물 하난에 우리 시아방네 물 혼 열 밧 개 시난에 목장에 강이네 물 출 지영강 물 이레 불르는 소리 어흐 헤가민 임제 소리 들영이 잘잘 잘잘 돌아와. 경허민 출 깨 풀민 픽픽 던지민 돌아오란덜 드리 먹고 허민 백중에 강이네 시아방이 산으로 강이네 그 목장에 강 뒤헌덴 헤라만은 어떻사 헤신디. 간본 디도 엇고.

110021 @ 백중에 어디 물 맞으레도 갑니께.

110021 # 계, 백중에게 산으로덜 물 맞으레 옛날에이. 옛날에 우리 클 뎡 저 서림 물 맞으레 서림 바당에 뎡겨저. 화순 바당에 안 뎡경. 서림 바당이 그렇게 좋아.

110021 @ 물 맞으면 뭐가 좋은 건가?

110021 # 뎡떠기 일 헤나민 뎡떠기 나민 그디 강은에 니네 일 잘해영 부지런히

허라, 이제 저 백중날은 물 맞으러 가겐 허영은에 우영팻디 사당 대죽이엔 헌 거 서. 영 꺾테기 뱃겨뵤 그치명 물 짜먹는 거. 거 들곡. 강냉이 딱시 옆에 싱경 강냉이 부리기 적어 숲아근에 으정가고. 개역 으정가고. 경혜근에 부지런히 일허민 개역 행 주곡. 허영 백중날엔 막 뱃들이영 행 강 막 바닷가에 강 즐바로 먹도 아니허곡 바당에서 몸도 아이 금곡 장난덜만 허당 와.

110021 @ 장난덜만?

110021 # 더 바당에 강 더 카곡. 물에 아니 앓곡, 그자. 들구 장난만 허명. 모살 밧디서 이레 도락 저레 들악허당. 물 즈끗디 가민 잘락 지치민 물러레 들어앓앙 영 치명덜 그추룩. 서린 물이 막 실루와.

110021 @ 물 맞으면 뉘 신경통에도 준다 뉘 이런 말도 허던데?

110021 # 뚝뚝기 난 것도 싹 들어가. 물에 가근에 산물에 그날은 커 앓곡 어떤 사름은.

110021 @ 물에서 영 떨어지는 물 맞는 거?

110021 # 아니.

110021 @ 폭포 ㄱ튼 거?

110021 # 그냥 나는 물에.

110021 @ 커 앓은거?

110021 # 응.

110021 @ 응. 나는 물에 커 앓는 거.

110021 # 어떤 사름은 뚝뚝기가 등뻥이로 영덩이까지 검나게 나. 경 강 들어앓아.

110021 @ 아니, 사진 ㄱ튼디 보면 폭포 ㄱ튼 디 물 위에서 떨어지는 디 강은에 앓아근에 물 맞으곡 허던데.

110021 # 서귀포레사 경허주.

110021 @ 계난.

110021 # 서귀포레.

110021 @ 이던 그건 거 엇어난?

110021 # 맞앙 좋넨 헤여.

110021 @ 계난 예?

110021 # 경 앓앙들.

110022 @ 혹시 모래찜질 이런 것도 해 낫수과?

110022 # 이 대정더렌 안 허곡. 이제 신식으로덜 모래찜 험젠 헤라. 모래 그 주 머니에 담앙이네 모래 팡 들어누웁.

110022 @ 모래 팡 들어누웁

110022 # 모래 세계 바당 경 허는디 좋은 디 주게. 세계 바당 경헌덴 행.

110022 @ 사계 바당? 화순 바당 말고?

110022 # 계메 화순바당.

110022 @ 사계 바당은 모래가 엇지 안 해?
110022 # 엇어. 화순 바당엔.
110022 @ 화순 바당에.
110022 # 하강 물 각에.
110024 @ 입추.
110024 # 입춘 돼민게. 글 허는 집인.
110024 @ 입추. 가을 들어가민. 그건 엇어?
110024 # 엇어. 입춘이엔 행은에 글 썩이네 문마다 한글로 썩이네.
110024 @ 그건 입춘이고.
110024 # 대문에 딱딱 부짱.

8월

110025 @ 팔월 돼민 이제 벌초 해수과?
110025 # 벌초들 다 헛주게.
110025 @ 벌초는 어떻행은에 허는 거과?
110025 # 우리 아덜 벌초 행 가노렌 헨게게.
110025 @ 아, 왓당 가수과?
110025 # 응.
110025 @ 뭐 문중 벌초 뭐 이런 거 따로 따로 해? 집안 벌초 따로 해?
110025 # 아니, 그냥 지네.
110025 @ 흔 번 행 끝네?
110025 # 췌당덜이여 다 기계 시난 그자 흔 밧덜로 밧밧 강이네 벌초덜 허여.
110025 @ 여자들은 안 가지예?
110025 # 여자덜 안 가. 우리 메누리 벌초허레 아니 와. 남자덜이 하난게.
110025 @ 벌초는 벌초 안 가민 막 벌금도 내고 험니께.
110025 # 그런 거 안 헤여.
110025 @ 남자 하구나.
110025 # 흔 멧 년 우리 아덜은 호미질 안 허난 벌초 혈 줄 모르곡 기계도 엇으
민 우리 아덜은 멧 년 그 벌초 헨 사름덜 밥 사맥연. 어떤 땐 돈도 하영 들어.
110025 @ 그지. 사람이 많은데.
110025 # 막 하연. 경허난 안 튜켄 헨 이젠 기계 산 모양이라. 기계 사난에 그디
저 사촌 아시덜은 농사 짓는디 덩기난 ‘성님, 못 험니다’허멍 그 기계로 허민 우리
아덜은 그 비어논 거 치움이나 허곡 허는 모양이라. 게난 그때 다섯 해나 팔월에
점심 사 주는 것이 족은 돈이 안 들어.
110025 @ 맞아.
110025 # 게난 점심도 저 웃드르 고기 푼는 집이 강이네.
110025 @ 비싸지.

110025 # 비싼 걸로만 막.
110025 @ 쇠고기로.
110025 # 경행 떡볶이난 아이고 그거 그디서 사 쥬은에 먹는 돈이민 기계 살 걸
헛젠 허멍 나 드러 허난에. 흐루기 벌초엔 가노렌 와서라.
110026 @ 팔월 멩질 웨민.
110026 # 팔월 멩질엔 헐 거주.
110026 @ 멩질 준비 허젠 허민 무신 거 준비헤여. 특별하게 팔월 멩질에 허는
게.
110026 # 팔월 멩질엔 뉘 특별히 허느니?
110026 @ 송펜은 팔월 멩질에만 헉니까?
110026 # 지네 아방 이시난 팔월 정월 다 할테주.
110026 @ 송편. 송편.
110026 # 송펜도 허주만은 우리 메뉴린 준떡 허여.
110026 @ 준떡은 어떤 거?
110026 # 솔벤 솔벤.
110026 @ 솔벤 줄벤? 그게 준떡?
110026 # 응. 이제 침떡 허영이. 그런 거 잘 허주. 그런 건 아녀. 계난 몰라. 이번
이 어멍 죽언에 8월 멩질 나오난에 지네 성네 집이서사 헐티사. 아방 죽언에 챗 식
게 돌아오난 메뉴리가 큰 메뉴리가 소상 믈천 가는 날은 아방 식게 아시가 허심허
연에 그때부턴 우리 메뉴리가 헤엄주게. 경허난.
110026 @ 예.
110026 # 그 사람덜 가부난 난 섹일 먹으레 오민 초상을 먹으나 섹일 먹으레 오
민 정지서 춤 부엌에 안 간다. 경헤은에 허민. 가부난에 소상 마지막 먹영 가부난에
우리 메뉴린 정지 선에 서방은 마루에 시난 ‘형님, 날ㄴ라 아버지 제사 허렌 헨게’
허멍 허난 ‘뉘?’ 허멍 허난 성님 나가멍 ‘아버지 제사 허렌 헨게’ 허난 ‘내불어. 나
가 허커라. 경 안 헤도 나가 허젠 험서’ 허멍 헤영. 마루에서 그 말 들어지곤데 ‘뉘
말고?’ 허난 ‘저 자이ㄴ라 아버지 제사 허렌 허곤데 나가 허켄 헤수다’허난 ‘어떠난
큰 메뉴리가 지네 집이서 재산을 물려 오고렌 헤냐? 작산 재산 정더경 마타근에 시
아방 아니 식게도 아니 허영이네 아니, 아시ㄴ라 허렌 아시 밧 줘시냐, 밧 쥬에 아
시ㄴ라 아방 식게허라 웨라 곱아시냐?’, ‘내불서게’ 아버지 제사 나 허쿠덴 허영. 아
집이 섹일이영 드러 헤난디 그릇 무슨 비더덩첸 안 허주만은 그 분들 오랑 먹어난
그릇도 싹곡 헉디 식게 허젠 허난 큰큰헌 케 그릇 놓은 케 사오곡 그릇도 문딱 높
은 그릇덜 정간헤난 병세껏 촛대영 아니, 촛대영 팽풍이영 다 신 걸, 아니 뉘 허젠
이디 팽풍이영 젓상이영 다 시네. 헤낭 뉘허젠 사시닌 ‘내불서게’
110026 @ 존 걸로 허젠 허민.
110026 # 경행 케에 탁 종간. 아이고 착험도. 늣의 아이 닙지 아녀. 아적이 아방
제사 헐 때엔 웃터레 먼저 앗을 그릇은 웃터레 놓고 말저 음식 담을 것은 밀창더레

씻어놓민 우리 메뉴리 말이 경진이 아방 그릇 씻어근에 문딱 다끄민 그레 으저다놓민 경진이 아방으로 낱 나 놓민 놓지 못허게 험니다 허난 무사 허난 말자 앓아논 사발은 문저 밑창에 놓고 문저 앓은 사발은 우터레 놓겐 허멍 저 사름 히어뜨 허게 담아놓민 이거 아삐다 저거 아삐다 헌텐 허멍. 켌디 아들이 착혀.

110026 @ 계난.

110026 # 딱양 으저가도 두불 다끄멍 문딱 말제 앓을 사발은 밑창에 놓고 문저 앓을 것은 수까락이영 다 사와. 켌상도 큰큰헌 거 세 개 사당 벌이곡.

110026 @ 옛날에 팔월 멩질 때 어디 뭐 달 구경가고 이런 거 헤 나수과?

110026 # 엇어.

110026 @ 뭐 강강술래허고 뭐 이런 거 놀레 가고.

110026 # 그런 거 동네서 뭐 놀른 헤여. 팔월 멩질날 들에덜 막.

110026 @ 들 보레 들 구경가고.

110026 # 응. 들 구경은 안 가곡 막 팔월에 메왕덜 소리덜 허곡 놀곡.

110026 @ 아, 밤이?

110026 # 어. 밤이. 경혜시냐? 팔월 덕수서 솔미 솟불미 해 낫주게이. 솟불미 헤 나난 팔월 멩질날 총연습 허영. 모실포 사름덜 노래쟁이덜 오랑덜 노래 허곡 혈거난 총연습 혈거난에 우리 윈색이 아방이 멩질 먹영 오란에 저 노래쟁이덜 오라근에 덕수서 총연습 허여근에 솟불미 아무날은 시에 강 헌텐헤젠 솟불미 총연습 허는 디 구경가젠 허난. 난 다른 이디 사름덜이영 놀레가젠 약속헌디 아이 가켌허난 안 가근에 진 가곡 난 다른 데 놀앙 오민 기분 좋지 안 허카부덴 안 가켌허난. 정기 탕 가근에 구경허단 얼른 와불게게, 와불게게 하도 허근테 경 헤켌 헤근에. 그냥 조끗 디 요 집의 사름그라 나 놀레 가지 못허경 곶아도렌 헤뵈에 정기 또꼬냥에 탕 가난 덕수 상사에 사름이 이빠이 가서라게. 이빠이 가난 들어갈 때 엇으난 정문으로 들어간 정문 옆이 톡허게 사고. 또 정문 베겏디 남자들이 시난에 우리 애기 아방은 남자들이영 산 말 곧는다. 혼 이십 분은 시난에 하르방 메뉴리가 들어오멍 ‘아버지도 읍데강’ 허난 ‘어’ 허난 ‘저 안에 어멩도 와수다 안터레 읍서’허난 ‘기여’ 허여도 그 아방이 안에 안 간. 안에 안 간에 그디 서 이젠 올레서 남자덜이영 산 들어 말 곧는다 나도 오쥬 싸레도 안 가곡 그 상사광 집이 세가 멀어. 세가 먼 디 이젠 메뉴리가 읍센헤도 안 간디 노래 혈 사름 이름 올리렌 허난 날그라 ‘저 사름 노래 하나 허커라?’ 허난 ‘안 허쿠다’ 그디가난 혈 기분이 안 난 ‘안 허쿠다’ 허난 계건 가게 정기 탕 기냥 와 불엇는데.

110026 @ 무신거 탕 와서? 정운기?

110026 # 정기 탕.

110026 @ 그거 뭐? 정운기?

110026 # 조앵기, 조앵기.

110026 @ 조앵기가 뭐?

110026 # 두 발 조앵기.

110026 @ 자전거?
110026 # 어. 자전거. 일본말로 조앵기.
110026 @ 아.

9월

110028 @ 구월 달에는 뭐 특별하게 허는 거 었어?
110028 # 었어.
110028 @ 음력 구월에.
110028 # 었어.

10월

110029 @ 시월에
110029 # 시월에 ㄱ슬 거 현 거 잇주게.
110029 @ ㄱ슬 허는 거 무시거 무시거 해야 돼어 그민.
110029 # 게 산티도 베곡, 조도 비곡, 콩도 허영 장만허곡. 이제 와랑자랑힐 때주
게. 감제도 이제 과 가곡.
110029 @ 제일 바쁜 때네예.

11월

110030 @ 게민 음력 십일월 돼민 동지엔 무신 거 험니까?
110030 # 동지엔 뵈 헤어. 동지 불공 허는 사름은 허곡. 동지 죽이나 썩 먹고.
110030 @ 죽은 무슨 죽 썩 먹어?
110030 # 풋죽게. 풋죽. 동지 풋죽 허는다.
110030 @ 동지 풋죽 썩 먹어?
110030 # 절간에도 풋죽헌다.
110030 @ 절간에 안 텅기는 사람들도 풋죽 썩 먹주예?
110030 # 게. 다 썩 먹어.
110030 @ 무사 풋죽 썩 먹는 거?
110030 # 몰라. 감기 방법 웬덴 행 어뎡행 쟁 풋죽에 보민 그 곤살 곶아근에 요
만씩 즈배기 허영 들이청은예. 절간에도 경 행 쏜다.
110032 @ 동지가 흐뎡 십일월 초순에 들민 뵈 동짓달 초순에 돼민 뵈 애기동지
여 영 허는 말도 이선게마는 그거 무신것과?
110032 # 몰라. 애기동지엔 현 말만 들엇주. 뵈산다. 동지엔 다 풋죽덜 썩. 가난
부제 었어.
110030 @ 동짓들에 무신 뵈 었 행 먹는 날도 싯수과?
110032 # 었 행 먹는 건 아니고 저슬 들면 그자 득 잡으멍 었 헤영들 드러 먹고.
110031 @ 었 허는 날 따로 었어? 납뎡날 이런 말 었어?

110031 # 그런 날은 었어. 우리 어머니 그자 아덜 하나 그자 동짓들 나민 정월 비에기 하영 깨왓당 서너 니 무리 잡양 두 말 띠기로 었허영. 었허영 거릴 땐 딸덜 토 한 사발씩 주곡 백단지에 거렁 그자 궤 위에 놔두곡. 아들만 핵교 갖다 오면 먹으렌도 허곡. 계민 우리 족은 아시영 나영 나 굽으크메 족은 아시 수꾸락 가정 강은에 그거 거렁 먹고 거렁 날도렌 혜영 먹으멍 흐쓸 문드려 불어이. 경허민 어멍 어디 강 왓당 문드린 걸로 표시가 돼영이. 아이고 매도 맞곡. 아덜은 백단지에 거려 근에 오랑이네 주곡. 우린 그때 거릴 땐 사발에덜 거려 췌 먹어 그걸로 끓. 아들이 뵈산디.

110031 @ 계메 아들이 뵈산디.

12월

110033 @ 십이월달 뵈민 친구간.

110033 # 친구간 뵈민 어디 집 빌영 나갈 사름은 친구간에 나가곡. 친구간에 뵈토신제여 무신 거여. 딱시 굿텐 허민 또 나근에 청혜영도 뵈 허곡. 경 혜.

110034 @ 이사갈 때는 집은 이사갈 집은 어떻게 구해?

110034 # 이사갈 때 어떻게여. 가민

110034 @ 집 어디 비어 이슨 집 비어 인인 거 어떻게 알아? 지금이사 신문에 다 나주만은.

110034 # 신문에 안 나도 다 알아. 어디 집 비언 싯져. 누구네 집 싯젠 허민 것도 빌영 가게 뵈민.

110034 @ 그른 주로 옛날에도 친구간에 이사 가낫수과?

110034 # 친구간에도 허곡 친구간 아니라도 새 집 짓으면 친구간에 들어가젠 부랴부랴 친구간에 들어가젠 허난. 아이고 저딘 부지런히 집 사고 도비도 험저, 뵈 험저 허여도 경 집 었은 사름이 드물더라게.

110034 @ 옛날에는예?

110034 # 초가집이라도 다 션이.

110035 @ 그민 새 집 행 갈 때는 무사 이사갈 때 무신 거부터 가져 가야 뵈다, 날 뵈민 그날 집 다 안 뵈도 무신 거 먼저 갖다 놓민 이사 허는 거나 마찬가지로 막 영 허던데?

110035 # 경 헌텐 혜도 뵈산디 몰라. 그런 거 가져가는 거 몰라.

110035 @ 이사갈 때 쥬먼저 가져가는 거?

110035 # 나도 이 집 짓영 쥬먼저 가져오는 건 몰라. 흙치 집 다 뵈난에 구루마에 잘잘 시켄. 시켄 올라가난 동네 사람덜도 차로 확 시켄 오란.

110035 @ 이디 살기 전에는 어디 살아낫수과?

110035 # 이디 살 땐 저 우녁 질 옆짜이 집이. 이제 추사관 지서부런.

110035 @ 아 추사관 지스 디?

110035 # 쥬디, 우리 아버지네 집에 살당.

110036 @ 이젠 집들이도 험니까.

110036 # 응.

110036 @ 집들이 험 땐 옛날에도 집들이 험 험은에 녀의 집 가고 험나수과?

110036 # 집들이 험 땐 녀덜 집 지성 집들이 험젠 허민 다 강 보곡 험다게. 게난 우리도 이 집 지스난 집들이 험젠 미짱 타레 강 경사로 도새기 잡앙 잡앗주게. 도새기 잡으난 야, 00이 우리 집들이 허는디 삼천 원 부지험 와서라. 삼천 원.

110036 @ 녀들은 얼마 험 때라 그땐?

110036 # 그때 게도 만 원씩 허고 오천 원씩 험 때고. 무시걸로 나가켄 험 우리 하르방 십만 원 담앙 강 주곡험저. 조합장 허켄 험.

110037 @ 집들이 험 땐 부주로 돈으로 부주 험구나예?

110037 # 삼천 원, 삼만 원이라도 홀디.

110037 @ 그 전에는 무신 거 험났어?

110037 # 그전에는 떡 다 쓸로도 험영.

110037 @ 쓸로도 험 완?

110037 # 우리 동세엔 험 건 쓸 혼 말 아정오란. 메뉴리 두 뉘 허곡 지 두 뉘엔 이거 혼 말 아정 오고렌 허멍 막 우리집이 오란에 들어오도 안 허고 올레에 이문에 오란 드러 울어라게. 무사 울엄디, 무사 울엄디 허난 서방 노름 안 험시민 옛날에 우리도 이런 집 지성, 집 지스 거 보난 오꼳 광이난. 막 혼 동안 울언. 울지 말렌헤도 울단 집이 들어오렌 해도 안 들어오곡 이 문덜에서 스뭇 목이 터지게 울언 그 때. 나 이 쓸 받은 생각험 강은에 메뉴리도 두 뉘 주곡 동세도 두 뉘 먹으렌 그냥 돌렛저 그냥 돌려서. 에이그 어느 절에.

110037 @ 집들이 이디 왕 밥 먹어근에 가는 거주예?

110037 # 게.

110037 @ 뉘 답례품도 험?

110037 # 답례품도 주고 딱시.

110037 @ 답례품은 무신거 험?

110037 # 답례품은 험다 못 험 슈퍼타일 사나 아무거나.

110037 @ 그때도? 이 집 짓을 때도?

110037 # 응. 막 이 동네 사름덜이영 하영 오난네 스뭇 도새기 잡고험 험시네게. 도새기 잡아네 허난.

110038 @ 뉘 대한, 소한 영 험 때 허는 거 이수과?

110038 # 대한, 소한 험도 우린 그런 거 험 본 디도 엇곡.

110038 @ 험 본 디도 엇곡.

11. 놀이

111001 @ 옛날에 할머니 어렸을 때 무신거 허멍 놀아나시고 허는 거 물어볼 거.
111001 # 여름에.

111001 @ 아니 어렸을 때.
111001 # 어려신 땐.

111001 @ 뭐허멍 놀아난. 테레비도 엇고.
111001 # 테레비도 엇고 뭐허멍 노느니게.

111001 @ 응.
111001 # 어린 땐 기자 뵈사 헤어져신디.

111001 @ 일만 헤신가?
111001 # 어린 때 혼 일고으답 슬 나도록은 일은 안헛어.

111001 @ 계난.
111001 # 계난 이 열 슬 난 후제 이 일본말 통헛 때에 그땐에 그자 밧디 갖다오
라근에 가민 야혹에 가근에 야혹에 강 글 베운 거나 베끼.

연

111002 @ 연날리기도 해난?
111002 # 연.

111002 @ 연 띄우는 거.
111002 # 그런 건 안 허고 여즌 그런 건 안허고 우리 동생 남동생 시민 우리 아
버지가 연 멘들앙 이 풀리 든 연이 아니고 정연이엔 헛 거. 뎃가지로 니귀방장 허
영 그거 허영이네 아버지가 올령이네 저 질레 강이네 올령 오랑이네 우리 오레빈
여슬굽 슬에 오라근에 이 지등에 무경 그거 연 올리는 거 손으로 영영 잡아댕기렌
허는 거 그자 그치 그자 올리레 가민 날그라 이거 영 허렌 헛다게.

111002 @ 예.
111002 # 연 지치렌 아부진 영 잡아 뎡겨. 경헛 영영헛이네 잘 뵈민 그땐 저디
독고동산에 살 때난이 이런 낭서리도 잘 엇곡 허난 오랑은에 지등에 무꺼. 아버지
가 지등에 무경 그거 허당이네 우리 오레비가 실프덴 허영이네 헤 가민 계민 내불
렌 허여근에 허고. 계곡 우리 오레비가 어린 때 또 서당에 흐쉴 뎡기단 국민혹교엔
허연이 그 우리 집 동노헛이 크게 일본서 오란에 이 대정골 사름이 일본서 오란 돈
덜 문딱 제주도 사름들안티 허연 오란 크게 저 독고동산 큰 물 앞이 크게 학풀 짓
엇어. 학교 짓으난 구억, 신펡, 인녕이 이제 모슬포도 큰 학교 서도 모슬포 사름도
그거 학교 왓더라게. 오민이 계민 우린 학교 발레에 집이 이선에 허민이 아이덜이
놀당이 우리집이 물 먹으레 막 왕. 아이덜이 막 줄 사명 물 먹으레 오민 어똥 땐
나 코삿헛 땐이 물 주고 코삿 안헛 땐 학교 물 엇나, 학교에 물 먹지. 학교에 물 안
먹엿젠 허멍이 학교엔 그땐이 수도가 엇으난.

111002 @ 아.
111002 # 그 급서.

111002 @ 예

111002 # 그땐 고깃쟁이엔 헛어. 급서엔 안행. 이제사 급서엔 헛주. 고깃쟁이. 쟁 그 사름이 물 저다근에 뒷에 놓민 그 뒷 통에나 하영 놓민 허주만은 쟁 안허민 여름엔 민두롱 허민 우린 이제 항에 놔두난이 싱싱허민 하나 아이 빙삭 웃으멍 날 보멍 물 먹으레 오민 막 나라비 행 게.

111002 @ 하하하.

111002 # 쟁 나 코삿허민 물 먹으렌 허고 쟁 안허민 먹지 말렌 허영은에 더런 먹고 더런 아이 떡곡 허민 우리 아버지 어디 강 놀다 오라근에 못먹게 헤가민 아이덜은 시무룩 시무룩 허민 막 날라 욱허여. 물 준 거 무슨 물 먹은 거 어떻 허느넨. 아이덜 오랑 물 먹으렌. 쟁행 우리 아버지 조름에 도록이 오라근에 물 먹언게. 나 도 그 약해 쿠세로 어뜬 땐 미왕 안졌어. 막 나라비허멍이 득투멍덜이.

111002 @ 아. 연은 아까 정연 말고 또 무신 연 이신고?

111002 # 그것라 저 게우리, 게우리연이렌

111002 @ 풀리 달린 거?

111002 # 것라 게우리연이엔 허메.

111002 @ 그믐 정연허고 게우리연 두개가 잇구나예?

111002 # 응.

111004 @ 실에 무신거 맥이고 허지 안허여?

111004 # 옛날에 사름덜이 청년덜이 우리 클 땐 그런 시합이 없엇어. 우리보단 먼저 난 사름덜이 대정 그런 연 시합 안허여. 쟁헌디 덕순 간 보난 그 연 시합을 헤낫어라. 촌에덜 살멍이. 쟁에 그 저 떡돌 닳은 것에 영 흑도 잇더라. 게고 이 떡돌 이거 유리 뺏는 것도 잇고. 그추록 헤연에 이거 신 철이도 몰르고 헤엿는디 이젠 그디서 그 우리보단 밑에 사름이 말말 헌덴 이젠 이 덕수도 연 올령 연타불도 안허곡 허난 헐 것이 옛덴 허멍이 곱으멍 헤라게. 허난 연타불 뒷인곤 헛주. 우린 대정골선 연타불 연 썽는 거 본디 옛연. 쟁허난 그디 나술이 먹은 송칩이 어른이 당신네 클 때에 연 헤영 올리민 덕수 사름인디 연 허영 올리민 다른 사름이영 그 연 줄에 라치 강 허영 그창 나가는 것이 지는 거.

111004 @ 응.

111006 # 쟁허난 아 쟁허는 거로구나 허여신디. 내가 갑자기 아판에 막 몰란 일을 못허게 뒷난 우리 친정 아버지가 인습을 혼 땃 불리 영 헌 거 가정완. 이거 저 무시걸로 곱아근에 곱리 붓앙이네 흰죽에도 탕 떡곡 허라 나뒷 어뜨난 쟁 막 힘이 옛엄시닌 허멍 허난 그거 뺏을 디가 없어. 쟁허난 말말허난 날보단 혼 술 우잇 사름이 이서. 딸이 살림 안 사는 딸이 그 할망네 그 하르방네 집이 오란. 야 우리 아버지에 집이 옛날이 유리 뺏아난 거 잇젠. 간 보난 이런디 그 떡돌 커다란 것에 흑 이서라게. 게난 그디 아방이 눈이 어두와부난에 앓아두서 이 저 덩드렁, 것라던 덩드렁이라. 이 덩드렁에 흑은 무시거 허는 거꽈? 쟁 뺏는 거꽈 허난. 아이 쟁 뺏는 거 아니여. 우리 어린 때에 연타불 헐 때에 유리 낱 못앙.

111006 @ 응.

111006 # 글리 못앙이네 실에 밥을, 보리밥 혜영 실에 맥영. 그 유릴 또시 ㄱ를 내영 서경 연 올리민 어느 연이 그창 나가느닌 겐 연타불 허여난 유리 뵈아난 그 흑이엔.

111006 @ 아.

111006 # 거난 이디 저 못으는 건 엇수텐 허멍 허난 누게사 좃어가신디 몰르켄. 영 스랑헌거, 짓도 먹돌로 뵈 거 바당에 강 좃어 온디.

111006 @ 아.

111006 # 경허난 그냥 그디 서도 다른 걸로 그자 돌 봉간 못안에 글리 뵈안에 아 적이 밥 먹기 실프민 그 ㄱ루 쩌끌락 헌 걸로 흐쉴 먹어기네 물 먹고 허난 아픈 것도 도망가고 힘도 나고 헤라게. 경혜연 그거 덕수 연타불 헤난 거 알지. 이 대정 쪽 엔 연타불 안헤여.

제기차기

111007 @ 아. 제기차기.

111007 # 제기차긴 동네서.

111007 @ 남자아이덜 험니까?

111007 # 남자아이덜 막 허영 우리 아버지가 제기차기 돈으로 안헤연에 그 엽전 이엔 헌 거. 고평 똥라진 거 이서. 가운데 고평 똥라지고 옆으론 글 썬진 거라.

111007 @ 예.

111007 # 엽전 헤여근에 우리 아버진 그런 엽전은 우리 아버지네 집이 이만은 잇 더라.

111007 @ 아.

111007 # 뵈사 허는 것 산디. 거난 그거 이제 종이에 감앙이네 요디 똥 즐라매민 그던 ㄱ새로 ㄱ사근에 제기 차는 거 멘들앙이 경행 주민 우리 오레비 드러 차곡 늣도 딱시 하나 멘들앙 줍썬 허민 우리 오레비 친구 보민 우리 아버지 썬지 안헤영이네 착허게 살민 멘들아 주켄 멘들아 주곡 경헤라게.

111007 @ 하하하.

111010 # 경 아방이 아기덜 그런 멘들아 주는 사름 잘 엇엇어.

111010 @ 계난 이제사민 몰르카 옛날에예.

111010 # 옛날에 잘 멘들아 주는 사름 엇어. 우린 귀헌 오레비난 멘들아 좃주이.

111010 @ 응.

111010 # 영 가만히 보민이 아기 뵈 허영은에 영 허여주는 사름이 엇은 것 닙아. 없어이.

111010 @ 바뵈. 일허썬 허민예

111010 # 경 우리 오레비 친구덜이 크게 공부헌 사름덜토 엇영이 게나마나 뵈디 똥기고이 게나마나 경헤라게. 우린 우로 오라방 엇어부난 그거 흐나난 영 받앙이네

스몹 어린 때도 서당에 들앙 가고 강이네 더디 오라가민 아버지가 들레 가곡 벨 거
만은 헤라.

자치기

111011 @ 예, 자치기.

111011 # 자치긴 헤여라.

111011 @ 건 어떻게 허는 거?

111011 # 자치긴이 낭 지러기 요만이 현 거 그창 그창이네 이디 그몹을 곳엇더
라.

111011 @ 응.

111013 # 땅에. 그몹 곳영 이디서 이거 이제 영 허민 이걸로 탁 두드령 저레 나,
저레 탁 두들민, 영 탁 두들민 등등 떠가민 탁 받으민 그 뭐 표시현 디 넘어가민
이기는 거더라.

111013 @ 아.

111013 # 경혜영이네 그디 넘어가민 그 그몹 넘어가민 그몹 새에 영 재더라. 그.

111013 @ 아.

111013 # 그 탁 두드는 낭으로 영 재영 멧 불이민 멧 블 뿔젠 더 멀리 나갓젠 허
명 막 지켜정 허고. 경혜라게 게난 나 그것에 그몹이 정신을 안 된.

111013 @ 예.

111012 # 우리 오레비 그자 우리 아버지.

111012 @ 허는 거 봐난예.

111012 # 이거 때리는 것도 곱게 멘들아 주곡 그 요만은 행 저 때리는 것도 가시
영 코콜이 다듬앙 요 지름은 허여. 요 지름은 허영이네 처암엔 몰란, 우리 오레비도
몰란. 이거 당신네 어린 때 허여난 거엔. 거난 거 오죽 오래시나이.

111012@ 거난예.

111013 # 그런 거베끼 안헤난 말이라, 아버지가. 경허난 이거 영 허여근에 던지
민 이걸로 착 때령이네 저 그몹 베끗디 가민 이기는 거, 그몹 안네 가민 지는 거.

111013 @ 아.

111013 # 경행 저디 그몹 곳고 이디 그몹 곳영 이디 그몹 발로 불량.

111013 @ 응.

111013 # 영 그몹 발로 불량 픽 던져근에 그거 탁 던지면 저만은 가고. 그것이
자치기.

111013 @ 그게 자치기에.

111013 # 응.

말타기

111015 @ 말타기.

111015 # 몰타긴 잘 안허더라.

111015 @ 아.

111015 # 이디 대정골은 몰 신 사름이 없었어.

111015 @ 아니 말타는 거 말고 아이들.

111015 # 아이들 그런 몰 그건 헤여.

111015 @ 영 굽어근에 우에 영 타는 거.

111019 # 그거 현 사름 쟁검보시행 진 사름은 굽으민 그 저 저런 돌에 업더정이
네 한 사름은 영 시민 이사름 으지허영 영 굽으민 돌아가멍 피짜허영 그 아이 우리
서녀이 탕이네 털어지지 안허민 탄 사름이 이기는다 하나 타곡 둘 탕이네 셋 탈 때
엔 널어짐 시작 허민 그 사름 다 널어져볼민 지곡 그거. 말타기.

111019 @ 하하하. 할머니도 헤난 그거?

111019 # 나 일등이라.

111019 @ 나 일등이라. 하하하.

111019 # 저 줄넘기 영 심으민이 돌아가멍 곤작 상 탁 발로 넘어가는 것도 나 일
등으로 헤낫저.

구슬치기

111027 @ 남자아이덜 허는 건데 구슬치기.

111027 # 그 구슬치긴 안헤여난. 구슬치긴 안허고 아이덜 구슬치긴 계속 요 몇
년 전이까지 헛어.

111027 @ 예.

111027 # 구슬 맞황이네 그자 다른 디레 들어가나 그거 맞앙 그놈으 돌로 저레
강 맞이민덜 허곡. 마치젠 허고.

딱지치기

111028 @ 딱지치기.

111028 # 딱지치기도 우리 오레비 허여. 그자 그뎨 이 골련곽이 엇엇어.

111028 @ 응.

111028 # 골련곽이 엇엿은헤 허영 어떻허영 어디서 무스거 일본서나 무스거 어디
육지서나 오라나민 그런 거 시민 이 척장 막 뚜껍게 허여. 이젠 골련곽이 천지빗갈
인다. 경헤여근에.

111028 @ 골련곽은 어떤거?

111028 # 보로 상지게.

111028 @ 상자 종이? 상자?

111028 # 상자 이거 이런 거. 상자 이런 거 오기려근에 딱지 멘드는다 천인 이런
거 엇어근에 종이 멧 굽 영 잡앙 경헤여근에 멘들아. 경헤여근에 그 착 두들민 돼
싸지민 먹는거.

111028 @ 응.

111031 # 우리 오레비 우리 아버지가 자꾸 멘들아 줘. 그땐 중이도 귀혜엇어.

111031 @ 맞아, 예.

숨바꼭질

111032 @ 곱을락.

111032 # 곱을락도 허고.

111032 @ 잘해냈지예 할머니예.

111032 # 잘허곡 말곡.

111032 @ 하하. 곱을락은 어떻게 허는 거파?

111032 # 곱을락은 기자 쟁검보시 곱령이네 진 사름은 영 눈 곱앙이네 지등에라도 영 곱앙 하나둘 허영 열 개까지 세영 곱아불민 그 사름 좇아사주. 좇아진 사름은 또시 오라아 그사름이 허고 여라이 좇으민 또 지네들끼리 쟁검보시 곱령 진 사름이 허고.

111033 @ 아. 좇이는 사름ㄴ라 뭐렌 곱아.

111033 # 응?

111033 @ 좇이는 사름ㄴ라. 하나둘셋넷 세근에 곱은 사름 좇는 사름 가인 뭐엔 곱아.

111033 # 뭐엔사 곱아신디 곤지 안헤여 그런 말은 안 곱앗어.

111034 @ 계민 주로 어디 곱읍니까? 곱을 디도 엇인디.

111034 # 곱을 디 어디 시니? 곱목에도 강 곱고 어디 구들 트명에도 강이네 슬짝 들어가는 채허곡. 놀 놀주게.

111034 @ 예.

111034 # 마당에 놀이 멧 개. 그런디로 강은에 곱곡.

111034 @ 놀 뒤에?

111034 # 응. 마당에 놀이 멧 개 놀어.

111034 @ 예.

111034 # 새출 놀지, 검질 놀지. 그런 거 놀민 그 트명에도 강 곱곡 이 집 근처에 낭서리 신 집이 잘 엇어. 이젠 영 막 집집마다 낭서리. 가끔 부제침이 유지낭은 하나씩 이섯어.

111035 @ 유지낭?

111035 # 응.

111035 @ 아.

111035 # 유지 이젠 그땐 유지도 벨거로 알안. 이제도 유지 고뿔에 끌여 떡넨 허영 막 귀허게 생각허여. 이제 유지 저디 우리 밧 저곳디 사름 창천이 사름네 밧디 유지낭 큰 거 서. 가을 뉘민 지락지락 연다게. 올양 어똥 땀 날 봐지민 삼춘 으정강은에 슣앙은에 먹읍센허영 감기에. 계민 나 으져오민 우리 아이덜은 거 벨 거 만이

알아근에 지네 으정강 숲양 아이덜 감지 걸리민 주켄 으져가고.

실뜨기

111036 @ 예, 실뜨기.

111036 # 응?

111036 @ 실로 헤근에 영 헤근에 영 데쓰곡 허는 거.

111036 # 그런 건 헤엿어.

111036 @ 그거 헤낫지예 그건 어떻게 허는 거짜?

111036 # 그냥 영 실을 그냥 즐라 매어근에 허민 실을 영허지. 영허영 또시 영허영 이 사름이 영허지. 게민 그 사름은 영허영 영허영 또시 영 허민 또시 다음은 이 생끼 손가락으로 어떻게고 또시 영 헤난디 이제 잊어불언.

111036 @ 하하하. 이제 잊어불언예, 여자아이덜이 많이 헤 이거는?

111036 # 여자아이덜 조용히 많이 허여.

111036 @ 실뜨기는.

111036 # 지집아이 저 소나이덜은 그건 안허고.

111037 @ 실뜨기 헐 때는 어느 손가락 어느 손가락 허여.

111037 # 영영 허여 영 끼영.

111037 @ 이거 엄지손가락.

111037 # 이거.

111037 @ 이건 무신 손가락이라?

111037 # 이거ㄴ라. 그 무슨 손가락이엔 헐 게 잊어불언.

111037 @ 이거 두 개 손가락으로 주로 해?

111040 # 응, 두 개 손가락으로 체음에 영 허영 허민 이번은 다른 아이가 또시 울로 허영 또 말젠 여러, 요 손가락으로 영허영 끼고 또시 영허영 잘못허민 잘못허영 안 웨엇젠 허고. 것도 막 허지 못허는 아이가 하.

111040 @ 하하하.

111040 # 익숙은 사름 톡 허민 다른 아인 또시 요거 걸러당 또시 어떻게영 톡허민 멧 가달 웨민 또 일로 걸리메. 일로 걸리곡 행 어떻게 헛당 영 허곡. 익숙언 게 이젠이 것도 이젠 늙어부난 어떻게 사는 것 산디.

공기놀이

111041 @ 공기.

111041 # 공간 잘헤여. 공기 기냥, 그냥 공기 니 저 기냥 허여근에 어떻게 헤영 허민 그 공기가 먹영이네 그냥 영허영이네 손 우이 올령 탁 먹는 공기가 잇곡이 거 멧 가지 공기 영허곡 영허곡 허영 말젠 이제 영 마치곡 또시 영 헉곡 허멍 공기도 두 가지라낫어.

111041 @ 응.

111041 # 공기 일등 해났저.

111041 @ 일등 해난?

111041 # 응.

111042 @ 이젠 공기 다섯 개로 해근에 처음엔 하나씩 잡고, 그다음 두개씩 잡고, 세 개씩 잡고 영허는디 옛날에도 경헐?

111042 # 옛날도 그래. 경혜영 또 마지막은 네 개 놓민 탁혜영 그 네 개 으져. 네 개 으지민 이번은 이제 탁 허게 그 네 개에 탁 올령 손에 낵 탁 털어지지 안헐 먹영 멧 개 먹는 거.

111041 @ 공기 그거 돌은 무신걸로 멘들아?

111041 # 그냥 돌로 이녁냥으로 잇앙 곱게 멘들아. 다. 드러 돌로. 그거 계속 으정 땡기주게.

111041 @ 으정 땡겨?

111042 # 게. 그런 것도 난 선수나 나시메. 그냥 솟덕 앓지고 혜영 그런 공기 말고 그자 그 공기 다섯 개로 허여근에 시 개 깟지 허영 네 번첸 이젠 네 개 이레 앓지. 그거 탁허게시리 영허영 이거 네 개 심으민 그 공기 그깟지 허영이네 탁 허영 우터레 올령 아래 털어지지 안혜영 탁 멧 개 먹으민 경허는 거지. 옛날엔 솟덕 앓졌다, 무시거 헛다.

111042 @ 솟덕 앓지는 건 어떤 거?

111042 # 솟덕 앓지는 건이 그 공기들이 세 개. 세 개가 이디 시민 또 하나 영헐 집어당 그 세 개 신더레 공기들 톡 올려두고 톡 놔야.

111042 @ 아.

111043 # 경허영 허고, 그거 여러 가지라 낵어. 경헌디 이젠 캄캄혜영 몰르크라.

111043 @ 아.

111043 # 캄캄혜영. 말젠 이제 마치고. 공기들 저디 낵 마치곡 그추록 허는 거. 말젠 신식으로 난 건 세 개깟지 치명 네 개첸 톡 허게 이레 올령 네 개 낵 공깃돌 올령 네 개 영 심영 그 공기들 그거깟지 이젠 또 심영이네 탁 올령 손등땡이에 멧 개 올라가민 거 털어지지 안혜영 먹으민 멧 개씩 먹는 거. 그런 거 아올라 다 그래.

땅뺏기

111051 @ 예, 땅 뺏기, 땅 뽑아먹을락,

111051 # 그런 건.

111051 @ 땅 따먹기. 그런 거 안혜판?

111051 # 아 그런 건 이걸로 이걸로 영허영이네 허민 영 뽑으멍 끈어 먹는 거.

111051 @ 응 땅에서, 바닥에서?

111051 # 응 흑땅에서.

111049 @ 흑땅에서 무신거 돌멩이로?

111049 # 아니, 사그마치.

111049 @ 아, 사그마치로.
 111049 # 응 옹기그릇 닳은 걸로 못양 곱닥허게.
 111049 @ 응.
 111049 # 동글락허게이. 하얏튼 이정도 허게 다 멘들양 내놔.
 111049 @ 건 어디서 가근에 주성.
 111049 # 그릇 벌러진디 강 행 이녁냥으로 곱게 다행 이추룩 동글락허게 멘들주
 게이.
 111049 @ 응.
 111051 # 요추룩 동글락허게 멘들민 착허영은에 그릇 타민 안 돼는 거고.
 111051 @ 응.
 111051 # 그릇 안 타민 또시 그 아이 허곡 또 그 아이 허곡 허당 막 돌아오민 이
 젠 그 이것이 그 아이 돌을 착허영 그 아이 돌을 맞양 저레 나가민 그 땅 뽀으로
 뽀아먹어. 그 땅을. 그추룩.

웃놀이

111058 @ 응. 웃놀이.
 111058 # 웃놀인게 그 웃 영 낡이네 허는 거.
 111058 @ 그건 남자덜 저 녁둥배기 허는 거 말고 아이덜은 안헛수과?
 111058 # 녁둥배기 허는 거. 이젠 녁둥배기, 녁둥배기. 그뻘 웃놀이라. 웃이엔 허
 영 웃놔. 아이덜토 헤엇어.
 111058 @ 아이덜토 경 쫓끌락헌 웃으로 헤?
 111058 # 아니. 아이덜토 그 우리 어린 때 아이덜 낭 요만씩허게 허는디 이젠 안
 헤여. 아이덜 그 소나이덜은 우리 연결엿 아이덜은 구슬치긴 허더라.
 111058 @ 응.
 111058 # 그런 구실이 잇더라.
 111058 @ 예.
 111058 # 시민이 방 기려근에 구슬 그릇 타민 안 돼곡 그 아이 구슬을 맞쳐근에
 먹는 거. 구슬치기.

팽이치기

111059 @ 팽이치기.
 111059 # 팽이치긴 남저덜 잘헤.
 111059 @ 어떻행 허는 거마씨? 팽이치긴.
 111059 # 팽인이 우리 아버지 보민이 낭 그창 팽일 멘들아. 팽이 멘들양 멧 개
 멘들양 우리 아버지가 영 허영 돌려근에 낭께기에 몰루레기 즈라매민 툽툽 두드령
 잘 돌민 어드레 드러눕지 못허게 잘 돌민 잘 췌 거 헤영 우리 오레비 드러 마당에
 서 시겨꿌이네. 시겨꿌 그런 거. 지집아인 팽이치기 안헤여. 경허민 그 팽이가 저

아이도 두들곡 이 아이도 두들민 그 가까이 두들어 강이네 그 아이 팽이 둥그리는 디 가근에 이 팽이채로 팍 두들어근에 그 팽이 맞앙 그 팽이가 영영허멍 쓰러정 이팽이가 안 쓰러지민 먹는 거고. 이 팽이 그것 강 두드러뵤 이것도 자빠지곡 저거 자빠지민 안 먹는 거고.

111063 @ 예. 팽이채는 낭으로 만들지예?

111063 # 낭으로 멘들곡.

111063 @ 앞에는?

111063 # 낭께기로 만들곡 이디 낭께기 벗어지지 안허게 특지게 멘들아.

111063 @ 아.

111063 # 영영허영 특지게 멘드앙이네 다른 아이덜은 그냥 어똥해도 우리 아버지진 멘들아줘라게. 아덜이나. 낭께기 겁테기 곱닥이 뵤경 요디 특지게 헤영이네 손어께 로 이디 무슨 형겹으라도 허여근에 이디 줄라 매영이네 이만은 질게 헤여.

111063 @ 질게 무신 거 허는 건 힘벅으로 허는 거?

111063 # 응 힘벅으로 허더라. 그거 영 질게 허영이네 우리 아버지가 영 때려봐. 때려뵤이네 허민 아들이 이디 앳앙 드리 시겨. 이거 영 착 두들민 저레 들어가민 또 저디 강 착 두들곡 헤영 저 팽이 신 디깁지 다른 디레 가지 못허게시리 저레 가 민 또 그레 오곡 허영은에 그레 흐솔 두들곡 헤영 가까이 오민 너미 씨게 두들민 그거 안 맞일 거난 흐폼만 두드령 그 팽이 자빠지게 멘들더라.

111065 @ 아. 할머니 안헤보고 오레비 허는 것만.

111065 # 여즌 안헤여.

굴렁쇠

111068 @ 아 여잔 안헤여. 굴렁쇄라고예 그 똥글랑헌 바퀴 같은 거 이런 거 이 시민 쇠로 영 잡앙 굴리는 거.

111068 # 줄렁기가 아니고 옛날도 좌앵이가 잇더라.

111068 @ 쥘이?

111068 # 자전거.

111068 @ 응.

111068 # 그거 이제 살이 털어지고.

111068 @ 응.

111068 # 쇠가 똥글락 헌 거 이서.

111068 @ 예, 예.

111068 # 게민 그 낭께기 대는 딴 요렇게 요렇게 움스룩 허여.

111068 @ 예.

111068 # 움스룩 허민 우리 아버지가 어디간 그거 봉가단에 이거 영헤영 줄줄줄 줄 둥그리렌 마당에서 허민 우리 아버지 그 오라방덜 죽어부난 그 아덜을 벨 거 다 시겼어.

111068 @ 아.

111068 # 벨 거 다 시겼어. 경허민 줄줄줄 허민 우리 오레비가 최고 잘헤여.

111068 @ 어.

111068 # 다른 부미덜은 거 멘들아주는 부미 엇더라.

111068 @ 계난. 맞아. 어디서근에.

111068 # 우리 아버진이 막 그걸 스뭇 벨거 만든 알앙이 팽이도 스뭇 멘들앙 잘 등그는 걸로 허영 당신이 때려뿔 잘 돌민 허곡 안허민 또 손보곡. 연도 정연도 허영이네 꿈지 들게 허영 연 올려근에 집이 올랑 지등에 무경 오레비그라 영영만 허렌 헤영.

111068 @ 예.

111068 # 어리난 그거 못허민 영 영 허렌 허영 시기고. 벨 것만인 아덜을.

(깡)통차기

111071 @ 깡통차기, 통차기?

111071 # 그런 건 안헤반.

111071 @ 그런 건 안헤반.

뽕기치기

111074 @ 뽕이치기.

111074 # 팽이치긴 그거.

111074 @ 아니 뽕이, 뽕이.

111074 # 뽕이?

111074 @ 뽕이.

111074 # 팽이주게.

111074 @ 말고 저 새왓디.

111074 # 아 그거 뽕이치긴 헤여.

111071 @ 건 어떻 허는 거파?

111071 # 새왓디 가민이 부룩 뽕이가 이서이.

111071 @ 응.

111071 # 아까 나 저번이 그 밧디 근처 아이덜이 가근에 승키 바구리로 흐나씩 빠와.

111071 @ 아 경 하영?

111071 # 빠오민 그 뽕이 빠오민이 꿈지가 요레 아슬아슬 뽕이 으물이 나와.

111071 @ 응.

111071 # 나온 건 그렇게 지러기 이만씩 길어. 경헌 걸로 굴렁이네 대게 손 백른 아인 그거 우선 확확 확 뽕앙이네 조락 바구리로 반씩 구들, 구덕 죽은 걸로 반씩 허여당은에.

111071 @ 구덕 죽은 건 조락 바구니?

111071 # 응, 조락바구니. 그걸로 반씩 헤어당이네 그 저 빵이치킨이 영혜영 영혜영 착하게 놓민 이추룩 가되지명 허민 떡곡이 그냥 수량이 논 건 못 먹는 거.

111071 @ 아.

111071 # 땅을 멘들아사. 땅 멘들아사. 영혜영 그 아이 멧 개 내놓곡, 이녁 영 멧 개 내놓민 둘이가 이거 영허영 착하게 돌리민 저디 강이네 느란히 허민 땅이 엇는 거. 어떻 허영 그거 가되지는 수가 셔. 경허민 땅이네 혜영이네 그거 먹는 거.

111071 @ 아.

111071 # 경혜영 그레 그릇 굿어으정 그레 그, 저레까지 그릇 그서가명 경허고 빵이 이젠 벨라.

111071 @ 응.

111074 # 벨랑이네 이젠 막 놓추게. 낱이네 허민 메역이엔 허명이 메역 무꾼 거엔 혜영이네 저 빵이 삼센 안행 메역 삼서허멍 벗덜끼리이

111074 @ 응.

111074 # 푸는 송, 이제 사는 송 문 그추룩 '아이고 얼마팡?'허멍 허영은에 얼마엔 허여근에 우스개로 허영 얼마엔 허민 사쿠덴 허영 아이고 이건 영허고 정허곡.

111074 @ 하하하.

111074 # 지러기가 즐르고 뭐 경허연 뭇이엔 허여도 아이고 지러기 즐르난 싸게 주쿠덴 허멍 허곡이 혁밥도 허곡이.

111074 @ 혁밥?

111074 # 응.

111074 @ 혁밥은 뭐?

111074 # 혁밥은이 옹기 그릇 사발에 굽자리가 잇주게. 굽에이 돌썰기 더꺼앗영 혁 낱이네 밥 헛젠 허영이네 혁밥 허영. 아이고 이제 나 우리 우리집이 누게 제스 우다, 오랑 식게 먹읍센.

111074 @ 하하하.

111074 # 혁밥 험젠 허영 그런 장난도 허고.

111074 @ 아 소꿉놀이 이런 거구나예?

111074 # 응. 소꿉놀이. 그런 것도 헤나고.

111074 @ 빵이 뽑아근에 먹기도 헤나지 안헤수과?

111074 # 아이고 빵이 먹어. 맛좋아. 경행이네 하영 승키 바구리로 하나 행 오민 어무니넨 드러 일허민 이만인 벨랑이네 어무니 주민 어명도 떡곡 아방도 떡곡 막 맛좋아.

111074 @ 아이들만 그냥 장난으로 먹는 게 아니고?

111074 # 응, 어른덜토 허영은에 영 주민 어무니 먹읍서허민 그자 혹허게 어무니도 떡곡 아부지도 먹고. 아부지도 마당, 마레에서 무시거 영영허당이네 느네나 먹으라 허민 아버지 잡쉬, 잡쉬 허멍 허민 반앙이네 아방도 먹고.

111074 @ 하하하.

111074 # 우스개로 이 녀 어머신디도 그거 허영이네이 벨랑이네 그걸로 이젠 무
썩.

111074 @ 예.

111074 # 할망 메역 삼서 허영 우스개 허민 우리딸 아이고 착허다 메역 헤여왔구
나 어머이 경헤여. 어멍 메역 삼서 허민 나 돈 엇언 아이 사크라 허영 허민이. 아이
고 외상에 주쿠다 허멍 주민 우리 어멍 확 받았 먹어.

111074 @ 하하하.

고무줄놀이

111076 @ 할머니 잘헤난 거 고무줄 놀이.

111076 # 고무줄 놀이 잘 헛저. 피짜피짜피짜.

111076 @ 영 상 영 잡앙 두사람이 잡으민.

111076 # 양착으로 탁탁탁탁 허당 이만까지 노프게도 허곡이 이젠 또시 막 노프
게 영 들르민 영 곤작상 발로 탁 걸렁 일어사그넹 그것도 피짜피짜 그렇게도 헤 낮
어.

111076 @ 응. 고무줄은.

111076 # 또시 고무줄 영 행여 심영 노프민 돌아 가다근에 피짜 뽀도 허고.

111076 @ 아.

111076 # 기냥 샷가달로 저만은 강은에 허민 돌아가당 곤작 탁 상 이 발로 확 걸
렁 탁 놓민 그추룩도 허고.

111076 @ 곤작사는 거허고 샷가달치기허고.

111076 # 샷가달치기가 그거주게.

111076 @ 틀린 거 ㄹ쁜 거?

111076 # ㄹ쁜 거게.

111076 @ 샷가달이나 곤작이나?

111076 # 응. 영 허는 거. 곤작은 우리 이딴말 샷가달은 일본말이라.

111076 @ 아.

111076 # 그뻐 일본말이.

111077 @ 노래도 불르멍 허여 고무줄은?

111077 # 노래 불르멍 허여, 잊어불어서, 그 노래.

111077 @ 응.

111077 # 일본말로 허는 거난 이즈 데스 간 빵. 체암은 쳇곡베피 몰라. 이즈 데
스 강 빵. 뭇이엔 허영 피짜피짜 그노래 탁 불르민 잘못허당 걸리민 그 노래 돈 안
웨민 죽영 다른 아이가 허곡.

줄넘기

111078 @ 응. 줄넘기.

111078 # 것이 줄넘기주.

111078 @ 베뜰락.

111078 # 베뜰락.

111078 @ 베뜰락은 어땡?

111078 # 베뜰락도 게.

111078 @ 영 사근에 돌려?

111078 # 아니 이녁냥으로 영 뛰어근에 멧 개 뿔락도 허곡 또시 가르상 영 허민 또시 그 사름이 이디서 피짜피짜 가운데 사두서 뛰는 수도 잇곡. 또시 이제 마지막 으론 이만은 허민 돌아가당이네 피짜 곤작상이네 넘어오는 수도 잇고.

111078 @ 베뜰락 허는 것도 그런식으로.

111078 # 고무줄 뛰기.

111078 @ 고무줄허는 게 경허는 거 아니?

111078 # 응, 고무줄 뛰기. 그냥 이디서 가까운디선 이디서 피짜피짜 뛰당 이젠 막 노프주게. 노프게 영 허영은에 손 들르민이 가달로 어쁜 아인, 우린이 요 정도 들른 건 돌아가다근에 탁허게 시리 넘어와지는데, 어쁜 아이덜은 못 넘어. 못 넘어민 그디 오랑이네 줄 심은디 저디 잇당 돌아오랑 줄 심영 샷가달로 행 그거 걸려도 못 걸렁이네.

111079 @ 할머니 키도 크고 허난 잘헤시크라.

111079 # 잘헤여. 그런 거 잘헐어. 선수랏주게.

111079 @ 선수랏주게예.

그네뛰기

111080 @ 그네뛰기.

111080 # 그네뛰긴 최고고.

111080 @ 그네뛰긴 옛날말로 무신거엔 곱아?

111080 # 굴메뛰기.

111080 @ 굴메뛰기. 어디 저 무깁.

111080 # 흑교에 흑교에 가민 굴메 뛰는 거 두 개 헤영 시민 우리 동네, 저 동네 살 때난 스뭇 그 동넛 사름은 지네 왕이라. 다른 디 아이덜 오라근에 참여 못헤영 생각허영 주민 뛰어도 뛰도 못헤여.

111080 @ 앗양허는 거짜, 사근에 허는 거짜?

111080 # 앗지지 안헤영 앗양도 그 굴메 영 밀리민 앗다갓다허곡 상은에 이녁냥으로 발로 익숙으민 영 허민 영 영허민 저 낭깻지 피짜피짜 피짜피짜허여.

111080 @ 안 믁스와?

111080 # 안 믁스와.

111080 @ 하하하.

111080 # 저 낭 지레기까지 ㄹ찌 강은에 이레 오고 ㄹ찌 강 이레 오고, 나 무섭게 헤 낫어.

111080 @ 하하하.

111081 # 경허난 노래도 늣보단 더 먼저 배우곡이. 저디 활동사진 구경 강 오랑 이네 늣은이 잊어불영 졸바로 곤도 못헿 거꾸로도 곺아도. 아이고 자이 임춘이 잘 곤나, 임춘이가 곺으라, 곺으라. 아이고 난 잊어불언 뵈이 어떻헌디 몰른다. 일허레 강 곺으민 아이고 맞아 경헿어, 경헿어 허명이. 난 그런 거 잊어불지 안헿쳐라게.

한다리인다리

111082 @ 혼다리 인다리?

111082 # 혼다리인다리도 허여.

111082 @ 영행은에 발영 허민 어떻헤영 허는 거?

111083 # 혼다리인다리 개천개 주메오전 버문개 허허 장장 고노꼬 따락허민 이거 영.

111083 @ 오글리는 거?

111083 # 응 오그리는 거.

111083 @ 또 계속 노래 불러서?

111083 # 혼개인개 개천개 주메오전 버문개 허허 장장 고노꼬 딸각허민 딸각허민 오그리는 거.

111084 @ 남은 사름이 이기는 거?

111084 # 남은 사름이 지는 거.

111084 @ 아, 쯤 마지막에 남은 사름이 지는 거.

111084 # 그것에 노래 맞추당 보민 남은 사름 이서.

111084 @ 아, 쯤 남은 사름이 지는 거.

111084 # 응.

111085 @ 그건 여자, 남자아이덜도 허여?

111085 # 남저덜도 허주만은 여저가 잘헤여.

111085 @ 건 집이서 앓아근에 허는 거 아니?

111085 # 앓양덜 그자 놀당이네 그거 허여. 나 못허는 거 엇어나시네.

111085 @ 그거 무신거엔 곺아? 그냥 혼다리인다리엔 곺아? 무신거 허게 행.

111085 # 우리 혼다리인다리 허게 헤영은에.

111085 @ 아.

111085 # 그 그거 그런 노래도 잘 불르지 못허는 사름도 서.

111085 @ 맞아.

111085 # 난이 그것도이 늣보단 먼저 초란이ㄹ찌 알아.

111085 @ 초란이ㄹ찌. 하하하.

111085 # 우리 아부지가.

111085 @ 예.

111085 # 저널이 즈석 아덜로 나시민 못 헐 것이 엇은디 엇은디 그렇게 해낫어.

111085 @ 예.

111085 # 저널이 즈석 혼 즈만 아덜이엔 안헿 혼 즈만 들앙 나시민 춤말로.

111085 @ 혼 자만 들앙 나시민.

111085 # 무서운 것이 엇을 건디 딸로 나불엇젠.

제2절 어휘

1. 인체

얼굴과 머리

201001	머리	머리
201002	대가리	다강이
201003	크다[大]	크다
201004	숫구멍	심골
201005	제비초리	총대기
201006	머리털	머리털
201007	머리카락	머리카락
201008	길다[長]	질다
201009	짧다[短]	졸르다
201010	빗[梳]	빗
201011	얼레빗	얼레기
201012	참빗	챙빗
201013	땡다	따다
201014	비녀	빈네
201015	고수머리	곱슬머리
201016	가마[旋毛]	가메, 상감
201017	쌍가마	쌍가메
201018	가르마	앞가름
201019	이마	이메
201020	넓다[廣]	넙다
201021	이마빼기	임탱이
201022	솜털	솜털
201023	얼굴	늦
201024	낯[面]	늦
201025	웃다[笑]	웃다
201026	그리다[寫]	기리다
201027	세숫대야	씻사리, 시숫사리
201028	씻다[洗]	시스다
201029	거울	색경
201030	보다[見]	바레다
201031	뺨	양지
201032	뺨따귀	*

201033	때리다[打]	딱리다
201034	불	양지
201035	불따구니	*
201036	불거리	*
201037	광대뼈	불뼈
201038	보조개	보조개
201039	주름살	주름
201040	눈[目]	눈
201041	흰자위[目]	흰동자
201042	검은자위	검은동자
201043	눈꺼풀	*
201044	거적눈	*
201045	눈썹	눈썹
201046	질다[濃]	지트다, 진허다
201047	속눈썹	속눈썹
201048	양미간(眉間)	*
201049	수침(垂針)	눈골메
*201050	거머리	*
201051	폐롭다	정세발르다
201052	눈곱	눈곱
201053	눈초리	*
201054	사팔눈	드람지눈, 삼팔뜨기
201055	눈웃음	눈웃음
201056	코	코
201057	만지다[撫]	문지다
201058	콧마루	콧난간
201059	세다[強]	세다
201060	콧구멍	콧고망
201061	코딱지	콧펠레기
201062	콧물	콧물
201063	닦다[拭]	다끄다
201064	콧수염	콧시염
201065	인중	인중
201066	입	입
201067	쓰다[苦]	쓰다
201068	참말	웁은말
201069	거짓말	거짓말

201070	바르다[正]	바르다
201071	답달하다	답도리허다, 답달허다
201072	입술	입바우
201073	헐다[毀]	헐다, 무술나다
201074	입놀림	입놀림
201075	말하다	말근다
201076	입방아	*
201077	허풍	허풍
201078	뇌다	*
201079	침[唾]	춤
201080	삼키다[吞]	삼지다
201081	가래침	가래춤
201082	뱉다[吐]	바끄다
201083	느침	니치름
201084	턱받이	턱받이
201085	혀	세
201086	활다	활르다
201087	헛바늘	셋가시
201088	이[齒]	니
201089	앞니	압니
201090	송곳니	*
201091	덧니	걸니
201092	버드렁니	버더진니
201093	어금니	어금니
201094	사랑니	사랑니
201095	옥니	옥니
201096	옥다[曲]	오그라지다
201097	돋다[出]	돋다
201098	옥물다	저그리물다
201099	턱	턱
201100	턱살	*
201101	빨다[稍峽]	빨아지다
201102	수염	시염
201103	귀	귀
201104	귓바퀴	귓바우
201105	귓볼	귓드레미
201106	귓구멍	귓구멍

201107	귀칭(고막)	귀창
201108	귀지	귓밥
201109	귀이개	귀오개
201110	가는귀	ㄱ는귀
201111	귀밑	*
201112	구레나룻	녹대시염
201113	목	목
201114	굶다[飢]	흠다
201115	모가지	모가지
201116	먹살	*
201117	잡다[執]	심다
201118	뒤통수	뒤통수
201119	꼭뒤	*
201120	뒷덜미	뒷모가지

상체

201121	어깨	독지
201122	어깨뼈	독지뼈
201123	어깨죽지	*
201124	겨드랑이	저갱이
201125	팔	팔
201126	팔뚝	팔뚝
201127	새기다[刻]	새기다
201128	팔심	팔심
201129	힘줄	심줄
201130	답살	득살
201131	팔꿈치	팔꿈지
201132	팔목(=손목)	홀목
201133	뼈	뼈
201134	뼈다귀	팡
201135	손	손
201136	왼손	왼손
201137	오른손	노단손
201138	왼손잡이	왼손잡이
201139	손등	손등뎡이
201140	손바닥	손바닥
201141	손톱	손콧

201142	들다[擧]	들르다
201143	흔들다[搖]	치다
201144	거스러미	거슴
201145	할퀴다	극취다
201146	손가락	손가락
201147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
201148	검지손가락	검지손가락
201149	가운뎃손가락	상손가락
201150	약손가락	약지손가락
201151	새끼손가락	생끼손가락
201152	손살	손거림
201153	가슴	가슴
201154	뛰다[跳]	튀다
201155	젓가슴	젓가슴
201156	명치	오목가슴
201157	명자리	*
201158	젓	젓
201159	젓꼭지	젓꼭지
201160	젓명울	명얼
201161	짜다[擻]	짜다
201162	울다[鳴]	울다
201163	배[腹]	배
201164	기다[匍]	기다
201165	고프다[餓]	고프다
201166	배꼽	뱃도롱
201167	옆구리	옆구리
201168	갈비뼈	갈리뼈
201169	등	등
201170	밀다[推]	밀다
201171	굽다[曲]	굽다
201172	등때기	등땡이
201173	가렵다[癢]	ㄱ렵다
201174	긁다[抓]	긁다
201175	결리다	절리다
201176	등목(=목물)	물지치기
201177	찬물	찬물
201178	등마루	*

201179 등뼈 등짱

하체

201180	허리	허리
201181	잔허리	*
201182	가늘다[細]	ㄱ늘다
201183	엉덩이	엉덩이
201184	살집	*
201185	볼기	볼기
201186	엉덩이뼈	엉덩이뼈
201187	궁둥이	궁둥이
201188	궁둥이뼈	궁둥이뼈
201189	살	슬
201190	새끼똥구멍	새끼똥꼬냥
201191	더럽다[汚]	더럽다
201192	가볍다[輕]	가볍다
201193	무겁다[重]	무겁다
201194	살	조금테기
201195	가래뚫	멍얼
201196	다리[脚]	다리
201197	서다[立]	사다
201198	허벅다리	허벅다리
201199	넓적다리	넓적다리
201200	무릎	동무릅
201201	무릎뼈	동무릅짱
201202	뼈다[脛]	고무까다
201203	정강이	정깁이
201204	정강뼈	정깁이뼈
201205	종아리	종에
201206	장판지	*
201207	오금	조금테기
201208	복사뼈	구마리짱
201209	발[足]	발
201210	걸다[步]	걸다
201211	긫다[凶]	긫다
201212	헛발질	헛발질
201213	발목	구마리

201214	겹질리다	고무까다
201215	발등	발등
201216	발바닥	발창
201217	발부리	압척이
201218	차다[蹴]	차다
201219	간지럽다	간지럽다
201220	간지럼	간지럼
201221	발가락	발가락

201221-1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
201221-2	둘째발가락	검지발가락
201221-3	가운데발가락	상발가락
201221-4	넷째발가락	*
201221-5	새끼발가락	새끼발가락

201222	발살	발가락 트멍
201223	까치눈	*
201224	티눈	퀴냉이, 쾡이
201225	고린내	*
201226	발톱	발굽
201227	발뒤축	발뒤척이
201228	슬개[膽]	슬개
201229	허파	복부기
201230	마음	마음새, 믯슴
201231	곱다[麗]	곱다
201232	창자	창지
201232-1	큰창자	큰창지
201232-2	작은창자	족은창지
201233	목숨	목숨
201234	빼앗다[脫]	뺏스다
201235	한숨	한숨

2. 육아

발달

202001	서다[孕]	설다
202002	시다[酸]	시다
202003	기쁘다[喜]	지꺼지다
202004	입덧	입덧
202005	낱다[媿]	낱다
202006	태(胎)	애기뿔
202007	땃줄	뱃똥줄
202008	나이	나이
202009	어리다[幼]	어리다
202010	터울	못이
202011	갓난아이	갓난아기
202012	싸다[包]	싸다
202013	어린아이	두린아이
202014	사내아이	스나이
202015	계집아이	지집아이
202016	아깝다	아깝다, 족허다
202017	아이보개	아기드는 사름
202018	업저지	애기업게
201019	폼다	폼다
202020	오줌	오줌
202021	오줌독	오줌항
202022	오줌버캐	오줌찌갱이
202023	오줌싸개	오줌쌌기
202024	누다[便]	싸다
202025	나무라다	나무라다
202026	지린내	지렁내
202027	마렵다	므렵다
202028	꾸지람	욕
202029	배넛저고리	뿔데창옷
202030	기저귀	지성귀
202031	배두렁이	배부레기
202032	포대기	뜨대기
202033	보자기	보자기
202034	보따리	포따리
202035	풀다[解]	클르다
202036	끄르다	클르다
202037	쳐네	걸랭이

202038	띠	띠
202039	개구멍바지	강알터진바지

재통과 놀이

202040	죄암죄암	주메주메
202041	곤지곤지	곤지곤지
202042	따로따로	섬메섬메
202043	도리도리	마니마니
202044	짹짹	던데던데
202045	부라부라	*
202046	걸음마	*
202047	걸리다	걸리다
202048	곤두박질	곤작살락
202049	곤두서다	곤작사다
202050	가동가동	가들랑가들랑
202051	안다[抱]	안다
202052	안기다	안기다
202053	목말	청고개
202054	흉내	승
202055	흉내질하다	승털다
202056	엄살	엄살
202057	쌈	시알
202058	자라다[成長]	질다
202059	부아	부에
202060	참다[忍]	춤다
202061	심술	몽니
202062	밉다[憎]	밉다
202063	옛말	옛말
202064	자치기	자치기
202065	구슬치기	굿리기
202066	딱지치기	빠찌치기
202067	통차기	*
202068	숨바꼭질	굽을락
202069	숨다	굽다
202070	소꿉놀이	소꿉장난
202071	놀다[遊]	놀다
202072	실뜨기	실데쓸락

202073	풍계문이	*
202074	줄넘기	베틀락
202075	줄다리기	줄등길락
202076	수수께끼	*
202077	공기	공기
202078	공깃돌	공깃돌
202079	던지다[投]	데끼다
202080	고누	*
202081	땅뺏기	땅뺏아먹을락
202082	사금파리	사금파리
202083	말놀음질	말탈락
202083-1	생말타기	*
202083-2	죽은말타기	*
202084	대말[竹馬]	*
202085	달음박질	달음박질
202086	겨루다[競]	드투다
202087	채기차기	채기찰락
202088	혜엄치다	히다
202089	웃놀이	웃놀이, 녁동배기
202090	웃가락	웃가락

202090-1	도	한 짝만 젓혀졌을 때	도
202090-2	개	두 짝 젓혀졌을 때	개
202090-3	걸	세 짝이 젓혀졌을 때	걸
202090-4	웃	네 짝 모두 젓혀졌을 때	웃
202090-5	모	네 짝 모두 엮어졌을 때	모

202091 동무니 *

202091-1	외동무니	한 동만으로 가는 말	*
202091-2	두동무니	두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
202091-3	석동무니	세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
202091-4	넉동무니	네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

202092 막동 *

202093 보리웃 *

202094 줄목 *

202095	이기다[勝]	이기다
202096	승강이	*
202097	싸우다[鬪]	드투다
202098	패싸움	패싸움
202099	모다기령	모다치기
202100	편벽하다	편벽하다
202101	팽이치기	팽이치기
202102	팽이	팽이
202103	돌다[回]	돌다
202104	바람개비	브름재기
202105	연	연
202106	방패연(쟁연)	정연
202107	가오리연	개우리연
202108	연달	족대

202108-1	머릿달	연의 머리에 붙인 대	*
202108-2	콩숫달	연의 가운데에 길이로 붙인 대	*
202108-3	꺾달	연의 네 귀에 '×'자 모양으로 엮붙인 대	*
202108-4	허릿달	연의 허리에 붙인 대	*

202109	방구멍	*
202110	꼭지	*
202111	갈개발	*
202112	벌이줄	*

202112-1	머릿줄	연의 머릿달 양 끝에 매는 벌이줄	*
202112-2		연의 방구멍 위쪽 꼭지에 매는 벌이줄	*
202112-3	콩숫줄	연의 콩숫구멍에 꿰어서 콩숫달에 잡아매어 비스듬하게 올라와 가운데 줄과 한군데로 모이는 벌이줄	*
202112-4	활벌이줄	연의 머릿달 양쪽 뒤로 돌아가 활시위 처럼 잡아당기어 맨 벌이줄	*
202112-5	가운뎃줄	연의 방구멍에 매는 벌이줄	*

202113	얼레	얼레기
202114	두모얼레	얼레기
202115	네모얼레	통얼레기
202116	감다[捲]	감다

202117	개미[연놀이]	연타불
202118	퇴김	*
202119	그네[鞦韆]	굴메
202120	밀신개	*
202121	굴렁쇠	*
202122	구르다[轉]	돌다
202123	썰매	*
202124	자전거	자전거
202125	키[身長]	지레
202126	키다리	지레큰사름

생리와 질병

202127	하품	하우염
202128	선하품	*
202129	기지개	질
202130	기지개하다	질트다
202131	경기하다	정세발허다
202132	놀라다[驚]	놀라다
202133	졸음	졸음
202134	졸다[眠]	졸다
202135	졸리다	조랍다
202136	잠	즘
202137	귀잠	지픈즘
202138	자다[眠]	자다
202139	잠꼬대	헛소리
202140	잠귀	즘귀
202141	잠꾸러기	즘꾸레기
202142	몸부림	몸질
202143	몸부림하다	몸질치다
202144	트림	게트레기
202145	말꼭질	툔구지
202146	채채기	헛갱이
202147	개치네췌	*
202148	방귀	똥
202149	방귀뀌다	똥뀌다
202150	방귀장이	똥피기
202151	구린내	똥내음살

202152	노린내	그끄렁내
202153	사레들다	야게걸다
202154	감기	고뿔
202155	기침	지침
202156	홍역	족은마누라
202157	학질	*
202158	천연두	큰마누라
202159	곰보	*
202160	비듬	비듬
202161	기계총	이발총
202162	독창	*
202163	두부백선	*
202164	웁	*
202165	버짐	버즘
202166	마른버짐	*
202167	진버짐	*
202168	주근깨	*
202169	기미	지미
202170	사마귀[黑子]	사막
202171	여드름	늦싸움
202172	멍	멍
202173	퍼렇다	시커멍허다
202174	굳은살	멍쿠쟁이
202175	부스럼	부스럼지
202176	종기	허물
202177	습종	*
202178	나다[生]	나다
202179	붉은발	*
202180	다대	허물딱지
202181	고름[膿]	고름
202182	고장물	헤영헌물
202183	낫다[癒]	낫다
202184	아물다	새슬올르다
202185	표적	허물그르
202186	생인손	생손
202187	알다[痛]	알리다
202188	두드러기	두드레기

202189	땀띠	땀띠기
202190	소경	봉서
202191	칭맹과니	튼봉서
202192	먼산바라기	*
202193	애꾸눈이	외눈백이
202194	사팔뜨기	사팔뜨기
202195	다래끼	눈들윗
202195-1		*
202195-2		*
202196	언챙이	얼챙이
202197	외언챙이	*
202198	쌍언챙이	쌍얼챙이
202199	귀떡다	귀막다
202200	귀머거리	귀마구리
202201	병어리	말므레기
202202	말더듬이	말더듬이
202203	혀짤배기	세다드레기
202204	입비뚫이	입떼와진사름
202205	구안괘사	와살풍
202206	가납사니	*
202207	곰배팔이	*
202208	곱사등이	등굽은 사름
202209	절뚝발이	다리저는사름
202210	얏은뱅이	얏인배기
202211	문둥이	문둥이

3. 친족

203001	아버지	아버지
203002	어머니	어머니
203003	아비	아방
203004	어미	어멍
203005	할아버지	하르버지
203006	할머니	할머니
203007	남편	남펜
203008	아내	각시

203009 부부 두가시
 203010 싫다[厭] 궂다
 203011 좋다[好] 좋다
 203012 아들 아덜
 203012-1 큰아들 큰아덜

203012-1	큰아들	큰아덜
203012-2	둘째아들	셋아덜
203012-3	셋째아들	말젯아덜
203012-4	막내아들	죽은아덜

※아들이 다섯인 경우

203012-5	큰아들	큰아덜
203012-6	둘째아들	셋아덜
203012-7	셋째아들	말젯아덜
203012-8	넷째아들	죽은말젯아덜
203012-9	막내아들	죽은아덜, 막둥이

※아들이 여섯, 일곱, 여덟인 경우도 가능하면 조사

203013 친아들 친아덜
 203014 의붓아들 다슴아덜
 203015 딸 딸
 203016 친딸 친딸
 203017 의붓딸 다슴딸
 203018 자식 자식
 203019 없다[無] 엇다
 203020 자손 즈손
 203021 어비딸 에비딸
 203022 어비아들 어으새끼
 203023 닳다[相似] 닳다
 203024 어이딸 어이딸
 203025 어이아들 어으새끼
 203026 말이 못이
 203027 막내 막둥이
 203028 형 성
 203029 누님 누님
 203030 누이 누이

203031	언니	성님
203032	아우	아시
203033	외아들	독아덜, 단아덜
203034	외딸	단딸
203035	쌍둥이	글리기
203036	다르다[異]	트나다
203037	같다[如]	ㄱ트다
203038	양자	양제
203038-1		양제보내다
203038-2		양제들다
203039	처녀	비바리
203040	총각	스나이
203041	혼인	결혼
203042	날[日]	날
203043	사주보다	사주보다
203044	중신	주인
203045	권당	퀸당
203045-1		덤덜
203045-2		방상
203046	앉은잔치	*
203046-1	암창개	암창개
203047	사위	사우
203048	며느리	메누리
203049	시아버지	시아부지
203050	시어머니	시어머니
203051	장인	가시아방
203052	장모	가시어명
203053	외할아버지	외하르바지
203054	외할머니	외할머니
203055	삼촌	삼촌
203055-1	삼촌	삼촌
203056	아주버니	사아주바니
203057	아주머니	아주망
203058	환갑	환갑
203059	늙으신네	늙신어른
203060	꾸정꾸정하다	과짜허다
203061	살다[生]	살다

203062	고로롱팔십	콜랑팔십
203063	병추기	뱅주시
203064	거동하다	오몽허다
203065	손자	손지
203066	손녀	손녀딸
203067	친손자	친손지
203068	외손자	외손지
203069	친탁	성탁
203070	외탁	외탁
203071	내척	성펜
203072	외척	외펜
203073	종내기	종내기
203074	시누이	시누이
203075	올케	아지망
203076	큰아버지	큰아방
203077	큰어머니	큰어멍
203078	작은아버지	족은아방
203079	작은어머니	족은어멍
203080	조카	조케
203081	고모	고모
203082	고모부	고모부
203083	이모	이모
203084	이모부	이모부
203085	외삼촌	외삼촌
203086	넋할아버지	넋하르방
203087	넋할머니	넋할망
203088	넋손자	넋손지
203089	홀아버	홀아방
203090	홀어미	홀어멍
203091	친아버지	친아버지
203092	친어머니	친어머니
203093	의붓아버지	다슴아방
203094	의붓어머니	다슴어멍
203095	웁딸	데려온딸
203096	누구	누게
203097	남[他]	눔

4. 의복

옷감과 세탁

204001	옷감	옷가움
204002	끓다	끈다
204003	명주	맹지
204004	명주실	맹지실
204005	명주옷	맹지옷
204006	줄다[縮]	줄다
204007	무명	미녕
204008	무명실	미녕실
204009	닷새무명	닷새미녕
204010	옛새무명	옛새네모
204011	생목	지체미녕
204012	광목	광목
204013	베	베
204014	베옷	베옷
204015	베치마	베치메
204016	숨	소게
204017	풀숨	맹지숨
204018	숨틀	숨틀
204019	숨틀집	소게테우는집
204020	목화	멘네
204021	목화다래	멘넛드레기
204022	누에	누에
204023	누에채반	*
204024	번데기	봉데기
204025	고치	고치
204026	뽕잎	뽕잎
204027	뽕나무	뽕낭
204028	산뽕나무	ㄱ새뽕낭
204029	오디	뽕낭열매
204030	다듬잇돌	다듬이돌
204031	다듬잇방망이	다듬이방멩이
204032	펴다	폐우다
204033	빨다[滌]	빨다

204034	거품	계끔
204035	물거품	물계끔
204036	빨랫돌	물광
204037	빨랫방망이	세답마께
204038	빨랫바구니	세답바구리
204039	헝구다	헤우다
204040	빨랫줄	빨랫줄
204041	마르다[乾]	들르다
204042	바지랑대	빨래작대기
204043	널다	널다
204044	걷다[收]	들이다
204045	바래다[褪]	바래다
204046	헝겂	헝벅
204047	찢다[裂]	찢다
204048	나부랭이	*

복식

204049	바지	바지
204050	바짓가랑이	바지강알
204051	저고리	저고리
204052	치마	치메
204053	치맛자락	치멧가락
204054	풀치마	통치메
204055	옷고름	골름
204056	옷깃	깃
204057	옷섶	섶
204058	단추	단추
204059	매듭단추	못인단추
204060	동정	동정
204061	소매	소미
204062	중의	중이
204063	갈중의	갈중이
204064	적삼	적삼
204065	도포	도복
204066	두루마기	두루막
204067	장옷	장옷
204068	고쟁이	고장중의

204069	토시	폴토시
204070	누더기	누더기
204071	거지	동녕바치
204072	구두쇠	구두쇠
204073	잠방이	점뱅이
204074	허리띠	허리띠
204074-1		*
204075	주머니	주멩기
204076	호주머니	계와
204077	넣다[入]	넣다
204078	버선	보선

204078-1	버선목	발목이 닿는 부분	목
204078-2	버선꿈치	발꿈치가 닿는 부분	뒤척이
204078-3	버선등	발등이 닿는 부분	*
204078-4	버선코	앞쪽 끝에 뽀족한 부분	코지

204079	길목버선	질목
204080	버선발	보선바람
204081	대님	다님
204082	감발	*
204083	홀옷	훗옷
204084	겹옷	점옷
204085	숨옷	소게옷
204086	얇다	얄롭다
204087	입다[着]	입다
204088	이불	이불
204089	이불깃	이불깃
204090	이불잇	이불꺾데기
204091	홀이불	훗이불
204092	겹이불	점이불
204093	사이	트멍
204094	누비이불	끌레이불
204095	이불보	이불포
204096	보풀	푸숨
204097	홀청	이불거죽

204098	요	요
204099	옷잇	요꿍데기
204100	눅다[臥]	눅다
204101	누이다	눅지다
204102	담요	담요
204103	방석	자부동, 방석
204104	앉다[座]	아지다
204105	베개	베개
204106	베갯잇	베개꿍데기
204107	베갯머리	*
204108	베갯모	베개모메기
204109	목침	냥베개
204110	삿갓	삿갓
204111	패랭이	패랭이
204112	유건	유건
204113	병거지	감티
204114	밀짚모자	밀냥패랭이
204115	미사리	*
204116	짚신	초신
204117	제총박이	*
204118	판총박이	*
204119	미투리	*
204120	삼다[造履]	즐다
204121	나막신	남신
204122	가족신	창신
204123	부르뜨다	다이다
204124	벗다[脫]	벗다
204125	설피	*
204126	문수	몽수
204127	부채	선재
204128	미선	*
204129	부치다[扇]	푸끄다

바느질과 도구

204130	반질고리	바농상지
204131	가위	ㄱ새
204132	마르다[裁]	들르다

204133	골무	골메
204134	실	실
204135	실꾸리	실가림
204136	실패	실패
204137	바늘	방
204138	찌르다[刺]	찔르다
204139	바늘겨레	바늘겨레
204140	바늘귀	바늘귀
204141	꿰다	끼다
204142	깎다	줍다
204143	실밥	실밥
204144	접다	줍다
204145	굽치다	굽접다
204146	휘갑치다	감치다
204147	재봉틀	미승
204148	다리미	다리미
204149	다리다[熨]	다리다
204150	인두	윤디
204151	인두판	윤디판
204152	누르다[壓]	눌르다
204153	씨아	씨블르는 물레

204153-1	(씨아 기둥)	가락을 끼우는 좌우에 있는 두 개의 기둥	*
204153-2	썰기	가락과 장가락이 마주 붙어 돌아가도록 밑에서 받치는 나무	*
204153-3	(갈개)	씨아질을 할 때 씨아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타 얹는 얹을개	*
204153-4	씨앗귀	가락 끝에 파매기처럼 생긴 톱니	*
204153-5	씨아손	손잡이	손잡이
204153-6	가락	씨를 빼는 톱니	*

204154 물레 짓는물레

204154-1	괴머리	물레의 왼쪽 가로대 끝 부분에 놓는 받침 나무	*
204154-2	괴머리기둥	괴머리에 세워진 기둥	*
204154-3	설다리	물레의 바탕 위에 세우는 두 개의 기둥	*
204154-4	가로대	물레 몸통과 괴머리를 가로지른 나무	*
204154-5	물레바퀴	물레의 바퀴	*
204154-6	꼭지마리	물레의 손잡이	*
204154-7	동줄	물레의 바퀴와 바퀴를 이은 줄	*
204154-8	가락고동	괴머리의 두 기둥에 가락을 걸기 위하여 고리처럼 만들어 박은 물건	*
204154-9	가락(옷)	실이 감기는 쇠꼬챙이	*
204154-10	굴뚝	물레의 몸이 실린 중심의 굴대	*
204154-11	물렛줄	물레의 바퀴와 가락을 걸쳐 감은 줄	*

204155 자세 어울리는거

5. 음식

주식

205001	밥	밥
205002	쌀	쌀
205003	쌀독	쌀항
205004	담다[入]	담다
205005	보리밥	보리밥
205006	끓어오르다	부끄다
205007	빼다[湯水]	뺄다
205008	조밥	조팍
205009	덜다[減]	덜다
205010	흰밥	곤밥
205011	팥밥	팥밥
205012	반지기	반질레기
205013	고두밥	선밥
205014	먹다[食]	먹다
205015	누룽지	누녕이
205016	눌은밥	누녕이
205017	더운밥	뜨순밥
205018	식은밥(찬밥)	식은밥

205019	툇밥	*
205019-1	괘밥	*
205019-2	괘래밥	*
205020	밥보	*
205021	밥술	*
205022	밥알	밥방울
205023	끼니	밥
205024	늦다[晩]	늦다
205025	이르다[早]	이르다
205026	공밥	공짜
205027	놀다	놀다
205028	승냥	승냥
205029	화독내	타는내
205030	국	국
205031	나물국	나물국
205032	콩국	콩국
205033	춧국	*
205034	냉국	냉국
205035	건더기	건지
205036	국물	국물
205037	굶다[飢]	굶다
205038	죽	죽
205039	덥다[暑]	덥다
205040	흰죽	흰죽
205041	팥죽	팥죽
205042	섞다[混合]	서끄다
205043	콩죽	콩죽
205044	갱죽	국죽
205045	깨죽	깨죽
205046	녹두죽	녹디죽

부식

205047	반찬	반찬
205048	데우다	데우다
205049	김치	짐치
205050	배추김치	배추짐치
205051	무김치	무수짐치, 늬삐짐치

205052	열무김치	춧마기김치
205053	물김치	물김치
205054	나박김치	*
205055	갓김치	갓늬물김치
205056	파김치	파김치
205057	깍두기	깍두기
205058	메주	메주
205059	담그다	담다
205060	간장	장물
205061	장물	장물
205062	된장	웬장
205063	소금	소금
205064	소금버캐	소금병탱이
205065	소금장수	소금장시
205066	간	근
205067	맛	맛
205068	간하다	근허다
205069	콩나물	콩늬물
205070	숙주나물	녹디늬물
205071	무나물	늬뻬채
205072	고사리	고사리
205073	고사리나물	고사리탕쉬
205074	고사리밥	고사리손
205075	꺾다[切]	거끄다
205076	곳[場所]	곳
205077	고비	베염고사리
205078	미나리	미나리
205079	부추	새우리
205080	상추	부루
205081	시금치	시금추
205082	푸성귀	송키
205083	오이	오이
205084	물외	물웨
205085	참외	츄웨
205086	수세미외	스가웨
205087	말물	챗고개
205088	끝물	마지막

205089	개똥참외	갈장귀
205090	원두막	웻막
205091	깻잎	유잎
205092	고추	고치
205093	풋고추	폴고치
205094	고춧가루	고치ㄴ루
205095	맵다[辛]	맵다
205096	작다[小]	족다
205097	호박	호박
205098	청등호박	늪은호박
205099	호박잎	호박잎
205100	시들다	유올다
205101	더덕	더덕
205102	젓	젓
205103	자리젓	자리젓
205104	멸치젓	멜젓
205105	아감젓	아가미젓
205106	짜다[鹽]	짜다
205107	초(식초)	초

별식

205108	흰떡	곤떡
205109	백설기	제펜
205110	부스러기	부스레기
205111	송편	송편
205112	소[떡소]	쉬
205113	고물	쉬
205114	도래떡	돌레떡
205115	설다[未熟]	설다
205116	만두	*
205117	가루	ㄴ루
205118	국수	우등
205119	칼국수	칼국수
205120	삶다[烹]	숯다
205121	수제비	즈배기
205122	물다[淡]	질다
205123	범벅	범벅

205124	미숫가루	개역
205125	볶다[炒]	보끄다
205126	붕지	붕투
205127	과줄	옛부쨌떡
205128	옛기름	골
205129	감주	감주
205130	달다[甘]	들다
205131	술	술
205132	막걸리	웁술
205133	붓다[注]	비우다
205134	기울다[傾]	자울다
205135	주다[授]	주다
205136	마시다[飲]	먹다
205137	준(罇)	춘
205138	엎다	어프다
205139	술고래	술푸대
205140	술독	술항
205141	술심부름	*
205142	술장사	술장시
205143	숨기다	굽지다
205144	찾다[索]	춧다
205145	들이켜다	먹다
205146	갑시다	곡기다
205147	지짐이	부쨌개
205148	누름적	부쨌개
205149	산적	적갈

부엌과 그릇

205150	부엌	정지
205151	부엌문	정깃문
205152	불때다	불때다
205153	불등걸	불잉겅이
205154	불뚱	*
205155	부엌비	정깃비
205156	내[煙氣]	내
205157	낮다[低]	야프다
205158	높다[高]	노프다

205159	그을음	그시렁
205160	검댕	숫그시렁
205161	아궁이	숫강알
205162	채	불채
205163	모으다[集]	모두다
205164	부뚜막	*
205165	봇돌	숫덕
205166	솔	숫
205167	옹달솔	옹지레기
205168	무쇠솔	무쇠숫
205169	끓다[沸]	뀌다
205170	솔뚜껑	숫뚜껑
205171	솔귀	*
205172	솔전	숫천
205173	솔바닥	숫창
205174	솔밑	숫창
205175	솔검정	숫그시렁
205176	부삽	불그네
205177	군손	헛손
205178	군일	헛일
205179	살강	살레
205180	부지깻이	부지땡이
205181	짚방석	줄방석
205182	성냥	성냥
205183	성냥개비	곽살
205184	성냥갑	곽
205185	부시	부쇄
205186	부싷돌	부시
205187	부싷깃	불썸(어욱), 어주엿대(어주에)
205188	부시쌈지	부쇄주멩기
205189	부시통	*
205190	등잔	각깃불
205191	관솔	*
205192	호롱	지름각지
205193	남포등	호야불
205194	접싷불	접싷불
205195	불켜다	불싸다

205196	숯	숯
205197	검다[黑]	거명하다
205198	숯가마	숯
205199	뜬숯	*
205200	숯검정	숯구메기
205201	불타다	카다
205202	탄내	칸내
205203	불태우다	불케우다
205204	불티	불잉겅이
205205	끄다[消火]	끄다
205206	화로	화리
205207	돌화로	돌화리
205208	청동화로	정동화리, 놋화리
205209	붕당	*
205210	화룻불	화릿불
205211	불찌다	불추다
205212	화상(火傷)	*
205213	부손	화리수꾸락
205214	부젓가락	불하시
205215	다리쇠	시발쇠
205216	석쇠	적쇠
205217	물독	물항
205217-1		*
205217-2		*
205218	담배	담배
205219	피우다	피우다
205220	용고뚜리	*
205221	담뱃대	통대
205222	빨다[吸]	빨대
205223	물부리	물부루
205224	담배통	담배통
205225	담배설대	담뱃대
205226	담배쌈지	담배쌈지
205227	재떨이	재따리
205228	벼루	베리
205229	상	상
205230	그릇	그릇

205231	비다[空]	비다
205232	주밭	늦밭그릇
205233	사밭	사밭
205234	뚜껍	뚜껍이
205235	접시	접시
205236	굽달이	굽든은접시
205237	대접	국그릇
205238	보시기	보시
205239	종지	종지
205240	간종지	장물종지
205241	숟가락	수까락
205242	젓가락	젓가락
205243	수저통	수까락통
205244	설거지	설거지
205245	구정물	구정물
205246	도시락	도슬기
205247	주전자	주전지
205248	냄비	냄비
205249	바가지	박세기
205250	박	클락박
205251	뒤옹박	*
205252	조롱박	큉락박세기
205253	쪽박	족은박세기
205254	양푼	냥푼이
205255	조리	조리
205256	단지	망대기
205257	뚝배기	*
205258	시루	시리
205259	시룻밑	*
205260	시룻번	시룻마개
205261	경그레	떡징
205262	함지박	냥박세기
205263	바구니	바구리, 구덕
205264	소쿠리	차룽
205265	대[竹]	대
205266	이대	족대
205267	왕대	왕대

205268	숨대(분죽)	*
205269	제주조릿대	*
205270	굳은대	굳은대
205271	무른대	어린대
205272	항아리	항
205273	물동이	물허벅
205274	뒤주	두지
205275	도마	돔베
205276	칼	칼
205277	식칼	돔베칼
205278	빼다[拔]	빼다
205279	무디다[鈍]	보미다
205280	갈다[磨]	글다
205281	숫돌	써돌
205282	날카롭다	늑슬다
205283	행주	상베
205284	번철	빙철
205285	국자	남자
205286	밥주걱	우굽
205287	죽젓광이	배술기
205288	수세미	수세미
205289	떡살	절벤본
205290	밀판	안반
205291	밀개	홍깃대
205292	소줏고리	고수리

205292-1	(고리 위통)	소줏고리의 위통	장태
205292-2	(고리 알통)	소줏고리의 아래통	고수리
205292-3	귀때	술이 내려오는 부리	고수리코
205292-4	(받이쟁)	부리로 떨어지는 술을 받는 병	등덜쟁

205293	빚다	다끄다
205294	풍로	*
205295	삼발이	시발쉐
205296	달이다	딸리다

6. 가옥

형태와 배치

206001	집터	집터
206002	초가	초집
206003	길[路]	길
206004	골목	골목길
206005	좁다[峽]	흐좁다
206006	낯다[古]	오목다
206007	기와집	지에집
206008	흙집	혁집
206009	돌집	돌집
206010	오막살이	오목살이
206011	외채	외채
206012	안채	안거리
206013	바깥채	밖거리
206014	안팎채	안팎거리
206015	문간채	이문거리
206016	곁채	송청거리
206017	짓다[作]	짓다
206018	장독	장항
206019	덮다[蓋]	더끄다
206020	장독대	장광뒤
206021	헛간	헛창고
206022	외양간	쉐막
206023	잃다[失]	여불다
206024	마구간	물막
206025	변소	똥통
206026	부춘돌	드들팡
206026-1	부출	*
206027	기척	기적
206028	맞서다[拮]	마주사다
206029	냄새	내음살
206030	맡다[臭]	마추다
206031	울담	우갓담
206032	울안	*

206033	터알	우영팻
206034	가리	눌
206035	보릿가리	보리낭눌
206036	짚가리	눌
206036-1	출눌	출눌
206037	틈[隙]	틈
206038	가리다[積]	눌다
206039	사닥다리	산테
206040	이영	느람지
206041	주저리	주제기
206042	엮다[編]	여끄다

내부 구조

206043	차양	푼채
206043-1		*
206043-2		사드레
206044	디딤돌	디딤돌
206045	난간	난간
206046	마루	마리
206047	마루문	대문
206047-1	‘호령창’	*
206048	마룻널	마룻널
206049	구들	구들
206050	구들장	구들돌
206051	종이	종이
206052	얹다	얹다
206053	구들직장	방구신
206054	큰방	큰구들
206055	들다[入]	들어오다
206056	윗목	*
206057	아랫목	어기발레
206058	천장	천장
206059	닿다[觸]	미치다
206060	웃바람	우풍
206061	안방	족은방
206062	방문	지겟문
206063	비[帚]	비치락

206064	빗자루[柄]	비치락
206065	쓸다	썰다
206066	버리다[棄]	던지다
206067	바람벽	축브름
206068	걸다[掛]	걸다
206069	벽장	백장
206070	시렁	시렁
206071	선반	선반
206072	헛대	웃걸이
206073	도배	도비
206074	귀알	솔
206075	풀비	*
206076	찾방	청방
206077	광	고광
206078	두다[置]	놔두다
206079	광문	고광문
206080	간수하다	간수허다
206081	안뒤결	마릿뒤
206082	지붕	지붕
206083	함석	도당
206084	지붕물매	물매
206085	이다[蓋]	더끄다
206086	평고대	거왕
206087	처마	집가지
206088	처맞기슭	*
206089	낙숫물	지숫물
206090	땃돌	드딜돌
206091	흙	혁
206092	진흙	황혁
206093	찰흙	촌혁
206094	흙덩이	혁병덩이
206095	새벽	혁개벽
206096	흙질	혁질
206097	이기다[沓]	뀌다
206098	산자(撒子)	고데
206099	기둥	지둥
206100	상기둥	*

206101	뿔기둥	*
206102	세우다	세우다
206103	주춧돌	주춧돌, 지둥돌
206104	서까래	서리
206105	용마루	상마리
206106	보	도리
206107	대들보	대들포
206108	반자틀	*
206109	귀틀	*
206110	외(椽)	가시새
206111	인방	*
206112	문설주	문입쟁이
206113	문곶도리	도리
206114	문얼굴	*
206115	문틀	문부출
206116	문머리	웃대박
206117	문흙	문흙
206118	문지방	문지방
206119	지계문	지갯문
206120	닫다[閉]	더끄다
206121	창문	창문
206122	잠그다	종그다
206123	창호지	창호지
206124	뛰창문	*
206125	구멍	고냥
206126	미단이	*
206127	여단이	*
206128	살문	살문
206129	널문	널문
206130	덧문	겉문
206131	문틈	문틈
206132	돌쩌귀	돌쩌귀
206133	암틀쩌귀	*
206134	수틀쩌귀	*
206135	문고리	문고리
206136	배목	*
206137	궤	궤

206138	열다[開]	열다
206139	장식	켓장석
206140	자물쇠	통쇄
206141	열쇠	열쇄
206142	부수다[碎]	부수다
206143	서랍	설랍

연장

206144	툽	툽
206145	양날툽	양작이빨신툽
206146	거도	*
206147	틀툽	*
206148	툽밥	툽밥
206149	자귀	자귀
206150	옥자귀	곱자귀
206151	노루발장도리	*
206152	못뽑이	못빼기
206153	박다[釘]	박다
206154	배척	*
206155	끌	끌
206156	망치	망치
206157	방망이	마께
206158	대패	대패
206159	개탕대패	*
206160	송곳	송곳
206161	뿔다[鑿]	뿔르다
206162	곱자	곱자, 곱은자
206163	먹통	먹통
206164	먹줄	먹술
206165	먹칼	*
206166	흙손	쉐손
206167	쇠흙손	*
206168	나무흙손	*
206169	흙받기	바툽
206170	돌물레	*
206171-1		호랭이

7. 생업

농업

207001	농사	농시
207002	밭	밭
207003	밭가	밭어염
207004	밭담	밭담
207005	밭빼기	드르쟁이
207006	병작(竝作)	병작
207007	갈다[耕]	갈다
207008	쟁기	잡대

207008-1	양지머리	쟁기의 좌우 손잡이	양주머리
207008-2	쟁깃술	쟁기의 몸 아래로 비스듬히 뺀 나간 나무	무쿨
207008-3	한마루	쟁기의 성에와 술을 꿰뚫어 곧게 선 나무	설치
207008-4	성에	쟁기의 윗머리에서 앞으로 길게 뺀 나무	성에
207008-5	좁생이막대	쟁기의 위 덧방을 누르는 나무	설치못
207008-6	보습	쟁깃술 바닥에 끼우는 쇠조각	보섭
207008-7	벧	보습 위에 비스듬하게 덧댄 쇠조각.	벧
207008-8	물추리막대	쟁기의 성에 앞 끝에 가로로 박은 막대기	들벧이뿔
207008-9	‘뚝’	좁생이막대 아래에 끼워서 쟁깃술의 각도를 조절하는 막대	뚝

207009	육보다	속다
207010	겨리	연메운거
207011	벧밥	벧덩이
207012	곰방메	곰베
207013	밭머리	밭명에
207014	밭두둑	밭두둑
207015	밭고랑	고랑
207016	밭이랑	이랑
207017	거웃	고지
207018	극쟁이	*
207019	씨레	섬비

207019-1	손잡이	씨레의 손잡이	*
207019-2	찍게발	씨레의 손잡이와 몸통을 이어주는 2개의 기둥	*
207019-3	몽둥이	씨레발을 박을 수 있는 굵은 막대	*
207019-4	씨레발	씨레 몽둥이에 박힌 뾰족한 살	*
207019-5	나루채	씨레 몽둥이 앞 양쪽에 박은 나무	*

207020	번지	*
207021	괘이	괘이
207022	곡괘이	곡괘이
207023	파다[堀]	파다
207024	쇠스랑	쇄스랑
207025	삽	수금푸
207026	따비	따비
207027	거름	걸름
207028	걸다[肥]	걸다
207029	씨앗	씨
207030	알씨	*
207031	백씨	*
207032	뿌리다[撒]	뿌리다
207033	망태기	망탱이
207034	꿈계	섬비
207035	남태	남태
207036	돌번지	*
207037	김[雜草]	검질
207038	김매다	검질매다
207039	애벌매기	초불
207040	두벌매기	두불
207041	세벌매기	세불
207042	가다[去]	가다
207042-1		*
207043	호미	굴갱이
207044	홍아기	사뒤
207045	놉	놉
207046	시키다	시키다
207047	품삿	일콥

207048	비싸다	빚나다
207049	결두리	간식
207050	폼앗이	수놓음
207051	삼태기	글채
207052	낫	호미

207052-1	낫자루	낫의 자루	조륙
207052-2	슴베	자루 속에 들어박히는 뽕족하고 긴 부분	슴메
207052-3	낫갱기	낫자루에 슴베가 박히는 부분을 단단히 하기 위하여 둘러 감은 쇠	단갈
207052-4	낫놀	슴베가 빠지지 않도록 낫자루에 구멍을 뚫어 박는 쇠못	
207052-5	낫공치	낫의 슴베가 휘어넘어가는 덜미의 두꺼운 부분	등어리
207052-6	날	풀을 벨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	늘

207053	베다[刈]	미다
207054	새 꽤기	소독
207055	새끼	베
207056	꼬다[索]	꼬다
207057	매듭	막작
207058	노	노
207059	끈	친
207060	참마(바[索])	베
207061	짐마	셋베
207062	질빵	짐폐
207063	잇다[承]	이스다
207064	길마	질메
207065	소길마	쉐질메
207066	말길마	물질메

207066-1	길맞가지	길마의 몸을 이루는 말굽 모양의 나뭇가지	질멧가지
207066-2	앞가지	길마의 앞부분이 되는 민등산 모양의 나무	앞가지
207066-3	뒷가지	길마의 뒷부분이 되는 편자 모양의 나무	뒷가지
207066-4	궁글막대	길마의 앞가지와 뒷가지를 꿰뚫어 맞춘 나무	셋냥
207066-5	등우리막대	궁글막대 아래 댄 나무	
207066-6	경거리	소의 궁둥이에 막대를 가로 대고 그 양 끝에 줄을 매어 길마의 뒷가지에 좌우로 잡아매게 되어 있는 물건	
207066-7	경거리끈	경거리막대의 양 끝에 매어 길마의 뒷가지와 연결하는 줄	고들개친
207066-8	경거리막대	경거리끈에 매어 소의 궁둥이에 가로 대는 막대	고들개
207066-9	배뎃끈	길마를 엮을 때에 배에 걸쳐서 졸라매는 줄	오랑끈

207067 명에

명에

207067-1	목대	명에 양쪽 끝 구멍에 꿰어 소의 목 양쪽에 대는 가는 나무	접개
207067-2	붓줄	명에 양 끝에서 비겨미까지 연결된 줄	숨비줄
207067-3	한태	붓줄을 마소의 등 위로 잡아매는 줄	등쾌
207067-4	(오리목)	붓줄 끝에 맨 비겨미와 쟁기의 물추리막대를 연결하여 매는 줄	오리목
207067-5	비겨미	붓줄이 소 뒷다리에 닿지 않도록, 두 끝을 턱이 지게 하여 붓줄에 꿰는 막대기	벌레

207068 지게

지게

207068-1	지겟다리	지게 몸체의 맨 아랫부분에 있는 양쪽 다리	지겟다리
207068-2	지겟가지	지게 몸에서 뒤쪽으로 갈라져 뻗어 나간 가지	가지
207068-3	지게세장	지게의 두 다리 사이에 가로 박아 맞추어 놓은 나무	셋냥
207068-4	지겟등태	지게를 질 때 등이 배기지 않게 붙인 등태	등받침
207068-5	지게꼬리 (밀뺨)	지게의 짐을 잡아매는 줄	줄
207068-6	지겟작대기	지게를 버티어 세우는 긴 막대기	지겟작쉬, 바툼

207069 바지게

푸지게

207070 발채

*

207071	물지게	물지게
207072	이삭	고고리
207072-1		
207073	짚	짚
207074	익다[熟]	익다
207075	개상	보리클
207076	벼훑이	*
207077	그네	클

207077-1	보리 이삭(등근 살)	*
207077-2	밭벼 이삭(넓고 모난 살)	*

207078	타작하다	마당질허다
207079	땀	땀
207080	진땀	*
207081	젖다[濕]	젖다
207082	죽을힘	죽을힘
207083	겨를	저르
207084	도리깨	도깨

207084-1	도리깨채	도리깨의 자루로 쓰는 긴 막대기	도깨어시
207084-2	도리깨열	도리깨채의 끝에 달려 곡식의 이삭을 후려치는 곧고 가느다란 나뭇가지	도깨아덜
207084-3	도리깨꼭지	도리깨장부 끝의 구멍에 끼워 도리깨열을 잡아매게 된 작은 나무 비녀	도깨틀레

207085	여물	*
207086	쭈정이	*
207087	꼰	출
207088	꼰밭	출밭
207089	꼰꾼	출비는사름
207090	꼰단	출못
207091	신다[載]	시끄다
207092	마차	구르마
207093	복두	셋베
207094	명석	명석

207095	덕석	덕석
207096	거적	거적
207097	체	체
207098	가는체(고운체)	ㄱ는체
207099	굵은체	거름체
207100	말총체	총체
207101	챗바퀴	챗망
207102	챗다리	*
207103	어래미	대체
207104	키[箕]	푸는체
207105	키질	푸는체질
207106	까불다	푸다
207107	드리다	불리다
207108	‘솔박’	속박
207109	풍구	*
207110	흡	흡
207111	흡되	*
207112	되	뒹
207113	관되	관뒹
207114	사삿되	*
207115	말[斗]	말
207115-1	통말	*
207115-2	모말	*
207116	가웃	가웃
207117	끓다[不充滿]	끓르다
207118	고무래	당그네
207119	불당그래	불그네
207120	떡등구미	망텅이
207121	가마니	가멩이
207122	꿇다[引]	꿇다
207123	곡식	곡석
207124	흩다[散]	긁다
207125	자루[袋]	찰리
207126	부대(負袋)	푸대
207127	거두다[收]	장만허다
207128	계으름	간세
207129	노라리	간세다리

207130	보리	보리
207131	보리밭	보리밭
207132	누리다[黃]	누렁허다
207133	밟다	블르다
207134	까끄라기	ㄱ스락
207135	보리쌀	보리츨
207136	보릿겨	보리채
207137	겉보리	것보리
207138	쌀보리	슬오리
207139	맥주보리	맥주보리
207140	보릿짚(보릿대)	보리낭
207141	매끼	깨
207142	감부기	지미
207143	귀리	대우리
207144	조	조
207145	조밭	조팓
207146	차조	흐린조
207147	메조	모원조
207148	슌다	소끄다
207149	조이삭	조코고리
207150	서속(黍粟)	소속
207151	비비다	브비다
207152	허수아비	허재비
207153	좁쌀	좁츨
207154	조짚	조직
207155	벼	나룩
207156	벼이삭	나룩고고리
207157	볍씨	*
207158	못자리	*
207159	밭벼[山稻]	산뒤
207160	밭벼 이삭	산뒤고고리
207161	밭벼밭	산뒤왓
207162	밭벼쌀	산뒤츨
207163	밭벼짚	산뒤짖
207164	맷돌	ㄱ레

207164-1	맷돌짜	맷돌의 위아래 돌	고레착
207164-2	윗돌	맷돌의 위짜	우착
207164-3	아랫돌	맷돌의 아래짜	알착
207164-4	매암쇠	맷돌 위짜의 한가운데 뚫린 구멍	ㄴ냥
207164-5	맷수쇠	맷돌의 아래짜 한가운데 박힌 물건	ㄴ레죇
207164-6	맷손	맷돌의 손잡이	ㄴ레조륙

207165	맷방석	ㄴ렛덕석
207166	매함지	도고리
207167	풀맷돌	정ㄴ레
207168	풀매	풀ㄴ레
207169	썰기	*
207170	방아	방에
207171	쌍방아	두콜방에
207171-1		시콜방에
207171-2		*
207171-3		*
207172	방아확	방에혹, 돌혹
207173	방앗간	방엿간
207174	븨비다	*
207175	방앗공이	방엿귀
207176	남방아	남방에
207177	연자매	돌ㄴ레
207178	방앗돌	맷돌
207179	연자맷간	돌ㄴ레집
207180	절구	돌혹
207181	절긱공이	방엿귀
207182	뺨다	뺨다
207183	뉘	니, 머흘
207184	고르다[擇]	일다
207185	씹다[嚙]	씹다
207186	겨	채
207187	콩	콩
207188	콩잎	콩잎
207189	기름콩	준자리콩
207190	콩깍지	콩깍지

207191	콩짚	콩낭
207192	꼬투리	콩깍지
207193	두부	둠비
207194	두붓물	둠빋물
207195	뜨겁다	데어불다
207196	비지	비지
207197	찌꺼기	찌거레기
207198	완두	과란콩
207199	강낭콩	두불콩
207200	동부	둠비콩
207201	팥	팻
207202	팥알	팻알
207203	팥밥	팻밥
207204	녹두	녹디
207205	깨(참깨)	깨
207206	들깨	유
207207	참기름	참지름
207208	깻묵	*
207209	고소하다	코싱허다
207210	메밀	ㅁ멸
207211	메밀밭	ㅁ멸밭
207212	나깨	는쟁이
207213	메밀껍질	ㅁ멸채
207214	메밀국수	ㅁ멸국수
207215	메밀수제비	ㅁ멸츠베기
207216	메밀칼국수	ㅁ멸칼국수
207217	메밀떡	ㅁ멸떡
207218	메밀묵	ㅁ멸묵
207219	무르다[軟]	물르다
207220	고구마	감저
207221	절간고구마	절간감제/빼떼기
207222	찌다[蒸]	치다
207223	썰다	썰다
207224	감자	지슬, 지슬감자
207225	마늘	마농, 대산이마농
207225-1	마늘대	마농대
207225-2	마늘밀	마농불리

207225-3	마늘중	마농중
207226	마늘장아찌	마농지
207227	파	꽤마농
207227-1	파밑동	꽤마농불리
207228	무	늬뻬
207229	무청	늬뻬이파리
207230	시래기	쓰레기
207231	장다리무	*
207232	열무	열무
207233	배추	늬멸
207234	고갱이(배추)	늬멸속
207235	나물	늬멸
207236	채소	송키
207237	겉대	윤늬멸
207238	다듬다	다듬다
207239	값	값
207240	옥수수	강낭대죽
207240-1	옥수수	부루기
207241	수수	*
207242	쌀수수	대죽찰
207243	비목수수	비대죽
207244	사탕수수	사당대죽
207245	수수깡	*

어업

207246	잠녀(潛女)	잠네
207247	물질	물질
207248	물웃	물웃
207249	물안경[水鏡]	물눈
207249-1		*
207249-2		*
207250	테왁	테왁
207251	망사리	망사리
207252	비창	비창
207253	작살	*
207254	어부	어제기
207255	뜰채	족바지

207256	그물	그물
207257	돛단배	돛배
207258	이물	*
207258-1	이물간	*
207258-2	이물사공	*
207259	고물	*
207259-1	고물간	*
207259-2	고물사공	*
207260	돛	돛
207261	마룻대(돛대)	돛대
207262	마룻줄(용총줄)	돛대줄
207263	활대	*
207264	외대박이	*
207264-1	두 대박이	*
207264-2	세대박이	*
207265	노(櫓)	네
207266	결노	*
207267	상책(노착)	*
207268	노잎(노깃)	*
207269	노앞	*
207270	노뒤	*
207271	노손	*
207272	눅구멍	*
207273	눅쫓	*
207274	돛	돛
207275	돛가지	*
207276	돛줄	*
207277	돛들	*
207278	돛걸이	*
207279	키[舵]	*
207280	킷구멍	*
207281	키잡이	*
207282	강다리	*
207283	상앗대	*
207284	떼[浮筏]	뗏마

기타

207285	이웃	이웃
207286	더불다[與]	ㄴ치살다
207287	마을	막슬
207288	고을[村]	골
207289	누리[世]	*
207290	윗마을	웃동네
207291	옮다[移]	전림ㅎ다
207292	아랫마을	알동네
207293	마을가다	놀레가다
207294	밤마을	*
207295	가게	점방
207296	구멍가게	족은점방
207297	다녀오다	갓다오다
207298	심부름	심부름
207298-1	부름씨	부름씨
207299	잔돈	즌돈
207300	남다[餘]	남다
207301	거스름돈	우시리
207302	있다[有]	이시다
207303	에누리	*
207304	우수리	우시리
207305	받다[受]	받다
207306	나머지	나머지
207307	흥정	흥성
207308	빚	빚
207309	빚지다[負]	빚내다
207310	변리[邊利]	벨리
207311	늘다[增]	늘다
207312	대장간	불미간
207313	풀무	불미
207314	손풀무	*
207315	모루	*
207316	모루채	망치
207317	갓양태(양태)	*
207318	망건	*
207319	망건골	*
207320	탕건	탕건

207321	견다[編]	줄다
207322	사냥	사농
207323	사냥개	사농개
207324	사냥꾼	사냥제
207325	쏘다[射]	쏘다
207326	핑잡이	핑쟁이
207327	고	코
207328	올가미	*
207329	덧	덧
207330	나누다	누누다
207331	갖다[持]	앗다

8. 수와 단위

수

208001 하나~열

208001-1	(1)	하나
208001-2	(2)	둘
208001-3	(3)	셋
208001-4	(4)	넷
208001-5	(5)	다섯
208001-6	(6)	으섯
208001-7	(7)	일곱
208001-8	(8)	으답
208001-9	(9)	아홉
208001-10	(10)	열

208002	세다[數]	세다
208003	알다[知]	아란
208004	스물~백	

208004-1	(20)	스물
208004-2	(30)	서른
208004-3	(40)	마흔
208004-4	(50)	쉰
208004-5	(60)	예순
208004-6	(70)	일흔
208004-7	(80)	으든
208004-8	(90)	아흔
208004-9	(100)	백

208005 한~엿 ‘되, 말’을 연결하여 말해 보십시오.

	단위	되	말
208005-1	(1/한)	흔뉘	흔말
208005-2	(2/두)	두뉘	두말
208005-3	(3/서, 석)	석뉘	서말
208005-4	(4/너, 녀)	녀뉘	너말
208005-5	(5/닷)	다섯뉘	닷말
208005-6	(6/엿)	으석뉘	으말

208006 한두 ‘개, 되, 말’을 연결하여 두 개씩 세어 보십시오.

		개	되	말
208006-1	(1-2/한두)	흔두개	흔두뉘	흔두말
208006-2	(2-3/두세)	두세개	두서녀뉘	두세말
208006-3	(2-3-4/두서녀)	두서녀네개	두서녀녀뉘	두서녀말
208006-4	(3-4/서녀)	서녀개	서녀뉘	서녀말
208006-5	(4-5/네댓)	녀댓개	녀다섯뉘	녀댓말
208006-6	(5-6/대여섯)	대으섯개	대으섯뉘	대으섯말
208006-7	(6-7/예닐곱)	예술곱개	예술곱뉘	예술곱말
208006-8	(7-8/일고여덟)	일고으답개	일고으답뉘	일고으답말
208006-9	(8-9/여덟아홉)	으다아홉개	으다아홉뉘	으다아홉말

208007 여남은 으남은

208008 서른남은 *

단위

208009 뺨 뺨
 208010 집게뺨 조리
 208011 밭[單位] 밭
 208012 밟다 재다
 208013 필(무명/명주) 필
 208014-1

208014-1	무명	40자
208014-2	명주	40자
208014-3	광목	*
208014-4	베	40자

208015 마지기(평) 마지기
 208015-1 *
 208016 못 못
 208017 묶다[束] 무끄다
 208018 나르다[移] 날르다
 208019 동 단
 208019-1 못
 208020 조짐 단
 208021 바리(종류) 바리
 208021

208021-1	보리	20
208021-2	조(이삭 있음)	10
208021-3	콩	4
208021-4	밭벼	20
208021-5	꿀	40
208021-6	띠	40
208021-7	각단	20
208021-8	어욱	*

208022 모금 모금
 208023 섬 섬
 208023-1 15말

208024	덩이	덩어리
208025	포기	풀기
208026	그루	*
208027	돌이(양태)	*
208028	마리	마리
208028-1	두[頭]	마리
208028-2		마리
208029	축	*
208030	궤미	*
208031	쌍(돼지)	자리
208032	채(집)	거리
208033	장(무덤)	자리
208034	컬레(신)	베
208035	마퀴(운동장)	번
208036	못	못
208037	죽	죽

9. 민속

통과의례

209001	꿈자리	꿈사리
209002	아이서다	아기갓다
209003	삼신할머니	삼승할망
209004	깃저고리	봇디창옷
209005	배넛머리	배안에머리
209006	돌	돛
209007	새색시	새각시
209008	새신랑	새서방
209009	가마	가메
209010	시집가다	시집가다
209011	시집보내다	시집보내다
209012	장가가다	장개가다
209013	장가보내다	장개보내다
209014	함	함
209015	위요(우시)	우시
209016	대반(對盤)	대반

209017	신부상	새각시상
209018	휘다[樣]	부러지다
209019	이바지	이버지
209020	부조	부주
209021	사돈	사둔
209021-1	안사돈	여사둔
209021-2	바깥사돈	남즈사둔
209022	곁사돈	곁사둔
209023	상갓집	초상집
209024	수의	호상
209025	상복	상제옷
209026	상제	상제
209027	상주	상제
209028	맡상제	큰상제
209029	두건	두건
209030	복치마	복치메
209031	상장(喪杖)	방장대
209031-1		대낭
209031-2		머구낭
209032	짚동	짚동
209033	일포제[祖奠]	일포제
209034	조문하다	조문가다
209035	뒋자리	뒋자리
209036	지관	정시
209037	패철	*
209038	관	관
209039	상여	*
209040	보장(寶帳)	화단
209041	계(契)	계
209042	상뒤꾼	상뒤꾼
209043	장삿날	영장날
209044	장지	영장빳
209045	광중	개광
209046	횡대	개관
209047	호층	*
209048	무덤	산
209049	산담	산담

209050	돌장이	돌챙이, 비석쟁이
209051	토롱	토롱
209052	산역	봉분싸다
209053	마치다[終]	끗나다
209054	벌초	벌초
209054-1	소분	소분
209055	묘위전	제월전
209056	고충	골충
209057	제사	식계
209058	제삿집	식계칩
209059	편틀	*
209060	퇴물	식계음식
209061	매	멧밥
209062	갱(羹)	계영
209063	제육	제숙
209064	제편	침떡
209065	인절미	은절미
209066	절편	절벤
209067	웃기떡	웃적
209068	반기	반
209069	반기하다	반놓다
209070	뭇	찍시
209071	면례(緬禮)	천리

세시풍속

209072	설날	정월명질
209073	세배	서배
209074	명절	멩질
209075	걸립	걸궁
209076	금줄	금줄
209077	매다[結]	매다
209078	장구	장귀
209079	설장구	살장귀
209080	뽕과리	가지
209081	영등할머니	영등할망
209082	단오	단오
209083	물맞이	물맞이

209084	모래찜질	모살뜸
209085	추석	팔월명질

10. 신앙

210001	점	점
210002	점쟁이	점쟁이
210003	안택	코시
210004	당	당
210005	무격	심방
210006	굿	굿
210007	굿판	굿판
210008	명두	맹두
210009	추다[躡]	추다
210010	소지(燒紙)	소지
210011	사르다[燒]	살르다
210012	살(煞)	쌀
210013	삼살방(三煞方)	삼살방
210014	도깨비	도체비
210015	낮도깨비	낮도체비
210016	허깨비	허깨
210017	어둑서니	*
210018	무섭다	막습다
210019	겹쟁이	겹쟁이
210020	고사(告祀)	코시
210021	고수레	걸맹
210022	포제	토신제

11. 자연

들

211001	들	드르팓
211002	풀[草]	풀
211003	방화(放火)	방화
211004	붙다[點火]	부뜨다

211005	내[川]	내창
211006	넷가	내창바우
211007	물가	물바우
211008	따르다[從]	*
211009	건너다[渡]	건너다
211010	낭떠러지	*
211011	다리[橋]	다리
211012	가깝다[近]	브디다
211013	멀다[遠]	멀다
211014	덤불	덤벌
211014-1	가시덤불	가시덤벌
211015	돌무더기	돌무덤
211016	갈림길	가림질
211017	묻다[問]	들어보다
211018	비탈길	비클어진질
211019	벼랑길	소릿질
211020	내리막길	느려가는질
211021	오르막길	올라가는질
211022	길가	질어염
211023	큰길	한질
211024	분화구	*
211025	꼭대기	꼬대기
211026	오르다[登]	올르다
211027	기슭	*
211028	산바람	*
211029	산꼬대	노룻
211030	상고대	상강
211031	구렁	움속헌땅
211032	고랑창	고랑창
211033	건너가다	건너가다
211034	넘어지다	느려지다
211035	자빠지다	자빠지다
211036	천상수	*
211037	숲	곶
211038	성(城)	성

바다

211039	바다	바당
211040	바닷가	갯곶이
211041	바닷물	바당물
211042	바닷바람	바당브름
211043	깊다[深]	지프다
211044	얕다[淺]	야프다
211045	물먹다	물먹다
211046	모래	몰래
211047	모래밭	몰래밭
211048	자갈	작지
211049	갯가	갯곶이
211050	펼	펼
211051	먼바다	먼바당
211052	파도	절
211053	파돏소리	절소리
211054	듣다[聞]	듣다
211055	너울	*
211056	굼뉘	*
211057	물결	*
211058	잔물결	*
211059	무수기	물찌

	무수기	방언형	날짜
211059-1	한무날	흔물	
211059-2	두무날	두물	
211059-3	서무날	세물	
211059-4	너무날	네물	
211059-5	다섯무날	다섯물	15일(보름물찌)
211059-6	여섯무날	여섯물	
211059-7	일곱무날	일곱물	
211059-8	여덟무날	으답물	
211059-9	아홉무날	아홉물	
211059-10	열무날	열물	
211059-11	열한무날	열흔물	
211059-12	열두무날	열두물	
211059-13	(열서무날)		
211059-14	아끈췌기		
211059-15	췌기		
211059-16	한조금	조금	

211060	여	*
211061	곶(串)	내문코지
211062	물밀다	물들다
211063	밀물	들물
211064	물싸다	물싸다
211065	썰물	싼물

시후

211066	오늘	오널
211067	내일	넬
211068	모레	모리
211069	내일모레	넬모리
211070	글피	글피
211071	그글피	저녁날
211072	어제	어제
211073	그저께	그지께
211074	그끄저께	엇그지께
211075	새벽[曉]	세백
211076	꼭두새벽	꼭두세백

211077	해[太陽]	동
211078	빛	빛
211079	아침	이침
211080	낮	낮
211081	저녁	저녁
211082	저녁거리	*
211083	초저녁	초저녁
211084	밤[夜]	밤
211085	한밤중	한밤중
211086	하늘	하늘
211087	땅	땅
211088	구름	구름
211089	푸르다	파랑허다
211090	별	벨
211091	은하수	미리메
211092	달	들
211093	차다[充滿]	*
211094	달무리	들갓
211095	초승달	초승들
211096	보름달	보름들
211097	그믐달	*
211098	햇무리	해갓
211099	무지개	황고지
211100	쌍무지개	*
211101	봄	봄
211102	여름	여름
211103	가을	ㄱ슬
211104	겨울	저을
211105	입춘	셋절드는날
211106	동지	동짓날
211107	초하루	초하루
211108	보름	보름
211109	그믐	그믐

211110-1	하루	흐루
211110-2	이틀	이틀
211110-3	사흘	사흘
211110-4	나흘	나흘
211110-5	닷새	닷새
211110-6	엿새	웃새
211110-7	이레	일레
211110-8	여드레	으드레
211110-9	아흐레	아흐레
211110-10	열흘	열흘

211111	사나흘	사나흘
211112	너더닷새	너닷새
211113	대엿새	대엿새
211114	지나다[過]	넘다
211115	삭망	삭망
211116	저물다	구물다
211116-1	‘구물다’	구물다
211117	지다[落]	지다
211118	이월달(영등달)	이월달
211119	선달	선달
211120	올해	올금년
211121	내년	맹년
211122	내후년	우맹년
211123	작년	넘은해
211124	재작년	그르해

날씨

211125	별	벳
211126	별살	*
211127	따스하다	뜨뜻허다
211128	땡별	더운벳
211129	가을별	ㄱ슬벳
211130	양지받이	햇빛잘드는다
211131	아지랑이	*
211132	그늘	그늘
211133	그늘대	*

211134	나무그늘	낭강알
211135	쉬다[休]	쉬다
211136	그림자	굴메
211137	바람	브름
211137-1	바람위	브름위
211137-2	바람아래	브름알
211138	맞바람	양두세
211139	바람받이	브름코지
211140	바람살	*
211141	회오리바람	돛쟁이주제, 조청브름(갑자기 부는 바람)
211142	동풍	셋브름
211143	남풍	마프름
211144	서풍	가을브름
211145	북풍	하늬브름
211146	비[雨]	비
211147	굳다[堅]	굳다
211148	빗줄기	*
211149	장마	마
211149-1	봄장마	오월장마
211149-2	가을장마	*
211150	곰팡이	곰팡이
211151	소나기	소내기
211152	여우비	*
211153	가랑비	ㄱ랑비
211154	이슬	이슬
211155	시원하다	시원허다
211156	도롱이	*
211157	가물다	ㄱ물다
211158	가뭄	ㄱ뭄
211159	흉년	승년
211160	비바람	비브름
211161	안개	안개
211162	번개	편개
211163	천둥	천둥
211164	벼락	베락
211165	홍수	홍수
211166	눈[雪]	눈

211167	함박눈	험벅눈
211168	오다[來]	오다
211169	싸락눈	스레기눈
211170	도둑눈	*
211171	내리다[降]	느리다
211172	희다	헤영허다
211173	춡다	얼다
211174	떨다[慄]	털다
211175	고드름	동곳
211176	녹다[融]	녹다
211177	얼음	얼음
211178	얼다[氷]	언디다
211179	굽다	곶다
211180	진눈깨비	비눈
211181	우박	우박

방향

211182	앞	압
211183	뒤	뒤
211184	결	조끗디
211185	옆	엽
211186	위	우
211187	아래	알
211188	밝다[明]	븨다
211189	어둡다[暗]	어둑다
211190	왼쪽	왼착
211191	오른쪽	노단착
211192	밑	아래
211193	흐르다[流]	느리다
211194	안[內]	안
211195	밖	베깃
211196	구석	구석
211197	모서리	코제비
211198	가[邊]	어염
211199	가장자리	바우
211200	가운데	가운디
211201	곧다[直]	고짱허다

12. 동물

가축

212001	소[牛]	췌
212002	막다[防]	막다
212003	암소	암췌
212004	수소	부룻이
212005	죃소	어럭췌
212006	불까다	불췌르다
212007	불알	불
212008	황소	부룻이
212009	얼룩소	어럭췌
212010	부리망	망울
212011	쇠고삐	췌석
212012	끌다	이끄다
212013	송아지	송애기
212014	배넛소	어름췌, 뺑작췌
212015-1	하룻~열룻	

		소	말
212015-1	하룻(1)	금승	금승
212015-2	이듭/두듭(2)	다간	이수
212105-3	사룻(3)	사룻	삼수
212015-4	나룻(4)		
212015-5	다듭(5)		
212015-6	여듭(6)		
212015-7	이룻(7)		
212015-8	여듭(8)		
212015-9	아듭/구룻(9)		
212015-10	열룻/담불(10)		

212016	작두	작뒤
212017	쇠죽	췌겻
212018	구유	*
212019	말[馬]	말
212020	죽다[死]	죽다

212021	많다[多]	하다
212022	암말	즈매
212023	수말	웅매
212024	망아지	몽생이
212025	가라말	검은물
212026	청총마/총이말	*
212027	절따말/적다마	붉은물
212028	얼룩말	어럭물
212029	유마	*
212030	백마	백매
212031	고라말	노랑물
212032	곰배말	*
212033	조랑말	조랑말
212034	달리다[走]	들리다
212035	마소	물췌
212036	글경이	글쟁이
212037	털[毛]	터럭
212038	말고삐	물석
212039	당기다	등기다
212040	낙인	넥인
212041	개[犬]	개
212042	짖다[吠]	주끄다
212043	쓰다[用]	쓰다
212044	수캐	수캐
212045	암캐	암캐
212046	강아지	강생이
212047	비루	비근더리
212048	비루먹다	비근더리올르다
212049	고양이	고냉이
212050	암고양이	암코냉이
212051	수고양이	수코냉이
212052	도둑고양이	도둑고냉이
212053	살쟁이	식
212054	닭	득
212055	암탉	암득
212056	수탉	장득
212057	털떠구니	득안칩

212058	산떡	*
212059	닭의어리	득망시리
212060	닭장	득장
212061	달걀	득새기
212061-1	노른자위	노린알
212061-2	흰자위[卵]	흰알
212062	끓다[腐]	고리다
212063	빙아리	빙에기
212064	까다[剝]	까다
212065	돼지	도야지
212066	수돼지	수퓏
212067	암돼지	암퓏
212068	추렴하다	추렴허다
212069	가르다[分]	갈르다
212070	고기[肉]	퀘기
212071	일숨씨	숨췌
212072	생둥이	서툰바치
212073	새끼 돼지	자릿도새기
212074	돼지우리	돛통
212075	돼지고기	도야지퀘기
212076	적	적갈
212077	적꼬치	적꼬지
212078	굽다[炙]	구다
212079	무판(푸줏간)	판매칩
212080	기르다	질루다
212081	둘치	지스랭이
212081-1	둘암소	지스랭이
212081-2	둘암말	지스랭이
212081-3	둘암돼지	지스랭이
212081-4	둘암캐	지스랭이
212082	거위	*
212083	오리	올랭이

벌레와 곤충

212084	벌레	버랭이
212085	파리	프리
212086	취	취

212087	쉬슬다	쉬싸다
212088	가시	웬장버랭이
212089	구더기	구데기
212090	쉬파리	쉬프리
212091	쇠파리	쉐프리
212092	똥파리	똥프리
212093	모기	모기
212094	물다[咬]	물다
212095	각다귀	극다귀
212096	장구벌레	장클레비
212097	벼룩	베룩
212098	빈데	빈데
212099	이[蟲]	니
212099-1	서캐	쉬
212100	서캐훅이	챙빃
212101	지렁이	게우리
212102	회충	거수에벙
212103	거머리	거덜
212104	바구미	*
212105	콩바구미	*
212106	굼벥이	굼벥이
212107	땅강아지	땅강생이
212108	그리마	*
212109	쥐며느리	*
212110	노래기	*
212111	지네	주녕이
212112	진뒗물	진쉬
212113	진뒗물내리다	진쉬일다
212114	하루살이	흐루살이
212115	눈에놀이	눈에눈이
212116	달팽이	덜팽이
212117	민달팽이	집엇은덜팽이
212118	거미	거미
212119	개미	게염지
212120	왕개미	왕게염지
212121	불개미	조게염지
212122	메뚜기	심방말축

212123	방아깨비	*
212124	여치	*
212125	사마귀[螳螂]	극제기
212126	귀뚜라미	공중이만축
212127	풍뎅이	두메기
212128	장수풍뎅이	*
212129	무당벌레	*
212130	쇠똥구리	*
212131	딱정벌레	*
212132	집게벌레	*
212133	하늘소	*
212134	노린재	노린재
212135	나비	나비
212136	호랑나비	호랑나비
212137	날다[飛]	날다
212138	사슴벌레	*
212139	잠자리	밥주리
212140	고추잠자리	고치밥주리
212141	장수잠자리	*
212141-1		*
212142	매미	재열
212143	매미허물	*
212144	말매미(왕매미)	왕재열
212145	쓰르라미	*
212145-1		*
212146	소금쟁이	*
212147	방개	*
212148	반딧불이	불란디
212149	벌	벌
212150	꿀벌	꿀벌
212151	꿀	꿀
212152	땅벌	*
212153	말벌	사상벌
212154	붓다[腫]	붓다
212155	진드기	진독
212155-1		서미역
212155-2		부그리

212156	송충이	소낭버랭이
212157	개구리	글개비
212158	올챙이	올챙이
212159	맹꽁이	멕마구리
212160	두꺼비	개가비
212161	뱀	베염
212161-1	뱀띠	베염띠
212161-2	뱀허물	웃
212162	용	용
212162-1	용띠	용띠
212163	도마뱀	도마뱀
212164	구렁이	구렁이
212165	살무사	물폐기

들짐승

212166	여우	여우
212167	노루	노리
212168	염소	염소
212169	토끼	토끼
212170	족제비	족제비
212171	쥐	중이
212172	꿩	꿩
212173	쥐구멍	쥐고냥
212174	박쥐	드람쥐
212175	다람쥐	*
212176	오소리	*
212176-1		*
212177	지달(이)	지다리
212178	지달피	지다리가죽
212179	멧돼지	산도야지
212180	원숭이	원숭이
212181	원숭이띠	원숭이띠
212182	호랑이	호랑이
212183	호랑이띠(범띠)	호랑이띠, 범띠
212184	꼬리	꿀랭이

날짐승

212185	새[鳥]	생이
212186	꿩지	꿀랭이
212187	깃[羽]	터럭
212188	새총	생이총
212189	새가슴	*
212190	참새	참생이
212191	비둘기	비둘기
212192	제비	제비새
212193	매	매
212194	참매	*
212195	솔개	똥소래기
212196	까치	까치
212197	까마귀	가메기
212198	딱따구리	*
212199	뼈꾸기	뼈꼭새
212200	종달새	종달새
212201	올빼미	올빼미
212202	꿩	꿩
212203	까투리(암꿩)	암꿩
212204	장끼	장꿩
212205	꿩알	꿩독새기
212206	꺼병이	꿩빙에기
212207	두루미	두루미
212208	기러기	기러기
212209	갈매기	가메기

바다 동물

212210	고등	보말
212211	개울타리고등	*
212212	명주고등	*
212213	눈알고등	문다데기
212214	밤고등	*
212215	팽이고등	*
212216	각시고등	*
212217	두드럭고등	*
212218	대수리	*
212219	타래고등	*

212220	대룡뿔고등	*
212221	제주개오지	*
212222	애기삿갓조개	*
212223	거북손	*
212224	따개비	*
212225	군부	군벗
212225-1		*
212226	진주담치	*
212227	소라	구제기
212227-1		*
212228	전복	전복
212228-1		*
212228-2		* 바르조계기(전복새끼)
212229	전복갑	전복껍데기
212230	오분자기	오분재기
212231	게	강이
212232	바위게	조강이, 똥강이
212233	부채게	*
212234	엽낭게	*
212235	참게	*
212236	꽃게	*
212237	소라게	그드레기
212238	그물무늬금게	*
212239	집게발	집게발
212240	갯강구	*
212241	말미잘	말미잘
212242	성게	귀살
212243	말똥성게	숨
212244	군소	*
212245	새우	새우
212246	불가사리	불가사리
212247	수세미불가사리	*
212248	해파리	해파리
212249	낙지	낙지
212250	문어	물꾸럭
212251	서대	*
212252	해삼	미

212253	멍게	멍게
212254	바닷물고기	바닷꺨기
212255	맑다[淸]	맑다
212256	흐리다[濁]	어둑다
212257	잘다[細]	줄다
212258	썩다[腐]	고리다
212259	비늘	비늘
212260	배따다	배뵈르다
212261	생선(生鮮)	생성
212262	미끼	니꺨
212263	갯지렁이	게우리
212264	낙시	낙시
212265	낙싯대	낙시대
212266	만들다[造]	멘들다
212267	낙싯줄	낙시줄
212268	뽕돌	뽕돌
212269	참대	*
212270	낙다	니끄다
212271	주낙	*
212272	주낙배	*
212273	지느러미	등가시
212274	아가미	아가미
212275	멸치	멸치
212276	보리멸	멜
212277	갈치	갈치
212278	풀갈치	*
212279	베도라치	*
212280	말뚝망둑어	*
212281	별망둑	*
212282	매통이	*
212283	고생놀래기	*
212284	용치놀래기	*
212285	어렁놀래기	어렁이
212286	실놀래기	*
212287	옥돔	생성
212288	흑돔	*
212289	돌돔	*

212290	감성돔	*
212291	벵에돔	*
212292	황돔	*
212293	자리돔	자리
212293-1		*
212294	고등어	고등에
212295	전갱이	각제기
212296	조기	조기
212297	보구치	*
212298	가오리	가오리
212299	오징어	오징어
212299-1		*
212300	붉바리	북바리
212301	다금바리	다금바리
212302	농어	*
212303	쥐치	객주리
212304	우럭볼락	우럭
212305	볼락	볼락
212306	쭈기미	*
212307	독가시치	*
212308	방어	방어
212309	재방어	*
212310	상어	상어
212311	가래상어	*
212312	개상어	*
212313	팽이상어	*
212314	귀상어	*
212315	돌묵상어	*
212316	수염상어	*
212317	두툽상어	비계
212318	별상어	*
212319	고래	고래
212320	돌고래	*
212321	쥐돔	*
212322	복어	복쟁이
212323	흑산호	*

13. 식물

풀

213001	가라지	ㄱ라지
213002	갈대	*
213003	억새	어옥
213004	새풀	어옥뎡이
213005	화승(火繩)	불짚
213006	띠[茅]	새
213007	띠밭	새왓
213008	길차다	*
213009	뎡기	뎡이
213010	사초	*
213011	천일사초	*
213012	김의털	*
213013	쇠무릎	쉐터럭
213014	바랭이	절완진
213015	민바랭이	밋북은절완지
213016	조개풀	*
213017	방동사니	*
213018	마디풀	모작쿨
213019	솔새	소새
213020	개솔새	*
213021	뚝새풀	*
213022	괭이밥	가메기줄
213023	원추리	양에꽃
213024	메꽃	*
213025	갯메꽃	*
213026	비름	비눔
213027	쇠비름	쉐비눔
213028	개비름	개비눔
213029	참비름	참비눔
213030	땅빈대	*
213031	애기땅빈대	*
213032	평의밥	*
213033	여우구슬	*

213034	질경이	베채기
213035	쭈	숙
213036	캐다[採]	탓다
213037	쭈떡	숙떡
213038	토끼풀	토끼풀
213039	개자리	개자리
213040	냉이	난쟁이
213041	방울새풀	*
213042	무릇	물웃
213043	여뀌	여뀌
213044	오이풀	오나릿불휘
213045	영경퀴	소왕이
213046	썰기풀	진대
213047	수크령	*
213048	망초	하늘쿨, 천상쿨
213049	별꽃	진풀
213050	병풀	함박풀
213051	깨풀	복쿨
213052	박조가리나물	*
213053	파리	하늘푸께
213054	땅파리	*
213055	피막이풀	빈네
213056	도깨비바늘	가메기바늘
213057	도꼬마리	*
213058	모시풀	진대
213059	왕모시풀	*
213060	천남성	천남성
213061	맥문동	*
213062	밀나물	멜순
213063	살갈퀴	*
213064	차풀	*
213065	결명자	결명자
213066	까마중	물오줌냥
213067	하늘타리	하늘레기
213068	노랑하늘타리	두루에기
213069	부처손	폰채순이
213070	방가지뚱	*

213071	닭의장풀	*
213072	배풍등	*
213073	취	꼭
213074	취덩굴	꼭줄
213075	취뿌리	꼭불리
213076	댕댕이덩굴	정동
213077	노박덩굴	본지낭
213078	새박덩굴	생이족박낭
213079	호자덩굴	*
213080	한삼덩굴	삼수세
213081	함바기	쉐정동
213082	담쟁이	담쟁이
213083	송악	글오락줄
213084	인동	운동
213085	멀꿀	멍줄
213086	천문동	*
213087	계요등	떡정동
213088	사위질빵	*
213089	등대풀	*
213090	수영(승아)	생래
213091	애기수영	*
213092	싸리	근자리풀
213093	땀싸리	*
213094	명아주	제낭
213095	갓	갓늬물
213096	달래	드룻마농, 꿩마농
213097	썸마귀	*
213098	고들빼기	*
213099	박하	박하
213100	비수리	*
213101	꿀풀	*
213102	마삭줄	*
213103	갯기름나물	방풍
213104	구릿대	*
213105	으아리	*
213106	익모초	익모초
213107	피마자	*

213108	뉴질랜드삼	신사라
213109	양하	양에
213110	파초	반치
213111	갯강활	*
213112	부들	물새
213113	개구리밥	*
213114	줄	*
213115	마름	*
213116	싱경이	늦

꽃

213117	꽃	고장
213118	꽃봉오리	봉오리
213119	채송화	*
213120	민들레	쓴부루케
213121	봉선화	봉선화
213122	흰꽃나도사프란	*
213123	분꽃	*
213124	할미꽃	할미꽃
213125	붓꽃	*
213126	참나리	*
213127	맨드라미	돛수웨플
213128	해바라기	해바라기
213129	진달래	진달래
213130	철쭉	철쭉
213131	피다[開]	피다
213132	쑥부쟁이	들국화
213133	수국	*
213134	산수국	*
213135	광대나물	*
213136	제비꽃	말싸움고장
213137	복수초	*
213138	수선화	*
213139	선인장	선인장
213140	문주란	*

나무

213141	뿌리	불리
213142	잔뿌리	즌불리
213143	줄기	줄거리
213144	가지	가지
213145	잎	이파리
213146	나무	낭
213147	하다[爲]	허다
213148	삭정이	삭다리
213149	소나무	소낭
213150	솔잎	솔싹
213151	솔가리	솔가지
213152	솔방울	솔똥
213153	떨감	지들커
213154	마디다	잘안붙다
213155	갈퀴	글갱이
213156	도끼	도치
213157	팽나무	폭낭
213158	팽	폭으름
213159	동백나무	돛박낭
213160	붉다[赤]	북다
213161	멀구슬나무	모쿠실낭
213162	버드나무	버드남
213163	녹나무	녹낭
213164	아카시아	아까시낭
213165	은행나무	은행나무
213166	음나무	*
213167	삼나무	숙대낭
213168	심다[植]	싱그다
213169	벗나무	벗남
213170	왕벗나무	벗남
213171	사옥	사오기
213172	느티나무	굴무기낭
213173	주목	노가리낭
213174	종려나무	남총낭
213175	윤노리나무	윤누리낭
213176	비목나무	*
213177	구상나무	*

213178	굴거리나무	*
213179	생달나무	*
213180	굴나무	굴낭
213181	따다[摘]	타다
213182	광굴나무	산물낭
213183	유자나무	유지낭
213184	비자나무	*
213185	치자나무	*
213186	비파나무	비파낭
213187	오동나무	오동낭
213188	조롱나무	*
213189	배롱나무	*
213190	감탕나무	*
213191	거망웃나무	*
213192	팡팡나무	*
213193	노린재나무	제낭
213194	때죽나무	중낭
213195	마가목	마깨낭
213196	말채나무	*
213197	느릅나무	누룩낭
213198	두릅나무	*
213199	향나무	*
213200	웃나무	웃낭
213201	소리나무	*
213202	솔비나무	솔피낭
213203	층층나무	*
213204	닥나무	닥낭
213205	돈나무	가마귀똥낭
213206	무환자나무	*
213207	쥐똥나무	개팡낭
213208	섬쥐똥나무	*
213209	이팝나무	*
213210	가시나무	가시낭
213211	개가시나무	*
213212	중가시나무	*
213213	호랑가시나무	*
213214	돌가시나무	*

213215	제주가시나무	*
213216	꾸지뽕나무	굿가시낭
213217	덜꿩나무	*
213218	사스레피나무	*
213219	머귀나무	머귀낭
213220	좀머귀나무	*
213221	자귀나무	자귀낭
213222	말오줌매	돌오줌낭
213223	중대가리나무	*
213224	예덕나무	다간죽낭
213225	참식나무	*
213226	까마귀쪽나무	*
213227	천선과나무	빈독낭
213228	실거리나무	실거리낭
213229	굴피나무	*
213230	후박나무	*
213231	풍개나무	*
213232	먼나무	*
213233	박달나무	박달낭
213234	떡갈나무	*
213235	상수리나무	*
213236	참나무	*
213237	산딸나무	틀낭
213238	초피나무	조피낭
213239	국수나무	*
213240	사철나무	*
213241	겨우살이	*
213242	모람	가메기빈독낭
213243	누리장나무	개낭
213244	아왜나무	*
213245	순비기나무	숨비기낭
213246	붉나무	북낭
213247	협죽도	*
213248	담팔수	*

열매

213249	과일	과실
--------	----	----

213250	껍질	껍데기
213251	깎다	벳기다
213252	벗기다	벳기다
213253	딸기	딸기
213254	뱀딸기	게여미탈
213255	멍석딸기	보리탈
213256	복분자딸기	*
213257	줄딸기	*
213258	산딸기	한탈
213259	가시딸기	*
213260	검은딸기	감은탈
213261	장딸기	*
213262	개암	즈밤
213263	머루	멸위
213264	개머루	고냉이멸위
213265	까마귀머루	*
213266	산머루	정당멸위
213267	상동나무	삼동낭
213268	상동	삼동
213269	시로미	*
213270	다래	드레
213271	개다래	*
213272	보리수나무	볼레낭
213273	보리수	볼레
213274	보리장나무	*
213275	앵두나무	앵두낭
213276	앵두	앵두
213277	매실	매실
213278	매화나무	매실낭
213279	밀감	꿀
213280	밀감나무	꿀낭
213281	탱자	개탕쉬
213282	탱자나무	개탕쉬낭
213283	감	감
213284	떨다[柿]	초랍다
213285	감물	감물
213286	홍시	홍실감

213287	꽃감	푸린감
213288	청미래덩굴	맹게낭
213289	맹감	맹게으름
213290	찢레나무	도꼬리낭, 찢레낭
213291	영실	찢레
213292	사과나무	사과낭
213293	사과	사과
213294	배나무	배낭
213295	배	배
213296	돌배	*
213297	팔배나무	*
213298	밤나무	밤낭
213299	구실잣밤나무	조밤낭
213300	밤	밤
213301	보늬	*
213302	복숭아나무	복숭개낭
213303	복숭아	복숭개
213304	대추	대추
213305	대추나무	대추낭
213306	으름	즐겅이
213307	오미자	오미자

바다 식물

213308	미역	메역
213309	넓미역	*
213310	미역쇠	메역쇄
213311	김	김
213312	파래	파래
213313	툇	툇
213314	패	패
213315	넓패	넙패
213316	지층이	주층
213317	다시마	다시마
213318	듬북	듬북
213319	감태	감태
213320	모자반	몹
213321	청각	청각

213322	우뭇가사리	우미
213323	우미	우미
213324	서슬(까막살)	*
213325	진두밭	*
213326	도박	*
213327	갈래곰보	*
213328	풀가사리	가사리